

다음 아고라
미네르바 글 모음
1권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http://cafe.daum.net/iomine>

소 개 하 기

이 책은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서 ‘미네르바님’이 쓰신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 현재의 경제 상황 2. 앞으로의 경제전망, 3. 이에 대한 대비책 에 대한 글입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쓴 글들은 1권에,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쓴 글들을 2권에 담았습니다.

미네르바 님의 글을 인터넷으로 보고자 하시면,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http://cafe.daum.net/iomine>’에 가입하시면 전문으로 보실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쇄용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많은 지인들에게 이 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 미래를 준비하며,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슬기롭게 준비합시다.!!

이 글을 쓴 미네르바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주인장 - 일심 -

미네르바 글 모음 1권 목록표

01. [펀드 환매 시점 분석] 환매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1쪽
02.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네 ^*^ 아파트 들썩인다고? 폼~~ 4쪽
03. 이스라엘 - 이란 선제 공격 시점 7월 하순에서 8월초 7쪽
04. 9월 경제 쇼크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11쪽
05. [수입 물가 49% 폭등] 하반기 물가 폭등 초 비상..... 16쪽
06. 서브프라임 드디어 한국상륙이네요... 20쪽
07. 국민은행 부실 충격 대 파문 확산.. 21쪽
08. [피치 신용평가 보고서] 한국 신용등급 A + 유지 23쪽
09. 11월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25쪽
10. 제1금융권 긴급 대출 제한 조치 돌입 30쪽
11. 또 만수가 환율 개 사기극을 하는구나 32쪽
12. 오늘 PD 수첩에 나오는 중소기업들 꼭 보세요 35쪽
13. [금리 인상] 리먼 브러더스 긴급 리포트 41쪽
14.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 따위면 나도 촛불 집회 열겠다 43쪽
15. 파생상품 거래세의 도입이라.....대단하군..... 50쪽
16. [FT 급보] 국민 연금 60억 달러 추가 집행 54쪽
17. 2008년 중소기업 최대 위기의 해 58쪽
18. 2008년 한국경제 향후 정세 분석 64쪽
19. 2008년 한국경제 향후 정세 분석2 70쪽
20. 드디어 외환 보유고가 터지는구나 77쪽
21. 하반기 환율 = 1076원이다... 79쪽
22. 아마게돈 2008년 한국경제-파산하는 일반가계들.. 84쪽

- 23.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이유 + 4가지 파급효과 95쪽
- 24. 2012 프로젝트 = 강만수의 최종 목표..... 102쪽
- 25. 이제 곧 9월이구나..... 107쪽
- 26. 달러전쟁 = 과연 1100원의 저주의 시작인가..... 113쪽
- 27. 제2차 달러 진주만 폭격의 시작인가?..... 123쪽
- 28. [핫 이슈]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다?..... 130쪽
- 29. "8월 15일날 놀러 가는거지 여보?"..... 148쪽
- 30. 2008년 하반기 경기 전망 =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 153쪽

- 31. 과연 한국의 현재는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인가? 171쪽
- 32. 현재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인가?-2 199쪽
- 33. (추천도서)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 리오 휴버먼.. 210쪽
- 34. 2008년 금융 전쟁의 서곡: 한국판 지옥의 묵시록 1 212쪽
- 35. 2008년 금융 전쟁의 서곡: 한국판 지옥의 묵시록 2 221쪽
- 36. 10월 금리 인상 = 저장도 쇼크의 시작. 240쪽
- 37. [IMF 시즌2] B-52의 출현-히로시마 달러 핵폭탄 투하 250쪽
- 38. 2008년 자전거 도둑 + 검은 개의 저주 261쪽
- 39. 미국 은행 전격 파산 결정 = 허리케인의 시작인가.... 276쪽
- 40. 일반인의 경제 접근성 방식 패턴 설명 279쪽

- 41. 제2의 IMF가 오고 있다. 286쪽

01. [펀드 환매 시점 분석] 환매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현재 펀드런 사태는 일단 벌어 지지 않는다.

이유 : 단기급락에 따라 이미 환매손실액이 -45%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언젠가는 오르겠지’하는 기대심리로 유동성 포기... 일단 지켜보자는 상황..

환매 마지노선 시점 :

거치식 : 1480.....

적립식 : 1379.....

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나마 건지든지... 아니면 깡통을 차든지... 알아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삼..

손실 압박에 따른 계산된 마지노 지수선...

현재 상황 : 어디서 지켰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단 시장으로 개인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사적으로 저가 바닥이라는걸 계속 강조... 지금 어느 방송을 보던 바닥지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진을 빼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정부와 기관의 연합 공조 체계를 재확인....한 것을 시점으로 증시 부양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

따라서 당분간 기관들의 연기금 투입 + 개미들의 자금 유입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걸로 예상 된다...

현재 평균 시중펀드 자사손실액: -27%.....

일부 펀드에서는 손실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라는게 우려시 되는 상황..

다만... 지금 현재 연기금 투입을 통한 주가 1500 방어에 필사적인 정부 당국의 의지가 지속되는한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고 예상

예상관측 시점 : 대략 8월 중반까지는 직간접적으로 연기금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측..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점이 대략 8월 중순경으로 관측되는게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그와 맞물려 유동적으로 개개인이 주의 깊게 펀드를 아예 확 환매 하든가... 더러워도 손실 감수하고 펀드 매입을 적금이라도 깨서 하든가... 각자 시기를 저울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시기는 8월 중순...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에서 7월 말에 손을 쓸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건 아직 예상근거가 없는 상황에 단순 루머로 판단.....

일단 제로마지노선 환매지수가 되면 가차 없이 던지고 현금으로 은행권이나 다른 채테크 상품으로 갈아타고 최소 올해 안으로는 전광판을 쳐다보지 말기 바란다..

전쟁이 끝난 후에 와라..... 전쟁터 한가운데서 혈전을 치루면서 피 불 생각 말고.....

지금은 분명 과도기적 상황이다..

지금은 리스크를 탈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아서 안전빵으로 가야 한다..

시장 예측을 할 때에는 변수 개입이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른 숫자 놀음 다 집어 치우고 까놓고 얘기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가시화 되는 현재 경제 상황이나 정부정책당국의 기조가 이런식이라면 이걸 변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막말로 어제에 개입 변수 +2가 오늘은 -2로 돌변하는... 남극과 북극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은 변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때는 발 댄고 자는게 낫다... 때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 가야

할 시기가 인생이건... 회사건... 시장바닥이건... 어디건 있는것 같다.

=====

뭐?.. MB 노믹스?...

어제 제프리 존스가 나와서 현재 한국정책기조가 이런 식이라면 투자
보류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단다..

그걸 또 신문에서는 교묘하게 말 바꾸기를 해서 또 좇불 타령이다...
진짜..

이 나라는 미쳤다... 제 정신이 아냐..

오늘도 연기금 연막효과에 속은 불나방 개미들은 저가매수라고 좋다
고 개떼처럼 달려든다...

지금 울타리 밖에서는 에프킬라 가지고 군침 흘리면서 이젠 프로그램
8조 떠안고 군침 흘리고 있는데..

프로그램 8조 중 롤오버로 돌려도 최소 3조는 시중 바닥에 나오거나
신호라도 와야 하는데 지금 연기금으로 막고 있는지 물밑 낚시질이
다...

지금 선물은 땅 파고 들어가기 직전이다... 지구 핵으로 부르스 윌리스
처럼 드릴로 뚫고 들어가려고 작정 했다..

완전 시장 교란 세력은.... MB다... 이 죄 값은 나중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사탄아...

<작성일 2008년 07월 ??일>

02.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네^*^ 아파트 들썩인다고? 폼~~

재건축 규제완화 한다니깐... 아래 글에 아파트 사례는 넘도 있네..ㅋㅋ

그럼 사든가...^*^

근데 이 글 보고 사도 늦지 않으니깐... 이 글 보고 사시길 바라며...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한다는 내용을 보면 말이쥐..

일단 조합원 양도규제를 해제한다고 하네~ㅋ

조합원의 양도규제란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치.. 쉽게 풀어쓰면...

기준에 낡고 조그만 아파트 가진 집주인이 니 맘대로 전매해서 그 단지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즉..투기꾼일수도 실수요자일수도 ㅋ)

양도해서 조합원이 되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란 것...

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

지금은 재건축 단지에 양도양수가 없었나?

여태껏 다주택자들이 투기성공격(?)으로 많이들 사들였고...

조합원 인정 같은 것 안 받아도 어짜피 대형평형지분위주로 매매했었지...ㅋ

그러니깐 한 개 더 불힌게... 소형주택의무화 폐지나 완화랜다.

이것도 폼이야~~~ㅋ

왜냐면 말이쥐... 소형평형이란게 결국 85m2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지금현재 상기재건축 단지들의 조합원들이 이 소형평형조차도 들어가

살기 어려우니까..

건축비가 장난 아니거든 다시말해 가락동 시영같은데 56m2짜리 시세가 얼마지 한번쳐바...ㅋ

거기다가 3년이상(더걸릴수도 ㅋ)기다렸다가... (이주비용 및 이자대기 비용 등등) 완성되어 가면서 입주금의 압박... (요거 지역마다 다르지만... 요새 무자게 비싸)

그럼 건설사는 어떨까?

건설사가 남는게 있어야 공사를 하든지 불혀서 먹든지 하지?

그러니깐 소형주택 의무화를 폐지하면 건설사가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활성화 될 것이다...이건데...ㅋ

지금 건설사들 재건축 단지뿐 아니고...공공택지 및 민간한지개발택지 조차도 입찰도 안하고 있거든....

거기다가 물론 현재 추세일수 있지만 중대형 개작살 나는거 알고들 있쥬?

용인만 분당만 그렇다고?

아니 소형은 그나마 살수요자 위주로 살아남고 있지만...

중대형 죽쓰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소리야...

근데? 건설사가 소형제한완화하면 중대형만 지어서 많이 남겠니?

거기다가 요거까지 안될듯 하니깐....ㅋ

개발이익 환수제도 또한 완화한다고 하네 ^*^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일단 완화되면 어케되는줄 알지?

(쉽게 얘기해서 분양가상한도 없앤다고들 하는데...)

이러면 부풀리기가 엄청 세지겠지...?

다시말해 이모든 전반적인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값이 주택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들썩 거릴꺼라 그러는데....흠~~~~~

정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껄 ㅋ(아마 맞을꺼야 지켜바바)

왜 냐 고? 쉬워*^

지금의 주택값 아파트값 부풀어져있고 뽕튀긴걸 나만 아는건가?

다들 알잖어?

그리고 이 시절에? 이 경기에? 이 경제상황에? 이 기름 값과 물가 속에서...?

저렇게 하면 더욱 부풀려지는데....

투기꾼이야 작전꾼이야... 튀기려고 하겠지만... (이것도 개념(?_투기꾼은 이제 안하고*^)

쫓아가고 받아줄 애들이 있어야 튀기든지 하지?

규제 풀면 지금보다 값이 부풀려 질텐데...

윗 상황 보이잖어?ㅋ

근데 사라고~~~~~? 더 올르니깐???

지나가는 초당도 안다 ㅋㅋㅋㅋ

아파트 사례는넘 참 웃겨서 흠~~~~~

너나사세요~~~~~*^

<작성일 2008년 07월 11일>

03. 이스라엘 - 이란 선제 공격 시점 7월 하순에서 8월초

"이스라엘 - 이란 선제 공격 시점 7월 하순에서 8월초로 저울질"

긴급 리포트 - 현재 해외에서 보는 중동 관측 정세 분석과 향후 유가 전망... 그에 따른 대비책

=====

상황분석 :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을 비롯한 미국 4대 석유 빅 메이저들과 영국에서는 이스라엘의 대 이란 선제 타격 시점을 미 대선 (11월 4일) 전후부터 취임식이 열리는 2009년 1월 24일경 안쪽으로 보는걸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상 8월달 경으로 이란 선제공습시점을 앞당겨 보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유 :

1. 2008년 미 CIA 연례중동정세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란 우라늄 농축에 따른 핵 무기화 진행완료시점은 올해 말일 경우로 보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차후 동결 조치가 없는 이상... 이스라엘은 11월 4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관측이 대세다..

2. 이스라엘 국내 정치 구도 상... 폭격 시점을 최소한 8월 중순에서 9월초로 앞당길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올메르트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카디마당은 올해 9월 17일에 새로 지도부 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올메르트 총리는 미국 월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정뇌물 15만 달러 스캔들의 폭로로 인해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 선거시점을 대폭 앞당겼다..

현재 당내 라이벌 리브니 외무장관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정세상...

9월17일 지도부 선거... 9월25일 결선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국내 정세 역전을 돌리기 위한 핫소스는 이란 뿐이 아니냐는 게 영국측 관측이다...

현재 이스라엘 내 공군전력 중 F-15 전술공격기 42대 분량(현재 이스라엘 전체 F-15 전력의 50%)을 북동부 이스라엘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 이라크 내에 미국공군기지 사용승인 요청 중..

2-1: 현재 이라크 내 시야파 (전체 인구 60%) 내 동조세력이 이란 내에서의 불법테러자금 유입설에 따른 현재 이라크 연립정부 내에서 격론 돌입... 미국은 현재 이에 따라 이라크 내 공군기지 사용승인을 내주기도 힘든 상황...

2-2 : 7월 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 발언과 동시에 미 국방부에서 버지니아 항에서 이지스 함 2척을 중동 연안 내 추가 급파... 차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에 따른 헤즈볼라 테러단체의 해상 로켓포 테러 공격에 대비해 해상 제해권 장악과 중동 내 16개에 달하는 주둔미군기지 보호를 위한 긴급추가조치 지시..

3.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8월 8일 부터 8월 24일간은 아무래도 국제 여론상 올림픽 경기기간 중 공습단행이라는 비난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8월 24일 전후에는 시기상 너무 시점이 늦어 버린다.

따라서 현재 가장 유력한 공습 타격 시점은 8월8일 전후..

즉 7월 하순부터 8월초로 보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

결론 : 따라서 현재 진행상 유가 상승 기대 심리는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걸로 보이며 이번 주 중반 정도에 155 달러... 다음주 초반에는 160 달러까지 예상..

더구나 이번 주 17일 = 메일린치. JP 모건 체이스... 18일 = 시티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금융기업들의 2/4 분기 실적 발표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전망치 : S&P 500 기업 내 주요 수익률 감소폭 : -14%....

금융 기업 순이익 전년 대비 감소폭 : -72%(토스 파이낸셜)가 기정 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미국 모기지 사태와 더불어 현재 2차 신용쇼크가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

한국 내에서도 개인별 각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일 외국인 선물 매도=1조로 보고 있으며 추후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

P.S : 각자... 준비들 하십쇼... 그럼...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나도... 진짜 비관적인 전망은 쓰기 싫지만... 진짜... 어쩔 수가 없다...

미국발 2차 신용쇼크에 이란 선제공격 8월설이 이제 현재대세야... 내가 그러는게 아니라 미국쪽에서 나오는 말이야...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오늘 부시까지 반 기정 사실화 한 상황이고...

한국만... 유별나게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입도 뻥긋 안 하나 이말이야.. 도대체.... 티비 시청 제한이나 심야영업정지 같은 그딴 게 나부랭이 하고 10부제를 대책이라고 떠들면 뭘 어찌라고...

또 예전처럼 그냥 모르고 다 눈 뜨고 당하라...이 말이냐?.....

취새끼는 지금 당장 원유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기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전략 비축유 시스템을 비상 수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45% 정도를 정제한 상태에서 보관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상 원유 수급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 이걸 10년간 뜯어 고쳐서 이런 날을 위해 대비해 왔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 비축유의 방출을 통한 시장 수급 상황을
챙겨야 할 시점이다.....

심야영업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작성일 2008년 07월 ??일>

04. 9월 경제쇼크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지금...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9월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일단.....

1. 집에 각자 쌀이나 참치 통조림... 휴지... 생수... 비누나 샴푸... 세제
.... 라면 같은 필수 생필품 반년치를 집에 있는 베란다나 아니면 집
보일러실에 옥션이든 G마켓이든 전부 다 최소 6개월치를 사서 보관
하십시요..

지금은 비수기라 최소 20% 정도는 세일로 싸게 팔 겁니다...

지금부터 사 모을 것은 모으는 것이 나중에 하반기 가서 뒤통수 안
맞는 길입니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폭등 되면 이제 기습적으로 올릴 겁니다...

일반 시민이 경제불황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이런 필수
생필품 가격폭등에 따른 가계경제압박입니다..

지금 한 톤이라도 쌀 때... 물건으로 사서 챙겨 놓는 것이 이익입니
다... 오지랴이라고 흘러 듣지 말고..

2. 집에 은행 대출로 땀겨 쓴게 많은 분들... 되도록 시중 금리 싼 한
곳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은행이자 관리하십시요..

이제 9월경에 전격적인 은행 기준 금리 올리면 지금 최소 12% 정도
대출이자폭등 합니다..

그게 뭘 의미 하는지는 더 이상 입 아프니까.. 애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달리면... 전세라도 일단 싸게 내놓고 사글세를 임시로 1,2
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요..

안 그러면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답이 없습니다..

3. 카드로 어쩔수 없이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생필품을 구입한 뒤에 신용카드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12개월 이상 할부로 납입 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지금은 까짓 것 일시불...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는 대기업 생활자도 카드 할부로 생필품 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하반기 공공요금인상과 난방비는 최소 30%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겨울이 지금 웬 얘기냐는 소리 하겠지만... 이제 4달 있으면 눈 내립니다...

여기가 적도라면 그나마 이런 걱정 안하겠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단열창이 아닌 집은 단열창을 달거나 아니면 여유가 딸리면 나중에 비닐로 겨울에 막아서 각자 집안 단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겨울 난방비를 25% 까지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밖에서 비닐로 남자들이 다 나와서 창문 단열을 다하고 못이나 아니면 지퍼식으로 다 달고 막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죠..

5. 최소 생활비를 현찰로 6개월치는 현금 보유로 무조건 가지고 있으십시오... 이건 긴말 안 하겠습니다..

6. 지금 현재 원화 예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개인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헷징을 한다는 셈 치고..

전체 현금 중 1/3은 무조건 유리로 확보하십시오... 가끔 엔화는 어찌

냐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닥치고 유로입니다... 상황이...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자산 폭락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유로는 투자목적으로는 올 3월달까지였지만...

지금은 투자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안전 확보 차원에서라도 외환 예금으로 1/3은 무조건 유로입니다..

7. 지금 당장 개인신용정보나 신용대출관리에 들어가시고 만약 신용대출이 있으면 모조리 다 일반 대출 아니면 대출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신용평가점수를 당장 체크 하십시오...

지금은 이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8. 의료비 지출 항목을 어떠한 경우든 일단 만들어서 비상시에 투입자금을 약간이라도 떼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적립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든 보험 중에 건강보험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나 질병에 내가 해당되는지 보험사 담당직원한테 상세하게 물어보고 대비하십시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이런 불황일 때는 자칫... 가족 중 누가 아프면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래서 경제 불황일 때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 중 하나가 이런 가족개인의 의료비 지출 항목 입니다..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갑자기 이렇게 적는거라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경제성장을 얼마당 질병 사망자가 늘어 나는 상승 곡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불황일수록 의료비 압박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죽거나 아플 확률이 늘어 가는 걸 말하는데 이건 절대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회과학적측면의 중장기적인 연구결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전공자 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

각자 위기에 대비 하시고 준비 하십시오... 지금 옥션에서 제일 불티나게 팔리는게 쌀하고 포장 김치랍니다...

정 이 말이 말 같지 않으시면 쌀이나 장기보관 가능한 물품이라도 일단 속는 셈 치고 대량 구매로 사서 보관하고 각자 대비를 하는게 그나마...

시중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최소한 내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편일 것입니다...

지금은 다르게 투자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물가와의 싸움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보는게 돈 버는 상황이니까..

곧 조만간 금리인상 들어 갈 예정이니까 각자 참고하시고요.....

금방 좋아 지겠지...하는 막연한 그런 말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근거 대라면 대겠지만 그걸 일일이 다 대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충 추려서 실천 가능한 몇 가지만 적었으니... 제발... 올 겨울...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 때 인터넷 쇼핑으로 애들 겨울옷이나 남편..혹은 마누라 점퍼나 걸칠 수 있는 겨울옷들을 사 두십시오..

여름에는 흔히 세일을 해서 물량 밀어내기로 해서 보통 심하면 50%에서 30% 까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일종의 구매 팁입니다.. 여름에 겨울옷 사서 나중에 입고 또 겨울에 여름 옷 땡 처리 하는거 잘 골라서 좋은 옷 50% 폭탄 세일에 사서

입고..

그런식으로 각자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게 돈 버는 상황입니다... 어떤식으로든 생필품은 장기보관 가능한건 돈 10원이라도 쌀 때 알아서 사 모으십시오...

진심입니다...

지금은 이게 생활 재테크입니다..

각자..... 비상 방공호는 이제 알아서 파고 대비하십시오...

한 가지 분명 명심할 것은 작년 대비 물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년이 맘 때.. 100만원이 현재 똑같이 100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70만원입니다... 심하면 65만원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화폐 자산 가치가 급락 했다는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각자...

대비하십시오...

그럼... 이만..

진짜 노파심에서 다들 손가락 빨고 걱정만 하면서 아무 개인적인 실천 가능한 대책이나 행동 없이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에 몇 자 적은 것 뿐이니 각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상황은 나라가 국민 개개인을 지켜 주기에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기에 이런 말씀까지 드린 겁니다..

<작성일 2008년 07월 14일>

05. [수입 물가 49% 폭등] 하반기 물가 폭등 초 비상.....

[수입 물가 49% 폭등] 하반기 물가 폭등 초 비상.....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 수출입 물가동향" 에 따르면 전년 대비 49% 수입 물가 폭등.....

=====

5월 중 시중 원화 유동성 15% 증가와 더불어 현재 유동성 지수는 117로 (기준 수치=100) 현재 유동성 포화 상태..

6월 유동성 증가량은 21%로 예측 전망..

=====

하반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 = 5.2% (단.. 공공요금인상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

따라서 하반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최대 6.5%..

체감물가지수는 2/4분기 대비 20% 이상 추가 상승 압박..

(8월 중 전기요금 5% 인상을 비롯한 공공요금인상 예정)

=====

수입물가 폭등 원인 : 국제원유 가격상승 + 원/달러 환율상승 요인

환율변동효과 제거 시 계약통화 기준 6월 수입물가상승률 = 32.5%..

이중 16.5%가 환율 상승 요인..

=====

결론 :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보조 지표인 체감물가지수는 그 산출 방식 자체가 틀리다..

실물 인플레이션 물가를 반영 하는건 종합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체감물가지수라고 보는게 훨씬 더 정확하다..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소 6%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 되는 시점에서 실제 체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현재 물가 수준에서 20에서 25%를 더한 금액 정도의 추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면 맞다...

한 마디로 초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100원짜리 빵을 20원 더 주고 120원에 사 먹는 그런 수준?..

장난이 아니다... 진짜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하반기 추경 예산이 14조가 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이 추경 예산 집행시... 내년 물가는 아무도 예측 못한다...

각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 쇼크에 대비해라...

비상 생활 재테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요즘 재테크는 은행 재테크가 아니다.....

물가 재테크라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다...

두드러진 건 농수산물의 가격 인상 요인이 32%에 달한다는 사실이며 이걸 물가항목 중에 일반 식료품 가격의 폭등이 우려 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하반기 공공요금인상과 맞물려 물가상승 중 일반 식료품 가격인상 폭등은 불가피 해 보인다..

이제... 도시락이라도 싸란 말이나?..

=====

일본에서는 그래서 헤이세이 버블 붕괴 이후.. 도시락 열풍이 불었지...

출근 전에 줄 서서 300엔짜리나 500엔짜리 도시락 사가지고 가는.

그걸... 이제 한국에서 보겠구나... 어쩔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는지..

집에 가서 이제 각자 학교 다닐 때 쓰던 보온도시락이 있는지 뒤져
보기 바란다...

버리지 않았으면 지금 부엌 어디선가 잠자고 있을 것이다..

다시 부활을 꿈꾸며 말이지.....

이젠 쪽팔리고 나발이고 없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식료품 가격 인상 통제부터
시장 개입이라고 욕을 쳐 먹는 한이 있어도 개입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현재 상황은 그런걸 기대 하기는 도저히 무리다..

각자...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식료품 가격에 폭등요인이 생기면 제일 먼저 타격 받는 일단 제
일 밑바닥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보건 간에 정정 불안의 최대 변수는 식량 가
격 폭등이었고 북한에서 정권 유지 도구로 쓰는게 식량 통제다..

자율 시장 경제 방식의 유럽에서도 언제나 다른 건 다 풀어 줘도... 반
드시 식량 수급 조절만은 정부에서 비상 통제를 했거든...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지... 다만 이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긴 하지만...

현재의 한국은... 전혀 무방비 도시라는 말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된
다..

=====

벌써 눈치 빠른 OL 여자애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닌다...

딱 보면... 체감 실물 경기가 바로 나와...

쪽팔려?... 그런게 어딴냐... 이 판국에...

빨리 집에 가서 보온도시락 찾아봐라.. 분명 있을 거다...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긴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한국판 이코노미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지금 돌아가는 판세란 대충 그런 분위기다....

서바이벌로 대변 되는...

그리고 지금 쥐새끼 하고 한나라 애들이 세금 깎아서 경기 부양 하자는 개소리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이상 긴말 안 한다...

이건 한 마디로 매일매일 무슨 논스톱 일일 시트콤 코메디를 보는 기분이니.....

지금 코스비 짝냐?... 이젠 대 놓고 해쳐 먹네... 아주..

=====

더불어 요즘 살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다...

진짜 이 망할 놈의 쥐새끼... 그렇게 일반 국민들한테 불만 있으면 전국 개별 가구당 농약이나 빠르고 편리한 우체국 택배로 보내 줘라.....

그럼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테니까..

<작성일 2008년 07월 15일>

06. 서브프라임 드디어 한국 상륙이네요...

드디어 상륙하네요 예상은 했지만 아주 갑작스럽게...

미국 Fannie Mae와 Freddie Mac에 우리나라 민간금융권에서 물려
있는 돈이

신한은행 4,900만불

외환은행 2,000만불

하나은행 500만불

삼성생명 4억불

물론 이때가 인수위시절 한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자공사를 통해
메릴린치에 쏟아 부은 돈은 별도로 하고 한은에서 외환보유고를 통해
위 두 회사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돈이 500-700억불이라는데...

일단 위의 은행들 당장 상당수준의 대손상각이 불가피할 것 같고...

이외에도 물린 곳이 더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되면 드디어 올 것이 온 셈입니다.

문제는 외환보유고에도 상당한 타격....

달러가 글로벌 약세이고 현재 FRB에서 상기 두 회사의 사태를 해결
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원화는 더 약세가 될 거 같
고...

내일의 쇼크를 각자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첨언하면, 이걸 미국산 서브프라임의 불똥 몇 개가 튼 것이고 아직 한
국버전은 시작도 안했는데요,

그저 아득하기만 하군요

<작성일 2008년 07월 15일>

07. 국민은행 부실 충격 대 파문 확산..

{급보} 국민은행 부실 충격 대 파문 확산..

국민은행 부실규모 파문 확산.....

현재 PF 부실로 150여개 건설사 부도 가시권 내 돌입...

2008년 2/4 분기내 영업 이익손실 상각 처리 -5500억 추정치 예상..

가계부채부문 부실채권 손실처리규모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나 전망은 비관적..

파문 확산으로 외국인 무차별 매도.....

=====

드디어... 한국에도 이제 미국발 신용쇼크가 오는건가...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하는데 설마 설마 하던 것이 점점 현실화 되는구나.....

각자... 대비하십시오...

진짜 미쳐 버린다...

도대체 쥐새끼는 이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어디 쳐 박혀서 뭘 하는 거냐고... 지금..

=====

분명히 경고했다..... 지금 먹 튀 하려고 개 썰 난리에 아우성이 다...

각자 대비책 세우시기 바란다.....

먹 튀로 살 발라 쳐 먹을거 다 발라 먹은 다음에 와서 피눈물 흘리는

건 97년 1번이면 족하다고 본다...

현재 추가 액수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지만 이미 짝 돌았다... 아마
취새끼 이하 알 놈들은 지금 다 비상 대비책 세우고 준비작업 들어
갔다고 본다....

=====

이건 전쟁이다..... 지금 전세가 기울고 있다....

전위대로 나설 생각일랑 애시 당초 집어 쳐라...

이제 두번째 희생이라는 건 절대 없다!

=====

신에 대한 의문과 실망으로 십자가 버리고 무신론자 된지 16년.....

오늘부터 다시 교회라도 나가야 겠구나.....

진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주 예수부터 부처님에 알라까지 간절
히 기도 할 뿐이다..

하지만 인생이라는게 불확실성의 연속인지라..

97년에도... 설마... 은행 4.5 개가 절단 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냐?

각자 최소한의 대비는 하라는 거다..

<작성일 2008년 07월 16일>

08. [피치 신용평가 보고서] 한국 신용등급 A + 유지

오늘 16일자 3대 국제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피치사에서 일단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 로 유지했다..

S&P는 "주의관찰대상" 에 포함 된 상태이나 피치에서 긍정 의견을 내놓은 이상 어찌되었건 천만다행이라고 본다..

=====

하지만 PF 부실이 현재 국내 주요 은행에 -60조다...

이 시한폭탄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 그럼 싸그리 전멸당하는거야...

말 그대로 한국판 페디매-프레디맥 오지 말라는 법 절대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것이 지금 돌아가는 판세니까..

지금 제2금융권 PF 연체율 부실규모는 모조리 대외 기밀로 분류 된 상태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 정도란 거지..

현재 돌아가는 전세는 제1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약 1.7배 급등한 상태에서 대출 규제에 들어가는 시점은 대략 9월 중순경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연체율 급증과 더불어 중견건설업체 중심의 PF 미상환 물량 급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출규모축소나 제한조치는 9월 중반 정도에 들어가면 가시화 될 것이다..

더불어... 제2금융권인 일반 저축은행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지불 정지로 날려 먹을수가 있다... 농담이 아냐..

알아서 대비 하라고...

지금 건설업체 회사채 만기도래액이 6월=1200억... 7월=2687억.. 그리고 다음달에는 3800으로 3배 이상 폭등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인상 시점과 함께 부실여신정리 목적으로 9월 말에서 최대한 늦어도 10월초 경에는 일반가계대출 부분도 축소조치에 전면 들어 갈 것이다..

대출 관리와 함께 개인계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때라고 본다..

=====

그나마...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 진짜 불행 중 다행이랄 수 밖에...

진짜 문제는 쥐새끼 이하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지금 시한폭탄을 한꺼번에 모조리 다 돌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진짜 문제야..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데 불난데 휘발유를 들이 부어대고 있으니 미친놈들이지.....

<작성일 2008년 07월 16일>

09. 11월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11월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제 곧 겨울이다... 이렇게 더운데 뭘 헛소리냐고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다...

한 4달 있으면 이제 11월달부터 겨울에 돌입한다.....

4달은커녕 3달 남짓이다.. 까딱 하고 손 놓고 있다가 발등 짚는 수가 있다. 지금 상황은..

더구나 지금처럼 사상 최대의 인플레이션 물가폭등 시기상 이걸 이제 단순히 겨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

=====

대비책 1 : 이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 안에는 음식물 반입 금지다... 그래서 가방을 이용하는데 먹을 곳은 사무실 안에서 먹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옥상에서 주로 먹는 걸 많이 봤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회사 회의실이나 빈 사무실에 모여서 점심을 먹는다...

우리 회사에서도 OL 들이 모여서 회사 보안 책임자한테 얘기를 하고 환기를 확실히 한다는 조건에 허가를 받아서 먹고 있는데... 이젠 남자 애들까지 가세해서 서로 도시락 먹을려고 아우성이다...

보통 1년간 점심값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추정 115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다..

이걸 10년간 펀드 상품이나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그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

대비책 2 : 여름에 집에 있는 보일러를 점검해야 한다...

갑자기 여름에 보일러를 점검하라니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미리미리 지금 손을 써야 한다... 집 보일러 에어를 빼고 녹물로 뽑아서
청소하고 임시 가동 시켜서 손 볼 건 다 손 봐야 한다...

다세대나 빌라는 야외에 상수도 설비가 있어서 거기 가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못쓰는 천으로 된 옷이나 신문지로 말아 넣어서 나중에 겨울
동파방지를 미리미리 손 써 봐야 한다.. 아파트는 복도나 문 옆에 스
테인레스로 된 철제 문이 있다.. 이걸 열고 못 쓰는 베개 솜이라도 구
해서 쑤셔 막아라... 의외로 동파 되면 수리비가 상당하다...

=====

대비책 3 : 내복과 방풍 비닐. 문풍지를 준비해야 한다.

일단 올 겨울에는 새삼스럽지만 집에서는 내복을 입어야 한다... 그리
고 외출 모드로만 조정해도 충분하다...

집에는 마트 가서 겨울대비 문풍지나 방풍비닐을 사서 준비해 놓은
다음에 창문을 다 막아야 한다... 그리고 낮에는 커튼을 열어서 열을
흡수하고 밤에 커튼을 쳐서 단열을 하는 조치만 해도 기본 난방비
25%~30%는 내려간다...

그리고 습도조절을 위해서 빨래는 안에서 말리면 더 좋다.. 가슴기를
굳이 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기장판 사용은 전력표시를 각별히 잘 확인 해야 한다... 잘못
하면 누진세 폭탄을 맞는 수가 있다. 난 작년 겨울에 이걸 쓰다가 황
당한 고지서를 받아 본 적이 있었다..

애들 내복은 지금이 싸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젠 세상이 뒤집
어져서 다시 내복을 입는 시대다.. 이제.. 나 때만 해도.. 나도 내복은
안 입고 자랐지만 이젠 나도 입을 것이다..

=====

대비책 4 : 휴먼 통장 계좌를 조회 해라...

지금은 마른걸레도 짜야 할 판국이다... 천원까지 빼 낼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빼내라... <http://www.sleepmoney.or.kr> 을 이용하면 휴먼 계좌를 알아 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도요타식 방식이다..

=====

대비책 5: 집집마다 비상식량 저장시설을 만들어라.....

무슨 거창하게 전쟁 준비를 하라는게 아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라면 체감소비자물가는 상반기 그 이상으로 40% 이상 폭등할 건 이제 자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이제는 좀 있으면 추석이다...

독일은 집집마다 지하에 대규모 식량 저장 설비가 있다... 그 곳에 최소한 1년치 이상의 식량을 집집마다 보관 하고 있다... 전쟁과 그 후에 막대한 후유증을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집에는 다 이런 비상 설비를 가지고 있다...

거창하게 만들 필요도 없다... 이젠 초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서 보일러 실이나 베란다 창고나 짜투리 공간에 쌀이나 휴지.. 세제 같은 비상 생필품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앞으로 겨울에 닥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 상비약품은 반드시 점검해서 이점은 착오가 없어야 한다...

=====

대비책 6 : 구청이나 동사무소 전화국에 잇는 무료 헬스장을 이용하라...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데 연락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시설들은 무료다... 헬스장 매달 6만원이면 1년에 72만원...

더구나 전기 요금 같은 건 대가족 할인 요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가 있다... 지금은 모조리 다 써먹어야 한다...

동네 시립도서관에는 보고 싶은 책을 예약 하거나 구매 의뢰를 하는 것을 이용해 비롯해 알아보면 엄청난 제도적 혜택들이 있다....

그런 공짜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돈 많은 노인네들이 다... 가보면 시설이 나쁜 것도 아니다... 세금 쳐 발라 거의 다 최신 런닝머신에 기구들이 즐비 하다...

그런 시설 이용하는 노인네들 평균 재산이 보통 2.30억이다... 진짜... 아주 기가 막힌 현실이다..

진실을 알면 아마 놀라 자빠질 것이다.....

이런 써먹을 건 다 써먹어라.. 이제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다....

=====

대비책 7 : 마트 9시 30분... 황금 시간대를 이용해라...

저녁 9시 30분에 쇼핑을 해라... 그럼 최대 30% 싸게 그 시간대에는 물건 가격이 내려 간다... 이런 걸 이용해서 장을 보지 않는 이상... 뽕돈 다 주고 사 먹어야 한다...

신선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조리해 먹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쿠폰 같은 건 딱치는대로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모아서 써 먹어야 한다... 이게 초 인플레이션에서 사는 방법이다..

이제 단순한 쿠폰 하나가 별개 아닌 시대는 끝났다..

=====

결론 :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6%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구라다... 반드시 추가 상승한다.. 야금야금..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도 되지 않는 이상 한 번 오른 물가는 죽어도 내려가지 않는다...

그게 스테그플레이션의 악마 같은 함정이다...

더구나 이미 미국 경제는 향후 최소 2009년 하반기에서 2010년까지 스테그플레이션에 돌입했고 한국도 지금 그 상황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쪽팔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모조리 다 해야 한다...

물가는 6% 그 이상이 올라간다... 더구나 금리까지 올라가면.. 우린 다 작살 나는거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긴다... 난 최소 이런 추세가 3년 이상은 갈 걸로 예상 하고 있다... 2010년까지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눈치 빠른 애들은 이런 조치에 다 들어 갔다... 아직도 설마설마 하는 애들만 손가락 빨고 뉘 놓고 있는거지...

취새끼만 쳐다보다간 우리부터 다 얼어 죽겠다... 중앙 찌라시 놈들 말따나 이젠 각자 비상 플랜 조치 들어가야 한다...

더 이상 어떤 대책이나 뭘 기대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라고 안심마라... 이제 곧 겨울이다... 휴가철에 바캉스가 문제가 아니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대비하는게 가장의 자세이자 어머니의 자세라고 본다...

반드시 명심해라... 지금 한국 물가가 일본보다 더 비싸다... 종합 물가가 아니라 생필품 물가 폭등으로 지금 이미 한국 물가는 도쿄 물가를 역전한 상태다...

식료품 가격은 17%에서 20% 정도 더 비싸고... 심지어는 일본 바이어가 한국에 와서 편의점 들어갔다가 놀라 나 자빠질 정도다..

그 심각성을 알고 각자 준비해야 할 것이야~~~~~

<작성일 2008년 07월 17일>

10. 제 1 금융권 긴급 대출 제한 조치 돌입

제1 금융권 긴급 대출 제한 조치 돌입

오늘 아침 금융 협의회를 통해 제 1 금융권 시중 빅 7 주요 은행들의
긴급 대출 규제 조치 시행... 초읽기..

=====

기업 대출도 긴급 규제 제한 조치 돌입 예정.....

한국기업데이터(KED)는 17일부터 전국 14개 주요 은행들의 은행 내
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10일 이상... 90일미만의 단기연체 정보공유 확대로 대폭적인 기업 대
출 제한 조치와 더불어 긴급 대출 회수 조치 압박이 이제는 가시화...

=====

저축 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내의 PF 연체율이 작년 말 대비 2.7배
급증...

현재 PF 대출 잔액 기준 총액 = 73조.....

은행권 : 43조 9천억... 저축은행 : 12조 4천억. 보험 : 5조.....

제2금융권 내의 부실 가속화... 제2금융권내의 금융리스크 관리에 각
별히 개개인이 신경을 써야 될 긴급 시점....

제2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

97년 12월=11.6%... 3월=14.1%... 4월=15.6%.... 5월=16%..

향후 3/4 분기 예측 전망 : = 최소 18%에서 최대 24%... 리스크 레드
라인으로 부실 사정권.....

결론 = 이젠.... 긴말 필요 없습니다... 각자 쇼크에 대비 하십시오...

말 그대로 정부의 이번 달이나 8월중 비상 긴급 조치가 없으면 이제
는 진짜 200%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집니다.....

그 때는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 터지면 한국은 그 때부터 잃어
버린 10년 나부랭이 같은 개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작살나는 30년이
되는 거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각자 준비 하십시오...

특히 제2금융권 내에 돈 꼬라박으신 분들... 그분들은 특히 더 말이
지...

=====

당장은 시장쇼크로 인해 대 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물밑 작업
이미 들어 간 상태입니다...

곧 대출 규제조 조지기 전면 가시화를 하려고 지금 금융권에서 공격
진형으로 공격군 재편성 작업이 끝났으니 각자 참호 파고 준비 하십
쇼...

곧 박격포 쏘 대기 시작할 꺼니까.....

그 때 제일 먼저 학살당하는 것은 눈 뜨고 땅 안판 일반 개미들이니
까... 조만간 무차별 융단 폭격이 예상 됩니다..... 부디 건투를.....

특히 중소기업 운용 하시는 분들이나 영세 사업자 분들은 비상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괜히 어설픈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 보고 뺑카에 속지 마시고...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더 이상 더러운 은행쟁이들 훼이크에 속지 마십쇼..

맨날 당하는거 보면 속 터져서 못 보겠으니까...

<작성일 2008년 07월 18일>

11. 또 만수가 환율 개 사기극을 하는구나

또 만수가 환율 개 사기극을 하는구나

=====

오늘 지금 또 개입해서 또 돈 쳐 바르고 있네...

지금은 돈 쳐 발라서 1013원으로 떨어뜨렸네...

진짜... 만수...

가지가지 한다...

왜?.. 오늘 또 40억 달러 폭탄이라도 터뜨릴려고?..

예로부터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고 했는데... 환율 불장난 하더니 이제 잘 하는 것이다.....

이젠 진짜 이민뿐인가 보다..... 오늘 또 돈 지랄하는 것 보니....

오늘 또 톱스타 보다 더 유명한 인기 연예인 강만수 사진하고 오버랩 되면서 잘 하면 9시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시겠네... ㅋㅋㅋㅋ

지금 또 돈 풀었다고 사방에서 난린데...

이 쓰레기는 도대체 대가리에 뭘 생각을 가지고 이러는 것인지...

이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무슨 3차원 소녀야?... 만수 니가?... 최강희냐?.....

또 매직쇼 준비하게?..

=====

가만 보면 한국은행이 국책 은행이 아니라 만수 개인 사설 금고야...

아니 어떻게 유독 3월달부터 롤리코스터냐고.. 무슨 외환시장이 롯데월드도 아니고... 환장 하겠네....

이걸 마피아 경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거야.....

시장 원리로 조정 하는게 아니라 보스가 배후 조종 하는...

또 쥐새끼가 뭐라고 콜싸인을 쫓길래 이 따위 개수작질인지... ㅋㅋㅋ

재정부 안에서 장모 차명 계좌로 환투기 해서 돈 못 번 놈이 등신이라고 2년 학교 선배가 술 쳐 먹다 다 씨부리는 판국에... 도대체..

이 개 쓰레기들... 이런 정보 쥐고 얼마나 해 쳐 먹은거냐...

차라리 솔직하게 이젠 개나 소나 다 알고 있으니까 조선 찌라시 일면 광고에 오늘은 개인당 얼마씩 해 쳐 먹겠습니다...하고 1면 광고를 해... 아주... 확..

진짜 니들 이러다 다 개작살 나는수가 있어!!!!!!.....

진짜 잠실 운동장에 쥐새끼 이하 강만수부터 모조리 불러다가 각목으로 다 쳐 맞아야 한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이젠 하도 쥐새끼 이하 만수 같은 애들이 매일 분탕질을 치니까 경제연구소 애들이 뭐하러 보고서 만드냐고 하잖아....

예측이 안 된다고... 이걸 바로 다음주도 예측이 안 되는 판국이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그래프에 유별나게 작대기 긴거 많이들 보이지!!!!..

그건 그 만큼 엄청나게 해쳐먹었다는 반증이야... 피박은 우리가 쓰고...

경제 이론이고 나발이고 그런 설명 나부랭이가 다 필요 없는 상황이야... 한 마디로 그림 딱 보면 답 나와..

그게 지금 이 나라야.....이젠 비행기 표 예약 한다...

이 개 씨브럴 놈의 나라.....

지금 제주도에 영리 병원 지을려고 땅 파기 공사 한다며?..

진짜 아주 이판 사판.. 개판 되가는구나... 이젠 나도 모르겠다... 다 말
아 쳐 먹든지 말든지... 식코든 개코든 IMF 든.....

다 해 쳐 먹어라... 나중에 나올 대답은 난 100% 뭘지 알고 있지..

=====

대 국민적인 고통분담.....이젠 그 소리 나오는 즉시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옮긴다..

난 두번은 그 짓거리 못한다.....난 베텅이 소갈딱지도 없는 놈이라
두 번은 그런 고통 분담 죽어도 못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작성일 2008년 07월 19일>

12. 오늘 PD 수첩에 나오는 중소기업들 꼭 보세요

어제 현실이 어떤지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너무 과장되게 말하고 오버한다고.....

=====

오늘 저녁에 직접 PD 수첩을 꼭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이 나오니까.....

지금 얼마나 엄청난 환차손을 입고 절반 이상이 휘청거리고 왜 1/3 이상이 부도 직전이라는 것이 왜 과장이 아닌지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

보기 싫어도 무조건 보십시오.....

이런 현실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기업을 위해서 이제 환차손과 손실로 이 나라의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마저 뿌리채 흔들리는 그 생생한 현장을 피 눈물 흘리면서 보실 분들이 깔렸을테니까...

지금 은행 대출중단 조치로 이번달도 넘기기가 힘든 회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들이 똥 썬거... 그 책임을 일반 대중에게 분산 시키면서 또 밑에 있

는 놈들보고 피 똥 싸라고 들이 미는 꼴인데..

아무 근거도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 문제없을 것이라면서 오버한다고 하시는 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98년도.....

지금으로 부터 10년전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없으니까 설치지 좀 마라고.....

그런 말을 장차관이 한게 아닙니다... 똑같은 중산층 포함 서민들이 서민들 보고 자중 하라고 헛소리 떠들었죠..

지금이 딱 그 모습입니다....

지금 1시간에 외국 애들이 1천억 이상 패대기 쳤습니다...

이미 눈치 간 거죠... 그걸 기관 놈들은 연기금으로 계속 틀어막고 있고...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안 나오는군요....

우민화 계몽 어찌고 4월달에 떠들더니...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군요....

지금부터 슬슬 고통분담 얘기 흘러나오는데.... ㄸㄸㄸㄸㄸㄸㄸㄸ

열심히.. 고통분담 실컷 하시죠... 얼마나 애국심들이 투철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전 두 번은 그 짓거리 못하겠네요....

제발 멍청하게 속지 마십쇼...

이 나라는 매번 이렇게 당하는걸 보면..

진짜 한심해서 못 봐 주겠더군요.....

내가 염세주의자나 비관론자라서 그리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관론자로 보일 정도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오히려 반사작용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면 냄비 안에 개구리보고 너 이제 나중에 죽을거라고 말해주면 처음에는 별 일 없으니까 미친 헛소리인 줄 알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스테이크 되는 거죠....

=====

ㅋㅋㅋㅋㅋ... 정신 들 좀 차리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말이죠...

형사 책임 물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라면... 지금 중국으로 될 정도로 내 몰린 중소기업들이 지금 절반이 넘어 갈 정도입니다.

삼성이나 LG 가 자랑스런 한국의 간판 기업인 건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여러분들 실생활하고 연관된...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삼성 같은 나부랭이들이 아닙니다....

그 밑에 하청 중소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들이지....

이제 이런 미친 사회 구조적 매트릭스의 환상에서 깨어나고 현실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 싫어도 1시간... 짹 채워서 무조건 보십시오...

그리고 꿈 깨고... 어설픈 오아시스만 해매다 나자빠지지 말고 말입니다... ㅋㅋㅋㅋㅋ

=====

IMF 때.. 저는 저희 돌아 가신 친할아버님이 물려 주신 금 두꺼비에

돌 반지까지 금이란 금은 모조리 다 쓸어서 저도 애국한다고 금 채냈습니다..

그 후 10여년간 지나면서 빠져리게 느낀건.

이런 고통 분담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울 좋은.. 빗 좋은 개살구며 내가 이용당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회의뿐이 었습니다..

고통분담?... 진짜 고통 분담하자고 선두에서 떠들어 대는 놈치고 진짜 고통 분담하는 놈은 아무도 없죠..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진짜 선동은 그걸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

그게 지난 10년간 제가 얻는 결론입니다..

전 두 번 다시 이용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우리 위대하신 이명박 각하께서는 재산 헌납 하라니까 재단 만드신다고 하셨죠...

그럼...

록펠러가 미쳤다고 재단 만들었을까요?... 자식들을 이사회 임원에 등재 시켜서 말 그대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합법적인 유산 상속을 하는 일종의 방식이죠..

그 말 듣고... 참 어이 상실인게..

이젠 도저히 역겨워서 못 봐 주겠더군요...

=====

우리 이명박 각하께서 말씀 하시던 대기업 프랜들리에 지금 전체 고용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환차손과 시중은행들의 대

출 제한 조치까지 겹쳐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절 욕하는 것은 상관 안 합니다... 하지만 욕을 하려거든 최소한 뭔가 구체적이고 산술화 된 데이터를 가지고 긍정적인 희망이라도 심어주시죠..

그런 1% 희망이라도 있다면 전 100번 1000번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직업이 욕먹는 직업이거든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오늘도 수십개씩 회사 부도 나서 그 가족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기업의 뿌리가 통채로 흔들리는 것을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로 백번 천번 떠들어도 실감이 안 나겠죠.

진짜 영상으로 한 번 보시죠...

엑소시스트 저리 갈 정도로... 차원이 다른 공포에 등에 식은땀이 흐를 테니까..

=====

전요... 진짜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들이 살아 날 수 있다면 전 100번 1000번 국회 의사당 앞에 가서 자리 깔고 머리 수만번 박으면서 석고 대죄 하라면..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일 맡겨 놓고 매일 출근 진짜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이러는 겁니다....

막말로 오늘도 야반도주 할까 말까 창문 내다 보며 하루에도 수십번
그 생각만 하는 사장님들.

깔리게 지금 2008년 한국의 현실이라 이말입니다..

아마 지금 월급 2, 3개월 밀린 곳도 수두룩할 겁니다... 결제대금 어찌
고 변명 들으면서 말이죠..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착각 좀 그만 하시라 이말입니다..

실제로 대만에는 한국처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고통 분담 나
부랭이는커녕.

한국보다 개개인이 더 잘먹고 잘 살죠..

그게 진짜 사람 사는 나라지.. .무슨... 얼어 죽은 애국 쳐 한다고 또
고통 분담 어찌고 저찌고...

나 참.. 진짜 한심해서..

이제 또 알고 속아 달라.... 이 말 하는 겁니까?..

나경원씨... 그 잘난 말 주변으로 기어 나오셔서 또 저희들 좀 계몽 좀
해 주시죠!!!!!!!!!!!!

<작성일 2008년 07월 24일>

13. [금리 인상] 리먼 브러더스 긴급 리포트

리먼 브러더스 긴급 한국 리포트..

=====

리먼 브러더스는 한국 국내 인플레이션 동향과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미 레드 존의 위험 수치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8월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최소 25bp 이상 올릴 것으로 관측.

한국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리스크 추가 관리 주문 의견 제시.

.
=====

다만 .. 이에 따른 가계 부채 급증과 중소기업 자금 압박에 따른 리스크 부담에 따라 내년 5,7,9월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25 bp 씩 금리 인하 조치가 불가피한 걸로 판단..

각별한 완급조절을 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예상 전망치는 10월달에 50bp 정도의 기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

=====

결론 : 8월 기준 금리 인상을 경고 하는 국내외의 주요 정책 동향 리포트들에 따라 이제 8월 중 기준 금리의 인상은 거의 확실한 상태이며 그에 따른 제1금융권을 기준으로 한 변동형 대출 금리의 인상폭은 연내 최소 1.8%에서 최대 2.2% 까지 내다 보고 있는 상황...

따라서 현재 대출 금리는 9% 중반에서 10% 이상 단기적으로 폭등이 불가피한 상황.....

가계 주체 개인별로 신용 대출을 전면축소하고 대출금 축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각자 대비 바란다...

이제는 국제 유가가 문제가 아니라 유가 + 환율 조작의 사생아인 물가
리스크 모멘텀으로 이제는 한국금융당국의 정책 축이 옮겨진 상태에
서 더 이상..

국제유가변동에 따른 금리인상 시점관측은 무의미 해 졌다....

무조건 8월에 기준금리 올린다... 설사 8월에 안 올리더라 치더라도
다음에는 따를 아니면 방법이 없는 진퇴양난이기 때문이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찌겠어... 나 같은 천민들은 입 닥치고 대비 해야
지....

상전이 까라면 까야지... 이젠 더러워서...

쥐새끼도 꼴에 상전이라고 모시고 살아야 하니... 나 원...?..?.

=====

올해는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금리는 오른다... 내년 중순 정도나
되야 기준 금리 내려서 그나마 숨 좀 쉬고 살 길이 열릴 것이야...

신용대출 없애버리고 대출은 개인별로 메인 뱅크 한 곳으로 모조리
몰아서 리스크 관리하는 수밖에...

올해는 진짜 방법이 없어... 내년 중반 금리인하 시점까지는... 북쪽 애
들 말대로... 고난의 계절이 온 것이라고 밖에...

진짜 문제는... 과연 내년 중반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냐... 그거지..

옛날에 히틀러 밑에 있던 아이히만이 그랬다잖아.. 백명을 죽이는건
살인이지만 백만명을 죽이는건 통계라고...

지금 쥐새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따위라 이 말이지...

올 겨울 신문 보기가 두렵다..이제..

<작성일 2008년 07월 22일>

14.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 따위면 나도 촛불 집회 열겠다

아까 무심코 티비를 켜 놓고 있는데...

김문수 경기 도지사라는 놈이 딱 하니 나와서 쳐 하는말.

"MB... 이럴려고 정권 교체 했나~~~ 이제 필요하면 촛불 집회도 불사 하겠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난 내 귀를 의심 했다....

=====

이 놈이 야간에 촛불 들면 집시법 위반이라고 떠든 그 당사자 놈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만수가 물가 쳐 오른 것이 국제 유가 때문이라는 개소리 쳐 하더니..

이제는 문수가 이 따위면 촛불 집회 지들끼리 열겠다고 지랄 엮병질이다..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안 나오더군.....

개 막장도 이런 개 막장이 있나 싶어서...

오늘도 오전에 8억 5천만 달러 쳐 부어서 환율 손 대고 미세 조정을 했니 안 했니 개 구라를 치고.....

주식 시장에서는 연기금은 3천억.. 4천억... 지 풀린대로 돈 잔치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쌓인게.

어느 덧 10조....

완전 미쳤어...

만수야... 연기금 어찌고 개 염병을 떨더니... 너 이 프로그램 10조는 다 어떻게 치울래... 모조리 다 깡 처리라도 할까?...

이게 무슨 카드깡이냐?..

=====

아주 만원짜리도 초 대형 바벨탑을 쌓아라.....

2/4 분기 키코로 중소기업 추정 손실이 드러난 것만 2조가 넘고도 아직도 정확히 몰라서 이번달 말까지 회사별로 각자 자율 보고 하라는 개소리에..

정부 외환 보유고를 미국 지방 은행별로 모기지를 얼마나 사 쳐 끌어 모았는지는 아예 감감 무소식.....

똥 줄 타겠지.....

모기지 한 번 제대로 터지고 중국에는 이미 미국 헤지펀드 상륙해서 작전 들어 간 상태라는데..

싱가폴에는 한국 증시와 채권시장만을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헤지 펀드까지 있거든?...

지금 계속 자금 실탄 충전 중에 지금 미 의회에서 원유 투기 금지법 입법 예고까지 들어가서 통과 직전이라 원유 선물에서도 외계인 놈들이 이제 돈 지랄해서 서브프라임 빵꾸난 것을 메꾸는 것도 이제 한계 상황이라 이 말이지.

그럼... 결국....

남은 표적은 아시아 시장인데...

모리스 골드 스타인의 위기 진단 지표 상... 이미 한국은 위험 수위에 육박 하고 모건 골드만 애들이 주의 의견을 연달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외환위기 10년 주기설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늘.... 유별나게 생각 나는 것은 왜일까?.....

=====

9월달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오늘 집에 가면 집에 모셔 놓은 친 할머니 위패에 대고 향불이라도 올려야 겠다..

제발... 신이시여... 한국을 구원 하소서...

중국 일본 애들은 돈이라도 많지.....ㅋㅋㅋㅋㅋㅋ...

돈 2천 6백억 달러에 단기 외채 1700억에 이것저것 빼고도 미국 은행이며 뭐며 사방팔방 꼬라박고 돈 홀리고 다니는 주제에..

금고 안전 하니까... 걱정 말라고 개 구라를 치는걸 보니...

참.... 할 말이 안 나올 뿐이다... ㅋㅋㅋㅋㅋㅋ...

=====

분명히 IMF는 한국에서 안 터진다...

아니... 터질수가 없게 만들어 놔지...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도 IMF가 안 터지도록 아세안 +3 라는 지역 안전 시스템이라는걸 만들어서 지금 실탄이 800억 달러나 기금을 만들어 놓 상태거든... 아시아 통화 기금 (AMF) 라고 짝퐁 IMF 하나 만들어 논게 있지..

98년 당시에 영삼이가 일본 애들한테 100억 달러 콜 했는데도 일본 애들이 돈 송금하기 직전에 미국 애들이 쩌려 봐서 결국 포기해서 한국은 불바다가 되었지.

그래서 대중이가 앞장서서 아세안 애들 충동질 하고 중국 일본 애들이 모여서 기금 만든 것이 이거란 말이지..

아세안에서 태국 애들이야 직격탄 맞았으니 쌍수를 들고 환영한 거고.

한국에서 IMF 시즌2가 온다는 상황은 실제로 IMF 국제기구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경제 쇼크와 자산 버블 붕괴에 따른 외국인들의 무차별 공세로 무장 해제를 당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게 IMF 시즌2라고 말을 하는거지... 실제로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거든...

국가는 IMF 체계가 아니지만... 사실상 IMF나 다름없는 시즌 1을 능가 하는 토네이도의 양상...

그것도 일시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고통을 감당해 낼 자신이 이 나라가 그런 인내의 시간을 또 한번 견딜 인내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냐 이 말이야..

난.. 이제 죽어도 두 번은 그 짓거리 또 못하거든?.....

이걸 지금 착각 하고 무조건 아무 문제없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어 대면 뭘 어찌라고..

일본 애들이 90년대에 그 개 작살이 난 걸 벌써 다 까먹기라도 한 거야?..

진짜 문제는 한국은 일본이 아니라는 거지... 견딜만한 경제 기반이나 체질이나....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는거야..

이제 시즌 2는 과거와는 전혀.....전혀 차원이 다른 형태로 닥쳐 올 것이다...

이걸 동네 개들조차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아예 대 놓고 해 쳐먹으려고 덤벼들겠지.

그 제 1 타겟은 한국일 공산이 유력하고 말이지..ㅉㅉㅉ

제일 두려운건... 자산 버블의 붕괴...

일본이야 부동산 자산 비중이 35% 정도라고 치자고..... 하지만 한국은 50%를 넘어서는 그 이상인 상황에서..

한 번 이런 뇌관 터지면... 우린 다 공멸하는 거야....

시즌 1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달러가 부족해서 터진 구조적인 문제라지..

시즌 2는 초 인플레이션 문제에 따른 자산버블의 붕괴에 위험성이 있다는거지... 그 때가 되면..

진짜 답이 없다.....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요즘 헤지펀드 애들은 잡식성이야... 채권 시장에서 파생만 하는게 아니란 말이지.. 돈만 되면 부동산이고 나발이고 닥치는대로 싹쓸이 한다.....

지금 눈에 보이는게 없는 상태거든.....

한국애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미 97년도 시즌 1의 구형 금융 모델을 기초로 IMF 는 문제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한다는 사실이야...

사실 1년 단위로 초 스피드로 변하는 국제 금융 시장 투자 모델링 추세를 한국 재경부에 있는 애들은 깜깜 무소식이라는 거지..

그러니 지금 대책도 10년 전에 정채되어 있을 수 밖에..

지금 미국 애들은 한국에서 뽐아 먹을 방법을 수천가지 이상 생각해논 상태인데 말이지.

거기에 내년 자통법이 시행 되면 그 날로 진짜 밥이야.. 밥... 룡 케익? 식탁위에 올려 놓고 칼질 해 달라는 거라 이 말이지..

지금 이 상태는..

대표적인게 무식한 강만수야..... 이미 4월달에 국제 금융 보고서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세의 확산 경고라는 보고서들이 수십건이야...

거기에 일본 엔화가 8% 절상 해서 물가 방어 할 동안 한국만 5월 25일 기준으로 -10%나 평가 절하 해서 물가 폭탄 뒤집어 썼다 이 말이지..

그 갭이 -18%야... 사실상 97년에 IMF 시즌 1이 터지기 전에는 원/달러 동조화를 같이 움직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원/엔 격차 갭이 -18 % 정도라면 말 그대로 국내 자국민들은 물가로 피박 쓰고 돼. 저버리라는 소리거든..

이런데도 국회 쳐 기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쥐새끼하고 똑같이 무조건 국제 유가 타령이야.....

그럼 2006년에 원자재 가격 120% 오른건....도대체 뭐냐?.

완전 돌았어... 이 나라는..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야..

지금 대기업들?... 오일 달러로 수출이 회사별로 25에서 30% 가까이 늘어나서 돈 벼락 맞고 깔려 죽기 직전이야.

그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생산비 50% 가까이 늘어나서 빚더미에 깔려 죽기 직전이고..

달러 대비 25% 인상분을 한국에서는 수입 물가 49% 폭등으로 그대로 다 뒤집어 썼어..

다른 나라에서 환율 조정분으로 25% 인상분에서 환율 절상 마진 -7, 8%를 까면... 한국은 말 그대로 일본 애들이 받은 물가 충격에 비해 회사나 개인이나 거의 2배 넘게 타격을 받았다는거지.

이게 미친 나라지 뭐가 미친 나라냐..

=====

과연... 쥐새끼가... 잘 해야 할텐데...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안 그럼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암흑의 30년이야.....

그래서 개인 자산 가치 하락을 위한 비상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고 말이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보통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 이렇게 거듭 말하는거야...

이 나라는 아직도 조선 애들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나발이고... 싸니까 지금이 기회라며 빨리 사라고 매일 빠끼질 하는 나라란 말이지...

실제로 진짜 실행에 옮기는 노인네들도 천지야.... 실제로 또 보면....

완전 정신 나갔다고 밖에...

=====

9월 위기설을 처음 만든 이가 누군지나 알고 있냐?.....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이 절대 아냐.....

올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월 스트리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말이 지금 9월 위기설이야.....

이걸 외국인 애들이 지들끼리 말 주고받다가 국내 마켓에 넘어 오면서 그 때부터 9월 달에 뭔가 터질 것 같다 라고 수근거리고 그에 따른 실체적인 증거들이 가미 되면서 이런 말이 본격적으로 나온거고 말이지...

괜히 노빠니 이빠니 개 염병 떨면서 정치공세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진짜..... 기가 막힐 뿐이다..

<작성일 2008년 07월 23일>

15. 파생상품 거래세의 도입이라... 대단하군...

음...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께서 이제는 파생상품 거래세라는 일본 애들조차 99년도에 폐지하고 대만 애들은 지금 개 쌍피를 보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 황당한 시추에이션을 취하시는군....

중부세..법인세 깎고... 그 땀뺀으로 이제 간신히 궤도에 올라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눈앞에 두고 바야흐로 이제서여 미영 제국들과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겨루는 아시아의 창으로 자리 잡는 이 시기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 시한폭탄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터뜨려 주시네.. 지금 외국 애들은 난리가 났는데..

=====

이제 숨 좀 돌릴 만하니까... 그 새를 못 참고 또 수류탄 까는구나...

조세 평등?.....

까는 소리 하고 있네.....

강부자 애들 부동산 세금 까주고 돈 뺑꾸나니까 이제 돈 조달하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지...

=====

그나마 서민들의 마지막 투자처마저 털어 먹겠다고 아주 악다구니를 쓰시는구나...

각하... 얼마면 되오리카...

조중동에 원하는 현찰을 적으소서.....

그럼 돈 수금해서 계좌로 송금 하겠사오니..

부디.....통축 하옵소서..... 전하.....

이젠 한국만 땅 파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옵니다.....

지금 대만 애들 파생 거래세 부과 하다가 아주 개 작살 나고 있사옵
니다.....

전하~~~~~.....

이젠 쥐새끼까지 상전으로 모시자니..아주 등꼴이 흰다 휘여..

이게 난 상관 없는게 아냐..... 외국 애들 돈 빠져 나가면 내일 아침
동네 라면값이 달라지는 실물 경제 얘기야..

아니.....진짜 고대 출신이 맞기는 맞냐?.....

왜 이렇게 멍청 하냐..... 아주 무식도 상무식이네.....

뭔 놈의 졸업장을 딱지 치기로 탄 건지...아니면 60년대 출신이라 글
로벌 이코노미 개념을 아예 모르는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지금 대만 애들은 개 작살 나서 매일 거래소 앞에서 데모 하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판국에.

이건 전 분야에서 시대 착오적인 역주행만 쳐 하고 나 자빠졌으니....

뭘 어찌라고.....

=====

외국자본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조세형평 들이대면 뭘 어찌겠
다는거야..

그런다고 외계인 애들이....." 아예....."..

하고 그런데?.....

이제 정신 좀 수습하자... 자금 나가면 제일 먼저 국가 신용도부터 흔들리고 이자율 오른다...

그 개 피박을 또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거고..

이젠 모두 다 파급 연관 관계야.....

고전 경제나 따로 놀지... 신 경제 질서로 대변 되는 수정 경제학의 선진 그룹군에 들어 간 상태인 한국에서 이미 이런 것은 투자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로 퍼지는 거미줄 경제라는 것이다...

요즘은 외환 시장 동향이 동네 수퍼 빵값 하고 연관 되는걸 지금 몰라서 이 따위야?...

부동산에 환장했어?... 세금 쳐 깎아 주고 땀뺀질 하자고 이런 개 망나니 짓거리 쳐 하게?..

오늘도 본국 본사에 사방에서 전화질 하면서 비상 시나리오 짜느라 난장판인데 이거 이제 어쩔래...

외국 애들은 그냥 막 돈 지르는게 아냐..

시나리오 플랜이란 걸 몇 개씩 짜 놓고 돌발 변수에 대비 하는 애들이란 말이지....

아주 개 막장의 은하 철도 999구나.. 이런 엄병할 나라...

벌써부터 냄새피우면 이제 앞으로 가관이겠네...ㅋㅋㅋ

난 투자 안하니까 상관없지 뭐...

이런 말 하는 건 쌍팔년도에나 통하던 거고....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거지...

10년 동안 키운 한국 시장... 모조리 다 파괴 날리고 싶냐?... 벌써 부터 말 나오자 마다 들썩이면서 싱가포르 쪽으로 옮기네 마네 소리 나오

고 있는 판국에.....

정말 억.. 소리 난다는 말 밖에 안 나오네.....

세금 뺄질 한답시고...이제는 벌집을 건드리는구나....

=====

제발... 숨 좀 쉬고 살자...

니들은 5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마!... 그냥! 청와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만 주구장창 치는게 쥐새끼가 애국 하는 길이니까!,,,

진짜 열불 나서 이 나라 국민 못해 먹겠다.... 이제..

속 터진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쥐새끼를 한 6개월이라도 단기 MBA 라도 유학 보내라.....

안 그럼 진짜 다 말아 쳐 먹겠다.....

이건 완전 개념을 밥 말아 쳐 먹는 황당한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아 우. 진짜...

달러 빠지면... 쥐새끼가 자기 집 재산으로 그걸 다 뺄빵이라도 해주겠다는거야 뭐야...

<작성일 2008년 07월 24일>

16. [FT 급보] 국민 연금 60억 달러 추가 집행

우리 위대하신 각하께서 국민 연금에 콜 때려... 60억 달러를 미국 투자 은행 빅7에 싸다고 지금이 투자 적기라면서...

투자를 한다고 공식 인정했군요...

=====

진짜 이제 미쳤다고 밖에....할 말이 안 나오는군...

KIC가 메릴린치에서 -10억 달러 날려 먹은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판국인데...

이제 아예 미국 똥구멍 빠는 구원 투수 앞잡이로 나섰네...

참 대단도 하셔라....

FT가 증거들이 대니까 결국 냄새피우면서 실토 하는군..

말로는 5년동안 나눠서 투자 한다는데....

개뿔 뜯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금 수혈해 주는거지 뭘 나누기는 나눠..

60억 달러면 자율 집행권 15% 까지 포함해서 모조리 다 싸그리 긁어 모아서 집행권 행사 하면 최대 75억 달러까지 가능하단 소린데...

=====

각하... 진짜... 이젠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건 일개 조폭 조직 보스도 손 떨려서 송금 버튼 누르기 힘든 금액 이거든요...

이번에는 60억 달러짜리 빈대떡 부쳐 드시게요?....

이걸 1달러짜리로 쌓아 올리면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돈인데 말입니다..

각하.....

한 방에 내지르시다니... 2012년까지라는 친절한 추가 설명까지 붙여 주셔서 걱정 거리를 덜어 주시네요...

어치피 알만한 놈들은 그 말 아무도 다 안 믿는데...

=====

이젠 전 조중동 나부랭이에 너무 실망해서 외국 신문만 봅니다....

차라리 WSJ나 FT가 더 객관적으로 한국경제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젠 차라리 제 3자가 제공해 주는 양키 애들 눈으로 보는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최소한 그 애들은 개구라를 검증도 없이 기사로 내 보내지는 않거든요... 조선처럼...

조선 보고 투자하다 자살한 노인네가 있는데 나중에 유가족들 들은 말이 아님 말고... 그거였다쥬...ㅋㅋㅋㅋ.

이제 또 60억짜리 빈대떡 부쳐 먹으면 그건 어떤 맛일까..

딸기맛?... 초코릿?... 나 참... 이거야 원..

=====

한국에서 돌아가는 최신 정보들은 여의도 서울 한 복판에서 보다 이 역만리 런던에서 더 빨리 정보 회전이 된답니다..

참 대단한 나라네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건 아닌데... 이걸 좀 웃기잖아..

이제 무슨 똥 딱으라고 달러로 된 두루마리 휴지까지 친절하게 챙겨 주니?..

=====

각하... 변호사 고용 하시느라... 이제 로펌 청구 비용이 꽤 나오시겠네요.....

이젠 요미우리를 넘어서 FT도 싸잡아 세트로 고소하면서 법정 대응 하시려면 말이죠...

ㅋㅋㅋㅋㅋㅋ...

=====

각하의 히틀러 유켄트 뺨치는 각하의 사설 친위대 조직 뉴라이트 사무실에 직접 신문을 선물로 보내 주기라도 해야겠네요.....

택배비는 후불로...

아마... 페디메- 프레디맥 뿐만 아니라 서브 프라임이 기회라고 미국 지방 은행에 이리 저리 꼬라 박은 달러가...

꽤 된다죠..아마?... 추정치는 이젠 겁나서 말을 못하겠네..

이제 버냉키도 실탄 없다고 나 자빠지기 직전인 판국인데...

이러고도 과연 외환보유고 금고가 무작정 안전하다고 우기는걸로 과연 끝날 수가 있는 것인지..

전 심히 의심스럽군요... 각하...

그러다가 97년에도 그 전날까지 아무 문제없다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들었는데 말이죠.....

=====

전 이제는 그 만수 이하 밑에 있는 애들 뇌 구조가 의심스럽네요...

진심인데... 대학 실험실에서 해부학 2를 찍으면서 뇌 해부 실습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답니다.

과연... 어떤 유전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는지 말이죠...

이걸 조사해서 싸이언스지에 발표하면 한국은 노벨상은 따논 당상인데 말이죠,...

아니지...2개네요..... 경제+ 의학 부문까지.....

ㅋㅋㅋㅋㅋㅋ

우리 만수형이 이병헌입니까?..... 올인 2를 찍게?...

<작성일 2008년 07월 25일>

17. 2008년 중소기업 최대 위기의 해

참... 저도 이 나라 사람으로써 진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없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았으면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 부도율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 가고있군요..

=====

일단 올해 들어 환차손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단가의 50% 이상이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다 쓰고..

거기에 납품 단가는 동결....

중소기업 연체율은 거의 1.7배 상승...

8월부터 중소기업 및 일반 가게 대출 축소 및 여신 회수..

=====

거기에 결정적으로 키코 상품 손실로 보통 950원에서 970원 선에서 계약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그걸 정부에서 올려놓고 이제 와서 오늘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은행 잘못이 없다며 계약금 2배를 내라는군요...

지금 이미 부도 가시권에 들어간 회사들이 20%를 넘는 상태에 최악의 자금난으로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 8월달부터 대출 제한 조치에 은행 잘못이 없으니 중재할 생각은 안 하고 돈만 내라고 강요 하다니...

대출해준 은행에서 이런 상품 들라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들어 줘야 하는게 관행이거든요...

안 들면 그만이 아니란 거죠... 하다못해 가게 대출을 받으러 은행 가도 무슨 보험 상품 들라고 들이 대면 들어 줘야 하는데...

그걸 다 들이 대고 이제 환율 폭등해서 개 피박 쓰니까.. 돈만 내라

니...

어떤 여자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영영 우시던데... 대책위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

진짜 마음이 쩡하더군요... 집에서는 강한 아버지가... 4.50대 아저씨들이 우는거 보셨습니까?

전 오늘 가서 봤거든요... 참 그걸 보고 나니까... 안구에 쓰나미가 밀려 오는게..

오늘 집에 아빠 오시면 발 닦아 주세요.... 실상은 완전 초토화 직전이니까..

말로라도 팬찮으니까 걱정 말라시는 아버지들은 속이 지금 썩어 문드러 진답니다..

진짜... 어금니 단단히 깨무셔야겠네요...

안 그래도 요즘 인천공항 출국장이 붐빈다는데...

이건 눈 씻고 봐도 긍정적인 신호가 없으니...

=====

프로그램 잔고는 사상 최고치 8조 2천억 수준 시한폭탄에... 미국 주택 시한폭탄 터진 상태고...

참..... 기가 막히네.....

이젠 일본 바이어가 혀를 찰 정도니... 하는 말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게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다 강한 민족성 때문이겠지만... 정신력도 한계라는게 있는거지...

도대체 의도 하는 바가 뭔지.. 이건 알수가 없으니.....

오늘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무슨 중소기업 실태 조사인가 뭔가 하러 나왔다는데... 30분 만에 왔다가 갔다더군요...

이럴려면 뭣 하러 온 건지. 염장 지르는 거냐고 하시는데.....

각하... 진짜 대단하시네요... 엘귀하고 현대 자동차는 사상 최대 분기별 영업 실적을 올리고도 현대 애들은 또 차 값 올린다고 뺄쓰던데..

각하 말씀대로 대기업 프렌들리 하나는 확실하게 성공 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꼭 아빠 오시면... 삼겹살 한근 지금 언릉 사 와서 씹 사 먹이세요...

전 오늘 못 볼 걸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일이고 나발이고 나가서 애들 데리고 소주나 한 잔 마실라니까...

지금 내리는 저 빗물이.... 비가 아니라 피눈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일 정도군요...

다 골병 들대로 들어서.....

도대체가 기업 건전성이라고는 하부 중소기업들은 완전 거지꼴로 거덜을 내고 상위 대기업 랭킹 30위권만 살면 그만이라는 건지..

나 원.... 이러니 FT 에 한국 기업건전성에 대한 의문성 제기 기사까지 나오지... 이젠 개 막장 탈선 노선을 타자는건지...

전 도저히 대가리가 무식해서 이해를 못하겠군요...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의 프랜들리 구상을....

각하... 저 같이 무식한 애들 좀 티비에 하루 빨리 나와서 이해 좀 시켜 주세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나온다더니?... 이젠 아예 감감 무소식이네?...

을 하반기에는 진짜 학교에서 말로만 들었던 도미노 연쇄 효과라는게 뭔지 살아생전 두 눈으로 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숫자 통계 장난질 할 것 없이... 딱 현장 나가 보면 답 나옵니다..

심지어는 은행 이자 때문에 회사 기계 까지 매물로 내 놓은데 그래도 팔리지도 않으니 말 다했지....

나 살아 생전에 그런 더러운 꼴은 보면 안 되는데... 젠장 너무 오래 산건지... 이젠 뉴욕행 비행기 표를 끊어야 하는 것인지...

으 휴... 이 미친 쥐 새 까...

오늘 비 오는데 꼭 일찍 집에 오라고 해서 잔소리 하지 마시고... 고기 먹이고... 손수 발 닦아 주십쇼...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자살 충동 들 정도인데...

집에서 까지 내 몰리면... 진짜 다 죽어야 합니다...

제발 하루라도 살갑게 대접다운 대접 해 주십쇼... 그게 가족 사랑입니다..

지금 현장이 개 막장을 달리는데.... 그 속이 오죽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댈 건 가족뿐입니다.....

아빠 힘 내세요라는게 좀 유치 하더라도 집에서 등 두들겨 주고 집에서라도 숨 좀 쉬고 살게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행동 지침 : 지금 각자 여유가 되시면 최소 6개월 정도의 생활비 정도는 일단 확보하시고요...

여유가 안 되시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준비하시고 대비하세요...

지금은 불확실 변수가 너무 많은 상태라 한 달 앞을 예측하기 힘들군요..

월급이든 수입이 들어 오면 비상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단 5%라도 떼서 생활비를 비상 적립시켜서 각자 대비 하세요.....

지금은 살림 하시는 분들의 숨겨진 저력을 발휘 하실 때입니다... 집에 있는 옷이라도 중고로 팔아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생활비를 적립시켜 놓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가입한 보험들 중에서 어떤 질병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험 적용이 되는지도 보험 상담사와 자세하게 내일이나 월요일날 당장 개인별 상담 들어가시고요..

전화 상담 시 저도 엇그제 해 봤는데... 말을 상당히 애매 하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관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해당 되는 경우 하고 적용이 안 되는걸 확실하게 딱 잘라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필기 하셔서 대비책을 각자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원 이름도 필히 물어서 체크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또 탄 소리 나옵니다... 한국은 유별나게 보험 수급율이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니까 말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가족 중 누구 하나 아프기라도 하면.... 치명적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지금은 일단 무조건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툭툭 뭉쳐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가족들끼리 부터 지금 상황에서 분란 일어나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각자 개인 가구별로 장롱에서 서류 다 끄집어 내서 카드 한도부터 보험서류까지 모든걸 체크 하세요...

고정 자산과 유동 자산을 다 끄집어 내서 분류한 다음에 유동자산을
긴급으로 얼마 정도 돌릴 수 있는지...

그 정도는 대충 살림하시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고정 자산과 유동 자산을 분류해서 체크 하고.... 고정 지출과 유동 지
출을 따로 체크해서 계산을 때려야 합니다.

이래야만이 최소 생활비 산출이 가능해지고 비상 적립금 규모를 추측
해서 대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지금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현금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입
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테크라는 건 물가 재테크니까요..

급하면 카드로 때우고 말지...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말이죠.....

<작성일 2008년 07월 26일>

18. 2008년 한국경제 향후 정세 분석

2008년 7월 마지막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상황은 폭풍전야에 고요.... 마치 태풍의 눈 한 가운데 있는 도로시 신드롬에 빠져서 밖에는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있는데 일상에서는 도로시처럼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맑은 하늘을 보며 문제 없을 거라며 정부에서는 알프스 가요를 립씽크 하고 있다..

현재 상황 : 2008년 현재 한국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식의 운명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치 너는 내 운명이라는 한 편의 신파극을 보는 기분이다..

그 이유는 일단 총 대출 규모 640조 가운데 가게 대출이 차지하는 240조 정도의 규모의 시스템적 구조적 특성이란 ..

제1금융권 내에서는 IMF 이후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정의 까다로운 특성상 담보 자산 가치 평가액 중에서 최대 40% 정도 선 내에서 대출을 해 주면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 하고자 일종의 방어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그 결과 은행권에서는 남는 잉여 자금 순환을 위해서 그 돈은 제 2 금융권 내에 상호 저축은행과 보험사들을 비롯해서 투신쪽으로까지 돈을 돌린 결과 제2금융권 내에 저축 은행들은 심하면 80%에서 90% 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수익 창출을 위해서 무차별 대출을 감행 하였다..

그 비율은 제2금융권 단독에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제1금융권 빅 7에서 차입을 해 온 금액이다... 제1금융권 은행 연계 40% + 제2금융권 자금으로 구성되고 리스크 제 1순위 담보는 저축은행 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실채권이 되면 결론은 간단하다...

깡 처리를 하는것이다.... 제2금융권이 도산처리 되면 어차피 저축은행 본인이 담보 1순위기 때문에 도산처리 하고 은행권에서 온 돈은 은행 회계 장부에서는 손실상각처리 되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 2/4 분기 내에서 제1금융권 내에 이런 깡 처리 손실상

각처리 된 액수가 지금 거의 -7천억이 넘어 가는 곳도 있다..

작년 한해에 보통 -1700억 미만인 걸 생각하면 이건 말 그대로 일본 식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꼬라지다..

그런데 대 놓고 말을 안 하지..

왜냐고?.....

인디맥 작살 날때 CNN으로 본 그 은행 앞에 엄청나게 늘어진 사람들 줄을 보면 등에 소름이 끼치니까..

다 쉬쉬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지.....

=====

그에 반해 기업은 imf 사태와 같은 그런 줄도산을 맞지 않게 되어 있다... 상위 랭킹 1천개의 기업평균부채 비율이 97년에는 거의 -340% 정도가 넘어 갔지만 지금은 -87% 정도다..

이건 진짜 엄청난 것이다... 단 10년 만에 이렇게 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나라는 그 전례가 없었다.

그 결과 각 기업별로 회사에 쌓아 두고 있는 내부 유보금이라고 비상금은 현재 360조원이 넘는다.

이 액수는 자본금의 6배의 액수다... 한 마디로 우리 위대하신 각하가 말씀하신 대기업 프랜들리로 수출해서 대기업 영업 이익이 늘어나면 국내 투자 효과의 리사이클 효과가 생길리라는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소리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대기업 이야기.... 현재 중소기업은 생산품 1개 만드는데 원자재 비용만 50%가 넘어가고 빚더미에... 더구나 은행권 PF 부실로 인한 대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8월달부터 개 작살나기 일보 직전이다..

한 마디로 극과 극이라는 것이지..

=====

한국의 대기업 애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 리명박 각자가 말하는 산업 자본 투자를 통한 리사이클링 효과가 절대 아니다....

이 쥐새끼는 대가리가 60년대에 시계가 멈춘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지만...이걸 일컬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이지..

2000년대를 넘어 오면서 한국 자본주의가 추구 하는 방향은 산업 자본주의 시스템 ----> 금융 파이낸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모색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 경제 질서로 대표되는 수정주의 경제 관점이다... 그래서 나도 노무현이나 대중이를 싫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중이하고 무현이는 글로벌 추세를 읽고 있었거든... 그래서 잉여지책으로 쓴 것이 IT 기반의 고부가가치 고밀도 집약형 산업을 일부러 기쁘고 육성 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나온게 기업형 혁신도시 어찌고 한게 그 파생 결과물 중 하나 지..

이미 글로벌 추세.. 즉 대세는 변하고 있다는 걸 대기업 애들 이하 국내에 있는 애들은 이미 다 간파 하고 있다..

전 세계가 공장이고 산업 기지이며 물류 창고다.. 심지어는 브랜드 지멘스부터 후지쓰 노트북까지 브라질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고 출하되어서 한국으로 일본 본토로 역수입 되는 상황에서 산업 자본으로의 투자는 오히려 손만 가는 거추장스럽고 까다로운 선택조건이다..

그럼..자 생각해 보자... 지금 상황에서 결론은 뭐냐... 돈... 실탄은 이미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을 해서 자본금은 거의 300조가 넘어 가는 상황이다... 유동성은 흘러넘친다.... 기업 브랜드도 어느 정도 있다...

이건 유로 2008만 봐도 단 번에 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돌파구는... 결국 한국 대기업 애들의 마지막 선택은 금융 자본으로의 이동이다... 이게 최종 결론이다... 그래서 금산법을 그렇게 오만가지 이유대면서 끊임없이 건드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밀레니엄의 추세 대전환이 일어 나는걸 이 애들은 이미 간파하고 런던식 금융 자본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상황에서 우리 각하께서는 그걸 모르고 프랜들리 어찌고 떠드는 개소리에 현혹당해서 환율 조작질로 대기업 놈들한테 이용당한채... 자본 잉여금 쌓아 올리는데 한손 거들어 줬다..

이러니까 무식한 쥐.새.끼라는것이다... 대기업 프랜들리라고는 말하지만.. 더 이상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투자는 꺼린다... 까다로운 노사문제.... 거기에 겹치는 각종 규제와 압력.. 사후 생산 관리.. AS 측면... 모든게 짜증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스마일 곡선이라는데 있다....

총 5단계로 연구 개발... 생산.. AS 까지 전 단계를 5단계로 비용 측면에서 나눠 분석한게 있는데.. 이중에 제일 단가가 높은게 연구 개발과 AS 분야다... 그럼 생산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단가가 낮은 분야다... 이걸 차라리 하청을 주는게 이득이다...

그럼?... 국내 투자?... 그건 아니다... 지금 글로벌 이코노미는 대형 OEM 빅 5 체제로 재편 되고 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대리 생산만 전담해 주고 상표만 붙인다... 이제 자기 자회사 밑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점점 줄어 들고 이른바 브랜드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에 접어 들었다..

유달리 자회사 하부 공장을 가진 비율이 높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 애들은 이런 추세에서 탈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쥐새.끼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각종 규제 제약상 눈치는 봐야 한다.. 그러나 밖에서는 쇼 하고 안으로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편입 하고 싶어 하면서 금융 자본으로의 활로를 모색하는 수 밖에..

=====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속고 있는 것이야... 지금 세계 추세는 한국 국내 조중동에서 떠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

거기에 한국의 또 다른 시한 폭탄은 자영업 분야다...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OECD 평균 2배 수준인 32%다... OECD 평균인 16%의 두배다...

이게 뭘 말이나 하면 전체 총 취업자 수 가운데 한국은 총 취업자의 32%가 자영업으로만 먹고 산다는 소리다...

그럼 뭘 문제가 생기느냐...

한국 : 일본을 비교해 보면 내수 : 수출 비율이 한국은 3:7... 일본은 8:2다..

즉 일본은 국내내수에 의해 성장률이 나오는 나라고 한국은 수출비중이 높다는것이지...이런 취약한 내수상황에..

자영업자 수는 외국의 두배 수준... 이러니 당연히 구조조정이라는 현상이 나온다..

일반 회사만 구조 조정을 하는게 아니다... 자영업도 구조조정이라는 단계를 있다...

그 제 1차 구조조정이 2004년이였다... 그래서 2004년에 경제 개편이 되었다고 떠든 이유가...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인력 구조 시스템상... 자영업 업계에서 구조조정이 일어 나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 밖에..

그렇게 그때 한 5%가 폐업했다.. 그런데도 그 당시 그 난리가 일어났다..

현재?... 현재 한계 자영업자 비중이 대략 15%에서 18% 정도다...

예상추세 : 현재 한계 자영업자 수가 15%에서 18%가 대략 40만개에서 60만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현재 정부의 비상 대책이 없으면.. 2009년 1/4 분기 내 폐업해야 한다..

지금 간접 가시권에 들어간 준 폐업 대상자수는 대략 25% 정도다.....

원래는 2010년까지 완만하게 정부에서 업종 변경이나 구조조정을 유도해서 충격을 최소화 시킬 생각이였다..

하지만 갑작스럽 환율쇼크와 국내경제와 미국경제의 스태그 플레이션 동반 진입 상황에서....

그 2차 구조조정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원래는 2010년에서 2011년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미 제 2차 구조 조정 시기로 들어 간 걸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영업으로 가계 생계를 이어 가는 각 가정들은 각자 대비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진다...

기억 나는데로 막써 재끼다 보니까.... 짐 정리 해야 하는게 깜박했다..... 나중에 기분 내키면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이어서 쓰겠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앞으로 대비는 불가능하기에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현재를 알아야 대책이라는데 나오니까..

<작성일 2008년 07월 27일>

19. 2008년 한국경제 향후 정세 전망 2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그리고 매번 부정적으로 적어서... 저는 다만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차후 대비책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은 겁니다.

한국 경제는 미래가 밝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분석이 아니라 전망입니다..

=====

97년 IMF 시즌1과 현재 2008년 IMF 시즌 2가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차이점은 시즌 1일때는 대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문제로 기업들이 부도가 난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80% 이하로 대폭 줄어 든 상태에서...

시즌2에서는 이런 대기업들의 줄도산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즌 2가 부각되는 2008년에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 + 환율 환차손 압박 요인의 추가 요인으로 이젠 채무 구조가 약한 중소기업부터 개 작살이 날 거라는 검은 먹구름의 위기의 허리케인이 불기 직전에 한국 경제가 지금 그 가시권으로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건 전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유 : 한국은행 발표 6월 기업 경기 동향을 보면 제조업 업황지수인 BSI=77 (기준:100)..

더 심각한 문제는 제조업 재산성 BSI=68 (기준:100)..

이게 무슨 뜻이냐..

제조업 채산성 지수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사상 최악의 IMF 당시인 98년 최하 바닥 53을 찍은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라는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는 하루살이에 언제 부도로 작살 날지 모르는 가시권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으로써...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자금이 안돌고 있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자금 압박.

거기에 또 다시 옆친데 뺏친격으로 더블 스트라이크를 때리는게...

현재 한국은행에서 거의 8월에 기준금리인상을 시장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는 이 판국에..

8월에 금리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릴 경우...

최대 중소 기업 1/3 정도가 2008년 올해안에 부도.... 2009년 2/4 분기까지 50% 정도가 위험해 집니다.

현재 은행권의 PF 대출 여신 규모가 정부 추산으로 최소 45조에 미분양 물량까지 다 끌어 안고 있는 제2금융권이 위기에 빠져 제1금융권 내 시중 은행들조차 긴장을 타고 있는 자금동맥경화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8월이나 9월중으로 추가 대출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현재 대출금리인상 기준금리인 3개월물 CD 금리가 현재 5.6%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차후 더 오를 예정이라는데....

현재의 심각성이라는건 예전 IMF 시즌 1과는 그 차원이 다른 양상입니다.....

그 이유가 80년대 오일 쇼크를 비롯해서...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기 불황 사이클로 접어들면 건설경기부양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80년대 오일쇼크가 그랬고 97년 그 당시에는 저유가 미국 경제와 세

계 경제는 연 3%를 넘는 세계 경제 활황인 상황에서..

98년 한국 경제가 설사 IMF 체제 였다 한들.... 미국 경제를 지지기반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지금의 상황은 정 반대의 상황에 현재는 PF 부실과 제 1, 2 금융권의 연계 대출로 인해 동반 위협에 노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보통 한국 경제 상황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4%에서 1%가 떨어지면...

전체 고용 인구의 13%에서 15%를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4%입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든..일바를 쓰든...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5%라는걸 여지껏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현재 상황은 골드만이 4.4%를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3.5%까지 보고 현재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3.7% 까지로만 경제성장률이 내려가도... 현재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약 30만명이 감원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의 실직에 따른 6개월 정도의 비상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대비하라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작년 6월달 전년 대비 92%.....

사실상 100%가 폭등 했습니다.... 이걸 곧 바로 물가 폭등을 향후 3개월 이내에 유발 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며 이 수치는 1980년 제 2차 오일 쇼크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게 과연 국제 원자재 가격 때문이겠습니까?... 더 이상 그 이유에 대

해서는 입 아프니까 말 하기도 싫고....

앞으로 하반기에 9월달 경에 추가 물가상승요인 방영분으로 인해 물가가 또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일부 재정 적자를 감수 하고서라도 공공요금을 동결 시켜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고 물가 억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이 쥐.새끼 정부에서는 연내 가스 요금 30%니.. 50%니 떠들면서 인플레이션 심리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게 그 핵심입니다...

이런 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이 그 반사작용으로 시장에서 떠나는 겁니다..

외국애들이 항상 유심히 보는 부분이 경제 성장률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과 그에 따른 리스크 분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그 대책이라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한국 경기 예측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이른바... 저강도 쇼크 라는 겁니다...

98년 IMF 시즌1일때는 고강도 쇼크로 일시적으로 위기가 닥쳐서 그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을 거침으로써 비교적..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단기간 극복 한 겁니다.....

흔히 착각을 하는게

IMF 체제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한국처럼 단 10년만에 이렇게 극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기본이 30년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지금은 더 장기간에 걸친 저장도 쇼크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IMF 는 분명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아니. 올 수가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썰기를 박았는데.

문제는... 과연... IMF 시즌 2에 버금가는 저장도 경제 쇼크를... 최소 3년에서 5년 그 이상 건디어 낼 수가 있냐... 이겁니다...

올 하반기.. 9월이나 10월달에 정부에 비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장도 10년 불황의 쇼크를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그건 중산층 포함 일반 서민들이 대상이죠...

중산층이라고 지금 절대 안전한게 아닙니다... 이런 저장도 쇼크가 3년 이상 지속되면 부동산 가격 변동폭이 최대 35%에서 40% 가까이 5년 안에 조정을 받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산 가치의 폭락은 아무도 장담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지난 10년을 통틀어 가장 중대한 시기라는 겁니다.....

2004년도가 위기의 과대포장의 시기였다면....

지금 2008년도에는 진짜 위기입니다.....

그걸 알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합니다.....

올해 상황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후의 경제 판도가 대대적으로 변할걸로 보고 다들 손가락 빨면서 설마설마 하고 쥐.새.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

할렐루야..... 난 중학교 때 이후로 신에 대한 믿음을 접고 여태까

지 무신론자로 살았지만 이젠 집에 가서 매일 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

현재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자 참고 하시고 신중한 결정 바랍니다...

분석은 이제 더 이상 겁나서 못하겠군요...

각자 딱 보시면 답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밖에 말할수 없는 제 자신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아닌걸 맞다고는 우길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다가 98년에 우리 다 쌍으로 뒷통수를 맞은 거니까요...

=====

정신 순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연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는 회색 도시의 잿빛 유령이 엄습하고 있으니..... ㄸㄸㄸㄸㄸㄸㄸ

집에 대형 해바라기 그림 하나 구해서 걸어 놔습니다...

각자 꽃이나 해바라기 같은 그림 보면서 숨통을 조이는 뇌를 숨 쉬게 해 줄 시기입니다..

컬렉션 몇 개 중 쓸만한거 몇 개 올렸으니... 보고 자연속에 흠뻑 빠져 보시죠...

그리고 앞으로 저장도 쇼크로 또 고통 분담 해 달라는 개소리는 두 번 다시는 안 들었으면 합니다..

이젠 진절 머리가 나니까..

언제 시간내서 저런 대나무 숲을 한 번 찾아 가십시오... 요즘에는 강제로라도 그렇게 스트레스 안 풀면... 혈압으로 죽습니다..

속 터져서..

안 그래도 맨 정신으로 살기 힘든 상황이니까..

<작성일 2008년 07월 27일>

<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 <http://cafe.daum.net/iomine> >

20. 드디어 외환 보유고가 터지는구나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 외환 보유고 문제없다고 말로는 떠들어 대는데....

이제서야... 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 하는구나..

지금 외국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뭘 생각으로 이러는건지...

이제 또 환율 오르겠구나... 에이그... 이 상등신 새끼들..

이게 단 5개월만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미친 쥐새끼... 이제 어쩔래.....

이 등신들은 무조건 문제없다는 개소리만 쳐 하고 있으니.....

아주 원더우먼이야... 원더우먼....ㅈㅈㅈㅈㅈㅈㅈㅈ..

안 그래서 미국 헤지펀드 애새끼들.... 미국 원유 선물 투기 금지법으로 한 방 먹고 녀 다운 직전인데....

싱가폴에서 군침 흘리면서 저격용 라이플 닦고 달려 실탄 준비 중인 게 눈에 안 보이냐?.....

쥐새끼 사냥...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에.. 휴... 이 염병할 나라..

하루도 바람 잘날이 없네 그려....

이제 핵잠수함에서 잠망경 하나 올렸다고 본다... 이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이런 애매한 시기에 이러는 의도가 뭐냐?.....

진짜 미친거 아냐?..... 니들 다 싸그리?..

이 따위니까 재경부 화장실에서 장모 명의로 환투기 해서 몇억씩 쳐 벌였다고 지들끼리 히히덕 거리는게 개소리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는거 아냐..

진짜 돌아 버린다...이 나라....

심지어는 요즘에 재경부 앞에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까지 캐리 트레 이딩 한다지?....

이게 과연... 그냥 개소리로 치부할 만한 얘기들일까?....

니들은 다 내일 당장 공개 청문회에 모조리 다 세워서 만수부터 시작 해서 각목으로 다 쳐 맞아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갈수록 가관이야.....

<작성일 2008년 07월 30일>

21. 하반기 환율=1076원이다...

하반기 환율은 1076원을 기준으로 1070원에서 1080원 사이의 박스권 변동폭을 오갈 것이다..

이유 : 현재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90억 달러에서 -112억 달러까지 내다보는 현 상황...

유가 보조금 문제와 아시아 각국의 인플레이션 및 소비의 제한적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로 인해 아시아 주요국 통화는 -3% 정도의 평가절하 요인이 발생하며 한국은 상반기 물가폭등의 인플레이션 추가 변수요인으로 인해 1070원으로 환율 전망치를 보고 있는 상황..

더구나 현재 인위적인 공개시장개입방식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개입은 현 정부의 자금 여력상 9월.. 그 이상을 넘기기 힘들다... 따라서 4/4분기 내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4/4/ 분기로 접어들 경우 정부에서 쓸수 있는 맥시멈 가용 외환 보유고는 최대 350억 달러선이다..

이 정도 상황에서 무차별 달러 폭탄 알박기는... 사실상 하반기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 8월달 내로는 1017원 선 밑에서 필사적인 방어를 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대세지만... 이것도 한계 상황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3.7%로 관측하고 있으며 이걸 유가 100달러가 깨지더라도 국내 내수 경기 둔화로 이대로 쫓갈 것이다..

이건 4% 성장률이 깨지는 것으로 차후 고용시장 불안 요인에 추가 변수다...

다만..... 중동 변수로 이란-이스라엘 간에 미사일을 쏘는 악재가 터질 경우....

골드만 애들이 말하는 유가 200달러의 경우 ---> 2%...

이 상황만은 오지 않기를... 이제 고사라도 지내야 한다... 무당이라도 불러서...

=====

외국 자본의 한국 시장 이탈 규모

2008년 상반기 = -221억 달러 규모....

이 금액은 2002년 상반기 사상 최고의 외국 자본 유출로 인해 난리가 났던 2002년 상반기 대비 8배가 증가한 수치



주목할 점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 -8억 8천만 달러 규모로.. 1980년 이후 근 3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점에서 현재 예의 주시 하고 있다... 바이 코리아가 아니라... 곧 바이 코리아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규모 해외 IR 같은걸 재경부 차관이나 누가 나서서 직접 해 줘야 할 상황이다...

여기서 지금 상당한 혼란을 느끼고 안 그래도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얼마나 빨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쥐새끼는 비상 대책을 세워서 월 스트리트에 가서 해외IR로 이빨이라도 까야 한다..

안 그럼 방법이 없다..

더 이상 그 염병할 한국 경제 펀더멘탈 타령 따위는 이제 집어 쳐라... 그것도 씨알이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다.....

당장 조치 들어 가야 한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수 차례 그런

경험과 선례가 있다... 참고할 일이다... 다 거덜 내기 싫으면 말이지..

=====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 내부 문제로써 현재 시한폭탄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 중 하나가 공적 보증기금으로써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현재 5개 정도의 올해 공적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액은 -55%가 급증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디폴트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곳도 있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3조 4816억 = -78.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9228억 = -17.5%

신용보증기금=-4367억= -55.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발표미상= 추정손실 -32% 내외 규모로써..

현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가능성으로 긴급 정부 자금 투입이 필요한 레드 라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 5대 공적보증 기금 총액 = 65조로 추가 긴급자금지원이 요구 되는 상황에서 부실 확대가 우려 되고 있다.

=====

거기에 현재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저번달 20일부터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방식이 2개월에서 1년간 채권 발행액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관 신고제가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신고가 끝난 후에 재무지표 변경이나 중요공시가 변경사항이 생기면 발행이 중단될 수가 있다... 그럼 또 재신고 과정을 거친 후에 은행채 발행을 해야 한다...

예상 시나리오 : 이와 같은 일괄 신고제 도입 이후에 자칫 올해는 제도 도입 초입 단계로 은행채로 인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 그로 인해 자칫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조 유동성으로 고려해야 하는건 결국... 예금과 CD...

그로 인해 앞으로 나올 예상 시나리오는 고금리 특판 상품으로 빼기
질을 해서 예금이나 적금을 유치하거나 CD 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
하는 수 밖에 없다..

결과 : 가게,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정된 대출
상환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채도 끊어진다면?... 결론은 예금
과 CD 발행이다..

결국 제도 정착기인 2008년 안에는 그 돌파구로 고금리 은행 상품과
그에 비해 CD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금리의 동반 추가 상승은 어
쩔수가 없다...

대출 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해 각자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역으로 닥치고 현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10
년전과 너무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현재 수익원창출은 캐리 트레이딩과 현금 유동성에 바탕을 둔 금리
투자 상품.... 그 정도?...

그 외에 실물 자산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자산 가치 하락과 대출금리
상승 압박에 따른 유동성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포트폴리
오 조정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디폴트 가능성에 대
비한 비상 현금 유동성 정도는 미리 만들어 놔야지....

안 그러면... 또 당할 수 있다... 눈 뜨고.... 지금 2008년의 상황이라는
건 설마가 아닌 상황이다... 그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야....

=====

지금... 밑바닥에서는 알만한 놈들은 다 모조리 손을 쓰고 있다... 지금
은 말 그대로 닥치고 현금이다... 실물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개미는 초토화 당하고 최후에는 조커가 웃는거지... 더러

운 놈들.. 이 따위로 하면서 또 뼈끼질에 개나 소나 사라고 나서고 있으니... 이제 한심할 뿐이다.

지들은 현금 유동성에 핏발을 세우면서 밖에서는 대 놓고 사라고 조중동에 티비 들이 대고 부채질이니.... 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 살라는 거냐.. 왜?...또 98년처럼 속아 줄까?.... ㄸㄸㄸㄸㄸㄸㄸㄸㄸㄸㄸ

=====

난 정부를 안 믿는다... 신문도 조중동을 안보고 외국 경제지에 일간지를 우선 보고 국내 신문을 본다...

그건 자칫 선입견이 끼어 들수 있기 때문에 눈 버리는 수가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제 정보는 50%가 쥐새끼들 입맛에 맞도록 가공된 정보들이다.....

거기에 또 놀아날 생각은 이제 없다... 각자 살길 찾는거다.....

애국하라는 건 이미 98년에 집에 있는 가보로 물려 준 금딱지까지 모조리 다 국가에 갖다 바치고 나중에 2000년도에 금모으기로 모은 금딱지로 투기 상품에 돈 지.랄 했다는 걸 신문에서 보고 이미 그 때 그나마 남아 있던 알량한 애국심 같은 건 다 국말아 먹은 지 오래다.....

두 번 다시는 이용 안 당한다.....

고통분담하라고 지껄이는 놈들의 특징은 입으로는 고통분담 떠들면서 뒷구멍으로는 그걸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 등꼴 빼 먹는 놈들이라는 사실을 10년전에 철저한 학습 효과로 보고 배웠다...

쥐새끼부터 재산 헌납 하라니까.. 재단 설립 어찌고 개 염병을 떠는걸 보고..이제 눈치 봤지... 재단은 외국에서는 가장 최선의 합법적인 재산 상속 방식이거든... ㄸㄸㄸㄸ..

멍청한 찌찌이.....

<작성일 2008년 08월 01일>

22. 아마게돈 2008년 한국경제- 파산하는 일반가계들..

2008년... 지금 한국의 현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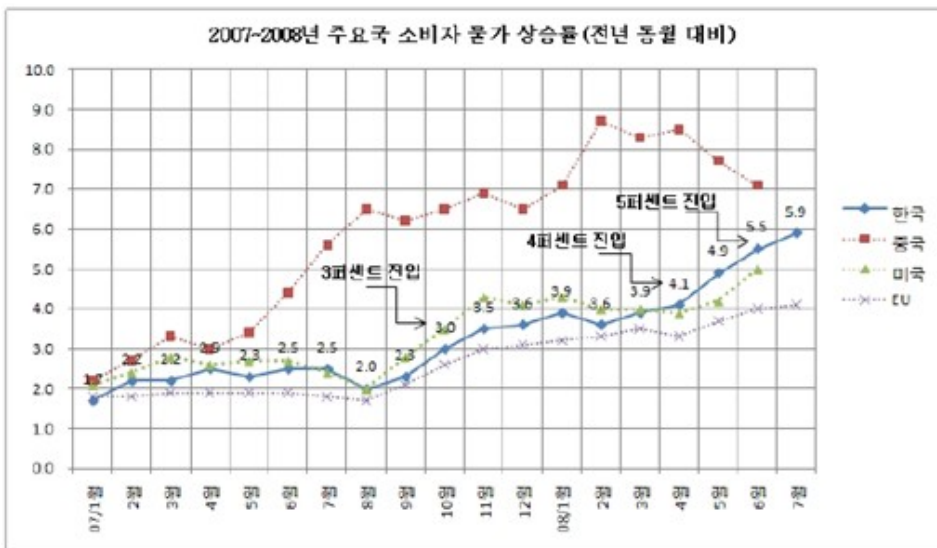
파산으로 몰리는 일반 가계들과 중소기업 + 자영업자들...

7월 소비자 물가가 5.9% 상승 --> 1998년 11월 물가 상승률 6.8% 이후 10년만에 최대치..

생활물가지수(152개 생필품 물가 상승률) --> 전년 대비 7.1%.. 지수 발표 후 사상 최대 수치

=====

세부 분석: 지수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9%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중국은 연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인 상황에서 고성장 상황에서 저 정도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예외로 치더라도 한국은 진짜 특수한 상황이다...

단지 이걸 국제 유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그럼 만수나 명박이 논리대로 국제 유가 타령으로 치자면... 미국, 유럽, 일본 애들은 모조리 다 혀 깨물고 자살 해야지..

한국만큼의 저 정도 타격은 아니라 이 말이지..

=====

소비자 물가 산출 방식=540여개의 주요 공산품 및 농수산물의 가격 통계 산출 방식..

생활 물가 지수 = 약 140여개의 주요 공산품 및 농수산물의 필수 생활품 항목의 통계 산출 방식..

MB 50 지수 = 미국의 맥 지수와 같은 최대 국민 물가 체감 지수..

현실 : 밀가루 값은 작년 대비 100% 상승..

사실상 물가 관리 실패.

밀가루=+ 93.7%/양파=+ 48.8%/김밥=+ 25.5%/닭고기=+ 21%/돼지고기
=+ 20.9%/우유=+ 15.4%/수박=13.6%/짜장면=+ 10.6/포도=+ 62.7%/열
무=+ 31.9%/시금치=+ 24%/베추=+ 10.2%/풋고추=+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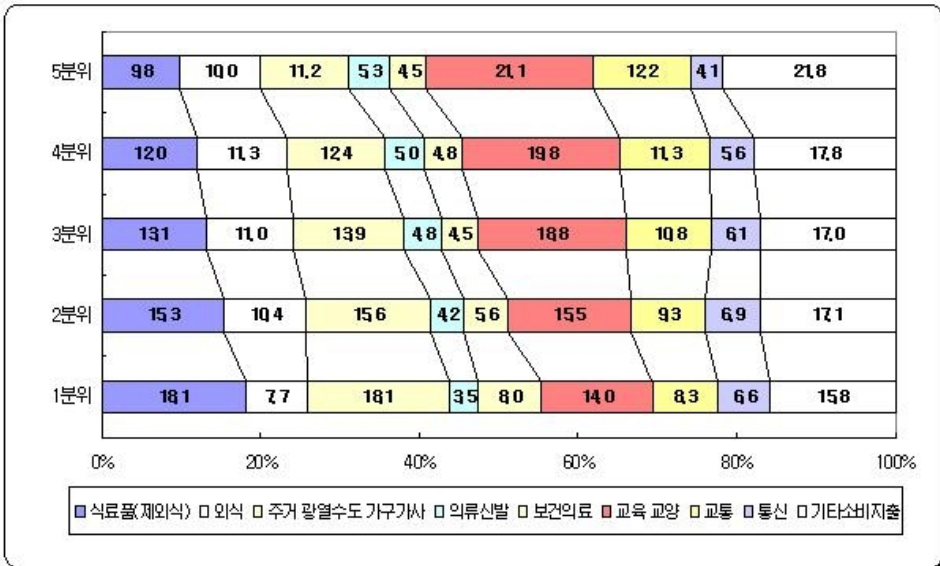
경유=+ 48.9%/LPG=+ 32.8%/휘발류=+ 35.6%/국제 항공료=+ 15.4%

행정 수수료=+ 19.5%/도시가스요금=+ 7.1%(차후 가격 현실화로 추후
30%~기업 : 50%까지 상승 예정)..

이 정도가 더 피부에 와 닿는 현실 물가 수준... 단.. 이 수치는 현재
상반기 7월달까지의 물가 수준..하반기? 아무도 장담 못해....

=====

과급 효과



<월 소득 5분위별 소비 지출 구성비(%), 1분위 = 소득하위20%가계>

현실 : 한국의 2008년 일반 가계 부채 비율 = 640조 5000억..

그 중 가장 타격을 받는 그룹은 하위 20% 저소득 층 = 월 -44만원 적자 가계 운영 + 금리 인상 = 가계 파산..

예측 가계 붕괴수 : 2008년 년내에 대략 65만 가구 정도가 인플레이션 압박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으로 파산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내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현재 측정 예상 전망치 수치가 이렇단 말이다..

이유 : 2008년 1/4 분기와 2/4 분기 가계 지수 동향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가계수 대비 적자 가계 비율 = 31.8%..

즉.. 전체 가구 중 1/3... 3명 중 1명은 빚내서 생활비로 쓴다는 소리..

소득하위20% : 수입 = 86만 9900원 --> 지출 = 121만 5500원.. 월 가처분소득(당장 쓸수 있는돈)이 77만 1200원이라는걸 감안 하면..

<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 <http://cafe.daum.net/iomine> >

결론 = -44만원의 적자 가구..... 이젠 상위 등급으로 올라 갈수록 액수가 늘어난다..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현재

■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
연령대별 구성비 (단위: %)



4.50대 일반 가정들의 개인 파산이 급증 하고 있는 상황...

요인: 과소비가 원인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하는 행복 지출 비용인 식료품비와 광열 수도비의 증가폭이 늘어 남에 따른 압박 요인으로 그에 따른 반사 작용으로 <4월 예금 취급기관 가계 대출 동향>에 따르면 한달동안에만 일반 가계 대출이 +4조 9000억이 증가... 한 마디로 대출 받아서 그걸로 일반 가계생활비로 쓰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

결국 한 마디로 빚내서 생활 하면서 버티고 있는 판국...

■ 3년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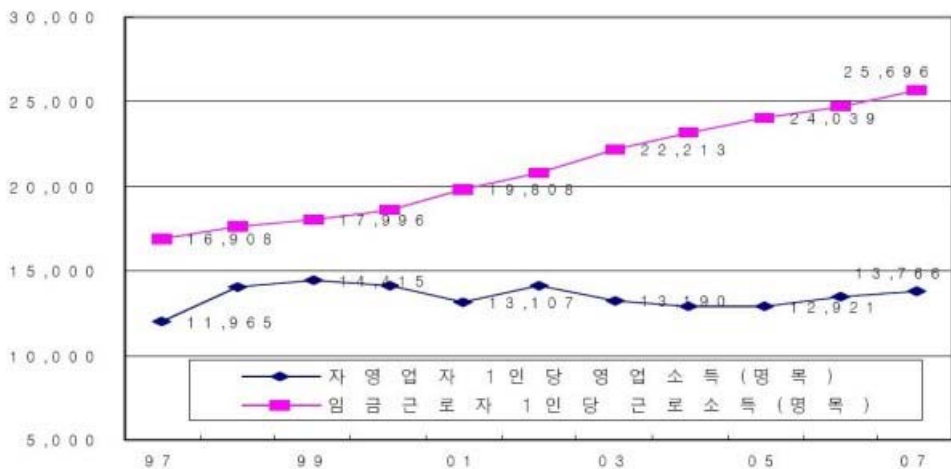
자료: 증권업협회, 한국투자증권

현재 상황은 일반 가계의 소비 여력이... 2003년 당시 카드 대란과 비교해 볼 때도... 최악인 상황..



=====

자영업 시장의 대 붕괴..



<자영업자의 연 평균 소득 비교: 임금 근로자 / 자영업자>

현재 상황: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와 3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대폭 확대..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율= 10% 대..

한국 : 33.6% --> 일본:14.6% ...일본 대비 2배 이상인 수준...
(그리스 : 40.8%이나 이건 관광 산업 국가라는걸 고려시 비교 불가)

한국의 자영업자 구성 분포 = 도소매 음식 숙박업 비율 =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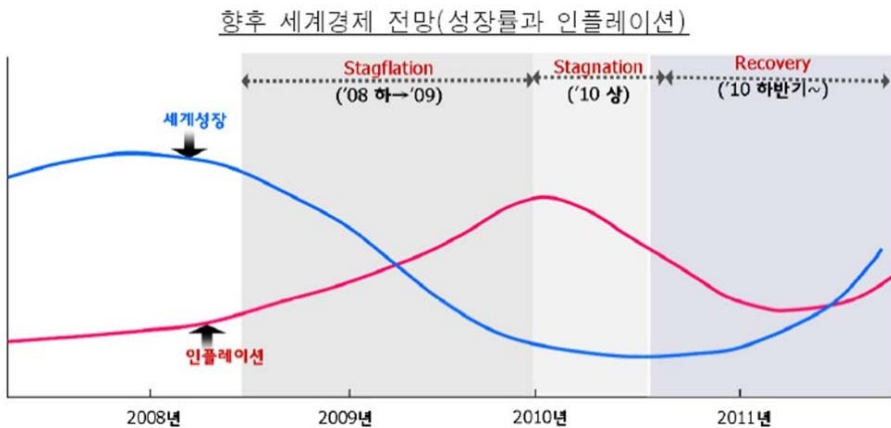
과급 효과 : 유통업체의 대형화에 따른 한계 자영업자의 비율증가와 더불어 현재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8년 올해 안에 최대 20%에서 25%이상 폐업과 휴업조치를 비롯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는 것이 대세.....

결과적으로 제 2차 자영업 구조조정 시기가 2011년에서 국내 인플레이션 폭등으로 2008년 안으로 대폭 시기가 조정 받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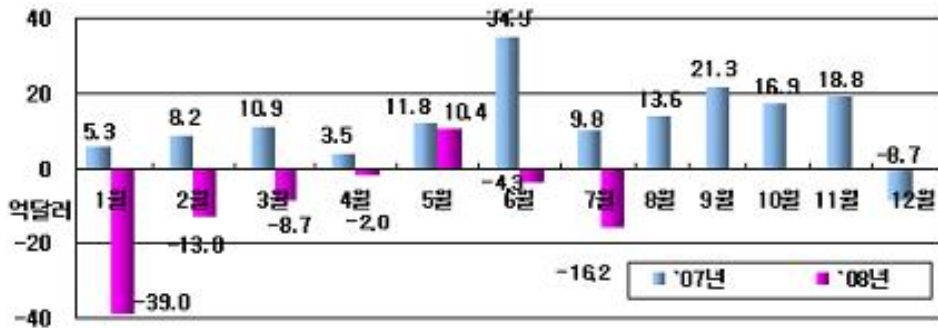
문제는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대책은?.. 없음... 이것이 진짜 핵심적인 문제...

자체적으로 구조 조정이나 업종 전환을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한 체... 한계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파산 상황이 연내 대규모로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사회 불안 야기는?... 우려스럽다..

=====



현재의 글로벌 경기 동향상..... 최대 2012 년까지는 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기 영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물가 관리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하반기 물가 상승 수준은 예측이 불가능 한 상황이다..



전년 대비 올해의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최대 -110억 달러 규모다...

오늘도 외계인 애들이 괜히 들었다고 - 5천억을 팔아 치운게 아냐...

지금이 8월달 이라는게 핵심이라 이거지.....

=====

또 다른 시한폭탄.....

이른바 처분 조건부 대출....

처분 조건부 대출이란?... 2005년 6.30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지역 내의 신규 대출 건수를 한 건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기존의 담보 대출을 받은 주택을 1년 내에 처분 한다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두 건의 복수 대출을 허용....

1년 내에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연체 이자를 최대 20% 이상 때리고 그 후에 강제로 경매나 압류 조치로 강제 처분 되는걸 말하는데...

현재 여기에 제1금융권에 물려 있는 금액이.. 7조 2천억...

결과 : 현재 제 1 금융권 내에서는 2008년 연내에 경매 처분 건수...2만9천 800건... 3조 2천억원의 짱 처리 물량이 나올 걸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사채 까지 손 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현재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대는건... 말 그대로 자살 행위라고 본다...
현재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5억을 까고 급매물이 나와도 잘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저점 시기라고?... 조중동에서 그걸 보고 난 애들하고 커피 마시다가 사례 걸릴 뻔했다... 애들이 그 신문 보고 박장대소에 논스톱 코메디 아니냐고 비웃더군.

그래서 지금은 딱치고 현금이라는 것이다... 괜히 들었다고 헛소리로 현금 보유하라고 한게 아니란 말이지...

정부 대책?... 없지... 없어...

난 얼마 전에 무슨 이걸로 카페인지 모임까지 만들어 저서 2. 3년 기간 연장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럼.. 관련법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고치다가 올해 다 지나간다...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

결론 : 정 부동산에 돈 지르고 싶으면.. 올해 참고 있다가 미국 현지 부동산이나 손대기 바란다.. 얼마 전에 티비 보니까 오픈 하이퍼 애널리스트 메리디스 휘트니가 미국 주택 가격이 -33% 더 폭락 할 거라고 폭탄발언해서 지금 미국에는 난리가 났다..

아마 내년 2/4 분기에 간접투자펀드에 투자해서 꽤찮은 투자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결론은 지금은 무조건 딱치고 현금이다... 다시 한번 이 깨물고 어디 지르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하반기 물가 동향과 경기 사이클에 따라 2012년... 혹은 그 이상 10년 앞의 한국 경제 판도가 달라 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으로도 올해 안에 대규모 일반 가계 파산자가 속출 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뭘 투자 하란 말이나... 지금 니들 장난 하니?...

난 절대로 비관 주의자거나 그 짠 류가 아니다.

난 오로지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보고 이렇다라는 것을 말 할 뿐이다.

왜냐하면 설사 현실이 잔인할 정도로 가시밭길이라도 알아야 대비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미친 한나라당과 양아치 조중동 애들은 흑세무민으로 또 사기 쳐 먹을려고 10년 전과 똑같이 준동 하고 있기에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다...

각자 준비할 시점이다... 올해 겨울을 말이다...

=====

절대로 달콤한 팬 케이크 크림을 바른 정부의 백설 공주식 빼끼질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현실을 알고 개인별로 대비하기 바란다...

백설 공주는... 말 그대로 동화책이다...

지금 현실은 백설 공주의 탈을 쓴 가가멜이 호시탐탐 스머프 애들 스푸 꿔일 국거리를 준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각자 마음 속으로 되짚어 볼 일이다...

가가멜이 유도하는대로 10년 전과 또 똑같이 금붕어 대가리로 휘둘리다가는 결말은... 냄비 속 개구리 신세니까 말이다....

8.9월 달이 그 빼끼질의 절정의 터닝 포인트라고 본다...

+++++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전쟁이다... 경제 전쟁...

여기서 우리는 올 겨울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것이야...

지금 현재 한국 국내 상황은 자산 가치하락이 뻔한 독 사과를 사기
쳐서 일반인들한테 쳐 먹이고.. 그 독사과 먹고 돼지면 그 때 가서 몸
통 가지고 스테이크 만들어 쳐 먹으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정답
이다.

이게 아니라고는... 그 누구도 말 못할 것이야...

이 비열한 쥐.새.끼들...

가만 보면 개 수작질이 진짜 가관이구나...

=====

97년 IMF 당시에 써 먹던 방법이 이른바 ..."집단 최면 효과"....

한 마디로 나뿐만 아니라 옆집 아저씨도.. 건넌집 아줌마도 다 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억울해 할 것 없다는 개 미친 소리로
IMF 라는 상황을 합리화 시키고 집단 최면으로 고통 분담하라는 개소
리를 지껄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지... 중산층 포함 하위 바닥 계층 발로 밟고 그걸 바탕
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이런 자산 가치 폭락이라는 시한폭
탄을 내 돌리는 이 미친 개나리당 쓰레기 놈들 보면서 진짜 이젠 역
겨워서 말이 안 나올 뿐이다..

두 번은 안 당한다... 또 집단 최면 걸려 주랴?...

아니면... 알고서 속아 줄까?...

한 마디로 이젠 조까라고 해... 이젠 맥 빠져서 또 두 번 다시 그 짓거
리 할 여력도 이젠 없어...

진절 머리가 나니까..

이래서 앞장서서 애국 어찌고 부르짖고... 고통 분담에 희생 하라고 떠
들면서 10년 전처럼 집단 최면 효과를 써 먹으려는 것이 얼마나 개개
인 별로.. 극도로 위험스런 일인지...

이젠 각자 깨달아야 한다... 여태까지 그런식으로 당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이 나라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극히 간단한 걸... 나도 최근에야 깨달았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를 말이다...

이제 두 번은 절대... 네버... 없다...

=====

매일매일 수십 건씩 자료들을 보다보면 이제는 진짜 한심하다는 말 밖에는 이제 안 나온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지금 돌아가는 판이 어떤 고스톱판인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황이다...

더구나 실물 경제라는건 대학 경제학 교과서대로 흘러 가는게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최대한 현실에 가까운 현재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당해도 알고 당해야지... 너무 안타까워서 비는 시간에 몇 자 적었다...

각자... 참고 해서 대비하기 바란다...

박격포 포탄이 아군 진영에 무차별로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각자 참호 파고 준비 해서 살 길 찾아야지... 포탄 떨어지는데 총 들고 시한폭탄 끌어안고 가미가재로 최전방 나가라는 미친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뻔히 죽을게 뻔한데... 돌격 앞으로냐?... 그래서 이거야 말로 미친 놈들이라는 것이다..

<작성일 2008년 08월 05일>

23.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이유+ 4가지 파급효과

8월 7일 오전 9시... 드디어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한국은행에서는 중앙은행 고유 권한인 이자율 타겟팅을 실시하는 정책 금리 인상을 발표한다...

쓰는 방식은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금융 자신인 통화 안정화 증권(통안 증권)이나 RP 매각하여 금리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 금리 상승은 은행채나 CD 금리와 같은 금융 기관의 시중 금리 상승을 유발 시키고... 재정차익 거래와 그 기대 실현을 통해 장기 금리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 파급 효과라는 건 4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

1. 환율 : 한국은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다... 일본이나 미국.. 일부 유럽 국가들과 같은 그런 경제 시스템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특성상 환율 효과로 인한 경상 수지 파급 경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표시 예금이 다른 외화 표시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원화 가치 상승은 달러로 표시한 국내 생산물(수출품)이 해외 생산물(수입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서 경상 수지 적자를 확대 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특히 원화 가치 상승은 원자재 수입 가격을 직접적으로 하락 시켜 직접적인 물가 하락 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2006년.. 2007년에 걸친 원자재 대란으로 수입 물가가 130%가 넘게 폭등하는 동안 국내 물가가 그 정도로 안정화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부의 저환율 정책으로 인한 국내 물가의 상승폭을 최소한 억제시킨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던 것이다...

얼마전 100분 토론에 나온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930원대의 환율이 비정상적이라고 했으나... 실상.. 국내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만약 환율이 930원대의 저환율이 아니었다면.. 지금 농담이 아니라 라면 한 봉지에 원자재 가격 방영분으로 2150원을 주고 한 봉지를 사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

2. 자산 가격 효과 : 통화 정책이 자산 가격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 = 토빈의 Q (기업의 시장 가치/자본 대체 비용)의 이론으로 설명이 된다..

즉 이 토빈의 Q가 올라가면 = 기업의 시장 가치가 자본을 새로 대체하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지기 때문에... 주식 발행이나 차입을 통한 신규 투자의 증가로 투자 지출이 확대 된다..

반대로 Q가 낮아지면 = 다른 기업을 저렴하게 M&A 하거나 기존의 설비 투자를 인수해서 투자 지출이 감소 한다..

결국 금리 인상에 따른 중앙은행의 통화량 축소는 개인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실질 현금 잔고의 감소를 유발한다...

이때 개인들은 이런 개인 실질 잔고를 유지하고자... 개개인이 이런걸 인식을 하든 안하든간에... 다른 금융 자산인 주식 투자의 비중을 줄여 결국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

케인즈 주의에 따르면 중앙 은행의 금리 인상 --> 주식투자에 비해 채권과 정기 예금의 수익률 증가 --> 긴축 재정에 따른 경기 침체 신호 --> 주가 하락 --> Q 값 하락 초래 --> 투자 지출 감소 --> 생산량 감소 로 이어진다....

결국 이런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과 투자 하락..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이른바 과열 경기 양상일 때 쓰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주식 시장의 투자 지출 감소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리 인상은 은행의 자금 조달원인 CD 와 회사채 금리의 동반 상승을 유발시킨다.. 이것은 이자율 상승과 부동산 구입 비용과 투자 메리트를 떨어뜨린다...

결국 거시적으로 볼 때 부동산 수요 감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은 건설 투자의 축소로 이어진다..

결국 금융 자산의 주요 구성 요소인 주식 가격 하락은 금융 자산의 가치 하락을 유발하고 소비 또한 감소한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하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난 상관없다고?.. 천만에... 현재 한국 국내에 주식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제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간다....

당장은 상관없더라도... 이게 소비 실물 경기로 직간접적으로 나 또한 타격을 받는다.. 지금 현재 밀레니엄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른바 거미줄 경제 체제.. 그 누구도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이건 10년 전과 비교해 봐도 극과 극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

3. 신용: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주식,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대출의 자산 담보 가치의 하락을 초래한다...

그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 리스크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 기관의 재무 포지션이 하락하고 대출자 프리미엄이라느게 올라간다..

한 마디로 실물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의 필요성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프리미엄을 매꾸기 위해서 주로 기업의 금융 포지션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온다..

대기업의 경우당기 순이익들과 같은 내부 유보 자금에 주로 의존하는 대기업은 프리미엄이 낮게 부과되지만..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 금융권의 대출에 절대 의존하는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프리미엄은 대폭 올라간다..

이것은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하락은 결국 지급 불능의 위험을 상승시키게 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현금 흐름(cash flow) 압박과 자산 가격 하락을 통해서 대출... 즉 투자와 수요 감소를 유발 시킨다..

특히 은행 대출을 통해 부동산등 자산을 무리하게 구입한 가계의 경우는 자산 가격 하락과 현금 흐름 압박으로 가계 파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현금 압박을 통해 가계 파산과 강제 자산 매각을 유발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들은 이런 현금 압박에 대비해서 일반 가계는 유동성 측면에서 화폐와 예금을 비롯한 유동 자산의 비중을 확대 하고 부동산 등의 비유동성 자산과 지출을 축소한다..

그래서 닥치고 현금이라는 것이다... 괜히 돌았다고 지금은 현금부터 긁어모으고 대비 단단히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

4. 금리 : 이걸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단기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을 비롯한 장기 금리가 따라서 상승한다... 그 결과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 결과 고정투자나 건설 투자등의 투자 지출은 감소하고 생산량 하락을 가져온다..

이것은 일반 개인 가구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자율 상승과 현금 압박에 따른 소비재 지출과 주택 투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더 이상 이걸 거론할 가치가 없다..

이상 이 정도가 금리 인상에 따른 4가지 파급 효과 측면에서의 매커니즘 효과라는 것이다..

=====

원래 금리 인상은 과열 경기일 때 경기 안정과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핵심적인 문제는 외국의 경우처럼 수입 원자재 가격의 폭등 요인으로 인한 것만 개입이 된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인 환율의 조작 원인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시장 왜곡 효과로 인해서

금리 인상애 따른 물가 완화 효과 < 실물 경제의 침체 효과...

와 같은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역전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원자재 가격 폭등이나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비용충격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의 이상 인플레이션 상황이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고성장 국가 몇 개를 제외한.. 아니... 심지어는 그런 국가들까지 복합적인 추가 변수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용충격 인플레 효과다.

이런 경우 금리 인상은 총수요 억제를 통해서 경기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가져 온다... 결국 의도한 물가 안정 효과는 별로 없게 된다..

그래서 버냉키가 이 부분을 가장 고려해서 사방에서 금리 올리라고 떠드는데도 감히...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자체 동결시킨 이유가 이것이다..

즉... 금리를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올려도.. 약발이 안 먹힐 거라는걸 본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건 기존 케인즈 경제학에나 나오는 경기 과열 상황에서 금리로 때려 박아 물가를 잡는 방식에나 먹히는 것이지..

현재와 같은 비용충격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넌센스다..

결국 지금 물가 상승이 외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충격 인플레이션에 과도한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에 따른 왜곡 현상에 기인한 이상..

여기에 금리 인상은... 자살 행위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파급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원가인상요인을 막기 위해서 우선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공공요금이 인상 되면 그 인상분만큼 추가로 물가에 + 알파로 섰 방영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때려 잡고자 하는 의도는 모조리 깡통 되기 십상이다..

결국.. 그게 누구 좋은일 시켜 주는 거냐?.....

그 결과 일반 가게 파산만 폭발적으로 늘어 나는거야..

그래서 공공요금 동결하고 금리를 동결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거고...

이 나라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

애시 당초 금리를 올릴려고 했으면 애시당초 4월달에 올렸어야 한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지금은 금리가 아니라 다른 보조 수단을 활용하는 수 밖에..

이제 금리를 올리려면 유가가 150 달러라도 넘지 않는 한... 말 그대로 그런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금리로 물가를 때려 잡는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일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지 오래다...

이미 금리로 손을 쓰기는 늦었다...

내일 금리 올리는거 봐서... 각자 비상 대비책 세워라...

안 그러면 가게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지금 올해가 농담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올해 돌아가는 것 봐서... 대규모 해외 탈출 러쉬도 이어질 걸로 보인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98년과...2008년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98년은 말 그대로 세계 경기 호황과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팽창하던.. 유동성이 넘치고 미국 경제가 받쳐 주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8년의 현재 상황은 정 반대의 양상이라는 것이고...

이미 미국 경제 자체가 긴축 조짐인 상황 속에서 지금은 10년 전처럼 단순히 금 모으기 따위로 쏘부를 보고 말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8년 당시 국제 금값을 - 25% 가까이 단 번에 떨어뜨릴 정도의 막대한 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또 다시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라면.....

<작성일 2008년 08월 07일>

24. 2012 프로젝트= 강만수의 최종 목표.....

뉴 라이트 포라이들의 최종 목표가 뭔지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 주는건 없을 것이다...

이러고도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욕한다고 손가락질 하면 진짜 대단한 애국자라고 인정해 주마..

한국경제

2008년 08월 04일
34면 (오피니언)

다산칼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원학



다시 고환율정책을 말하는 까닭

1996년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적자는 23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후후무한 최대의 적자 기록으로서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2%수준에 달했다. 경상수지적자가 GDP 대비 5%에 이르는 것을 위험수준으로 보는 IMF의 기준에 비추어도 긴장할 만했고 당연히 원화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늘리고 수입과 관광 서비스 지출을 줄일 만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환율조정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10년만에 경상적자 예상-경제 빨간불

오히려 물가안정을 이유로 환율을 무리하게 방어해온 우리와 외환보유고가 자주 떨어졌고 환율은 심지어 선물환시장까지 개입해 환율방어를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그 때 여름 기아 부도사태가 터지면서 한달만 결과가 이어졌다.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12월에 환율은 달러당 2000원 근처까지 치솟았다.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환율방어에 급급했던 당국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환율이 상승하자 1998년 경상수지는 무려 40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1999년 말 신용평가사들은 투기등급까지 내렸

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다시 투자등급으로 올려주었다. 외환위기는 이렇게 경상수지 악화에서 시작돼 경상수지 개선을 통해 극복된 것이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998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인 해가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는 우리경제에 경상수지 적자가 예고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2500억 달러에 이르는데 무슨 걱정야 하는 지책도 있지만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여유가 있다는 지적과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교차한다.

게다가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도 신경써야 할 주제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전형적인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금리상승과 관련해 걱정해야 할 것은 23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금리 상승이 담보대출의 미자상환부담을 늘리면서 이미 취약한 부동산 시장을 경타하면 부동산과 주식의 동반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경상수지 방어까지 실패한다면 경제는 엉망이 된다. 최근 중국이 위안화 절상기조를 수렴하면서 물가만이 아닌 수출증대에 나선 것도 주목해야 한다.

1997년 위기 당시 미국은 IMF를 통해 달러를 지원하고 외환제 방위를 도와주었으며 저금리를 통해 수지흑자를 간접 지원해 우리 경제에 난 불을 꺼주는 소방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서브

프라임으로 인해 소방서에 불이 난 상태다. 따라서 만일 이 상황에서 우리경제에 외환부족현상이나 달러자금 경색이 오면 이는 말 그대로 대형사고다. 선뜻 나서서 불을 꺼 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가고통 알지만 수출확대만이 살길

이렇게 보면 최근 정부가 수지방어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실행한 것을 놓고 서민을 도의시켰다는 통 수출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등 하며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까지 하다. 물가상승이 고통스럽기는 하나 외환위기가 금융위기의 고통에 견줄 바는 아니다. 위기가 오면 서민과 자영업자부터 무너진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방어를 통해 위기가능성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서민경제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수출은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벌어다 외환시장에 내다파는 달러는 최근 달러자금 경색 국면에서 우리 경제에 기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위기방어를 위해서는 이들 수출기업이 달러를 더 벌어들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미끼미리 홍보해야 한다. 물가안정만 내세우면서 무리한 환율방어를 하다가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1998년의 기억을 잘 더듬고 경향이 정해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세종경제연구소 차명

(25.5×18.43cm)

진짜... 대단하시군요... 10년만에 다 말아 쳐 먹고도 아직도 성이 안 찼단 말인가?...

고통은 알지만... 오직 수출이다?....

"리니지 로그인은 했지만 게임은 안했다.."

한 마디로 미쳤군....

이 뉴 라이트 포라이들은 대가리에 든 사상이 의심스럽군... 이젠..

=====

원래 지금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를 쓸려면 선제 카드로 공공요금 전면 동결이라는 걸 일단 먼저 시행해야 한다..

안 그러고 지금 8월달에 금리를 동결 하고 공공요금을 미친. 년 널뛰기 하듯이 찢끔찢끔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더니... 원자재 인상분 반영 어찌고 개소리를 떠들기는 떠드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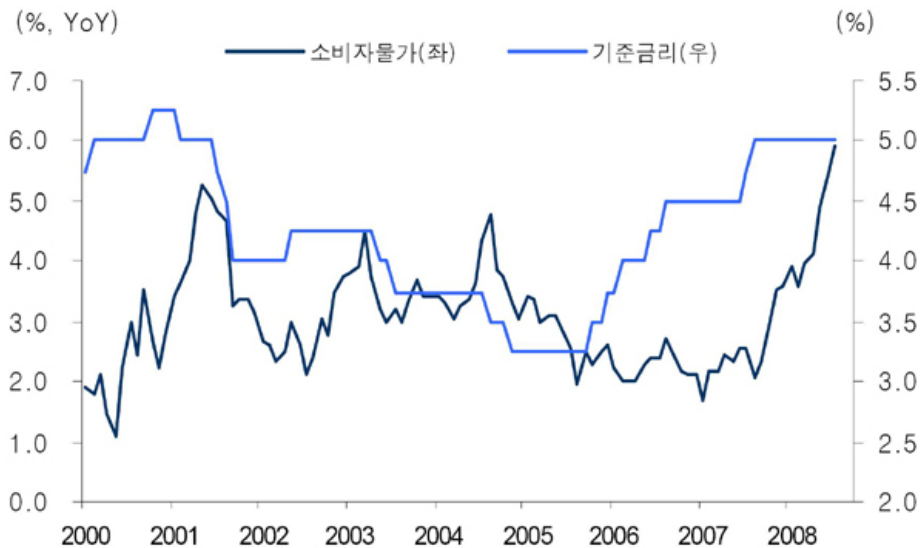
그래 가지고는 약발이 전혀 안 먹히고 내년 봄에는 물가로 전 국토가 다 초토화 되고 말 것이야.....

2009년 예상 시나리오는 개별 기업이나 외국계나 다 가지고 있지..

이 애들이 그냥 무작정 하는게 아냐..

이 상태로는 레벨 6야.....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이 나라는..



금리 동결= 공공 요금 동결이 선행 되어야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꺾

이면서 물가 통제가 되는거야..

이 나란... 진짜 뭘 생각으로 이 따위인지.. 이젠 알수가 없구나.. ㅈㅈ

난 진짜 이런 상등신들은 처음 본다... 이젠 무슨 카드깡으로 돌려 막기 하는것도 아니고..... 뻔히 그림 나오는데 이젠 가관이겠네... 시티 애들은 지금 금리 올릴 거라고 돈 땡기고 준비 하고 있는데...

미친 또라이 놈들....ㅈㅈㅈㅈㅈㅈ

2009년 1월달에 어떤 사태가 벌어 질지...지금 너무 뻔히 보이는구나..

오늘도 외계인 애들 빼끼질에 여념이 없던데... 이젠 무슨 논스톱 시트콤 코메디를 보는 것도 아니고... ㅈㅈㅈㅈㅈㅈㅈㅈ

=====

주요국 기준금리 조정 내용

	6월	7월	8월
유로 지역(ECB)		인상	동결 유력
미국	동결		동결
일본		동결	동결 유력
영국			동결 유력
노르웨이	인상		동결 유력
덴마크	인상	인상	동결 유력
아이슬란드		동결	동결 유력
터키	인상	인상	인상 유력
러시아	인상	인상	인상 유력
브라질	인상	인상	인상 유력
인도	인상	인상	인상
스위스			동결 유력

※8월 금리 전망은 JP모건 등 해외 투자기관

〈자료:각국 중앙은행〉

그래... 좋다 이거야... 금리?... 동결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금리 동결 한다면 공공요금 인상 한다는 개소리 쳐 지껓으면서 양동 작전을 쓴 병신 같은 나라는...

이 나라 뿐이다...

지금은 각 나라마다 정부 재정 적자 폭 내에서 공공요금 인상분을 흡수 하면서 금리 동결 하고 시중 인플레이션 때려 막는 전술을 쓰지..

ㅈㅈㅈㅈㅈㅈ

이 따위로 하니까 외국 애들이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거야..

도대체가 이해를 못할 나라라 이거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외계인 애들이 이해가 가면... 그게 비정상 아니겠냐?...

진짜.....난 지금 이 현실을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무식도 이런 상 등신 같은 나라는 처음 본다... 아주..

한 마디로 이젠 승질 나서 못해먹겠다... 이 엄병할 나라..

=====

안 그래도 개 막장인 경기.. 그마저도 폭삭 주저앉는다고 지금 금리 동결 어찌고 말 나올 때면.... 당연히 공공요금 인상 동결 한다면서 동시에 때려야지...

그게 약발이 먹히지...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아냐?... 판 거 다 재쳐 두고?..

아니 우리 동네 개새끼들도 국제 원자재 가격 오른 것 다 아는데... 그거 반영한다고 설레바리 치면서 물가 억제 지껄이고 금리 동결해서 물가 잡는다?

이거야 말로 미친거야... 진짜...

양날의 검이야... 이젠..

좀 있으면 진짜 가관이겠네... 또 뭘 짓거리로 쇼를 보여 줄지..

=====

아니..진짜 초딩 대가리로 한 번 생각 좀 해 보자..

그래... 금리... 약간 올린 다고 쳐... 그럼... 정부 공공요금 동결부터 한다고 일단 발 벗고 나서야 그 시그널이 시장에 입력 되서..

이젠 물가에 손대기 시작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심지어는 양키 애들도 이게 뭘 놈의 포커판인지 지들도 모르겠다는 판국이면... 말 다한 것 아니냐?...

최소한 양심이라는게 있어야지...양심...

니들... 지금 일부러 이러는거 아냐?... 도저히 그걸로 밖에는 안 보여.. 지금 하는 짓거리들은...

나도 일본 애들 채수 없지만... 어쩔 그렇게 일본 애들이 하는 거하고 ...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한 마디로 딱 보면 아마추어 vs 프로 수준이야... 진짜..

정말 무식하면 어디 대학 가서 장관 좀 스카우트 해 와라.. 정말... 이젠 진짜 짜증나서 못해 먹겠다..

이렇게 부탁 한다.. 진짜..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다 짜증나서 이 나라 국민 못해 먹겠다고 나자빠지고 있다....

안 그래도 사람 잡는 더위 아니냐?..

<작성일 2008년 08월 07일>

25. 이제 곧 9월이구나.....

이제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는구나.....

제발 이 날은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누가 9월을 괴담이라고 떠들었던 말이냐.....

월스트리트 양키 애들이 그 비싼 연봉 쳐 받고 할 일이 없어서 괴담 만들어 냈냐?...

=====

대전에 지역 중소기업 모임이랍시고 가 봤더니...

이건 장난이 아니네.....

이제.... 충남... 대전을 중심으로 8, 9월에 대대적으로 작살이 나겠구나...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게.....

현재 충남권 소재 기업들 중에 부도 가시권에 들어간 회사들이 대략 1/3 정도 수준...

진짜 IMF 가 아니라 이제는 제 2차 오일 쇼크 애기 꺼내면서 그 때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할 말이 안 나오더군..

서로 마이크 잡고 나와서 자금난이 가장 큰 문제라며 비상 대책 어찌고 하는데..

훗... 이젠 기가 막힐 뿐이다...

웃음 밖에 안 나오는 나라다..

한국에서는 고용 90%를 중소기업이 책임 지고 있는데.....

키코 사기극에....원자재 폭등으로 용단 폭격 맞고.....거기에 제 1 금융권은 이미 손 털고.. 제 2 금융권은 자금줄 막히고...

진짜.....개판이네.....개판.....

으이그.....속 터져.....

Most Expensive Countries to Live in	
Rank	Country
1	Japan
2	South Korea
3	Russia
4	Taiwan
5	Norway
6	Hong Kong
7	Switzerland
8	Denmark
9	Argentina
10	China
11	Finland
12	Cote d'Ivoire
13	United States
14	Sweden
15	Venezuela
16	United Kingdom
17	Singapore
18	Oman
19	Jordan
20	Kuwait

기대 인플레이션 <단위: %>	
2008년 1월 31일	2.14
2월 28일	2.55
3월 31일	2.67
4월 30일	2.71
5월 31일	2.99
6월 30일	3.12
7월 31일	3.2

* 기대인플레이션=영국국채수익률-물가연동국채수익률, 10년 만기 채권 기준 < 자료: 한국은행, 채권정보센터, 삼성증권 >

경기선행지수 <단위: %>	
2008년 1월	5.7
2월	4.3
3월	3.2
4월	2.8
5월	2.3
6월	1.2

*연년 동율비 < 자료: 통계청 >

변동 주택대출금리(8월 둘째 주초)

국민은행	年6.66~7.94%
신한은행	年6.48~8.08%
우리은행	年6.58~7.88%
하나은행	年6.99~7.69%

이 미친 나라... 이젠 정부에서 돈 줄 틀어 막으라고 은행권에 콜 싸인 보내면... 다 뒤흔쳐 버리라.. 이거냐?..

이건 소비자 물가고... 생필품 물가 수준은... 이제 아시아... 베스트 NO.1...

이 따위로 하면서 아직도 한국 경제 펜더멘탈이 어찌고 하는 놈들은 다 죽어 버려라.. 진짜.... 대만이 한국보다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두 배는 더 잘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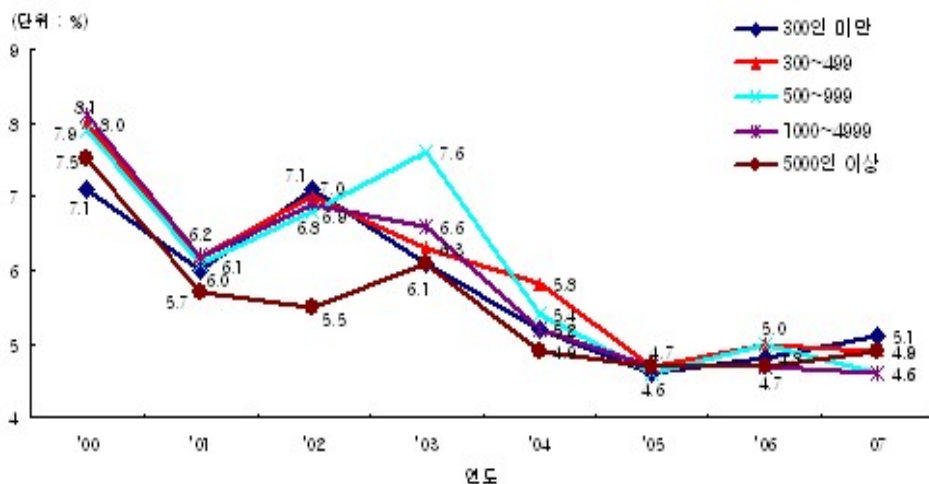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대비로... 이게 사람 사는 나라냐?.. 안 그래도 물가폭등에...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수직상승.....

당장에 비상 대책 안 세우면... 이제 한국은 나는 전설이다... 그 꼬라지 난다.. 진짜.. 이제 장난이 아니다.....

한계 자영업자.. 한계 중소기업... 흘러 넘치고... 가게 대출 이자율... 또 끌어 올릴 예전이다... 아주 개 작살을 내는구나.....

이젠 진절 머리가 난다.....

< 연도별 규모별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



이런 상황에서 정부 개.새끼들은 임금인상 동결하라는 개소리에...

물가는 아시아 NO.1의 살인적인 생활물가.....

■ 5대 시중은행 상반기 실적 핵심지표 비교

(단위: 억원, %, ()는 증감률)

	국 민	우 리	신 한	하 나	외 환
순이익	15,800 (↑ 77.5%)	8,485 (↑ 12.4)	9,484 (↑ 18.7)	5,580 (↑ 19.7)	9,284 (↑ 43.7)
대손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	21,764 (↑ 1.6%)	13,150 (↑ 6.4)	11,823 (↓ 2.9)	7,483 (↑ 46.2)	12,854 (↑ 75.1)
총자산	2,100,000 (↑ 6.9%)	1,620,000 (↑ 15.7)	1,726,000 (↑ 5.7)	1,180,000 (↑ 14.5)	764,000 (↑ 5.0)
총자산이익률	1.71 (↑ 0.47%p)	1.3 (↑ 0.06)	1.32 (↑ 0.23)	1.22 (↑ 0.17)	2.84 (↓ 0.21)
자기자본이익률	23.52 (↑ 3.17%p)	16.5 (↓ 0.3)	22.65 (↑ 1.93)	17.77 (↑ 1.06)	31.00 (↓ 12.97)
고정비하여신비율	1.39 (↓ 0.31%p)	0.9 (↓ 0.03)	1.09 (↑ 0.04)	0.74 (↓ 0.24)	0.65 (↓ 0.25)
대출연체율	1.29 (↓ 0.41%p)	1.04 (↓ 0.34)	1.01 (↓ 0.09)	0.73 (↓ 0.16)	0.75 (↓ 0.18)

※순이익과 총전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나머지는 전년말 대비 증감

은행은 엄청난 분기별 흑자로 채워 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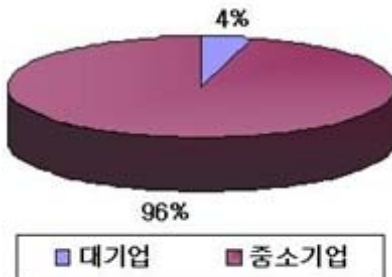
● 수출기업의 키코 손익 현황

(단위: 억달러, 개, 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잔액	총 손실	환차익	총 손익
중소기업	480 (68)	75 (31)	-11.387 (-4.016)	24.656 (1483)	13.269 (-2533)
대기업	39 (3)	26 (9)	-3.394 (-951)	12.075 (872)	8.681 (-79)
합계	519 (71)	101 (40)	-14.781 (-4.967)	36.731 (2,355)	21.950 (2612)

※자료: 금융감독원, 2008년 6월말 현재

키코 오버헤지 업체수



중소 기업 피 빨아 먹으면서 일반 기업들은 돈 가뭄에.....

올해 내에 30%가 부도 가시권.....

=====

이러고도 애국심 가지고 살라면... 난 그게 미친 놈이라고 본다... 진짜 이제 화딱지 나서 이 나라 국민 못해 먹겠다... 무능도 이런 상 등신은 처음 본다.....

=====

도대체... 쥐새끼가 저지르는 정책 실패 리스크를 우리 보고 얼마나 나눠지면서 고통 분담 해 달라는 거냐.. 그 미친 대기업 프랜들리 소리.. 한 번만 더 쳐 하면 입을 확 찢어 버린다..진짜..

정말 이제 이 나라 염증만 난다.. 여러 군데 돌아보니까... 통계고 나발이고 간에 분석할 필요도 없어...

일단 8월이나 9월경에 충청 중부권을 중심으로 전라권 휩쓸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타격 입히는거지...

경상도 쪽은 수출 기업이 몰려 있어서 좀 더 견딜 수 있겠다지만... 내수 경기 냉각 되면..

하청 업체 작살나는게...그 동네라고 피해 가겠냐..

=====

도미노 피자 꼬라지 내기 싫으면.... 일단 긴급 자금으로 대전이나 중부 경제권부터 때려 막아라...

지금 미국 일반 가게 신용 부실 때려 막는데 미국에서 최소 2조 달러라고 블룸버그에서 떠들어 대더라.

한국이라고 무풍지대가 아냐..

그런 개 착각은 쌍팔년도에나 하던 생각이란 말이지....

지금 현장 상황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

장난이 아니라 오늘 내일 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냐...

=====

지금 외국 애들이 자금 빼는 이유는 위기 대처 능력이 의심스럽기 때문이야.....

외국 애들은 사무실 모니터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상황은 속에서 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꼬라지... 더 이상 그걸로
밖에는 안 보인다...

흑자 도산하는 멸절한 회사들... 지금 수 백개가 몰리고 있다... 금강원
이 개 쓰레기들하고 강만수..한승수...

이제는 을사오적 이완용이 보다... 니들이 더 재수 없어... 이 개 쓰레
기들아... 747 만들기 쉽지....

물가로 전 국민 절반 이상 때려잡으면.....인구 감소로 747 되니까 말
이지...?...똥...

오늘도 양키 애들은 무차별로 한국 ATM 기계에서 돈 빼는 구나..짜짜
짜짜짜..

=====

어느 외국인 애가 그러더군... 한국 경제라는 것은 1000명의 희생 위
에 1명이 사는 구조라고... 웬 미친놈이 술 쳐 마시고 헛소리 하냐고
2006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냐...

맞는 말 같애...너무 소름이 끼쳐...

<2008년 08월 12일>

26. 달러전쟁 = 과연 1100원의 저주의 시작인가.....

지금 말은 안하지만... 다들 하반기에는 1 달러 = 1100원까지 내다보면서 수출 기업들 조차도 시장에 수출해서 번 달러를 안 풀고 있다...

거기에 글로벌 경제상... 한국의 1달러=1100원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현실화가 되고 있다...

=====

1. 달러화강세 : 본래 달러 약세는 미국의 IT 버블의 붕괴에 따른 미국 경기 하락을 막고자, 그린스펀 FRB 의장이 인위적으로 연방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한 파생 결과물 = 서브 프라임 사태 + 원자재 가격/유가 폭등이다..

그래서 2001년 1월=6.5% --> 2008년 7월=2% 까지 폭락하게 된 것이다...

보통 한국의 원화는 달러와 엔화의 균형점에서 그 변동폭이 조절이 되는데...

계산상 2001년 1달러=1326.1원 --> 2007년=900원으로 보면 -420원이 떨어진 것이다..

이 상태에서 엔화 약세로 인한 원/엔화 균형선이 1030원대다.. 30% 되감기(Rewinding)상 현재 환율이 1030원이다..

되감기 수준이..

20%=980원 / 30%=1030원 / 40%=1070원/ 50%=1130원이 된다..

거기에 시장 수급 불안 리스크가 + 되면 3/4 분기=1050원을 넘어서 4/4/ 분기 = 1070원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다들 예상 환율을 1070원에서 해외 수급 차질시 1100원 이상까지 내다 보고 지금 물 밀 작업을 하고.. 이른바 지금 밖에 나가면 하는말이...

IMF 이후 제 2차 환테크의 시간이 왔다고 다들 떠들고 있는 것이다..

2. 9월 물량을 2조 팔아서 9월에 6조 + 10월에 2조 = 8조로 80억에서 100억 달러 사이가 된다...

하지만 현재 민간 은행들의 시중 창구에서는 해외 차입을 통해서 달러를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그 이유는 미국의 통화량 팽창 시대의 마감에 따른 통화량 흡수로 추세가 대 반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만 추정 부실이 - 1조 달러인 상황에서 조지 소르스까지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을 떠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이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핫 머니 자금이 추정치로만 6500억 달러에서 8000억 달러인데 지속적으로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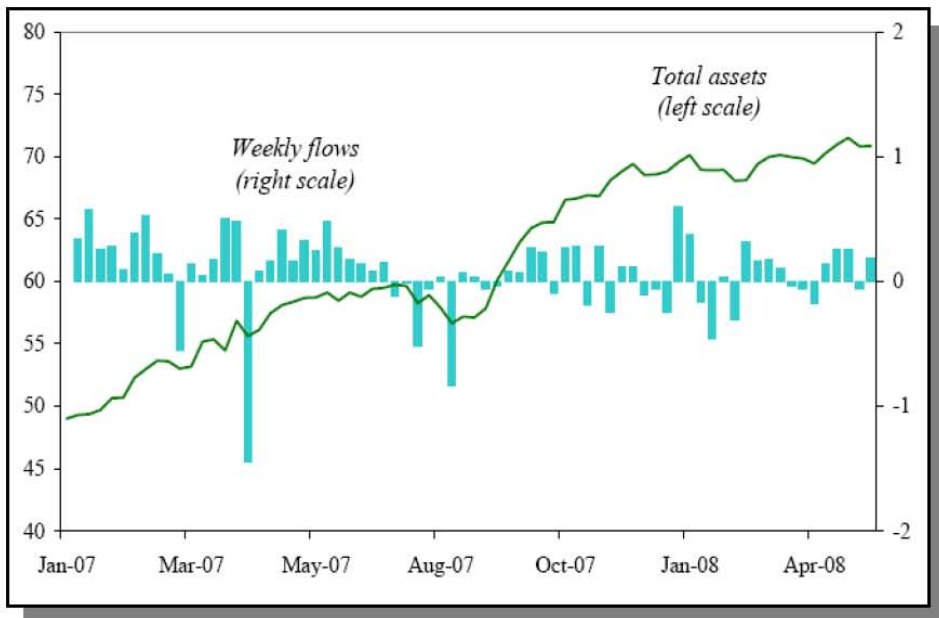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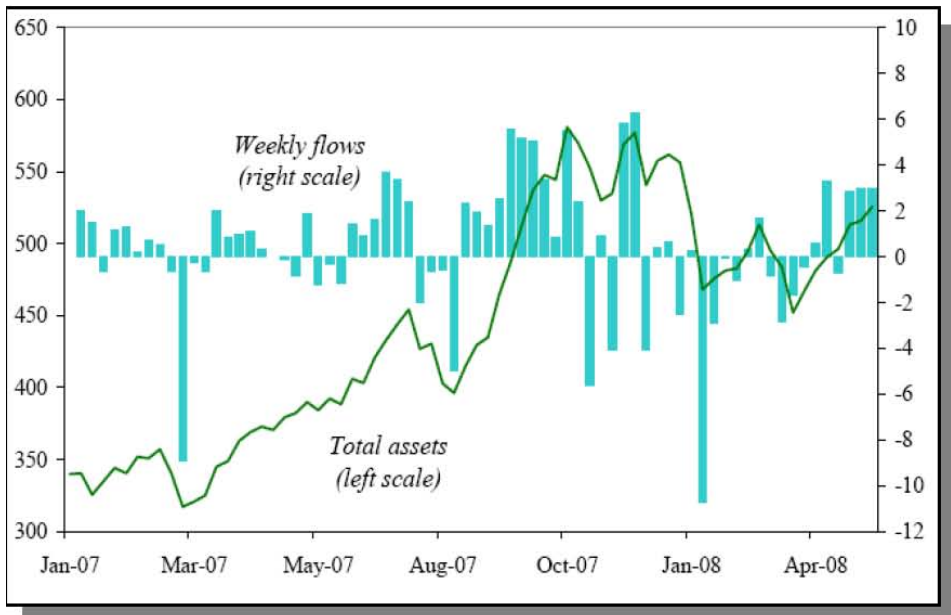
한국상황: 7월말까지 외국인 주식 매도 금액=23조 9540억...

채권시장: 6월= -1조 3천억..... 7월= -3조 인 상황에서 현재 8월초 잠깐 매입세로 돌아섰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건.....

한 마디로 코메디에 불과한 일이다..

신흥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로 편중이 된 상황이며 한국과 대만과 같은 마켓에서는 자금이 국내 경제 성장률 동향에 따라 더 까다롭게 자금 이동이 되고 있는상황이다...

더 이상 2003년과 같은 무조건적인 자금 유입의 매리트가 사라지고 있는상황에서....현재 달러 자금난에 정부는 계속 적색 신호만 보내고 있다.....



(신흥국 주식 채권의 투자 펀드 유입상황)

<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 <http://cafe.daum.net/iomine> >

3. 10년만에 최악의 자본수지 적자로 마이너스로 돌아 선지 오래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8년 상반기 = -77억 달러가 빠져 나간 상태이며 자본 수지 = -52억 3300만 달러다...

이것은 98년... -31억 9천만 달러이후... 최대폭이다... 다들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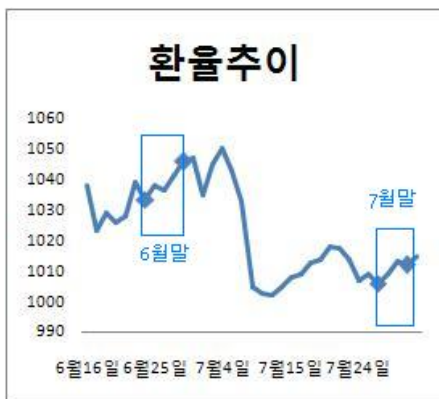
4. 현재 시중 은행에 달러가 씨가 마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외화 차입 규제... 이를테면 공기업 해외차입 허용.. 손비 인정 6배 확대... NDF 매수 초과 한도 제한 폐지.. 헤지펀드 비과세 혜택 폐지 완화부터... 이루 말을 할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에 달러 차입 건수가 수출입 은행이 바트화 채권 1억 달러 발행에 산업은행이 7일 2900억 사무라이 본드 채권을 발행한 수준이다... 이것도 엔화 리보 금리에 138BP 까지 더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다하다 유로본드까지 발행 할려는데... 이걸 성공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 현재 답이 없다..

5. 최악의 달러 수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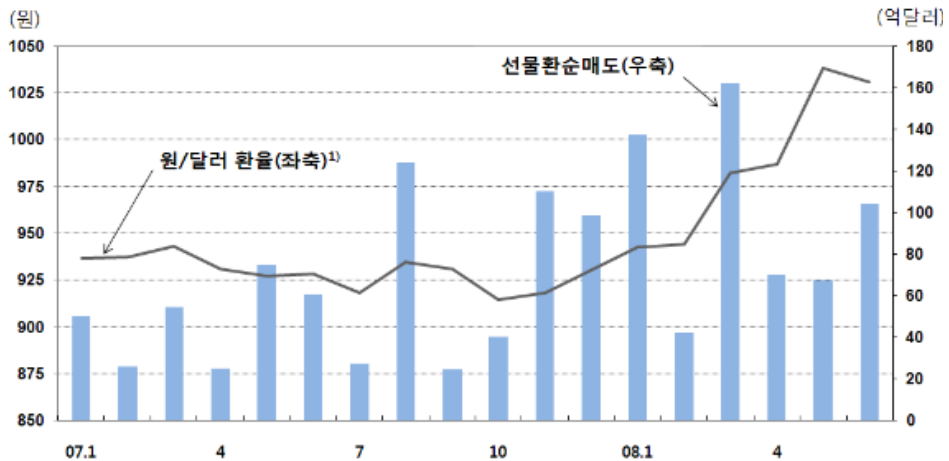
달러 수요는 늘어났지만, 공급은 줄어들었다. 수요측면에서 고유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똑똑해 졌다는 것이다. 보통 중소기업들의 달러 결제 수요는 월말에 몰려 있는게 보통이었지만... 현재와 같은 환율 변동이 요동을 치는 시기에는... 달러 결제를 월말이 아닌 월중 언제라도 유동적으로 최

소 손실로 팔아 치우고 있다..

여기에 키코 잔액+ 옵션 거래 잔액=160억 달러가 넘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전략상... 달러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고 계속 지켜 보는 전술을 쓸 수 밖에 없다...



이런 최악의 수급 상황 속에서 조선 업계를 주축으로 하는 중공업 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물량까지 급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다..

이미 한국 경제의 이상 신호는...

외국 애들이 먼저 감지한 상황이며 아시아 개발은행 (AOB) 조차 신흥 아시아 시장 경제에 대한 수정 발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폭 낮추고

홍콩과 대만에 대해서는 견고한 내수를 이유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그 이유는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 가까운 세계 경제상...

물가 관리 능력이 뛰어난 대만과 홍콩에 플러스를 준 것으로 4.9%... 4.5%로 대폭 끌어 올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9월 위기설이... 인터넷 괴담?... 9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외부 변수 요인이 없다면....당연히 괴담이다...

하지만 현재 9월 위기설 = 국내변수 40% + 해외변수 60%의 비율로 봐야 하며..

국내 변수 = 금융 채권 시장 25% + 부동산 경기 둔화 변수와 국내 물가 동향 10%..

해외 변수 = 중국 시장 변수 25% + 미국시장 변수 25% + 돌발 변수...

이 정도로 봐야 대충 맞는 말이다..

더구나 현재 9월에 대규모 자금 이탈이 중국에서 벌어지면.... 그건 곧 바로 한국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불어 닥친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 국내에 깔려 있는 헤지펀드 성격의 핫 머니가 최소 6500억 달러다..

그 중 일부가 빠지면... 그 날로 한국은 개 박살이 나는거야. 그런데 뭘 괴담?...

얼마전에는 마크 파버의 투마로우 골드 하고 조지 소르스가 최근에 쓴 신간을 읽어 봤는데...

이 늙은이... 재수 없게 생각은 하지만... 읽으면서 느낀점은 썩어도 준치라는 생각.....

역시 그 험한 헤지 펀드 바닥에서 그 나이 먹도록 살아 남은 이유가 있더군..

역시 시대를 정확히 보는 힘.....

추세를 읽는 힘.....

소르스 책을 보고 여태까지 막연하게 자료로만 보고 느끼던 것들이... 이제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대 전환기라는.....

=====

얼마 전에 무슨 강연회라는 것을 가서 봤는데... 말 그대로 노인네들이 바글거리더군.....

그러면서 떠드는 말이 이제는 자산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디플레이션이라는말은 안 쓰는데... 딱 종합해 보면 결론은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하자..

그리고 어떻게 일반인들 우려먹을까... 한 꺾질 벗기고 위선 걷어 내면 그게 결론이고..

뭐 이 판 식이야..

그 말을 듣고 수근거리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야 하냐고 소근거리는데...

가증스런 노인네들... 지들끼리 모여서는 그리 떠들면서 일반 메이저 대중 언론에다 대고는 집 사라고?... 나 참...

지들은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진짜... 가증스럽다는 생각 밖에 는 더 안들더라...

주말 같은 때 되면 집 구석에서 비디오나 술만 마시지 말고 이런데를 부지런히 찾아 다녀라...

의외로 주어 들을게 많고 흐름도 파악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느낀 점은.. 진짜 사방 천지.. 사기꾼 천지라는것...

그것 이였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 ㅋㅋㅋㅋㅋㅋ

진짜... 소름 끼치게 예상 시나리오가 너무나 착착 들어 맞고 있구나...

이 엽병할 놈의 미친 나라...

누가 9월 위기설이 채권 시장 자금 유동성에만 국한 된다고 못 박았냐..

총체적인 위기로 부동산.. 금융시장... 중국발... 미국 신용 위기... 제2 금융권 대출 만기... 모든 것이 다 겹치는 판국에...

지금... 진짜... 손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거냐?...

정말 너무 뻔뻔스럽다... 이제..

그 생각 밖에는 안 든다...

이제 조만간 98년 그 당시 전두환이 서울 시내에서 차타고 가다 말했다는 그 전설의 명언이 또 라디오에 나오겠네...ㅋㅋㅋㅋ

지금 미분양 대책이라는 것도 한 마디로... 폭탄 돌리기..

알고서도 국가 경제 위해서 애국심 가지고 개인별로 독 사과 먹어 달라 이거야...

딱 보면 그게 정답이란 말이지... 이런데 돌았니?...

그리고 누가 실제 IMF 체제 하에 관리가 들어간다고 누가 그랬냐?...

지금은 IMF 도 돈이 없거든?.

거기에 왜 베트남이 IMF 가 안 왔는가?... 아시아통화기금(AMF) 비축 자금이 지금 800억 달러나 있으니 올려야 올 수가 없지..

긴급 자금 지원으로 다 때려 막는데...

문제는 그에 필적하는 그 충격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데...

그걸 또 10년 동안 참고 견디라고?.....

이게 IMF지 뭐가 IMF냐?...

제 1차 IMF 가 크게 느껴졌던 이유는 이른바 지명도가 높은 대기업들이
파악 쓰러지니까... 심각한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는 심리적 요인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정 반대니까 문제라는거야...

그에 대한 대비책?... 지금 추석 물가 잡는다고 설레바리 치는 그 정도
수준?...

참... 할 말 없게 만드는 나라지..

=====

예전에는 국가에서 칼과 창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수탈해 갔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세련된 방법으로 국민 자산을 수탈해
간다...

이자율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게 요지경이지..

이 악마들아... 그런데 들이대고 악어의 눈물에 속아 악어 아가리에 대
가리 집어넣으라는 꼴이라니...

98년도에 한 번 속아 졌으면 이제 그걸로 그만 되었다고 본다...

이제.. 또 희생은 이제 꿈도 꾸지 마라... 나라가 망해도 대기업과 정부
는 안 망한다...

이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고 중남미 사례를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게 일심동체라는 의식이 있는
데.....나라 망한다고 개별 회사까지 망하는 건 아니다.....

이젠 좀 의식이 깨어났으면 한다.... 가만 보면 너무 속 터진다...

허구현날 똑같이 립 서비스에 매번 당하는게...

그렇게 열혈 애국자들의 금덩어리로 98년을 넘기니까 뒷구멍으로 한
다는 짓거리가 뭔지 알고는 있냐?....

이젠 역겨워서 말이 안 나온다...

국가 위기 = 자본 소멸 이라는 공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신 똑바
로 차리고 각자 살길 찾아라...

그 의미 없는 말장난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인지를....

한국 신문들은 가만 보면 전부 다 모조리 전문 나이트 빼끼꾼이다..

빼끼질에 속아서 나이트 갔다 나오면 마지막에는 카드깡 뿐이라는 그
10년 전 교훈을 벌써 다 까먹었냐?..

자본 논리라는게 어떤 건지 알면 절대로 한국 사람들처럼 이러지 않
는다..

자본 논리라는건 전쟁도 불사하는게 자본 논리고 나라가 망해도 자본
은 보존된다.....

또 다시 이용당하지 말고 똑바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그런 예를 들라면 수백건은 넘게 논문을 써도 남아 돌 정도로 사례들
은 켜 빠졌으니까..

<작성일 2008년 08월 13일>

27. 제2차 달러 진주만 폭격의 시작인가?.....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한국 정부의 제 2의 진주만 달러 폭격이 시작되었다...

모니터에 찍힌 숫자가 첫 빠타로 -4억 3천만 달러....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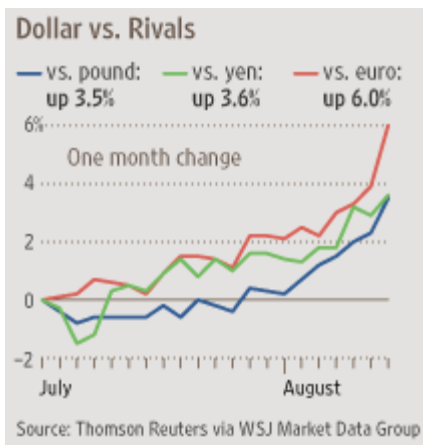
=====

신이시여... 진정 저희를 버리시나이까..

경악의 곡 소리가 사망에서 들리는구나.....

박태환이 수영 메달을 40년만에 땀다고 장하다고 아침에 웃다가 오후에는 피바다가 되는군...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쩐지... 오전에는 조용하다고 했어....



달러 강세에 한-미 간에 금리 격차가 엄청나니... 환율이 작살 안나는게 이상하지..

국제 유가 150 달러를 기준으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예정인건...

지금 국제 유가 100달러대로 개폭락한 현재 상태에서 뭘로 설명 할래?...

또 알고 속아 달라.. 이 말이나?

이 정도면 일단 공공요금 모조리 다 동결하고 물가에 손대는게 순서 아냐?... 이런 상 등신 같은..

=====

현재 달러/유로는 7월 중순 1.6 달러에서 6.4%가 급락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달러 강세는 10월 초를 기점으로 꺾이고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유 : 현재의 미 주택 시장 침체, 대규모 신용 손실로 FRB는 11월 미 대선 전인 10월에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1990년 GDP 성장률 = 4.23% -- 물가 상승률 : 3.3%.

2008년 GDP 성장률=1.9% -- 물가 상승률 : 5.7%..

2000년 --> 2008년 달러화 가치 상승률 = -44 폭락...

경제 펀더멘털의 지지 기반이 없는 단순한 수급 상황 조절에 의한 단기 급등에 불과한 상황....

더구나 현재 미국 주요 월 스트리트 빅 7 투자 은행들과 지방 은행들의 신용 문제가 2009년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견... 연막이다..

10월 전까지 단기로 달러 외환 투자라면 모를까.. 그 이상은 설사 이익이 나와도 토해 내고 팔아야 할 상황..

=====

유럽 상황 : 2008년 2/4 분기 모기지 채권 부도율이 1/4 분기 대비 = 80% 이상 폭등...

ABN 암로 = -5930만 유로 채권 부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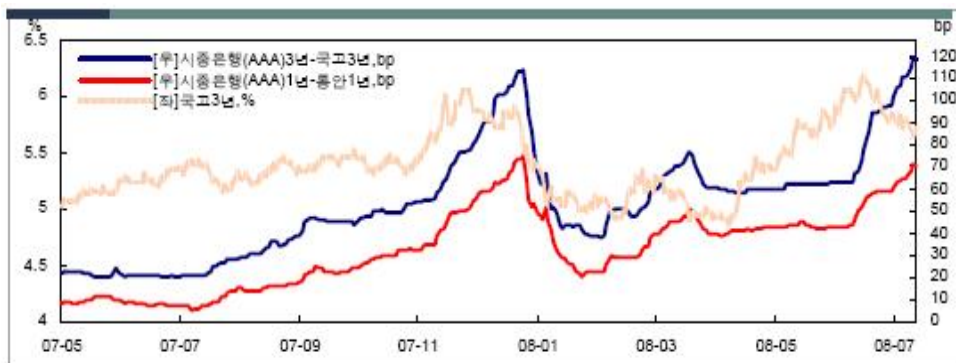
전년 대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주요 5개국 상업 부동산 가치 상승률 = -19% 폭락....

결과 : 현재 유럽 서브 프라임 손실 총액 추산 = -2220억 달러...

따라서 현재 유로화 자산 비중을 50%대 이하로 포트 폴리오를 조정

하고 그에 대한 하락 보상분을 국내 고금리 은행 상품과 CMA 투자 상품을 비롯한 금리 상품에 투자하여 보상 비율을 상쇄하는 개인별 투자 리스크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채권평가

주*: (AAA은행채1년-통안1년, 할인채), (AAA은행채3년-국고3년지표, 이표채)

은행채를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현 상황 속에서 국내 예금 금리를 더욱 올려서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근 9월 이후에 금리 특판 상품이 선보이며 이에 대한 중기적인 투자를 통한 자산 가치 하락의 리스크 보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각자 준비할 시점이다...

그 후에 10월 이후 유럽 경기 동향에 따라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금의 달러화 상승은 수급 조절에 따른 단기 폭등일 뿐...

달러화 배팅은 10월 이후로는 비추다.....

더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의 실물 자산 가치 폭락에 대한 그 가시권에 한국이 빠르게 근접해 간다는 사실인데...

원 놈의 대책이 있는건지..... 쫓...

설마... 한국이라고 무풍 지대일거라는 개 망상을 하는건 아니겠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70년대 주변 전원일기식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는것 짚은... 다 잘 알고 있을테니까..

=====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무조건 올해는 적자를 감수 해서라도 동결
시켜야 한다...

안 그러면 내년 물가 폭탄 수준은 아무도 장담 못한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2008년 소비자 물가는 아시아 NO.2 수준에 생
필품 물가 수준은 아시아 NO.1 인 나라인데...

요즘에는 일본 물가 비싸다면 그 자리에서 싸대기 맞는건 다들 알고
있지?... 오죽 하면 일본 바이어가 편의점 들어가서 혀를 내두르고 나
오냐... 그럼 말 다한 나라 아냐?..

8월 물가 상승률이 6%가 넘을거라는 개소리에 생활 물가 상승률은
7.9%로 수직 상승인데..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에 2.0%는 무조건 국제 유가 상승
률이 반영이 된 것이 통상 룰이다...

지금 국제 유가가 100달러 대인 현 상황에서... 150 달러 비상 대비
물가 상승률을 적용 시켜서 공공 요금을 인상 시키면..

하반기에 우리는 신문상으로 또 사상 최대 실적 발표라는걸 보면서
가스 요금 인상에 이불 뒤집어 쓰고 떨어야 한다...

이런 개 또라이 짓거리는 이제 눈 뜨고 봐 주는것도 신물이 난다...

공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면 뭘 하냐고... 일반 국민들은 유가
150 달러에 포커스를 맞춘 물가 폭탄에 다 죽어 나가는데...

또 속여 쳐 먹을 생각하면서 돈 잔치 꿈꾸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여기서 쇼부 보고 끝내자..

이젠 진절 머리가 나니까..

그래..오늘은 또 얼마나 쳐 쏘아 부으면서 또 미세 조정이라는 개 구
라를 칠래...

진짜 신문이 이나라 이견 무슨 공상 과학 3류 찌라시 타블로이드 지
를 보는 수준이니.....

=====

오늘도 장 마감 30분 전에 끼어 들어서...

지금 달러 개입 추정 액수 = - 19억 7천만 달러 라는데....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나중에 뭘 개소리를 하나.....

제 1차 달러 폭격은 점심시간에 압습하게 쳐 하더니..

제 2차 달러 폭격은 마감 30분 전이냐?...

진짜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만 든다... 이제...

일본 애들은 단 1 달러도 안 쓰고 전혀 개입 안 해도 잘 굴러 쳐 먹고 사는데....

이건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줄줄이 비앤나구나...

에 휴....이 염병할 놈의 나라...진짜 승질나서 못살겠네...

=====

만수야... 요즘 미국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

서울은 아시아의 런던이라...

극동의 런던 = S. 서울... 이게 요즘 지들끼리 하는 조크야..

그 말 듣고 오늘 아침에는 커피 마시다가 사례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
갈 뻔했다..

완전 개 코메디야... 이 미친 나라는...

진짜 미쳤다는 말이 요즘에는 욕이 아닌 나라지... 개 막장 같은.... 쯔
쯔쯔쯔쯔쯔쯔쯔쯔쯔

물가 수준이 런던 뺨치는 나라에 살면서 열대야에 혈압 피크 찍으면
서 매일매일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이..

난 진짜 대단한 순둥이들이라고 본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폭동 일어나지... ㄸㄸㄸㄸㄸ...

진짜 착한 국민성 가진 나라에서 그 삽질 하기도 테러 안당하고 목숨 보존하는걸 신께 감사해라..

농담이 아니라...

=====

이제... 전쟁이다... 전쟁... 경제 전쟁에 돌입했다...

이제 유동성 팽창 시기는 바야흐로 끝나고 유동성 축소 시기로의 대
반전의 그 중심에 서 있는 2008년 이 경제 전쟁에서 밀려나면...

남은건 파멸뿐이고... 그 제1차 피해를 받는건 전 국민의 90%다...

그 때는 중산층이 서민되고... 서민이 극빈층 돼서... 남미 아르헨티나 모델로 가는거야...

그 때 가서 한국은 일본하고 비교 하는것도 사치야...

난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비교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가 없다... 일본은 설사 경기 불황이 와도 중간 허리인 중소 기업층이 두꺼워서 고용을 흡수 하고 최소한 중산층 이하 전 국민의 7.80%가 다 나자빠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헤이세이 불황 이후 10년이고... 15년이고... 그런대로 굴러 먹으면서 전 국민이 국가적으로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거지...

한국처럼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거야...

그래서 비교 대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지...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이젠 답이 없다... 농담 아니라...

그 때는 잃어 버린 10년이 아니라 암흑의 30년을 각오해야 한다...

그 분기점이 2008년이다... 그 정도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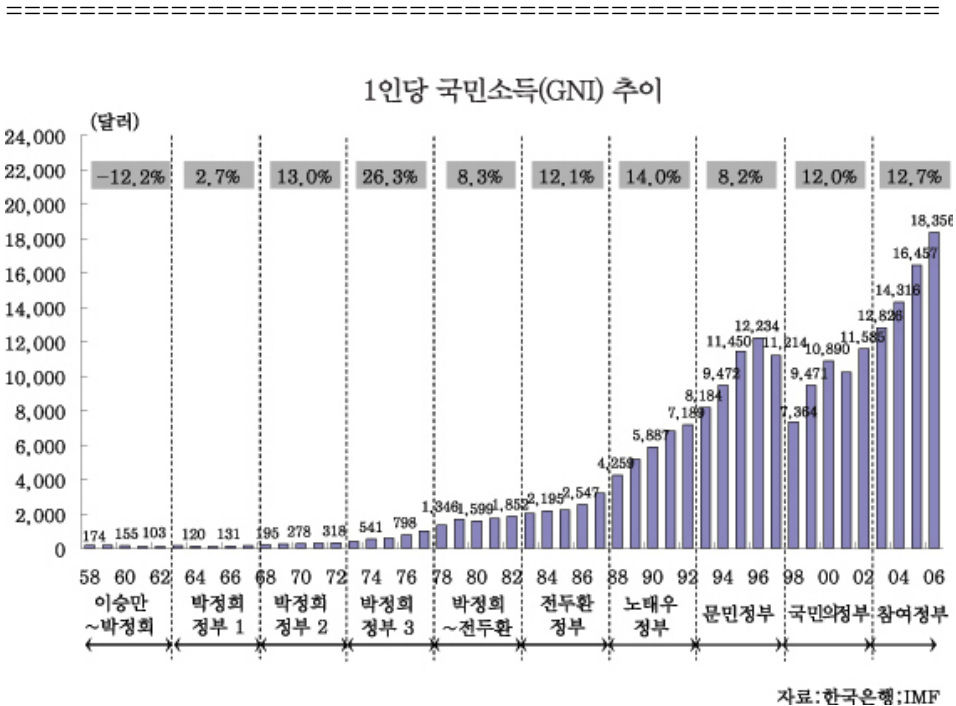
지금 글로벌 자본 유동성의 팽창기는 이제 98년 이후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인 시기다...

그래서 각자 자산 디플레이션 효과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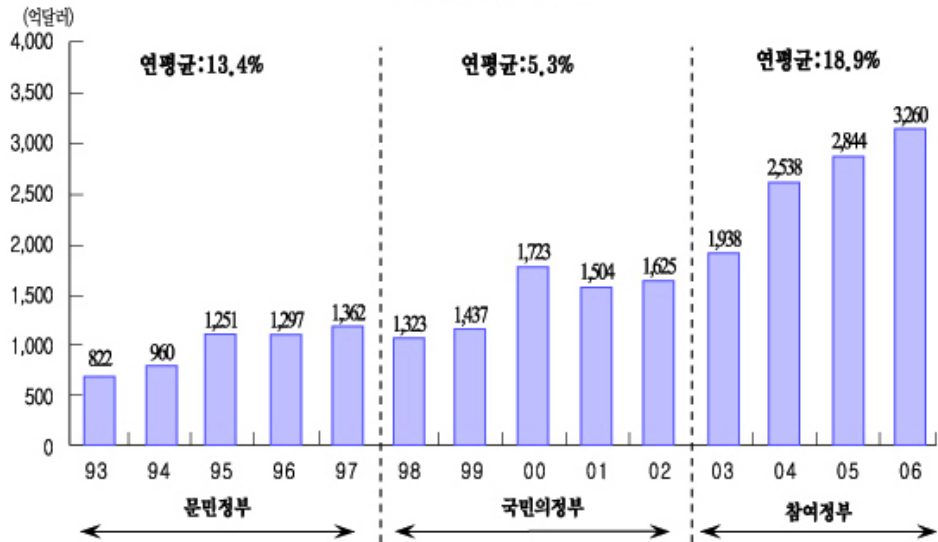
<작성일 2008년 08월 13일>

28. [핫 이슈]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다?.....

1.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는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이며, 또 복지 지출 증대가 국내 소비 기반의 취약점을 가져 왔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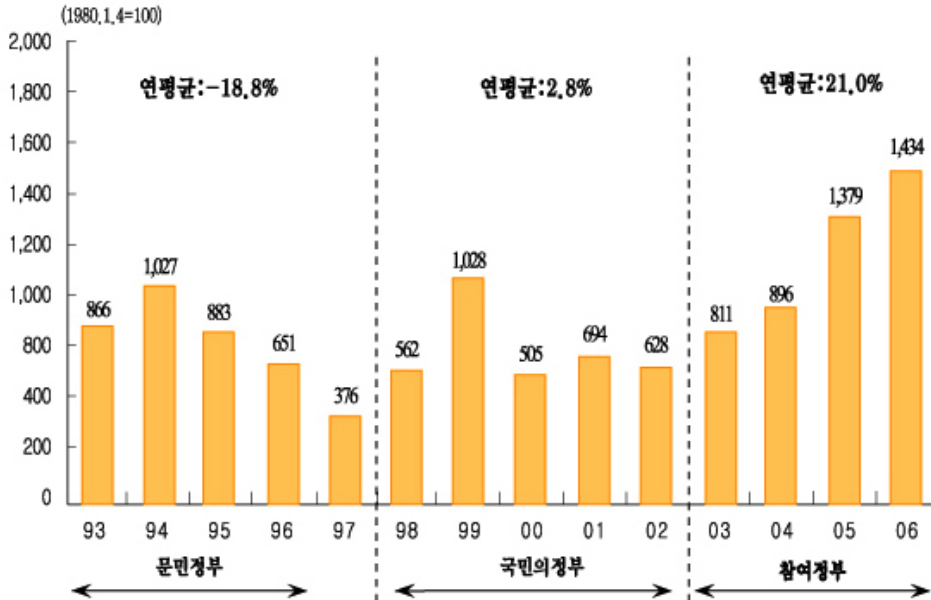


대외수출금액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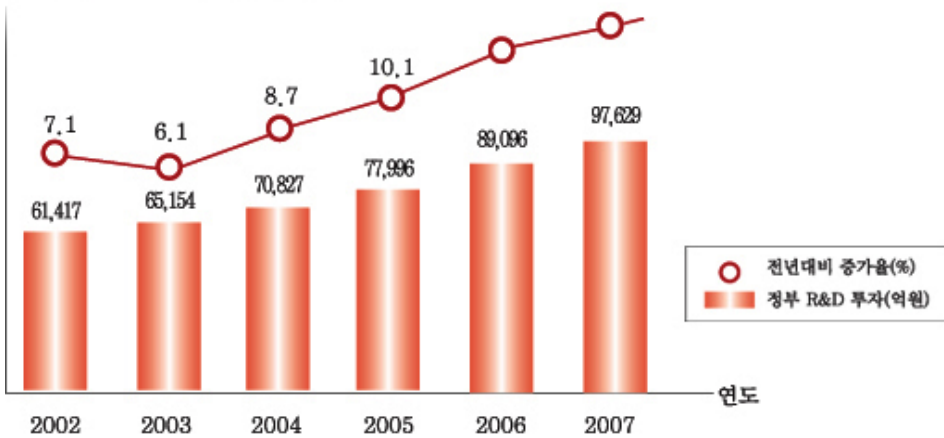
자료 : 무역통계(KOTIS)

종합주가지수(KOSPI)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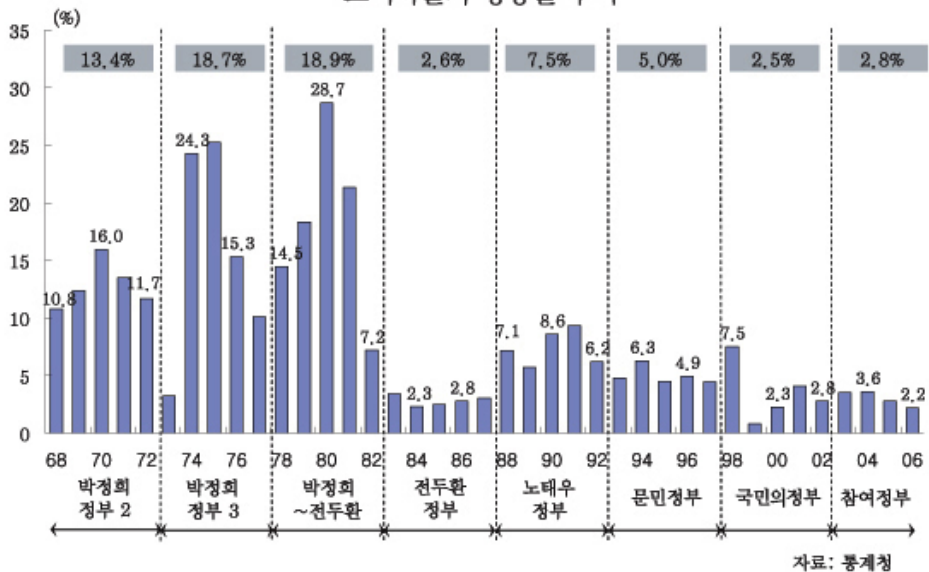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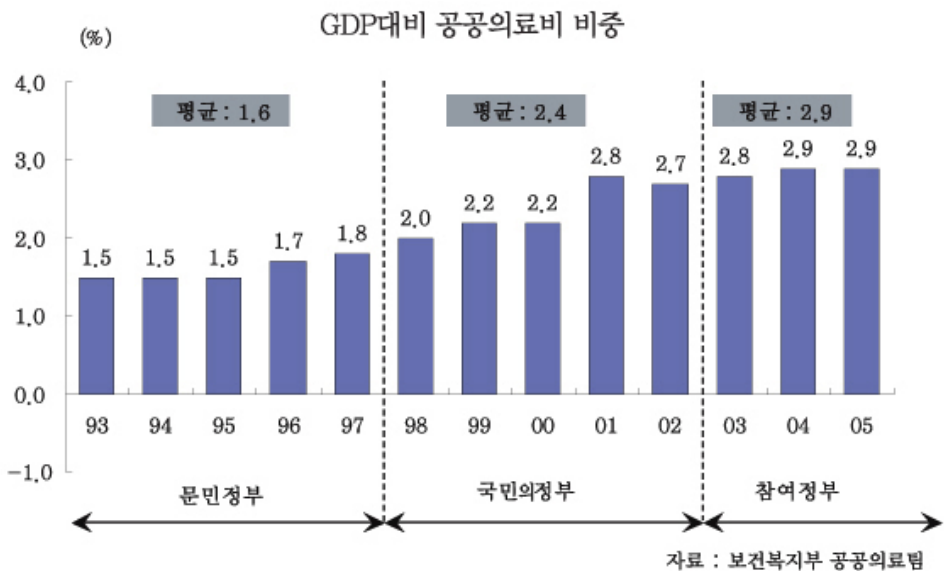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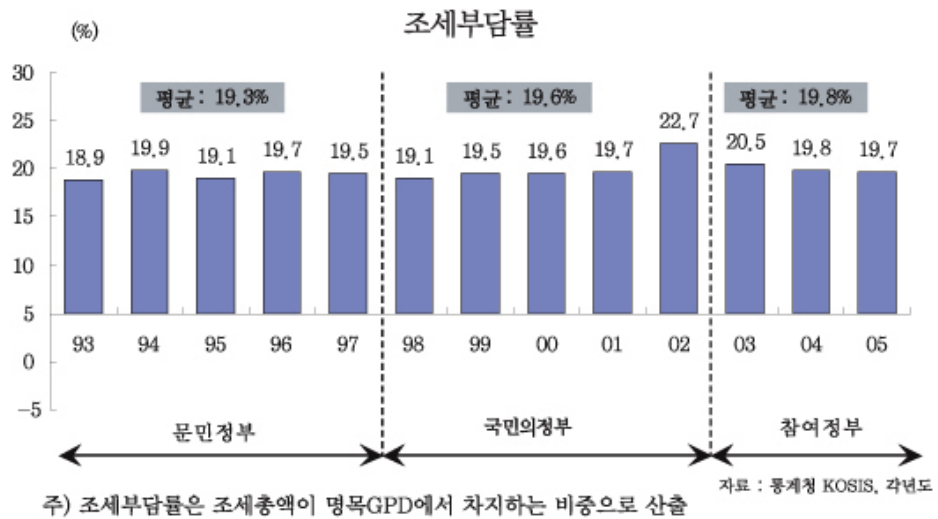
자료 : 증권거래소

▶ 정부R&D투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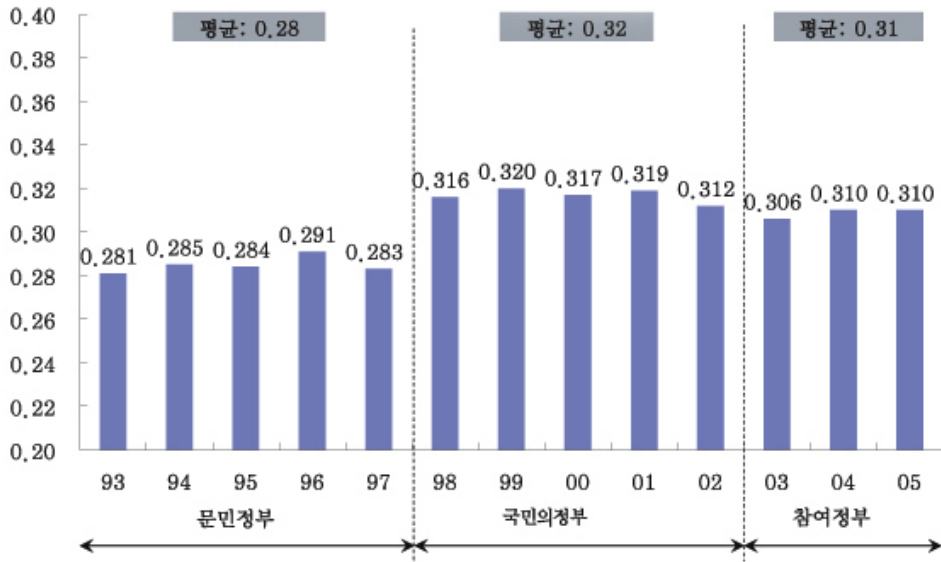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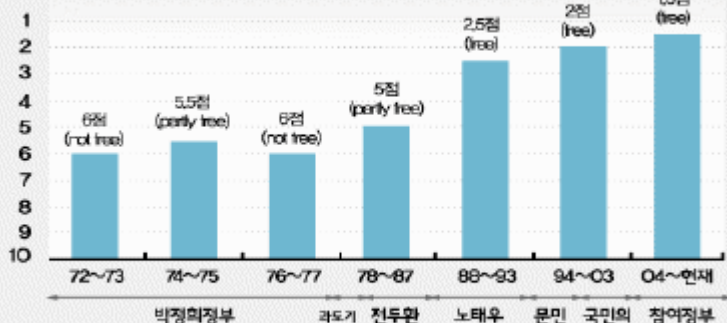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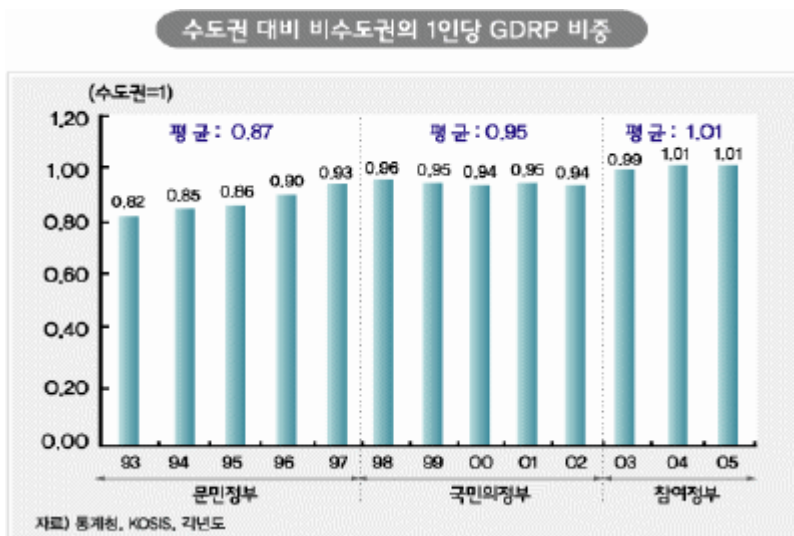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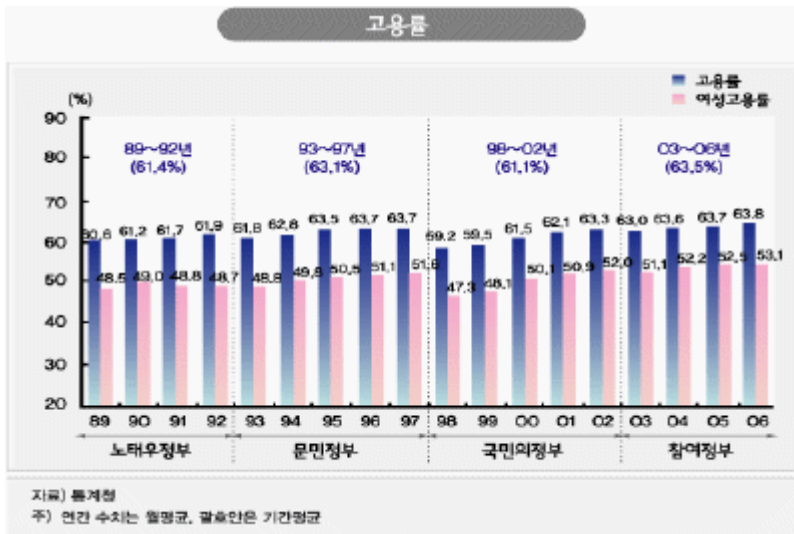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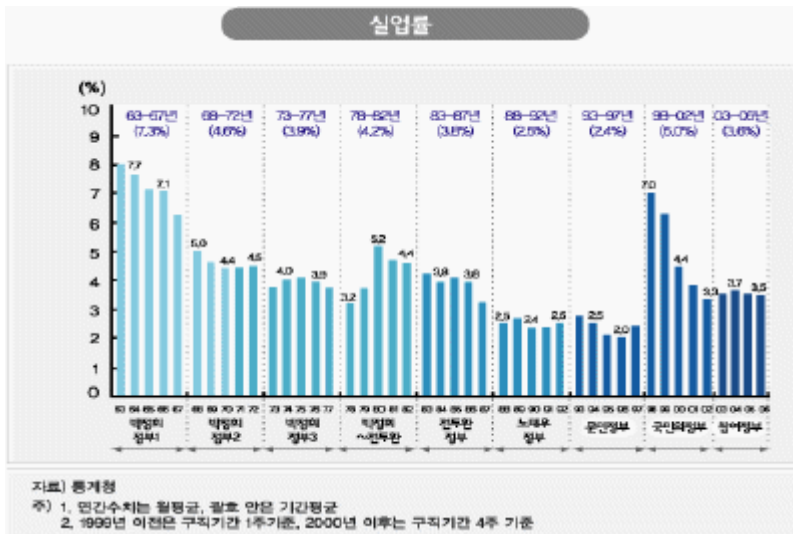
자유화 정도 등급변화



자료) 프리델하우스 홈페이지 등

주) 1978~87년의 경우 5점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세한 수치는 미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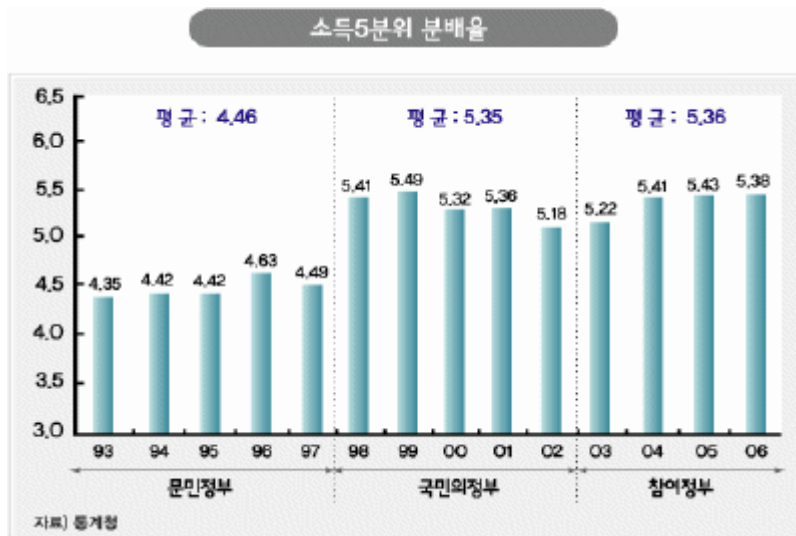


▶ 복지지출 비중 추이 (%)

구 분 (비중)	5공화국 (87)	6공화국 (92)	문민정부 (97)	국민의정부 (02)	참여정부			
					'03	'04	'05	'06
복지	14.3	17.9	17.9	19.9	20.2	24.5	26.7	27.9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정치자유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언론자유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



=====

특히 이 소득 5 분위 분배율이라는 데이터는 지금 강만수가 지껄이는 양극화의 시초가 어디부터 였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항목이다...

97년 4.49 에서... IMF 가 터진 이후인 98년 이후 5.41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게 그 잘난 잃어버린 10년이 양극화의 씨앗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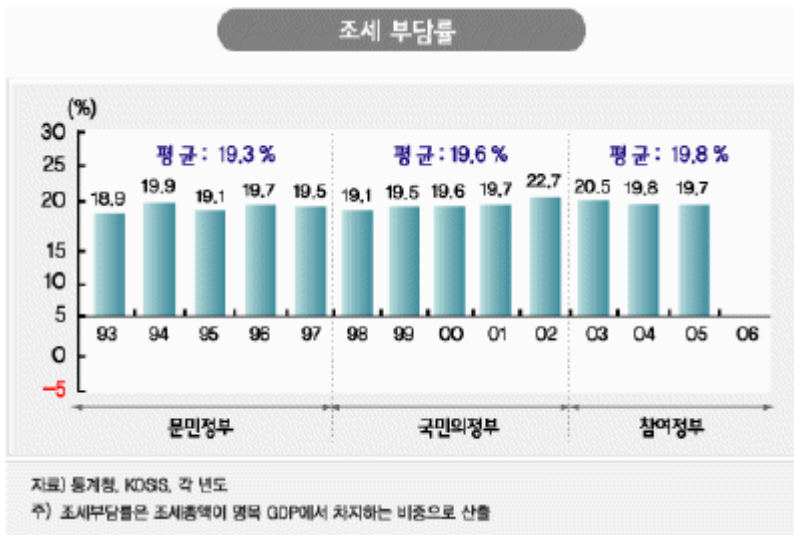
이 미친 늙은이야...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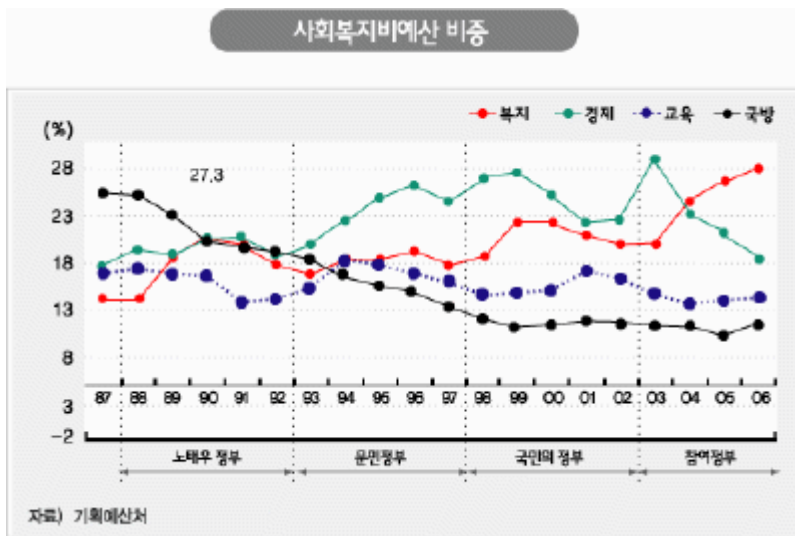
나도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그리 좋아 하지는 않지만... 실제 정확한 데이터가 말을 해 주고 있다...

거짓 나부랭이가 아닌 구체적인 산술 데이터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서 헛소리를 지껄이는거냐..

이 데이터가 근래 10년 안에 그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조중동에서 씨뿌리던 그 염병할 놈의 양극화의 뿌리가 어디서부터라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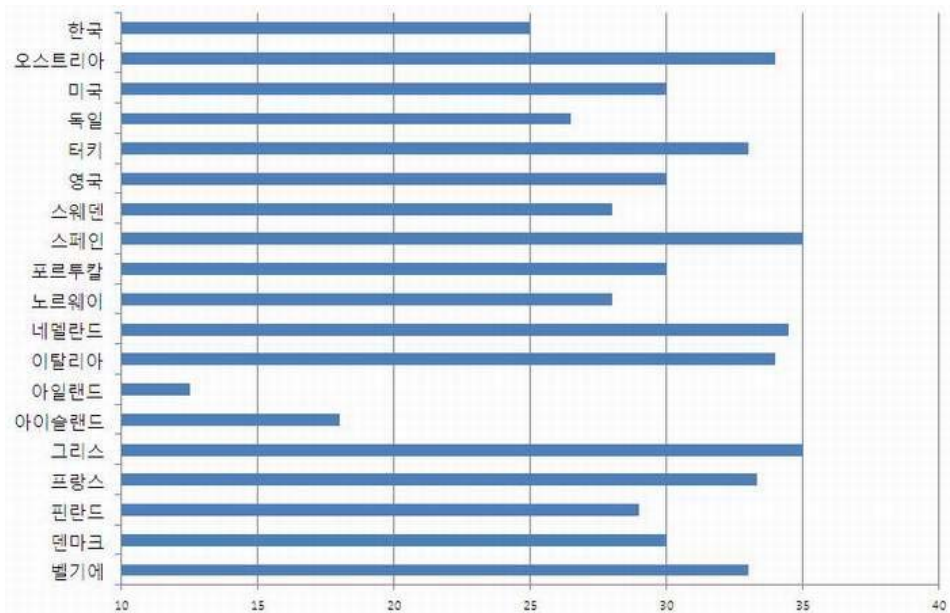
그나마 IMF 똥 싸지른거 10년간 뺏시게 치우고 이제 한숨 돌리는 판국인데... 뭘 개소리?... 이게 현실이란 말이지... 이런데 양극화가 트렌드다?... 이걸 비약이 너무 심한 헛소리지...

혹시 이 노인네... 치매 아냐?... 학교 졸업장은 포커판에서 딴 거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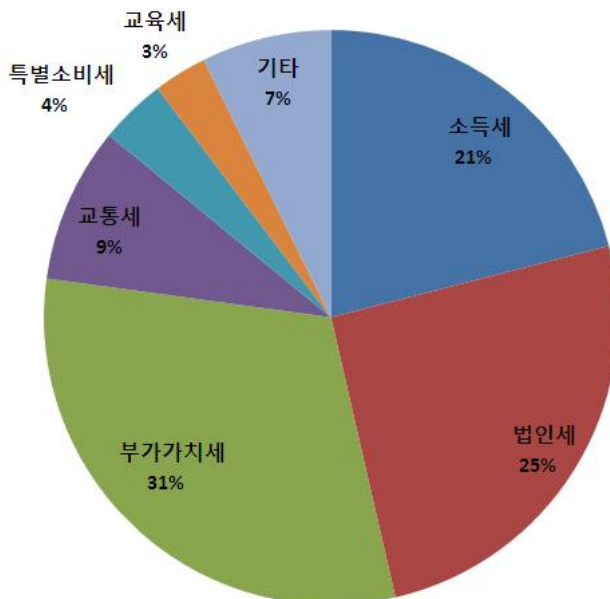
진짜 출신 성분이 의심스런 놈이다...

이제 그 말 밖에는 안 나온다... 너무 경악스러워서...

2. 대만은 작년 법인세율을 17.5%로 낮췄으며 현재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소득세율이 높고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낮춰가고 있다..



(2007년 GDP 대비 법인세율)



(총 조세 대비 세부 항목 비율 :2007)

<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 <http://cafe.daum.net/iomine> >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지... 그럼... 말 그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만수 말대로라면 법인세를 줄이는대신에... 간접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린데... 이건 뭔가 미친 소리 아닌가?..

그리고 내가 치매인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대기업 법인세 비율이 한 27% 정도 되지만 실제 적용되는 실효 세율 = 15% 밖에 안 되거든?...

거기에 만수가 지적한 대만이나 싱가포르 홍콩은 조세 제도가.... 단일 세율이라는거예요....

왜 이말은 다 빼 먹고 숫자만 앞세워서 대국민 사기를 쳐 먹냐?... 누구 바보로 아는거냐?...

한국에서 대기업 법인세 비율이 27% 정도인데 어떻게 실효 세율이 15가 나오느냐?... 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안가겠지...

한국에는 공제 제도나 감면 제도라는게 있어서 일정 투자 인센티브로 법인세 비율을 까 주는 제도가 있지... 그래서 그나마... 투자 안 하는 국내 투자를 강제로라도 유인해서 고용 창출하려고 이러는건데...

법인세 깎아 주자고?... 한국도 단일 세율로 해 버리면 대만처럼 17%니.. 15%니 나오지... 아마 오히려 실효 세율은 대만보다 더 낮을걸?...

개 구라를 떨어라 아주... 그걸로 간접세 늘려서 비용 분담 또 전국민 보고 다 떠 안고 피박 쓰라는 소리지... 결국...

끝까지 아주 교묘하게 사기를 치네... 일본은 법인세가 40%야... 중국은 30%고... 장난 까냐?...

취새끼 이하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OECD 기준으로 봐도 우리 보다 법인세 센 데가 널렸는데 뭘 헛소리야..

사기를 칠려면 좀 제대로 쳐라.. 그래야 속아줄 때 속아주지... 이건 알고서 등에 칼 맞아 달라는 소리 밖에는 안 되잖아....

너무 썩 티 나는 뻔한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으니...

얼핏 들으면 진짜 그런가 하는 착각이 들겠지...

진짜 거짓말은 너무 뻔뻔하게 잘하네... 숫자로 사기치면서..

안 그래도 국내 투자는 이제 기 해서 대기업에 쌓인 자본 잉여금이 3.400조가 넘어 가는데..

미쳤냐... 법인세 깎아 준다고 투자 하게?...

내가 회장이라도 콧방귀 밖에 안 나온다..

일반인 분들은 법인세 1%가 비용면에서 얼마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겁니다... 지금 통상...

법인세 1% = 7500억~8000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01년도인가 비용 계산한 비용이니까..

2008년 현재 기준으로는 법인세 1% = 1조 5천억 이상이 되겠군요..

그래서 입만 쳐 열었다 하면 법인세 타령을 하는거죠...

그거 빵꾸나면?... 화살은 결국 우리에게 오는겁니다...

법인세 1%라는게 별개 아닌 초딩 애들 부르마블 놀이 하는 수준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 점은 똑똑히 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강만수 이 늙은이를 보고 사망에서 지금 미쳤다고 하는겁니다...

팬히 돌았다고 욕을 하는게 아니죠...

3. 우리나라 재정운용 정책은 민간의 압박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간 것..

연도별 세금감면 증액 현황 (단위 : 억원, %)								
	1999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세수입 총액	756,580	957,928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1,583,341	1,660,924
(증가율)	11.6	3.1	10.3	2.7	8.2	8.3	14.7	4.9
세금감면액수	105,419	137,298	175,080	182,862	200,169	213,380	227,083	318,207
전년 대비 증액	-	4,474	27,819	7,782	17,307	13,211	13,703	91,124
(증가율)	-		(18.9)	(4.4)	(9.5)	(6.6)	(6.4)	(40.1)
세금감면 비율	12.2	12.5	13.2	13.4	13.6	13.4	12.5	19.1

※ 2006년까지는 실적 기준, 2007년은 전망치, 2008년은 예산계획안의 4.9% 증가를 기준으로 한재 기준되는 김세법안의 통과서 추정함. 2000~2002년 통계는 기획재정부 기준 변경으로 제외함. 자료 : 기획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재구성

니미... 그래서 이 염병할 정부는 1년도 안 되서 사상 최대의 감세 조치로 초 양극화 만들려고 뺄쓰는거냐?...

그 감세 빵꾸난건 뭘로 매꿀까?...

결국 다른 부분 세액 증대야...

그리고 지금 MB가 말하는게 이른바... 뭐라더라.. 능동형 복지.. 인가? 그거라는데...

난 신문 보다 웃기는게.....

아니..복지도 시장 논리대로 하는 나라가 있나?.....

이게 뭘 말이나 하면...결국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뭐 이런식의 16세기 영국에는 이런 구빈법이라는게 있었지..

그런데 결국 폐지되었어..그 이유가 뭘지 아나?... 대규모 아사자가 속출해서 나중에 근래 20세기에 넘어 오면서 전혀 정책적 기대 효과가 안 나왔기 때문이지..

이미 서구 구라파에서는 폐지된 그 구시대적인 복지 구조 역학 모델을... 21세기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킨...

말 그대로 그 현대판 리바이벌이 지금 이 능동형 복지라는거지... 한

마디로 비정규직을 늘려서 죽지 않을만큼 먹여 살린다는 그런 논리...

이런걸 사회학에서는 복지에 대한 사회권(social rights)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 복지권을 획득하려면 닥치고 일해서 의무를 다하라 이거야..

이걸 위해서 노인, 장애인 같은 부류에게는 사회참여형 일자리라고 해서 어떤식으로든 일을 하는 시스템이지...

이게 바로 근 10년 동안 그나마...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기틀을 만들려는걸.. 무력화 시키고..

리셋 하는건데.....

이건 신문이나 관련 내용을 본지가 오래 되서 대충 기억나는게 이 정도야.. 한 마디로... 기가 찰 뿐이다.. 이제.....

그럼... 당장 산업재해 당해서 쓰러져서... 굶주리고 일을 못할 처지가 되도 링겔병 들고 나가서 밥벌이 해라..

이 말 아냐... 이거야 말로 복지 = 돈벌이 아냐?...

이게 현실인데 강만수는 정 반대로 헛소리를 떠들면서... 양극화가 트렌드라니... 진짜 웃긴다.. 이제...

=====

이런 사상 최악의 상 등신 같은 놈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 국가의 경제 장관이지?...

진짜... 나 같은 천민 대가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4차원이네.....4차원... ㄷㄷㄷㄷㄷ..

멍청한 섹키...

진짜 인간적으로 노인 공경 사상에 입각해서.. 최소한 노인네한테만큼은 욕을 삼가 할려고 해도..

너무 사악하고 뻔뻔하고 뻔질거리는.. 속이 흰히 보이고 포커판 카드패가 다 보여서...

역겨워서 이제는 욕이 저절로 술술 나올 지경이다...

이 능구렁이 같은 미친 영감탱이야... 넌 그 죄 값 다 어떻게 받을래?...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경제 청문회 열어서 조목조목 다 따져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는 2. 3천억으로 쇼부 보고 백담사로 귀향 갔지?...

아마 이 개 잡것들은 이제 조 단위로 해 쳐먹을 놈들이야...

진짜 소름 끼친다... 언니 게이트는 이제 새발의 피라는 과멸의 전주곡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구나.... ㄸㄸㄸㄸㄸㄸㄸ

=====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알면서도 눈쌀 한 번 찌푸리고 말기에는 점점 인내력의 한계라는걸 매일 느낀다...

나만 그런게 아니라 다들 그런다... 더 이상 자극 하지 마라...

이제 2008년 한국 사람들은 조중동 보다 FT 를 더 신뢰 하는 판국이니까...

차라리...까막눈이었으면 동네 노인정에서 조선일보 보고 헛소리 떠들면서 뇌무현 타령이나 하면서 고스톱 판 돌아 다니는 노인네들처럼 속아 주면서 한 세상 살다 뉘저 버리기나 하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의 폐해라면 가장 큰 폐해다...

CNN....블룸버그 보면서 전국민들... 협압 올리기... 이 미친 어원지야..

지금 한국은 70년대 경제학이 안 먹히는 시기라는것만 알아라...

괜히 돌았다고 비싼 연봉 쳐 먹으면서 JP 모건 애들이 비관적인 한국 경제 리포트를 써 재끼는게 아니란 말이다...

실시간으로 정보 전송이 이루어 지는 21세기 밀레니엄 글로벌 스탠다드인 시기에...

방송 장악이라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위성 안테나 베란다에 설치하고 외국 뉴스를 보는게 낫지...

실시간 주요 핵심 정보는 한국에 있는 청기와 집구석 보다 영국 런던에서 더 빨리 알거든...

미친 어원지... ㄸㄸㄸㄸㄸㄸㄸㄸ..

니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가소롭다는 생각 뿐이다...

니가 제 아무리 발광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 따위면..

아마 1년 후에는 실시간 한글 자막 방송으로 전국민들이 모조리 다 CNN과 블룸버그를 보면서 국내 투자 결정을 할 날이 올꺼다.. 이 뜰 추야..

이런 아이템만 가지고도 미국 LA에만 가봐도 서로 하겠다는 놈들이 이열 종대 수십 트럭은 흘러 넘치니까...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 티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곳은 수십 군데일 테니까...ㄸㄸㄸㄸㄸㄸㄸ..

한심한 놈... 2008년에 80년대 광주 생각만 하고 그 따위로 삽질이니 이 따위지.....

그 잘난 트렌드는... 21세기 밀레니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니들이 지껄이는 그 70년대 구닥다리 박정희식 트렌드에 맞춰 주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이제 매일매일 전국민이 스트레스로 지친다...

오죽하면 외국 석학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민들은 21세기고 정부는 20세기라고 떠들어 대냐.....

이게 정상이냐?.....쫓....

또 라이 같은 새끼들.....장단 적당히 맞춰 주는 것도...한계라는게 있는거야..

그건 분명히 알기 바란다.

<작성일 2008년 08월 14일>

29. " 8월 15일날 놀러 가는거지 여보?".....

오늘 흡연실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으니까... 직장 선배가 집에서 온 전화를 받는다...

"내일 8월 15일데... 그래도 내일 놀러갈거지?... 여보?..."

그 선배 40대 마누라한테서 걸려 온 전화였다...

통화를 끝내고...

"이봐... 집에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나 있을까?... 이 알 수 없는 기분은 도대체 뭐지?..."

"글쎄요?..."

=====

뿌연 담배 연기 사이로 창 밖에는 이글거리는 아스팔트의 아지렁이가 보인다.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3달만 지나면... 겨울이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몰려 본 경험이 살면서 단 한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겨울을 가장 싫어 한다... 그건... 죽을 수 있다는 걸 인간 이전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느껴 보기 때문이다..

울 겨울... 그나마 있던 연탄 보조금 제도도 폐지 된다고 한다.....

이젠 연탄도 마냥 싼... 연료 난방 자원이 아니게 되 버린 것이다...

진짜... 걱정이다... 이제 곧 겨울인데...

이미.. 농가 가계 부채로 37%가... 가계 파산 직전이란단.. 축산 농가의 사실상 가계 파산 비율은... 너무나 비참해서 말도 못하겠고.....

이건...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다... 지옥.....지옥이다.....

이 정도로 국민 희생을 쥐어 짜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젠... 그나마 막연하게나마 생각해 본 나이 먹어서 귀농 해야겠다는 생각도 접었다...

절망이라는 불치병이... 지금 전염병 처럼 온 나라에 퍼지고 있다.

=====

지금 한가하게 경제 전망이나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3개월 후에는 겨울로 돌입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은... 없다고 본다...

올해는 겨울이라는 기상 조건이 최악의 국내 경제 사회 변수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소름이 끼친다...

=====

한국은 서민의 나라가 아니다... 애시 당초 한국에도 중산층 4, 50%인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IMF 전 이야기다....

IMF 전에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런대로 살만 했고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산층이라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IMF 이후에 서민층이 된 것이다...

오늘 뉴스 헤드 라인이 10년만에 사상 최고치의 수입 물가 상승률이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건 이른바 서민들이다.... 사실상이 나라 생산 소비의 밀바탕인...

이런 가장 밀바탕의 내수 소비가 얼어 붙는데... 제 아무리 백방으로 부동산 대책에 중부세 깎아 주고 거래 활성화 시킨다고 썰 난리를 쳐 봐야...

그런 거래 활성화가 되겠냐?..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를 통틀어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물가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개인별 기업별로 금융 비용 압박을 동시에 받는 이런 상황에서 파는 놈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쌍방간에 성립이 되는게 기본 거래 수칙이지...

물건을 던지는 놈들은 부지기순데... 구매자들은 지금 눈 씻고 봐도 없는 희귀 멸종 동물로 시중 복덕방에서 조차 1달간 손가락 빨고 장부 정리만 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더구나 한국에서는 실제로 현재 부동산 을 자기 돈 주고 빚 없이 살 수 있는 실질 구매력 가능 인구가 20% 밖에는 안 되는 나라다..

말 그대로 거의 다 대출 끌어안고.. 은행 빚으로 보태서 집 사고 땅 사서 사는 것이다...

진짜... 정상이 아니다...

세금을 깎아 준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다... 이걸 순서가 뒤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말 그대로 땀질식 밖에는 안 된다...

이건 통계 분석을 할 필요도 없다...

설사 부동산 경기 대책이 나와도 이런식이라면 내년 1/4 분기를 못 넘어간다.. 그 약발이..

거기에 할지!.. 말지!.. 구체적인 확답도 없다...

물가는 치솟고 추석 물가는 예상이 안 되는 수준에 분기별 최대 무역 적자에 9월 쇼크에 차이나 쇼크로 사방에서 들썩인다...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환, 환율, 수출, 재정적자, 내수, 물가...

모든게 흔들린다...

심지어는 개성 공단에 인건비 때문에 공장 돌리는 사람들까지 이젠 더러워서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난리에 지금 대전지역을 넘어서 경남 지역 중소 기업 부도율이 이번 달들어 점점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고 월별 베스트 NO.1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건설사는 하도급 순위 중간부터 개작살이 나고 있고 지원하겠다는 중소기업 자금은 깜깜무소식에...

이젠 벌써부터 은행에서 여신 관리 하면서 회사들 돈 줄 목 조르기를 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여기에 월급이 3.4 달씩 밀리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에 벌써 부터 마트에서 애들 분유나 기저귀 같은 생필품 절도가 늘어 나고 있다...

외국처럼 총이나 칼 들고 와서 금고를 터는게 아니다. 애들 분유를 훔치고 치즈나 계란 라면을 슬쩍슬쩍 하다가 경찰 부르는게 부지기수다.

그것도 4.50대 아저씨..아줌마들이... 이러면서... 뭐가 문제라고 말하면... 이 나라는... 오로지 빨갱이 타령이다...

난 살다살다... 심지어는 외국애들조차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해석

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란다...

경제 어렵다는데 좌빨이 왜 나오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세금 환급 해준게 약발이 안 먹혀서 무시하고 정부 애들이 개 갈굼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다니....진짜 기가 막힌다..

=====

문제의 근원은 국제 유가가 아니다...

21세기 밀레니엄 경제 시스템에 70년대 경제 논리를 주입하니까...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지금 사망 직전의 혼수상태로 빠져 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집도익는 이견 환자 잘못이란다...

이게 싸이코 패스지... 뭐가 싸이코 패스냐?..

그리고... 부자들은 한국에서 돈 안 쓴다... 해외 나가지...

실제로 돈 쓰는 사람들은 중산층 포함 그 이하다...

그리고 부자들이라고 추석에 제사 2 번 지내는 것도 아니다....

<작성일 2008년 08월 14일>

30. 2008년 하반기 경기 전망 =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

어느덧 2008년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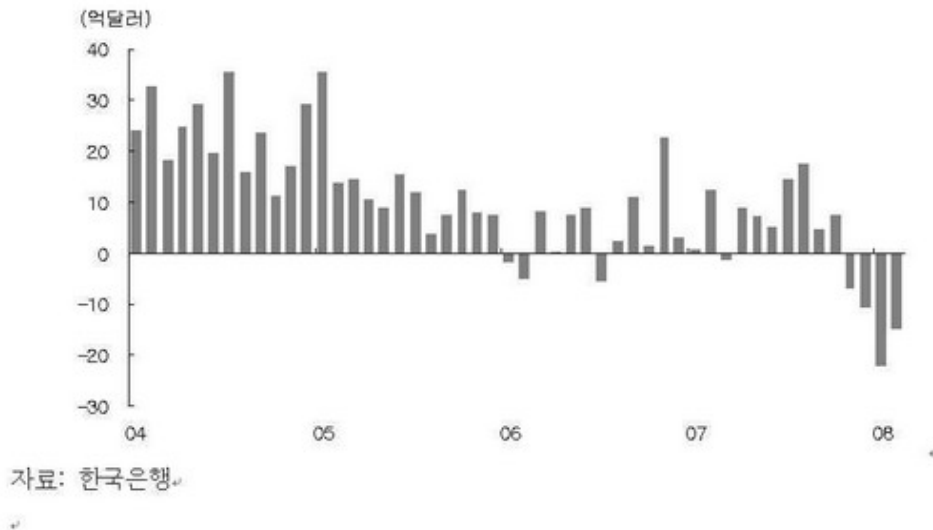
한국의 향후 2008년의 주식, 채권, 부동산, 물가, 기업경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70년대와 같이 한국이 독자적이거나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통한 글로벌 경기의 영향 없이 혼자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당연히 글로벌 경기에 따라 한국 시장도 연동되어 움직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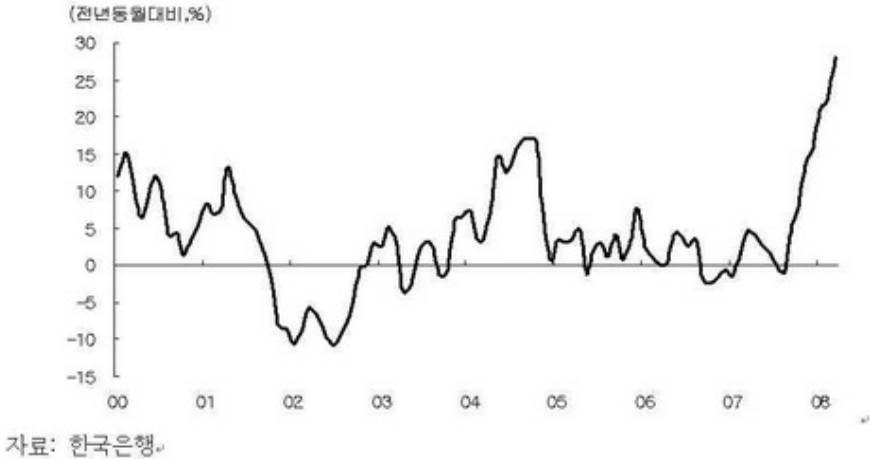
이건 주식 시장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내수 시장을 포함한 전 분야에 그 연동 파급 효과로 움직이게 되는 시스템이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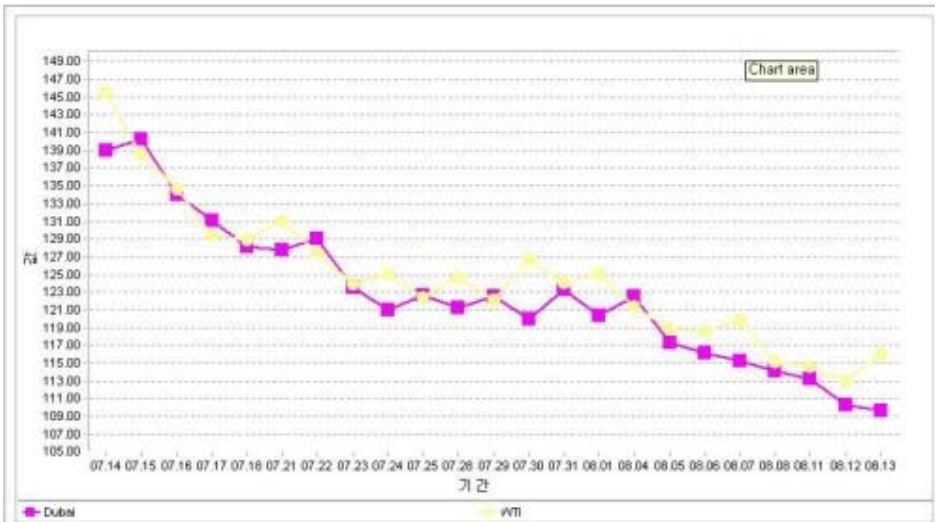
<참고 그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추이>



<참고 그림: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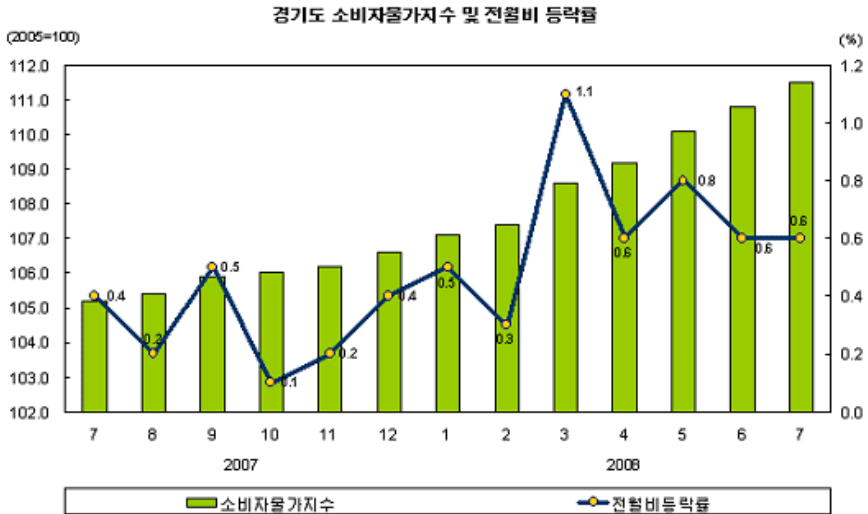


현재 이미 08년 2/4 분기를 기점으로 대규모 적자 구조로 들어 선지 오래에 더구나 수입 물가 상승률을 수직 상승하여 40%대를 넘어 서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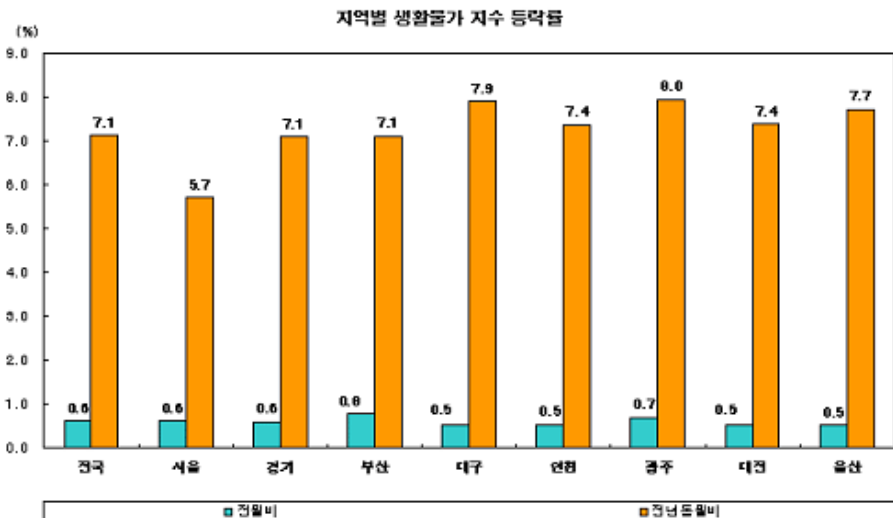


이것은 현재의 국제 유가의 하락세에 따른 정부의 국제 유가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 요인이라는 것이 점점 더 설득력을 상실해 간다는 소리로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일단 수도권 내의 국내 경기 동향을 중심으로 샘플링을 해 보자면 그 충격 여파는 더욱 확산 일로다..



실제로 채감 실제 물가의 상승률 수준은 = 포도:+54.4%/시금치:+28.4%/상추:+23.1%/닭고기:12.3%/고구마:24.8%/LPG:32.7%/무:-37.4%/국제항공료:+10.2%/국내항공료:+31.0% 수준으로 일부 농수산물물을 제외한 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필수 생활 물가는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본 것과는 갭이 생긴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08년 7월의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기대 지수 = 105.9(2008년 1월) --> 84.6 (7월)

경기 기대 지수 = 105.3 -->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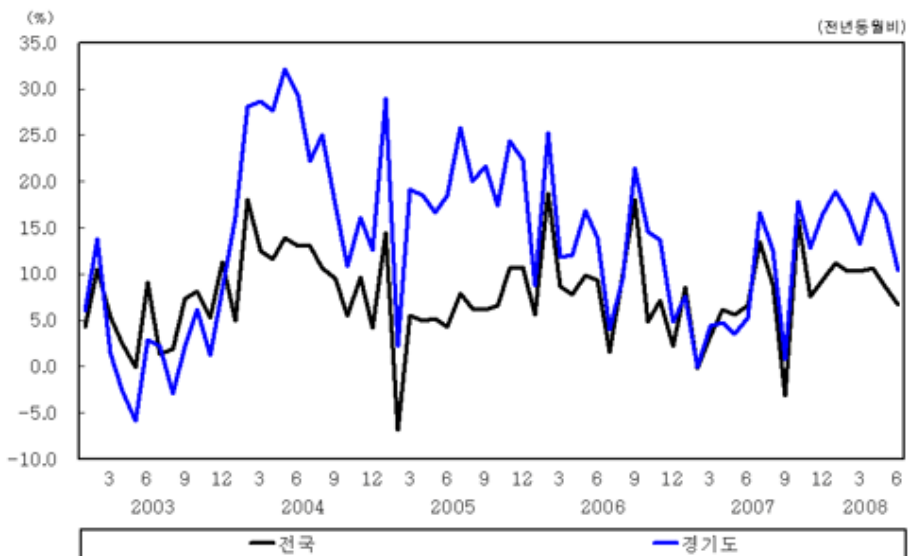
생활 형편 지수 = 103.4 --> 87.5

로 향후 2008년 하반기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심리를 살려서 내수 경기 부양은 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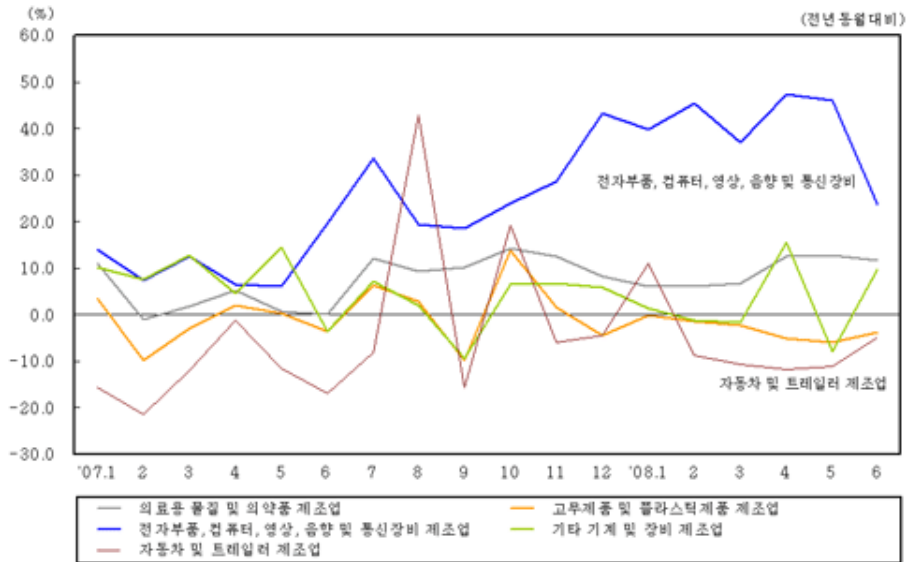
=====

기업 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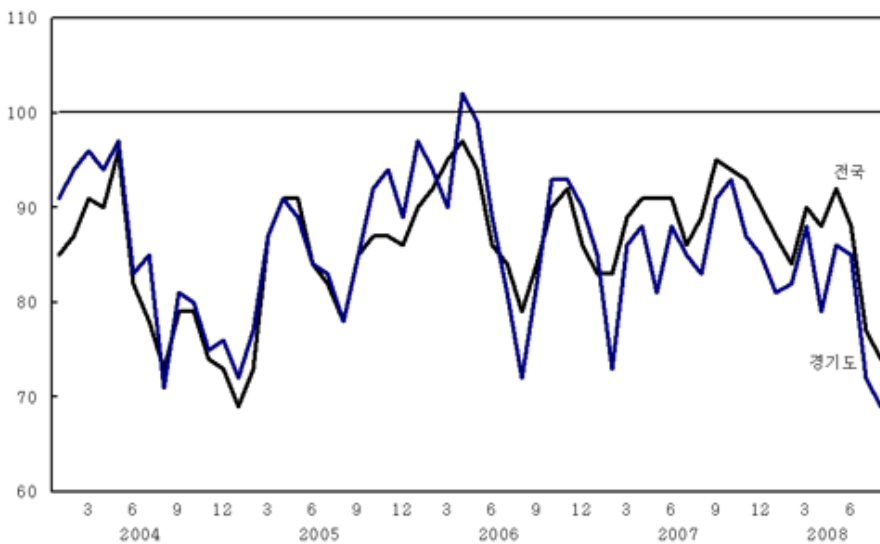
1. 수도권 대비 전국 산업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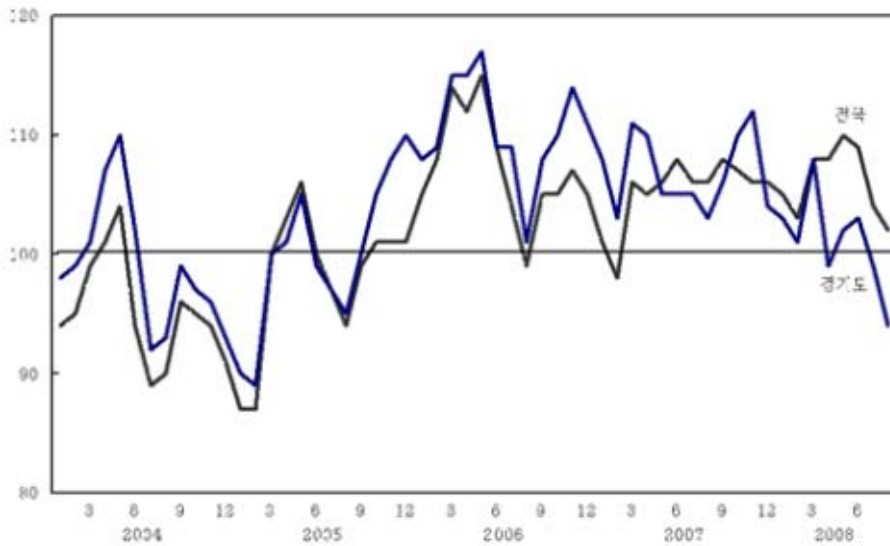
2. 주요 업종별 생산 증가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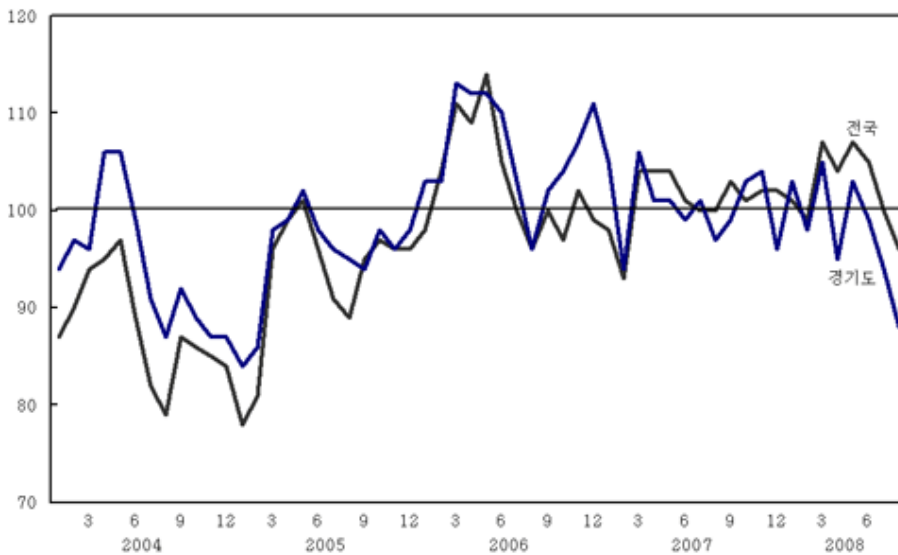
3. 제조업 업황 현황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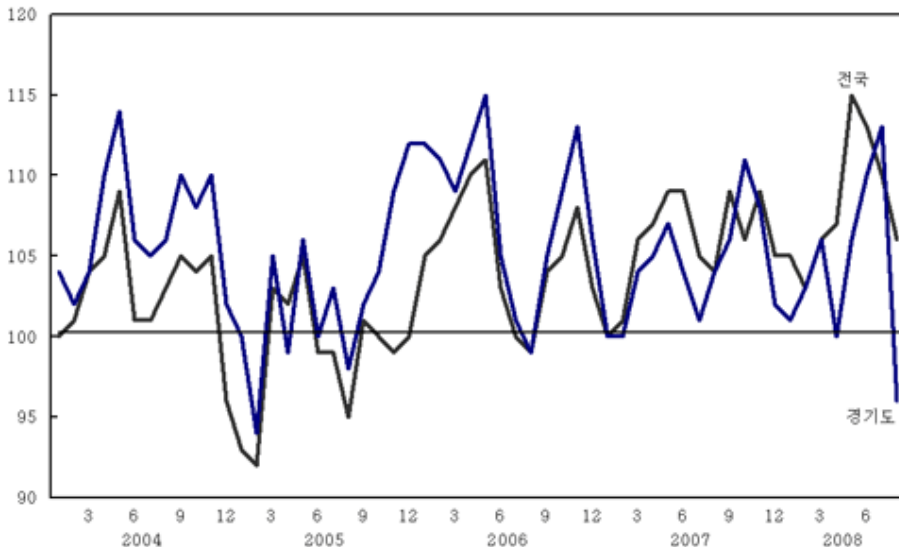
4. 제조업 생산 전망 BSI



5. 제조업 내수 전망 BSI



6. 제조업 수출 전망 BSI



결론 : 현재 각 기업들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기업 체감 경기가 더욱 위축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건설 발주 건수는 3개월 연속 감소 추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인해 가장 크게 내수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업종별로 비 제조업 업황 전망 BSI=58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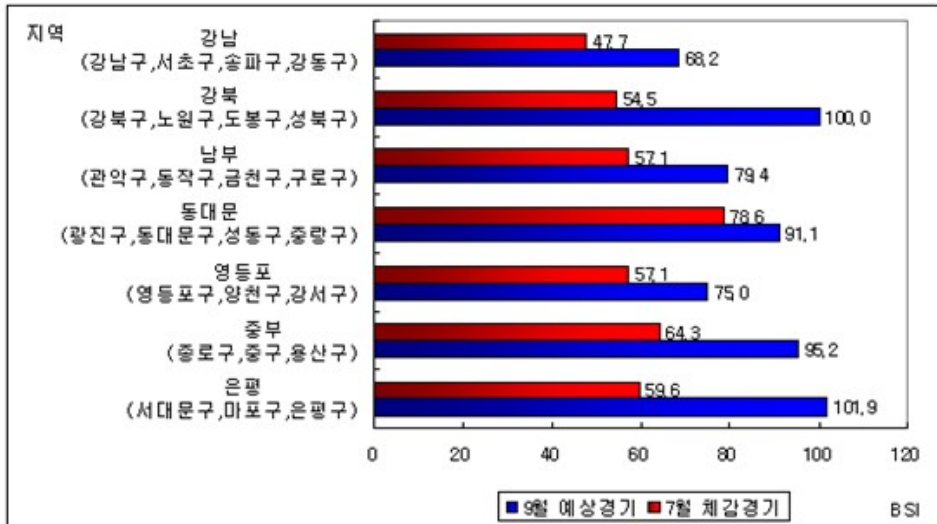
향후 하반기에 음식 숙박 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자영업계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2004년의 신용 카드 대란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이후 상승 기조가 올해를 기점으로 꺾이는 단계에서 제 2차 국내 자영업 구조 조정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제 1차 자영업 구조 조정 시기 = 2004년..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 시기를 보통 2010년에서 2012년 정도로 예상 하고 있었으나...

그 시기가 대폭 앞당겨 졌다...



특히 서울 지역내로 그 범위를 축소 시켜 보면 그 경기 반전은 더욱 더 확실해 보인다...

실제로 강남 역세권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BSI=100 기준으로 가장 최대 요인은 체감 매수 실적 감소(78%) / 체감 자금 사정(78.5%) 로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을 포함한 교육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건설업업황 BSI=33.3%를 포함해서 대부분 체감 불경기 수준이 10년을 넘어 사상 최악의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는 2009년 2/4 분기 내에는 가시적인 국내 내수 시장의 소비 진작에 따른 내수 경기 활성화는 기대를 못한다..

단지 버티기로 개인별 자금 실탄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버티느냐...하는 그런 수준으로 돌입했다..

교육 서비스업계인 학원을 빼면... 그 다지...

차라리.....학원을 차리는게 지금 시기는 남는 장사냐?..

=====

글로벌 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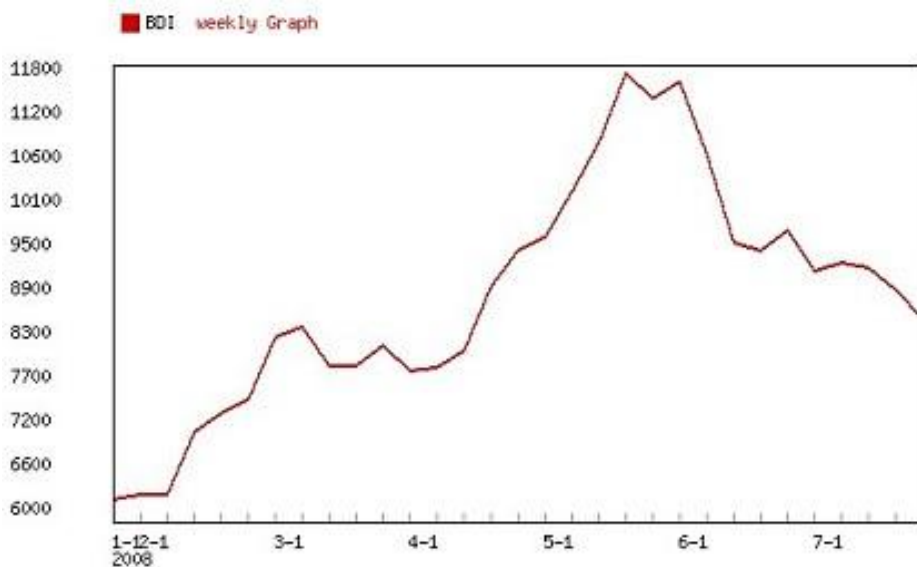
월간 원/ 달러



주간 원/달러



년간 원/ 달러

<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 <http://cafe.daum.net/iomine> >

특히 주목할 사항은 BDI 운임 지수의 하락 추세에 따른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글로벌 경기 하락 추세에 따라..

현재 한국은 조선 업계를 중심으로 선박 수주 취소 물량이 나오는 등의 가시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BDI 운임 지수는 글로벌 경기의 추세가 호황이나 불황이나 하는 추세 전환 국면을 보는 간접 지표로 이미 그 추세가 확연하게 꺾였다..

현재 중국내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필두로 현재 중국 부동산 업계의 자금 부족분이 -106조 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내의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분양 수입은 보통 평균 14% 정도가 유지되어야 사업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1월~4월 주택 평균 분양 수입은 전년 대비 +1.6% 증가율에 그쳤다..

따라서 올해 안에 24% 정도의 중국내의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도율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올림픽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시한폭탄이 움직이고 있다..

2009년 중국경제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E)	2009년(E)		
				긴축 (확률 15%)	소극적 부양 (확률 60%)	적극적 부양 (확률 25%)
경제성장률	11.1	11.9	9.8	7.2	8.1	9.6
소비	7.6	7.2	7.0	6.8	7.0	7.4
고정투자	17.6	16.1	14.5	9.0	10.0	12.0
순수출	11.2	10.0	△5.0	△5.0	0.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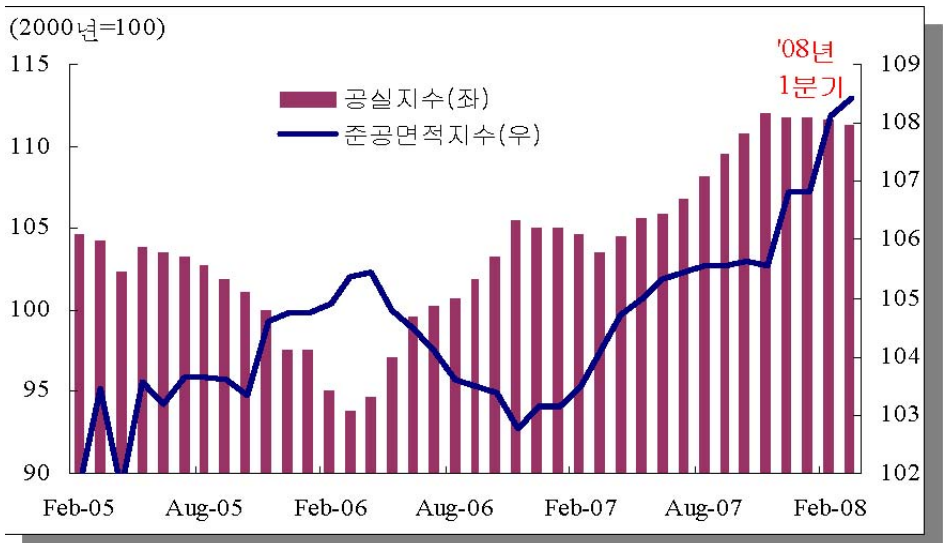
주: 1. 2007년의 경제성장률 이외의 소비, 고정투자, 순수출의 증가율은 미발표인 관계로 자체 추정

2. 각 시나리오의 확률은 중국정부의 정책성향과 정책조합,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

(7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 추세)



(공실 및 준공 면적 지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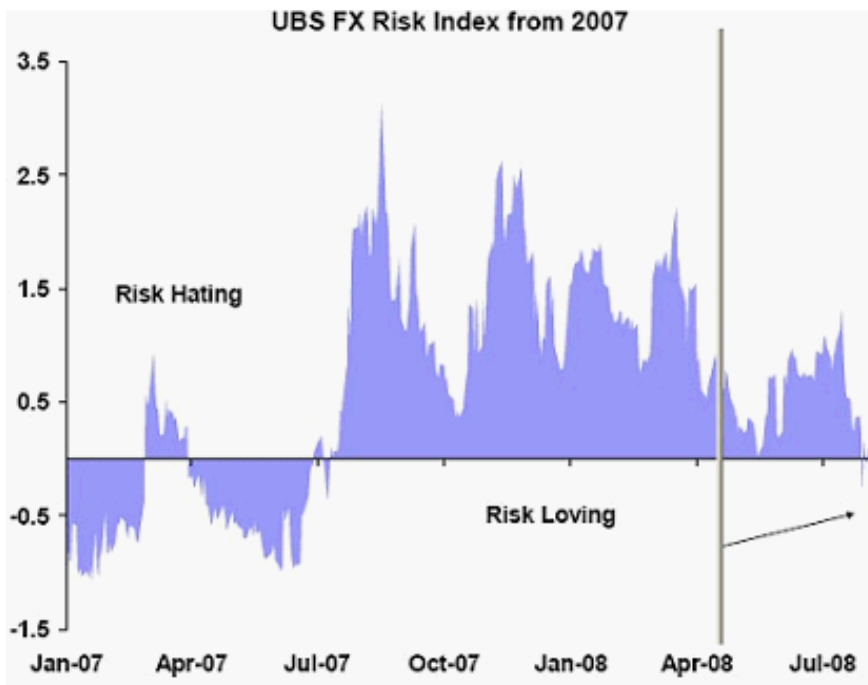
현재 광저우와 선진 일대를 중심으로 폭락 기조가 보이는 속에서 직접 비용 : 30%+ 간접 가격 상승분 : 20%로 최대 -50% 내외의 가격

폭락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경기 부양을 실시 한다 치더라도..

성장 추세는 유지 하되...최소한 2. 3년 정도는 조정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국내의 대 중국 수출도 조정을 받는게 불가피하며 이것은 곧바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역풍으로 전염 파급 효과가 미친다..

=====

자산 리스크 변화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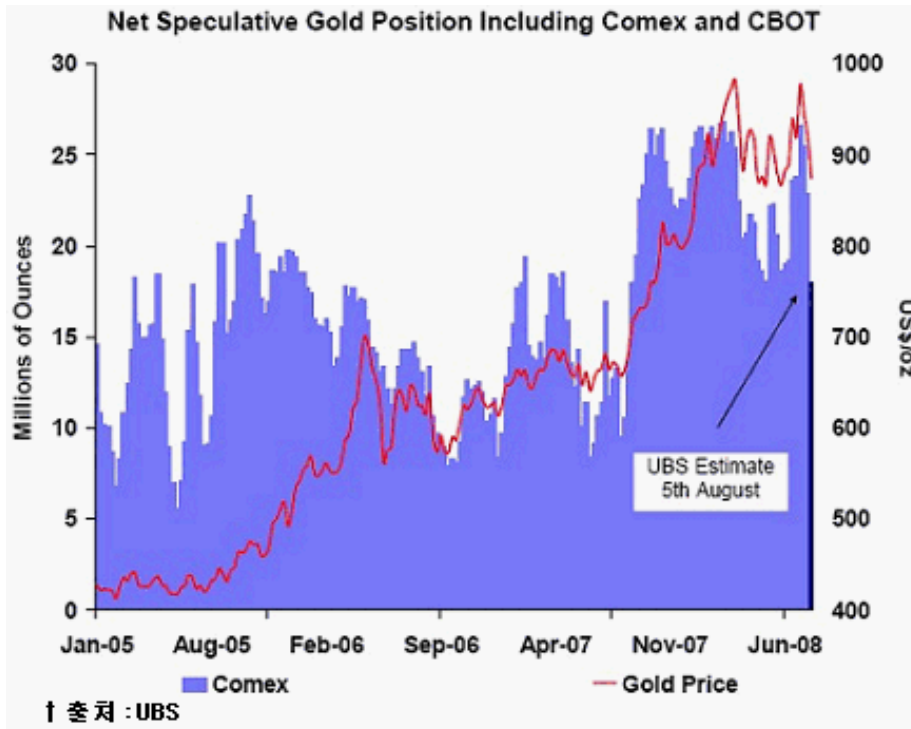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 동향 : 2008.8 UBS

더구나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개인 주체별로 안전 자산 쪽으로의 회귀가 두드러진 상황 속에서..

향후 이런 안전 자산 선호도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젠 경기 전환에 따른 = 투자 자산 --> 안전 자산 선호도가 늘어나

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안전 자산 선호가 글로벌 추세니까...



금 포지션 동향 : 2008. 8

FRB의 미국 경제 수정 전망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4월 전망	수정 전망	4월 전망	수정 전망	4월 전망	수정 전망
GDP 성장률	0.3~1.2	1.0~1.6	2.0~2.8	2.0~2.8	2.6~3.1	2.5~3.0
실업률	5.5~5.7	5.5~5.7	5.2~5.7	5.3~5.8	4.9~5.5	5.0~5.6
PCE 물가상승률(전체)	3.1~3.4	3.8~4.2	1.9~2.3	2.0~2.3	1.8~2.0	1.8~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식품 및 에너지 제외)	2.2~2.4	2.2~2.4	1.9~2.1	2.0~2.2	1.7~1.9	1.8~2.0

* PCE: 개인 소비지출, 수정전망 시점은 6월

현재 FRB의 미국 경제 전망치는 계속 수정되고 있으며

주요 은행 자산상각 및 자본조달 현황

(단위:억달러)

회사	자산 상각액	자본 조달액
씨티그룹	546	491
메릴린치	518	308
UBS	382	297
와코비아	220	110
BOA	212	207
HSBC	195	39
IKB	161	133
RBS	155	255
워싱턴뮤추얼	148	211
모건스탠리	144	56
JP모건	128	79
웰스파고	100	41
크레디트스위스	97	27
리먼브러더스	82	139
*2007년 6월 이후	자료:파이낸셜타임스	

미국내의 주요 금융 기관들의 자산 상각과 프라임론의 대출 규제 제한조치를 이미 75% 가까운 은행들이 대폭규정강화를 함으로써...

향후 2012년 이후까지 미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내의 ARS 채권을 투자자들로부터 재매입 하라는 미 사법 당국의 압력 속에서 이미 골드만 삭스와 JP 모건의 3분기 손실 전망은 비관적이다..

더구나 현재 국내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 수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은 신용카드 업계로 확산 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그 원인은 역시 PF 부실 채권에 대한 잠재적 위험 리스크 요인이 가장 큰 핵심이며 이것은 곧 바로 제2금융권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다들 조만간 9월경..부터 저축 은행을 통한 대출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결과 : PF 대출 금리 + 1% 상승시 이자 부담 = 1300억 증가...

제2금융권 PF 대출 잔액 = 12조 400억 --> 이자 부담 = 1조 3600억..

대출 금리 인상시 = 17%는 무조건 부도... 2008년 1/4 분기내 25%

부도 가시권.....

=====

이런 상황에서 세금 환급을 통한 경기 부양 기대 효과는... 없다...

소비로 연결이 되는게 아니라 금융권의 이자 부담 상승으로 은행으로
흡수 될 뿐이다...

그리고 환율이 1043원대를 돌파시...

금리를 올린 금리 인상 효과는 전부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가드 라
인이 1040 원인데...

훗...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진짜 놀고 자빠진다.....

더구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상 경기 부양 대책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미국 중국 유럽과 같이... 2009년 1/4 분기 내에 대대적인 구조
조정 국면에 들어 갈 것이다...

이에 대한 개인별로 현금 비중 확대와 투자 자산 회수를 통한 안전
자산으로의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향후 09
년 2/4 분기까지의 단기 국내 내수 불황에 따른 비상 생활 자금 마련
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대비해야 한다..

역시 지금은 아무리 봐도 닥치고 현금이다..

포트 폴리오라는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설사 지금 돈이 없더라도 향
후 내년 중간까지 예상 되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비상 현금을 최소
한이라도 확보하고 대비해야 하는게, 그런게 포트 폴리오다....

=====

나도 비관적으로는 보기 싫고 비관론자는 더더욱 아닐 뿐더러... 이젠 다시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아볼려고 학교 나온 다음에 교회 때려 친지 근 17년 만에 다시 다니고 있는데...

데이터가 아니란데 뭘 어찌라고... 그럼 없는 말을 지어 내서 조중동식의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

그 찌라시 애들은 아직도 빠끼질에 열을 올리고 있더구만....

으이그.....

=====

보는 관점을 다각도로 봐야 할 시기다...

일단 한국 하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 신용 경색 + 중국의 부동산 발 내수 경기 침체의 경기 하강곡선 + 일본 엔 캐리 자금 동향+ 달러 대비 유로 존의 무게 중심 이동 포인트...

==>> 이런 종합 외부 변수들 + 현재 국내 내수 경기와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온다...

각자. 그림이 나왔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 또한 당연히 나왔으리라 본다...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추세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마이너스 자산가치 폭락의 피눈물 만이 강처럼 흐르리라...

자... 모두 다 깨어 날 지어라... 이 거대한 글로벌 마켓의 변화 추세를 하루 빨리 먼저 캐치 하고 준비하는 자...

세종대왕께서 천사의 미소를 보내 주실지니..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폐쇄 국가 경제권이 아니라는 것을 각자 깨달았다면...

이 거대한 시대의 조류에 흐름을 타야 살아남는다....

이제 2008년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에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내가 뭘 상관이야.....

이런 말을 하고 아니면 말고 하면서 끝내는 시절은... 10년 전에 이미
종말을 고한지 오래다..

각자... 가슴 깊이 새겨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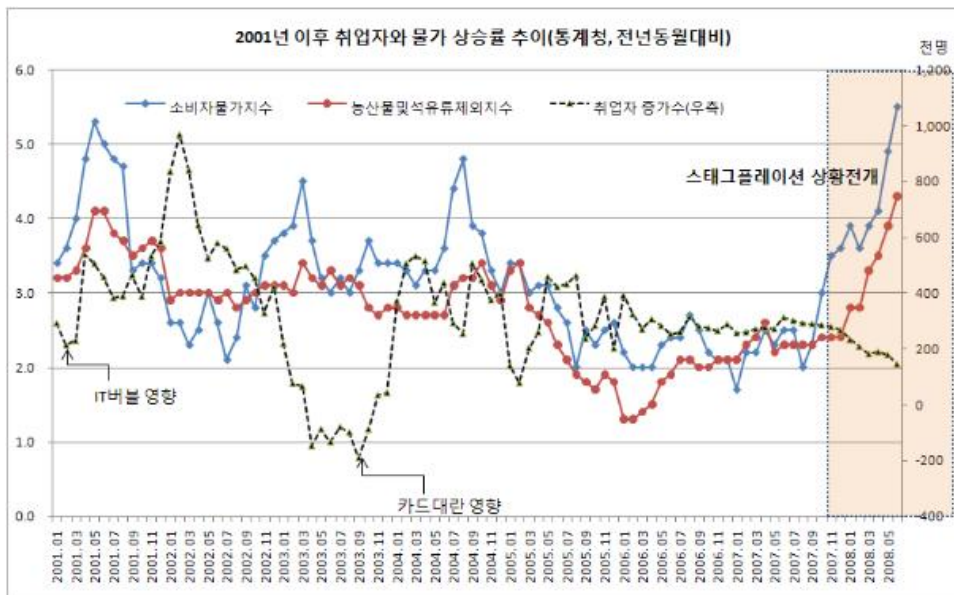
<작성일 2008년 08월 15일>

<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 <http://cafe.daum.net/iomine> >

31. 과연 한국의 현재는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인가?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 물가는 오르고(인플레이션) 경기는 후퇴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총 공급이 줄어들어 물가가 오르고 GDP가 줄어들어 그 결과 투자 위축이 발생하여 실업률이 오르는 현상

그럼 과연 한국의 현재는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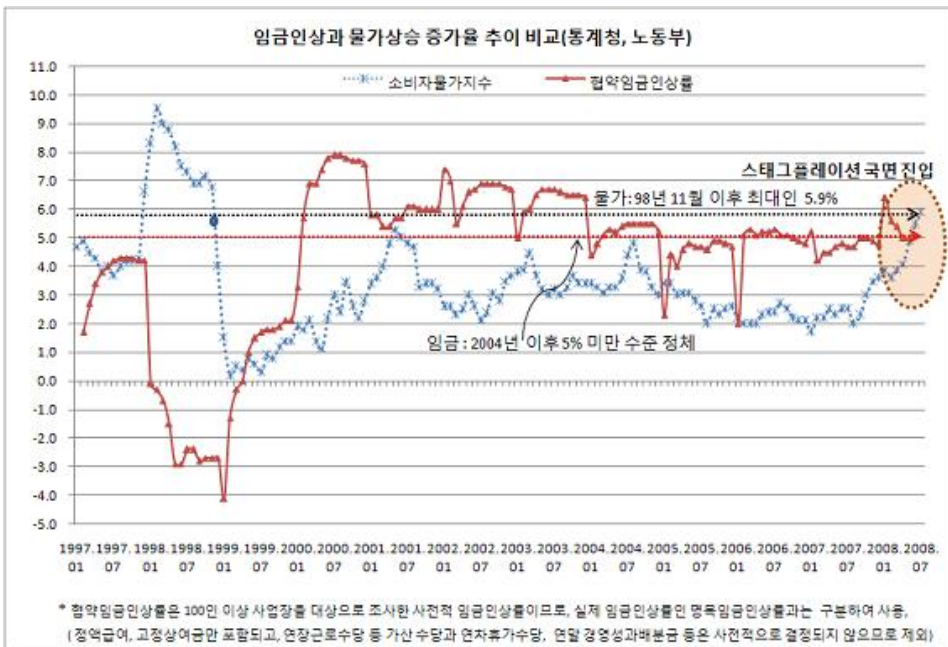


한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인가 아닌가를 논하는 단계는 이미 지난 해 말 그대로 스태그 플레이션에 이미 진입을 한 나라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상 한국 경제는 연간 신규 고용 시장을 최소 30만에서 35만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해서 민간 고용을 흡수해 줘야 경제가 유지가 되는 나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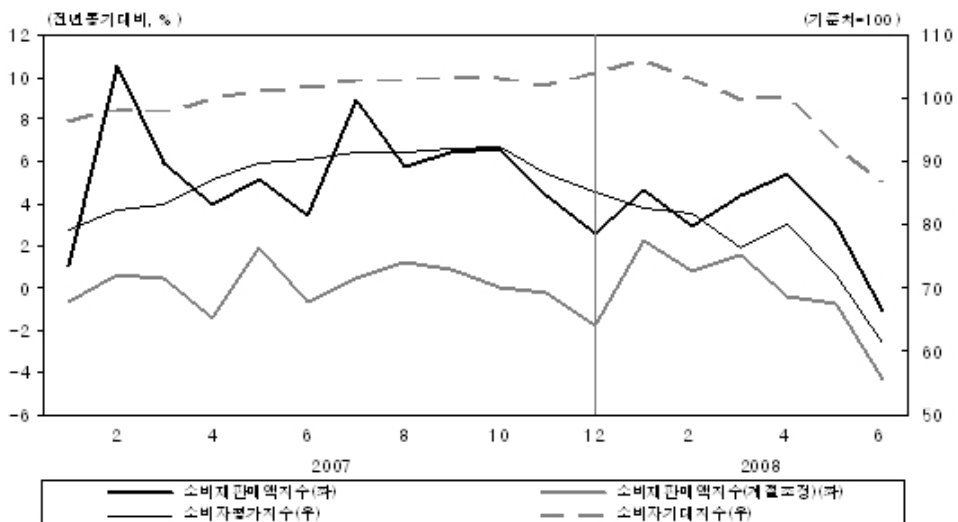
하지만 현재 2008년은?

20만명도 장담하기 힘들다. 여기서 장기적인 엄청난 위협이 도사린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오늘날 현실은 단순히 수출 경기 부양책의 단순 70년대 경제 논리인 그런 식으로는 중장기적인 10년 플랜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나라다.

소비자 판매액 및 소비자평가, 소비자 기대지수



이미 2008년 1월달 경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걸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위기의 확산으로 번지게 된다. 이른바 거시 경제 정책의 판단 미스로 대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그 결과 소비 감소와 내수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내수 경기는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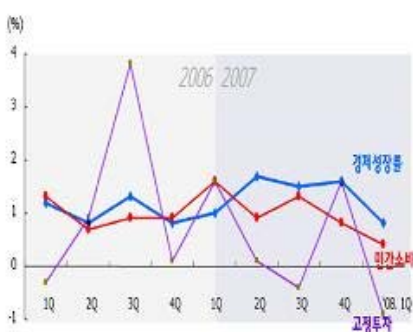
흔히 한국 경제는 7:3의 룰이 있다. 수출 : 내수가 7:3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출 비중이 65%에 내수 비중이 35% 정도인 나라다. 이 내수 비중 35%인 나라 안에서 또 다시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 수치의 2배인 36%에 달한다.

결국 내수 시장의 비중이 35%인 나라 안에서 그 중에 총 취업자 수의 1/3이 이른바 자영업 생계가계들이다.

그리고 이른바 중소기업에서는 총 취업자 수의 90%의 고용을 흡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건?

일부 대기업 수출 기업들과 특수 자영업자 계층을 뺀 나머지 90%의 일반 가계들이 된다.



자료: 한국은행, ECOS DB; 통계청, KOSIS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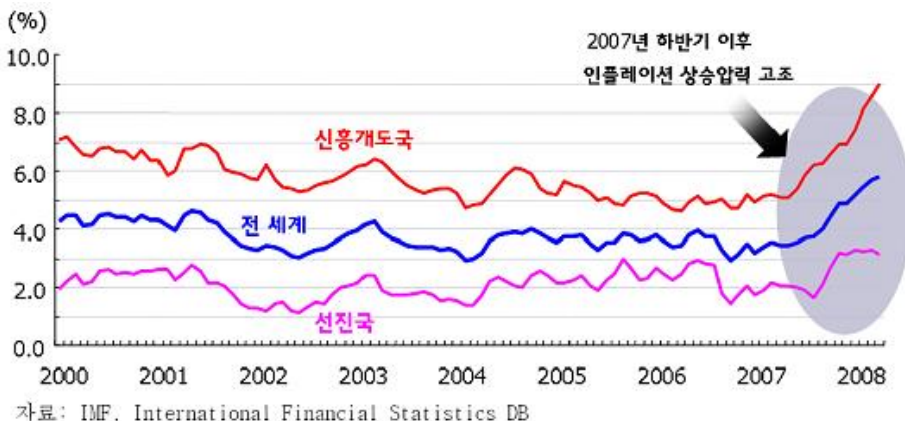
이미 7월 생산자 물가는 10년 내 최대 수치인 12%가 폭등 했으며.. 이미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돌파 하기 직전이다. 이 원인은? 더 이상 입 아프니까 말 안한다.

더구나 한국 국내 기업들의 시설재 고정 투자 비중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추세로 더 이상의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인 08년 1/4 분기를 기점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는? 오히려 축소 일로다.

이건 단순히 수출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기 부양이라고 떠드는 현재의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실제 현실은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미 글로벌 경기 상황상 인플레이션의 압박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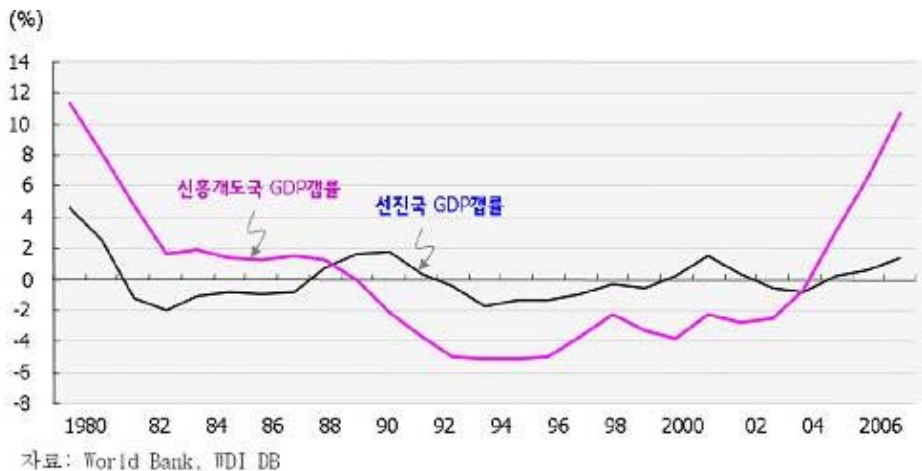




이미 글로벌 유동성은 98년 LTCM의 사태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과잉 유동성의 상태를 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기조로 인해서 한국은 98년 그 당시 제 1차 IMF 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었다.

세계적인 유동성 팽창의 시기로 인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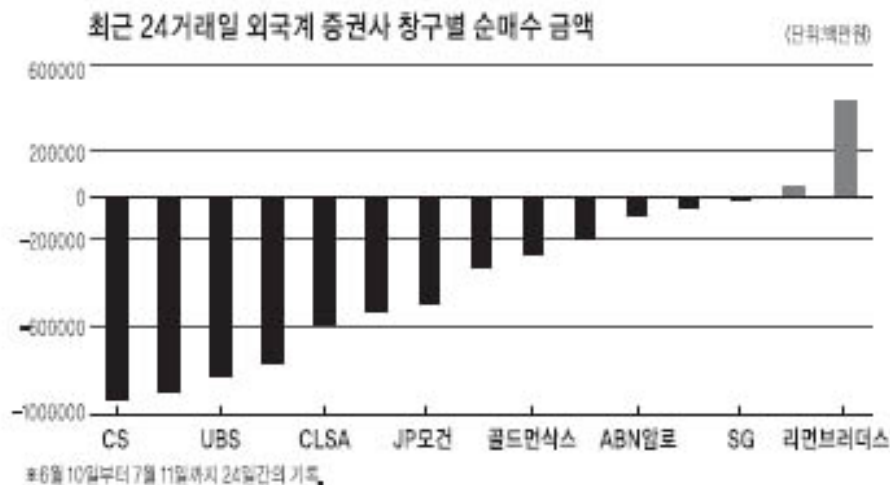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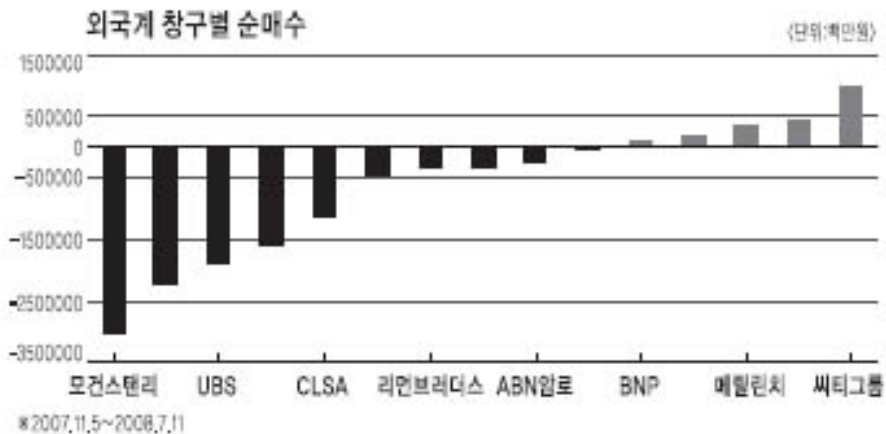


하지만 2008년의 경우는 98년 그 당시와 정반대의 극대극의 현상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른바 미국 시장에서 달리 유동성의 블랙홀이라고 불릴 만큼 막대한 양의 해외 투자 자본을 미국 국내로 빨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곧 이머징 마켓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진다. 그 제1순위 타격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2008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액=221억 달러

누적 공매도 금액 상위 30개사 및 순매도 창구 〈단위:천원〉							
순위	종목명	누적 공매도액	증권사 창구별 순매도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1	LG전자	466,152,874	ML	MQ	CLSA	UBS	삼성
2	삼성전자	315,436,374	MQ	JPM	ML	CLSA	MS
3	POSCO	292,720,110	JPM	UBS	ML	MQ	MS
4	현대차	285,502,106	MS	CS	UBS	D.S.K	CT
5	하이닉스	277,481,358	CS	ML	MS	CT	GS
6	삼성중공업	183,203,847	JPM	굿신	우리	현대	GS
7	국민은행	175,129,156	ML	우리	CT	D.S.K	UBS
8	현대중공업	173,602,734	CLSA	우리	MQ	현대	삼성
9	동양제철화학	173,562,048	MS	GS	D,S,K	CS	다이와
10	GS건설	146,034,550	GS	UBS	CT	우리	MS
11	신세계	131,633,715	GS	UBS	CS	삼성	현대
12	기아차	95,685,074	UBS	CS	GS	D.S.K	JPM
13	LG디스플레이	95,582,693	삼성	우리	노무라	이트레이드	BNP
14	신한지주	92,616,880	MQ	LB	CS	노무라	신영
15	삼성SDI	88,364,531	MS	CS	CT	D.S.K	MQ
16	우리금융	86,811,322	CS	삼성	MS	CLSA	CT
17	현대산업	83,497,537	CS	MQ	CLSA	현대	CT
18	삼성테크윈	82,582,356	MS	CS	삼성	ML	굿신
19	LG화학	80,147,965	CS	UBS	ML	JPM	MQ
20	두산중공업	77,399,347	MQ	ML	삼성	하나대투	CS
21	NHN	67,440,615	GS	UBS	우리	MS	ML
22	두산인프라코어	65,068,061	삼성	대신	BNP	MS	현대
23	KT	62,541,680	MQ	한국	MS	ML	CT
24	한진해운	59,055,796	삼성	CS	신영	현대	부국
25	삼성화재	55,606,964	CLSA	CT	JPM	D.S.K	MQ
26	현대건설	54,707,122	삼성	UBS	CT	D.S.K	MS
27	한국전력	54,301,038	JPM	GS	CS	MQ	CT
28	현대제철	51,554,544	CT	MS	GS	CLSA	MQ
29	대우건설	49,762,292	JPM	MQ	CS	D.S.K	CLSA
30	한진중공업	49,011,508	현대	CS	UBS	KB	MS

※6.23~7.29, ML=메릴린치, MQ=맥쿼리, MS=모건스탠리, CS=크레디트스위스, GS=골드만삭스, CT=씨티, JPM=JP모건
 〈자료:증권선물거래소, 대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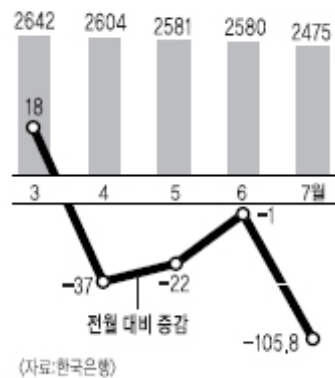
내국인 투자 유보 자금 액수 총액 = 22조 5천억원 규모

<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 <http://cafe.daum.net/iomine> >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얼마나 까 처 먹은 건가

외환보유액		단위 : 천달러
2001	102,821,378	(6,623,261)
2002	121,412,508	(18,591,130)
2003	155,352,365	(33,939,857)
2004	199,066,133	(43,713,768)
2005	210,390,703	(11,324,570)
2006	238,956,116	(28,565,413)
2007	262,224,070	(23,267,954)
2007. 7	254,838,621	(4,137,002)
2007. 8	255,301,804	(463,183)
2007. 9	257,293,573	(1,991,769)
2007.10	260,138,379	(2,844,806)
2007.11	261,927,965	(1,789,586)
2007.12	262,224,070	(296,105)
2008. 1	261,870,733	(-353,337)
2008. 2	262,364,808	(494,075)
2008. 3	264,245,660	(1,880,852)
2008. 4	260,482,546	(-3,763,114)
2008. 5	258,198,958	(-2,283,588)
2008. 6	258,097,988	(-100,970)
2008. 7	247,522,666	(-10,575,322)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억달러)



현재의 외환 보유액의 현재 상황은 이렇다. 하지만 말 그대로 무조건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즉 한마디로 현재의 유가 상승 수준으로 볼 때에 한국은행조차 스스로 현재의 외환 보유고 수준은 절대로 적정 수준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정 외환 보유액 추정 (단위: 억달러)			
	외환 보유액	적정 외환	여유분
2009년	2,103.90	2,557	-453
2008년	2,389.60	3,260	-870
2007년	2,622.20	4,416	-1,794
2008년 1/4분기	2,642.50	4,595	-1,952

※적정 외환의 기준은 3개월 수입금액+유동외채+오차와 누락+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1/3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한 마디로? 이런 것을 언론 플레이에 의한 착시 효과라는 것이다. 절대로 달러를 허투로 많다고 막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는 절대로 많은게 아니다.

이건 말그대로 대 착각을 하고 있는것이다.



즉 한마디로 전년도 대비 달러는 연간 -35% 가량이 평가 절하가 된 상태이며 98년 대비로는 -48%가 평가 절하가 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외환 보유고는 그 외환 보유고가 아니라 작년 대비 수준으로 2/3 수준으로 보고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도?

강만수는 숫자 착시 효과에 빠져서 무조건 꼬떡이 없다는 소리를 한다. 이것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착시 효과에 전국민들이 지금 속고 있다. 이건 대단한 착각이다.

97년 그 당시도 똑같이 이런 숫자 착시 현상에 의해 당했던 그 전례가 있는데도 무조건 배짱이다.

외환 보유고를 뉴스나 신문에서 볼때 가장 핵심적으로 볼 중요한 것은 액수 그 자체가 절대로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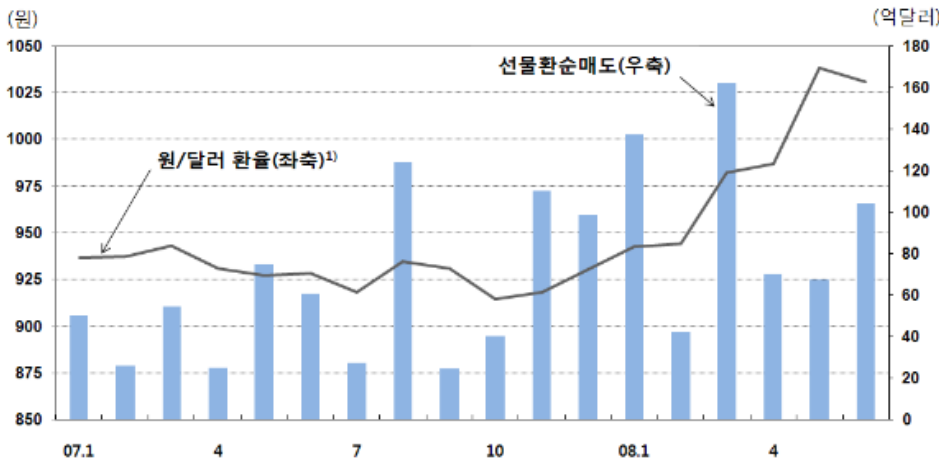
달러 대비 외환보유고와 국제 유가 대비 외환 보유고를 대충 비교해서 보고 나서 지금이 위험한지 아닌지.

적정 수준인지 위험 수준인지를 판단하는것이다.

지금 달리 평가 절하 수준과 국제 유가 수준으로 볼때는 절대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화폐라는 것은 고정 자산이 아니다. 변동 자산인 말 그대로 요물인 것이 화폐다.

< 한국의 분기 원유 수입물가지수의 누적 상승률 추이 >



그래서 단순히 액수가 많다고 느껴지거나 그렇게 보인다고 그걸 그대로 믿는건 오판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 보유고는 국제 유가에 따라 실질 구매력이라는 측면에서 조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자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무조건 비공개다.

현재 외환 보유고는 2/3 수준으로 봐야 그게 정답이다. 이게 지금 많다고 생각하는건 한마디로 초딩 애들 데리고 덧셈 뺄셈 산수 놀이 하는 수준이랄까?

그러는 동안 윗대가리들은 미적분으로 확률계산까지 지들끼리 때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착시 효과라는게 생긴다는 것이다. 더 이상 속지 말기 바란다.

=====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파급 효과는 한국에 어떤 형식으로 여파가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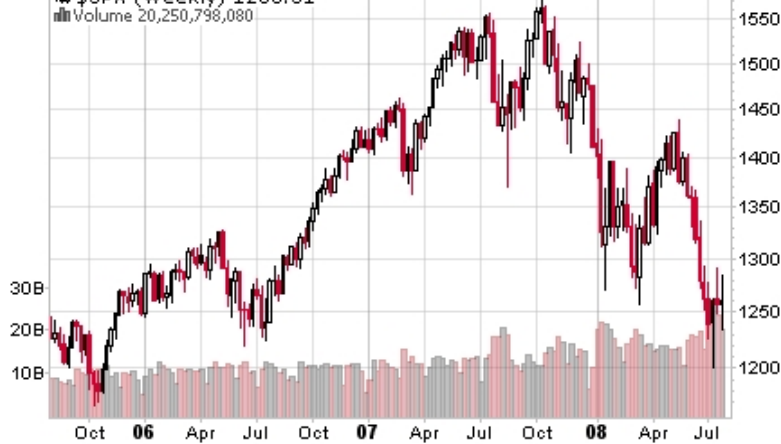
\$SPX (S&P 500 Large Cap Index) INDEX

© StockCharts.com

Friday 1-Aug-2008

Open:	1257.76	Bid:	n/a	▲	+0.20%
High:	1284.93	Bid Size:	n/a	Chg:	+2.55
Low:	1234.37	Ask:	n/a	Last:	1260.31
Prev Close:	1257.76	Ask Size:	n/a	Volume:	20,250,798,080

📊 \$SPX (Weekly) 1260.31
 📊 Volume 20,250,798,080

**\$NIKK** (Tokyo Nikkei Average (EOD)) INDEX

© StockCharts.com

Friday 1-Aug-2008

Open:	13407.36	Bid:	n/a	P/E:	▼ -1.80%
High:	13468.94	Bid Size:	n/a	EPS:	Chg: -240.17
Low:	13018.22	Ask:	n/a	Last Ticks:	Last: 13094.59
Prev Close:	13334.76	Ask Size:	n/a	Last Size:	n/a
				Volume:	0

📊 \$NIKK (Weekly) 13094.59
 📊 Volume undef



\$SSEC (Shanghai Comp (EOD)) INDEX

© StockCharts.com

Friday 1-Aug-2008

Open:	2883.76	Bid:	n/a	P/E:	▼ -2.21%
High:	2924.44	Bid Size:	n/a	EPS:	Chg: -63.29
Low:	2721.95	Ask:	n/a	Last Ticks:	Last: 2801.81
Prev Close:	2865.10	Ask Size:	n/a	Last Size:	n/a
				Volume:	0

\$SSEC (Weekly) 2801.81
Volume undef


\$KOSPI (South Korea Seoul Composite (EOD)) INDEX

© StockCharts.com

Friday 1-Aug-2008

Open:	1609.57	Bid:	n/a	P/E:	▼ -1.51%
High:	1611.15	Bid Size:	n/a	EPS:	Chg: -24.16
Low:	1542.89	Ask:	n/a	Last Ticks:	Last: 1573.77
Prev Close:	1597.93	Ask Size:	n/a	Last Size:	n/a
				Volume:	0

\$KOSPI (Weekly) 1573.77
Volume und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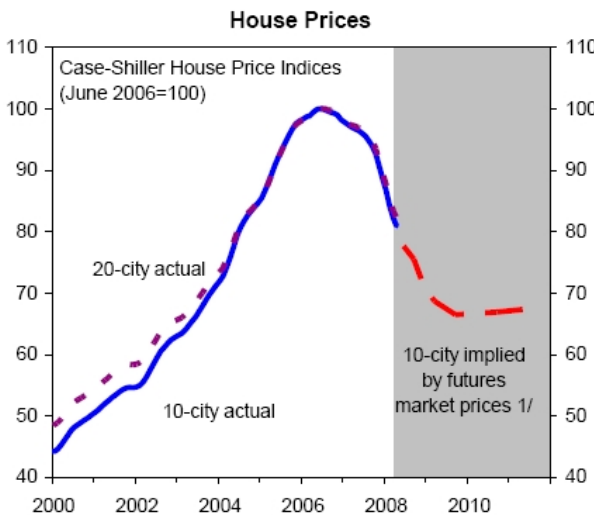







결론 : 현재의 글로벌 국제 경기 동향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라고 애써 긍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사태로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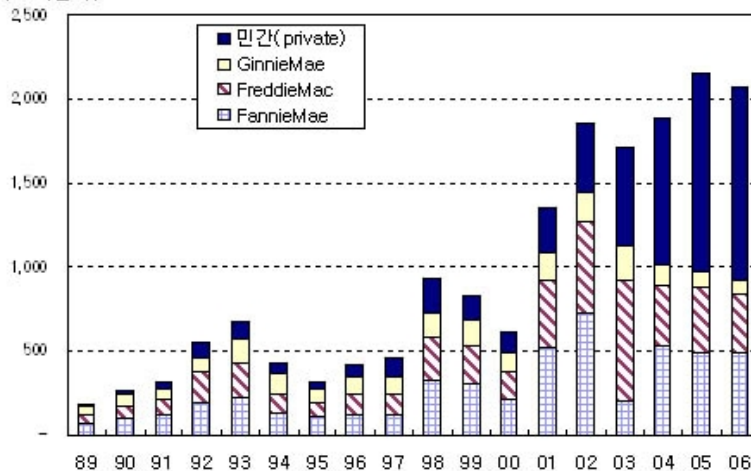


미국에서의 주택 가격 표준 지수인 케이스-실러 지표상... 이미 미국 주택 가격 시장은 전년 대비 -32%가 폭락한 상황이다.

그래서 예전에 간접 리츠 펀드에 대한 미국 투자 포지션으로 시기를 2009년 2/4 분기 이후로 잡아서 설명해 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10억달러)



거기에 향후 2009년 2/4 분기까지 최대 -4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최대 -37% 가까이 올해 안에 폭락이 예상되며 호주는 또한 2012년까지 IMF 발표상 -30% 가까이 폭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라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하지만 문제는 과잉 유동성과 과잉 신용 문제의 대두다.

즉 98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국제 글로벌 추세는 유동성 확대와 과잉 신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확대라는게 핵심이다.

인플레이션이라는건 단순히 물건 값뿐만이 아니다. 금융 자산이나 주택 가격의 상승과 같은 실물 자산 가치의 상승 또한 인플레이션에 포함된다.

과거 두 차례 오일쇼크 때
미국에선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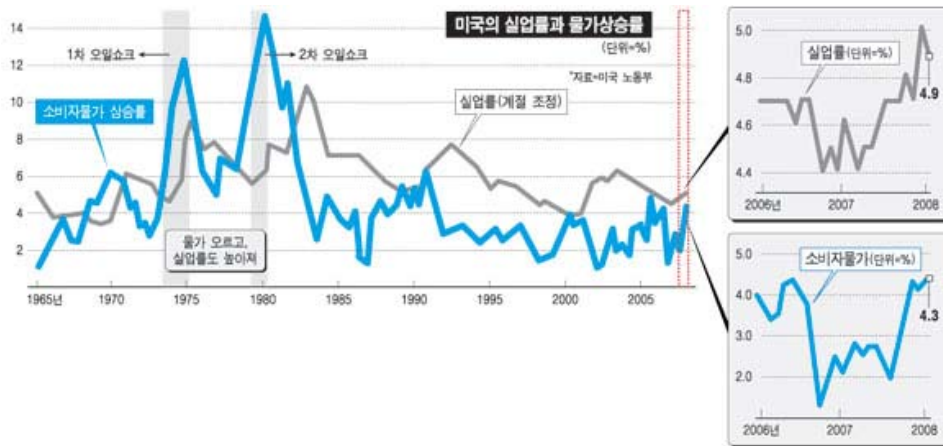


이 밑바탕에는 이른바 과잉 신용이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

과잉 신용으로 인한 보유 자산의 실물 가치가 상승하면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한 신용 자금이 짧은 시간 안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집중이 된다. 자본을 그곳으로 투하한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그 어떠한 가치 창출이 없는 주택이나 금융자산 가격 변동이 투기적인 가격 변동에 의해 일시에 돈이 물리게 된다.

현재의 고유가 상황대비 70년대의 고유가로 인한 복합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를 미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 경우다.





보는 그대로 현재가 바로 그 사이클이 변화 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다.

그 전환점이 2008년이다.

한국만 부동산 시장의 과대 폭등이 있었던게 아니다.

미국, 중국, 유럽 다 마찬가지다. 그 결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글로벌 신용 경색의 여파로 인해 이제 그 제1 순위로 미국 주택 시장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것이고,

유럽과 중국, 호주 다 마찬가지로 된 것이다. 거기서 한국이라고 절대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98년을 기점으로 이미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상황이며 예전 80년대처럼 독립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여파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009년 이후부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미 금융 시장에서부터 신호가 나오고 있다. --> 이것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실물 자산 분야로 퍼질 것이다.

그 파급 충격 효과가 전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이후로 보는게 보편적인 룰이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결과라는데 단순히 시장에서 파는 콩나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걸 08년 1월달부터 감지하고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역주행을 해서 위기를 키웠다.

=====

그럼 현재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아 줄 것인가?



이미 한-미간 금리 격차가 벌어질대로 벌어진 상황이다.

거기에 이미 물가 상승률이 기준 금리를 돌파한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 효과는? 상쇄가 되버린다.

올리지 말라는게 아니라

진짜로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려고 했다면 지금 8월달이 아닌 3월이나 4월달이 미리 손을 썼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나서 물가를 잡는다는 효과는 사실상 자동 상쇄 효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웨이크 속임수라는 것이다.

보통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를 잡으려면 기초 경제학 상으로 금리를 올리면 된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것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문제는 전혀 다른 곳으로 확산이 되

고 기대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경우는 위에 제 1, 2차 오일 쇼크를 통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충격 효과 즉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현재 정부에서는 전혀 반대로 역주행을 해서 그 피해를 다른 나라에 비해 2.3 배 이상 키웠다는게 문제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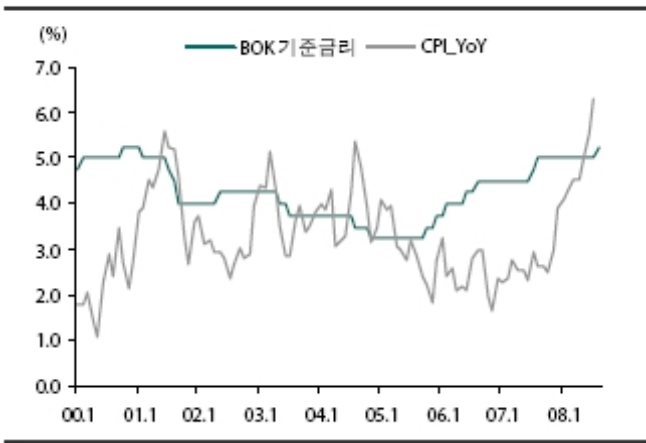
그래서 끊임없이 환율 얘기가 나오는것이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서는 고도의 환율 조정을 통한 수입 물가의 가격 상승을 조절해서 국내 물가가 폭등 하는걸 조정해야 하는데 한국은 여기서 대 실패를 했다.

그래서 4월달에 다이와 증권 애널리스트가 급기나 기어 나와서 한국 대통령을 대놓고 비웃기까지 하는 경우가 온 것이다.

한국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냐 하고 싸우고 헛소리할 동안 일본 애들이 먼저 한국은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보고 할 말이 안 나왔다. 그런데도 일간지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한다.

그림 1. 소비자 물가와 한국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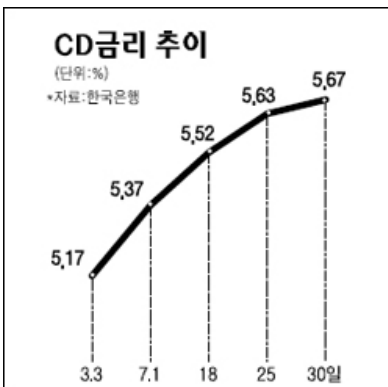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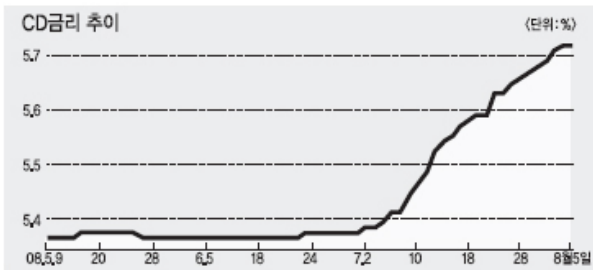
거기서부터 위기의 전염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럼 다른 대안 수단을 썼어야 하는데 이미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이런 말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

황으로 번졌다는 소리다.

그 제 1차적 피폭 효과로 용단 폭격을 맞게 되는것은 중소 기업들과 일반 가게들이다.



● 7월중 CD 및 은행채 발행 규모
(단위: 억원)

기간	구분	
	CD	은행채
7월 3일	1.300	—
7월 14일	8.400	2.300
7월 21일	4.010	—
7월 28일	5.900	2.200
7월 29일	5.000	2.400
7월 30일	3.400	3.400

※ 자료: 증권업협회

현재의 파급 효과로 인해 이미 CD 금리가 폭등 추세에 현재 5.74%다.

● 기준금리 인상 따른 주택대출 금리 변동 추이

구분		기간		
		2007.7.12	2007.8.9	2008.8.7
콜금리	적용금리	4.75%	5.00%	5.25%
	인상폭	0.25%P	0.25%P	0.25%P
은행	우리	5.09~7.20%	6.01~7.51%	6.62~7.92%
	국민	5.66~7.46%	5.96~7.36%	6.44~7.94%
	신한	6.00~7.10%	6.10~7.50%	6.52~8.12%
	하나	6.10~6.80%	6.40~7.10%	7.02~7.72%

이미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에 따른 여파가 미치면서 이중으로 내수 경제에 타격을 받고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 된다.

기업 금융 부담 추이						〈단위: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채비율	131.31(123.39)	113.99(104.24)	110.86(100.90)	105.30(96.88)	106.47(97.83)	
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율	1.82(1.87)	1.40(1.31)	1.27(1.16)	1.27(1.21)	1.35(1.25)	
이자 보상비율	351.23(367.09)	483.40(575.79)	460.30(525.42)	413.86(439.93)	404.79(469.80)	

※전 산업 기준, ()는 제조업

〈자료:한국은행〉

그로 인한 기업 금융 부담은 2008년 년내에 +23%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실질적인 가시 효과와 위협으로 나타난다.

파급 효과 : 그 결과 현재의 중소기업과 자영업 업계 중에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 중 순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심각한 기

업이 -43.9% (한 마디로 이자도 못 내는 회사가 43%라는 소리)

현재 간접 부도 파산 가시권 중소기업 = 54%

직접적 부도 가시권 중소기업 = 37.5%... (주 : 추가 금융비용 압박 상승시 파산 업계 수는 업계 1/3)

차입 의존도 = 22.8%

프랜차이즈 업계 예상 파산 비율 = 42% (2009년 말까지의 업계 추산 구조조정 예상수치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상 대비책을 세우는 상황)

현재 사실상 부도 상태 기업 = 12.7% (말 그대로 그냥 되는대로 굴러가는 비율)

그에 비해 대기업은 2/4 분기 사상 최대 분기별 기업 실적을 거두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말 안한다.

〈투자주체별 해외직접투자〉 (억불, %)

구 분	'06년	'07년		'08. 1~6월	증 감 율 (전년동기비)
			1~6월		
전 체	185.3	274.8	103.1	147.2	42.8
대 기 업	114.7	152.3	49.4	85.4	72.9
중소기업	57.0	105.3	44.2	51.9	17.4
개 인 등*	13.6	17.2	9.5	9.9	4.2

* 개인, 개인기업, 비영리단체 등 포함

이걸로 볼 때 단순 해외 투자액수 현황 만 보더라도 얼마나 극대 극의 막대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 벌어 진 것인지 알 수가 있다.

현재의 상황은 대기업 프랜들리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내 랭킹 30위권 내 대기업들이며 그 반대 급부인 중소기업들은 자금 상황 악화로 인

한 파산 위협에 노출된 기업 수가 전체 54%에 육박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런 스태그 플레이션인 현 상황에서 이걸 거의 국가적 도박에 가까운 행동을 우리 각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

이건 욕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갈수록 성장 동력은 둔화 되고 실제로 대통령이 의도하고자 한 대기업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현실에서는 정면 배치된다.

현재 한국 국내 기업들의 총 자산 대비 실물 자산 비중은 47%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한마디로 신규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대신 신규 사업에 진입을 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는 공장 증설이 아닌 M&A 를 통한 인수-합병 방식을 선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적 투자 기법을 쓰는 상황에서는 고용 창출이라는 정부의 현재 정책은?

넌센스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에서 비즈니스 프랜들리니 대기업 프랜들리니 어쩌니 떠드는 것들이야 말로 현장 책임자들이나 CEO 입장에서서는 이질적으로 보인다. 결국 이것이야 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정치적 쇼맨십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안 보인다는 소리다.

현실과는 너무도 틀린 말로 전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의 M&A는 742건으로 33조 9000억원으로 2005년 대비로 M&A 증가 비율 건수는 76.6% 비용은 26%가 증가했다.

이건 역으로 얘기해서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패턴은 신규 투자가 아닌 인수 합병에 의한 시장 진출과 금융 자본의 비중 확대로 이미 전환 추세에 있다는 소리다.

이건 우리 각하가 말하신 그 대기업 프랜들리에 의한 고용 창출 효과와 정면 반대 되는 현상이다.

더구나 현재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1월달 47%에서 8월 23%로 대출 비중이 대폭 축소 되고 거기에 일부 중소기업들에게는 대출 여신 회수 조치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막대한 수의 중소기업의 파산이 예상되며 그 파급 여파는 2008년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이다.

말 그대로 비상 공적 자금이라도 들이 붓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 될 시

전체 총 중소기업 중 1/3...이상은 무조건 부도

간접 부도내 가시권까지 포함시 -50% 이상을 넘어간다.

이건 절대로 공포감을 조장하려는게 아니라 진짜 지금 현재의 구체적인 산술 수치에 의한 잔인한 현실이다.

=====

결론: 현재 굴러 가는 상황이 대충 이 정도라는걸 말하는 것이다.

현재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효과는? 사실상 기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하는데 올리려면 미국 대선전 FRB 인상 시점인 10월 28일 전에 손을 써야 한다. 그럼 빠르면 9월 아니면 늦어도 10월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 확보를 통한 은행권의 고금리 특판 상품이나 CMA를 통한 단기 투자 그 정도?

그 외에는 개인별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 소비재를 각자 알아서 준비해 두는 정도 수준이며

금리 예상 시점은 2009년 내년 2/4 분기 국내 경기가 바닥을 찍는 그 시점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0.25%씩 추가 인하를 하면 했지 그 전에는 어렵 반푼어치도 없어 보인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위기가 끝난게 아니라 진행형이다.

지금 바겐세일이라서 적어 봤다.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군

끝나긴 뭐가 끝나 이제 시작인데. 아직 코 한번 푼 것 가지고 이제 독감 나왔다고 링겔 병 들고 쇼핑 가자고 하면

뭘 어찌자는거냐 장난 하는거냐?

그래서 올해는 각자 현금 확보해서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와 실물 자산 가치 하락의 대 전환점인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현금 확보해서 개인별 리스크에 대비해야지, 뭘 어찌라고 빼끼질하는데 독사발 먹고 다 똬지라 이말이나

이건 아니잖아?

=====

착각하지 말아라 아직 진행형이다. 이렇게 방심하다 97년에 등에 칼 맞고 다 당한거야.

정신 똑바로 차릴 시기다.

지금 2008년이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IMF 사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금은 글로벌 경기 추세의 대전환 시점인데 한국 정부에서는 그걸 체크하지 못하고 역발상적인 정책으로 그 리스크를 두, 세배로 확대시켰다는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걸 진화하려면 결국은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뿐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판국에서는...

더구나 이제는 국제적으로 신용 축소 추세 속에서 한국이라고 피해 갈수는 없다.

개인이나 회사나 이런 과잉 신용 확대에 따른 대출 압박은 그 누구나 다 받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 신용 쇼크가 터진 이상 4개월 후인 11월 이후부터 이 신용 부분과 대출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가급적 축소하고 현금화가 필요 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이제는 한국발 신용 쇼크가 조만간 터진다. 이건 절대로 공상 과학 소설이야기가 아니라서 이러는 것이고 구체적인 증거나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98년-07년이 신용 팽창의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신용 팽창의 반대급부인 신용 축소다.

이건 적정한 싸이클의 주기가 있으며 지금 개인별로 그 전환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타야 살아남는다는 소리다.

이제는 알만한 인간들은 전부 다 IMF가 아니라 제2차 오일 쇼크 얘기를 꺼내고 있다. 지금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 하면 미세 개입을 한다는 수준이 5월 8일에 -7억 2천만 달러를 퍼붓는 것이다.

홍청망청 이걸 가지고 미세 개입이라고 한다면 답은 이제 이민 뿐이라고 본다.

<작성일 2008년 08월 23일>

32. 현재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인가?-2

1. 저축은행의 PF 부실을 통한 전년 대비 수익율 = -23% 감소, 손실 추정액 = 5014억..

현재 8개 상장사 신민, 서울, 제일, 푸른, 진흥, HK, 한국, 솔로몬의 평균 영업 이익 감소율 = -22% ~ -53% 선까지..

현재 이중 2곳은 사실상 레드 라인으로 올해도 장담 못하는 상황 (구체적으로 말 못함.. 또 난리를 칠테니까..)

PF 부실 채권 : 정부 추산 = -45조 2천억.. 업계추산 = -90조 (이유 : 토지에 대한 선투자 비용 부담 -16조에서 -24조 부분에 보통 건설사 자체 추산을 내릴 때 미분양 물량을 50% 축소 발표 했다는 점을 볼 때 최대 -90조원까지 예측)

결국 올해 안으로 제2금융권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으로 저축 은행--> 보험-->투신 --> 카드사로의 확산 도미노 파급 확산이 우려 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긴급 구제 금융의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왜냐면 제 2 금융권 부실은 --> 제 1 금융권으로 연결 되는 연결 너관 시한폭탄이거든..

지금 대출구조가...

=====

2. 내년 2009년 1/4 분기까지 현 경제 상황이 유지 될 경우 최대 -23% 정도의 아파트 가격의 구조 조정 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상황

이유 : (GDP, M2, 91일물 CD 유통 수익률을 포함한 매계 변수 10여가지로 데이터 산출, 기간 = 2000~2008년 1/4 분기)

2000년 1/4분기 ~ 2008년 1/4 분기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166.2%, 주택 가격은 96.1% 상승한 상황..

PIR(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비율) = 6.6배.. 서울포함 수도권 = 9.8배..

2006년 서브프라임 직전 뉴욕 PIR = 7.9.. LA지역 = 11.2배에 근접하는 상황.. + PF 부실 채권의 금융권 압박으로 위험한 상황..

한국인의 개인별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 (부동산 및 실물자산 측면) = 89.4%

일본의 63%와 미국의 67%에 비해 사실상 절대적 비율... 유동성 측면에서 우려할 수준...

과급 효과 : 이러한 현상은 곧 바로 개인의 자산 가치 폭락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현재의 인위적인 부양을 현재 실시할 경우

예상 시나리오 = 2009년 2/4 분기까지는 일단 적정 가격대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미국 주택 시장의 바닥점을 찍는 2009년 1/4 분기나 2/4 분기를 기점으로 동반 폭락의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보이는 현 관점에서 2008년 4/4 분기에서 최대 09년 1/4 분기 내에 최소 손실 범위 내에서 자산 손실을 최소화 하며 처분할 마지막 기회로 보임..

현재는 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의 경우 보유 자체가... 가미가제를 하지는 결로 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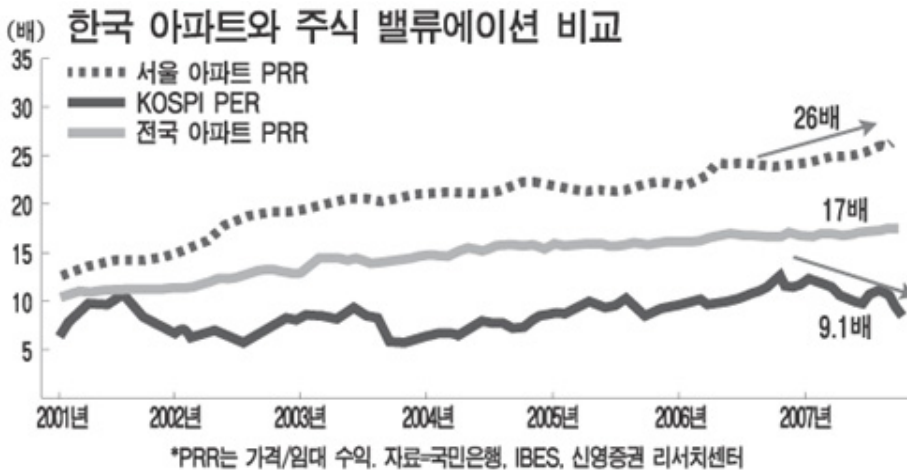
변수 : 내년부터 시작될 신도시 입주 시점과 행정도시 건설 등의 공급 확대 대책이 이어 가는 추가 공급 물량이 나올 경우를 고려해서 09년 1/4 분기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의 시점으로 분석 하고 있는게 유력한 상황.

그렇리가 없다는 반론 = 일본 LTV (주택 담보 대출 비율)=120%... 미국 LTV = 85%... 하지만 한국의 LTV = 52.2%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우긴다..

하지만 일본은 사실상 기업형 부동산 버블의 붕괴라는 시각이 맞는 말이고 미국의 서브 프라임과 같이 일시적은 타격은 없는 대신 장기간에 걸친 저강도 충격으로 실물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론: 현재 원화 유동성이 117 (기준:100) 을 육박 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위험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시점이 최소 8월에서 최대 9월로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는 시점에서 세금 환급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다는 이유는?...

한마디로 시간을 벌어 주자는 것이다... 한나라 애들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의 처분과 조정을 위해서... 또 다른 제 2차 피해 확산의 전주곡이지..



지금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시행 되면 최소 2009년 1/4 분기까지는 그런대로 굴러 갈 것이다.. 거기에 금리 인상 시점을 8월에 안 하고 10월경으로 늦출 경우..

이건 100% 시간 벌기용 미션이라는게 대세적인 관측이다..

다만 9월 하순이나 10월경까지 금리 인상이 늦추어 질 경우 파급 효과라는건 누적 분까지 일시에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제 1차 피해는 일반 가계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11월 4일 대선 레이스 전인 10월에 연방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0월 28일경에 금리 이상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따라서 여러 대내외 여건상 아무리 늦어도 10월 초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견뎌낼 재간이 없다)

그와 더불어 제2금융권은 지금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다... 8월이 PF 만기다. 지금 8, 9월달은 아무도 모른다. 어디서부터 작살날지...

=====

3.글로벌 경기 동향 - 미국 경기 동향

서브 프라임에서 파급된 신용 쇼크는 이제 프라임 모기지(우량 주택 담보 대출 : 한국식 대출 담보라고 생각하면 간단함)로까지 확산일로에 있다..

현재 JP 모건 채이스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추산 = 2/4 분기 연체율 : 4%... 2009년 1/4 분기 예상치 = 9~ 11%...

현재 손실은 JP 모건을 주축으로 2/4 분기 손실액이 1/4 분기 대비 2배 이상을 상회하는 등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상황... 현재 프라임 모기지 전망 = Terrible...

IMF는 세계 금융 안전 보고서(GFSR)과 FRB 모두 더 최대 미국 경기는 2010년에서 2011년 1/4분기까지는 현재의 신용 경색과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1순위 정책 목표로 이미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우선 순위를 맞추지 오래인 상황..

국내 파급 효과 : 재정부 추산 6월 해외 부동산 투자 건수는 185건... 투자 금액 6800만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건수	111	266	412	479	629	870	821	483	421	499
금액 (백만불)	45	112	169	188	250	394	312	218	146	180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계속 되면서 손실이 커지

고 있는 상황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은 이미 과잉 상태로 현재 투자 유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그와 더불어 미국 제조업 업계의 사실상 붕괴를 의미 하는 GM과 포드의 도산 가능성이 46%에 달하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S&P 기준 신용등급 CCC에 해당 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2011년 내로 부도가 날 것 같다..

GM : S&P=B / 무디스= B3..... 포드 : s&p=B / 포드 = Caa1....

=====

현재 상황은 패디메-프레디맥(5조 2천억 달러 모기지) --> 워싱턴 뮤추얼로 옮겨가는 상황이며 현재 추정 손실액은 분기별 손실액이 -240억 달러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 최대 저축 대부 조합인 워싱턴 뮤추얼의 부실 상황은 지방 중소형 금융 회사로 지금 확산 일로에 있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 대상 금융사 7500개중 2009년 연내 150여개 사가 이미 파산 위험 수준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신용 쇼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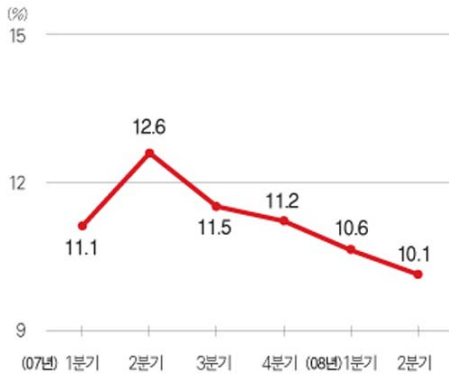
4. 중국 경제 상황.....

2008년 2/4 분기 경제 성장률 = 10.1%... 월 스트리트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로 중국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재정의 여파로 해석...

결과 :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7.7% --> 7.1%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가시화 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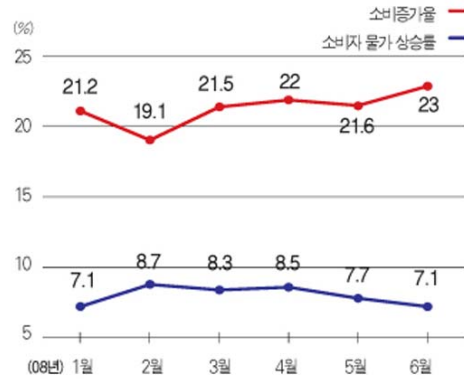
하지만 물가 억제를 위해 과도한 위안화 평가 절상과 은행 지급율을 올리면서 수출 기업들의 대규모 파산... 금융권 부실의 악영향..

분기별 GDP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월별 소비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인민 은행은 물가 억제를 위한 긴축 조치로 은행 기준률을 추가로 올해에만 5차례 끌어 올려 17%까지 올린 상황 --> 195조를 중앙은행이 통화량 흡수.....

결과 : 올해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 내에 대 중국 수출은 대략 -14%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

현재 한국의 2/4 분기의 뻥작 수출 호황은 사실상 환율 효과에 의한 것....

중국내 긴축 조치로 인한 대중국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 현재 중국 금융 당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중국내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인한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가장 우려 하고 있는 상황..

98년은 태국발 --> 2008년은 중국발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 대중국 국내 자산 비중을 맞춰 중국발 쇼크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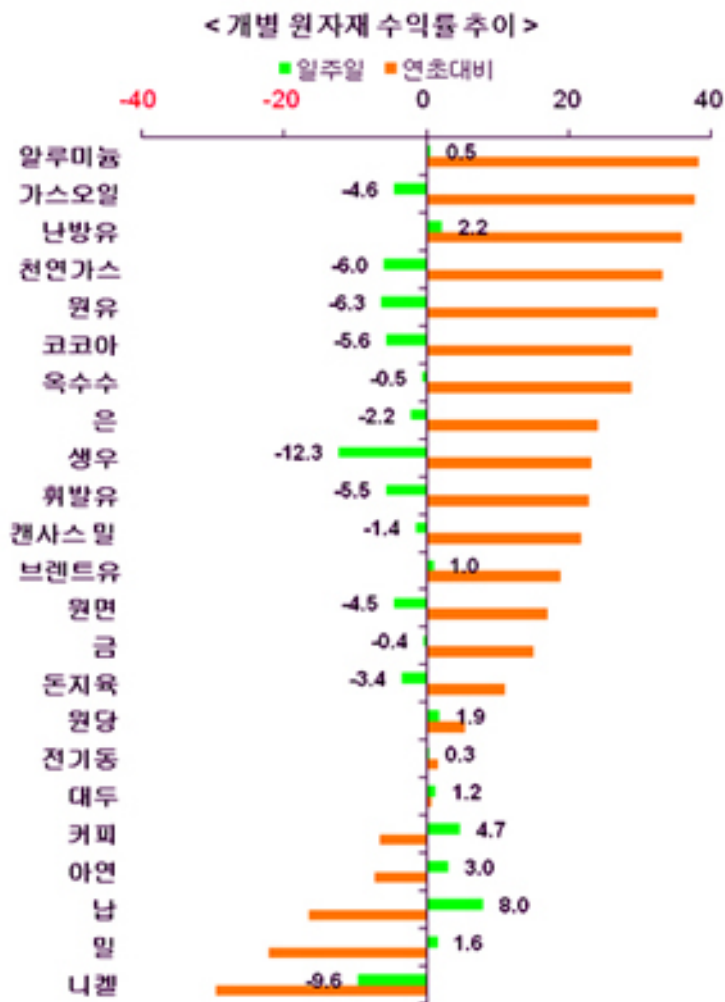
현재 중국내에서는 제한 송전으로 중국내 일반 기업 절반 이상이 생산 차질로 인한 기업 이익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올림픽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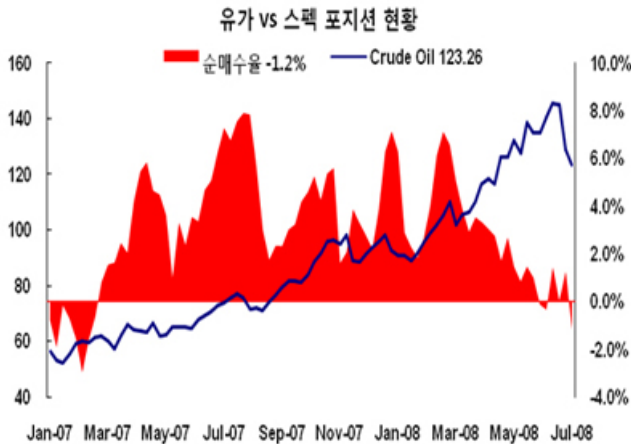
의 핫머니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위기의 전염 제 1 타겟은.. 한국이다...

중국내의 펀드와 해외 투자 자산의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

5. 국제 원자재 시장 가격 동향을 보면 국내에서 얼마나 개 구라를 쳐먹는지 단편적으로 알수 있다...





더는 긴말 안 하겠다..... 딱 보면 답이 나오니까...현재 밀 작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만 유럽 일부 지역에서 6월 가뭄과 7월 홍수로 인한 작황 감소분만 있을 뿐이다..

더구나 천연 가스의 가격 안정 추세가 이어 지고 있는 가운데..... 뭐?.....30% 인상?.... 개 풀갑을 떨어라..

거기에 커피값 인상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미치겠다...





맨 위에 개별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보면 연초 대비로 -8%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 다만 최근 단기간의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쳐 올랐으니까 올린다니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로 또 속여 쳐 먹고 있는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진짜 이젠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왜?... 또 알고서 속아 주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결론 : 닥치고 현금이다. 한나라당 애들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하는데 시간벌기용으로 또 다시 이용당할 생각이 이제 추호도 없다.

지금 강남에서는 필사적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긴말이 필요 없다... 알아서 자살골 넣고 싶으면 지르던지 말던지...

하자만 거기에 따른 피의 댓가는 본인 스스로 지는 거란 사실만은 알기 바란다...

나중에 또 누구 때문이라느니 어쩌니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정부에서 준표가 부동산 경기 부양 어찌고 하면 최대 2009년 1/4 분기까지는 개인 자산 보존의 마지막 기회가 올 것이다...

그 후는 두고 볼 일이다.....

각자... 알아서 준비 해야 할 것이야.... 아직 끝난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도 미친 애널 놈들이 개때처럼 쳐 기어 나와서 이제 미국발 사태는 끝났다고 또 미친 듯이 빼끼질 하는데....

이젠 기가 막힐 뿐이다... 끝나는 뭐가 끝나... 뭘 놈의 환타지 소설 쓰냐?...

<작성일 2008년 08월 25일>

33. (추천도서)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 리오 휴버먼..

저번 주에 오래간만에 다시 본 책으로 토론을 했는데..

참 쉬우면서도 보기 좋은 책입니다... 경제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쉽고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전문가도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듯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걸 보면 한층 더 이해의 강도가 깊어 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E BOX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현대 컨테이너 역사의 시작과 국제 물류 시스템의 큰 그림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죠,

이런식으로... 시작하면서 보는 눈을 키우면 그제서야 이른바 도로시의 함정이라고 하는 사회 경제적인 함정에서 빠져 나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아까우면 빌려 보세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보고 토론회를 하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필독서인지 아닌지 모르겠군요... 갈수록 통제하기 쉬운 경제 까막눈 일개미만 만들어 내서 부려 쳐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ㅋㅋㅋㅋㅋㅋ...

시스템과 사회 매트릭스를 알아야지 나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매트릭스 구조를 깨달아 가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거기에 시간이 나시면 2007년도 1/4분기에 반영된 하계타카(콘돌)이라는 6부작 경제 드라마가 있죠... 이걸 헤지펀드가 일본 국내에서 활약하면서 벌어지는 걸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 가만 보면 예전 98년도 IMF 당시 한보 사태와 기업 매각을 보는것 같은 착시 효과가 들 정도로 임팩트가 대단하더군요..

실제로 보면서 배울 점도 있는 좋은 영상 소스였습니다... 다만 처음에 1회에 나오는 바로크 세일이라는게 채권의 일괄 판매를 말하는 벌크 세일인데.. 일본 애들은 흘러서 바로크 세일이라고 하는게 좀.. 난감 하더군요..

저번주에 클럽에 가서 봤는데... 감질맛 나는게 진짜 잘 만든 명작 드라마였습니다.. 이건 처음에 흥미 돋구는데 그만인 소스가 되실 겁니다..

다 이런식으로 흥미를 가지고 서서히 유도를 하면서 배워 나가는거겠죠...

이 정도의 소스를 처음 접하신 후에 피터 L 번스타인의 리스크 라는 책을 보시면 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 리스크의 그 근본적인 어원적 분석과 그 진정한 의미... 리스크의 현대적 의미의 측정 방식등의 다양한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책은 쉬운데 컨설팅 업계에서 신입이 무조건 읽어야 하는 50권 중 하나죠,,,

그 정도로 양질의 도서로 굉장한 확 트이는 시야를 제공해 줄 겁니다..

이 정도를 갖춘 후에 이제 본격적인 스킬을 쌓아 가면서 학습을 해 나가면서 내공을 쌓아 가는거겠죠... 경제라는건 절대로 특정한 만의 사유 분야나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배우면 = 돈인 핵심 중에 핵심 분야지..

알아야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모르면 당하는게 아니라.. 털리는 시대죠... 한국에서는 더욱더... 약탈이나 합법적인 제도권 내에서의 수탈을 당한다고 할까?.....

참... 알고 보면 소름끼치는 사회인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천지니 안타까울 뿐이군요.

<작성일 2008년 08월 24일>

34. 2008년 금융 전쟁의 서곡: 한국판 지옥의 묵시록 1

지금은 현재 2008년 8월 말인 시점이다.. 앞으로 2008년 9월 하반기부터 2009년에 걸쳐서 한국 경제는 여태까지 경험을 해 본적이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색다른 양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일단 리만 브러더스는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전 산업 은행장을 쳐 내고 새로 자리에 낙하산으로 뿌린 현재 산업은행장은 현재 산업 은행장에 취임하기 전 리만 브러더스 한국 법인 출신으로 3년간이나 몸 담았던 사람에다가 지금 아태 담당 이사가 현재 데이비드 김 한 명에서 새로 미국 본사에서 현재 산업은행과의 매각 협상을 위해서 톱 에이스 를 파견 했다.. 줄리안 정이라고 24일날 긴급 아태 담당 이사직으로 발령 처리가 난 상태로 현재 더블 에이스 체제로 가격 조율 중이며 중국 시탁 증권을 끼어 넣은 이유는 전통적인 협상 전략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의 일환일 뿐 협상에 참여만 할 뿐 실질 구매 대상자는 산업은행이다.

리먼 브러더스에 대한 산업은행의 내부 방침은 사실상 구매쪽으로 기운지 오래다.. 왜냐하면 내년 2009년에는 자동법이 본격 시행 된다.. 한 마디로 이 때를 대비해서 IB 투자 금융 부분을 대폭 강화 시키겠다는 소리다.

문제는 현재 매입 가격이 추정치로 217억 달러 수준이다... 지불 방식은 5:5 방식으로 리먼이 가지고 있는 25%의 보유 지분을 일괄 매입하고 나머지 리먼 보유 지분 25%는 추가로 주식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50%의 대주주 자격을 얻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라는걸 하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내 빅 7중의 하나인 핵심 투자 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외국계가 가지게 될 경우의 파급 효과 때문인데..현재 산업은행이 국책이라는걸 생각하면 통과 하는데 문제 없다는 계산이다..

리먼 브러더스 = 총 자산 : 6천 390억 달러에 158년 역사의 미국내 투자 IB 은행 랭킹 4위 수준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회사에 현재 약 20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 시켜 준다는 소리네.

현재 부실 규모 : 장부가 추정액 = 500억 달러(약 50조원)..

과급여파 : 크레디 스위스가 리먼과의 신용거래 중단..

국내 관련법 : 산업은행이 민영화 대상이지만 아직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손실 보존 = 세금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게 자금 흐름의 키 포인트다..

장부상 리스트 손실 자산이 추정액수만 최소 500억 달러에서 많시면 800억 달러 수준.

그에 따라 오늘 역외 NDF 시장에서 엄청난 액수의 달러 매수가 나와서 국내 환율이 1080원에 가까이 올라간 이유가 이런 외생 변수 때문이다..

최소 전망치는 1075원~1100원, 1125원내의 변동폭으로 4/4 분기까지 전망 했으나 이제는 이 빅딜이 성사가 유력시 되고 외국계 애들까지 눈치를 간 이 상황에서 매각 협상은 2008년 9월 초에 리먼 브러더스의 2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 그 때를 기준으로 매각 금액 세부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런 웃기는 체스처를 취하면서 모르쇠를 하고 있는데 이미 내막은 사실상 큰 돌발 변수가 없는한 매각이 확실한 상황이다. 그 후의 환율 변동과 자금 동원에 따른 국내 시장의 융단 폭격은 지금 아무도 장담 못한다..

매각 성공시 10월 예상 환율 = 1150원 이상 폭등할 것이다..

환율 방어로 뿌리는 돈이 흘러 들어 가는 루트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합법적인 자본 이동이지.

거기에 따른 현 산업은행장이 리먼으로부터 이면 리베이트 계약서라도 쓴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외국계 로펌 중재로 이면 리베이트 계약을 할 경우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흡사 예전 외환은행 시나리오와 아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

=====



현재 패니매의 주가는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한 상황이며

	단위	'06말	'07말	'08.3말	'08.6말	8.15	8.19	8.20
주가	(US/주)	59.40	40.00	26.30	19.50	7.90	6.00	4.40
금리								
선순위채 (2014/04)	(연%)	4.94	4.05	3.52	4.29	4.18	4.23	4.09
후순위채 (2014/01)	(연%)	5.14	4.40	4.32	5.11	6.23	7.08	7.06
CDS(5yr)	(bp)	6.60	37.80	52.00	65.50	47.00	47.60	42.80

이제는 사실상 미국 중앙 정부의 국유화 가능성이 대세로 기운 현 상황에서 GM과 포드의 250억 달러의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실상 GM과 포드의 5년내 부도가능성이 현재 46% 정도로 올라간 상황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붕괴를 예상하고 있다..다만 전부 재정 지원으로 그 시기만 늦어질 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미국 국내에 있는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에 한국은행이 투자하고 있는 채권 투자액은 370억 달러 (약 39조원) 수준으로써 정부 말로는 우선순위 미 정부 보증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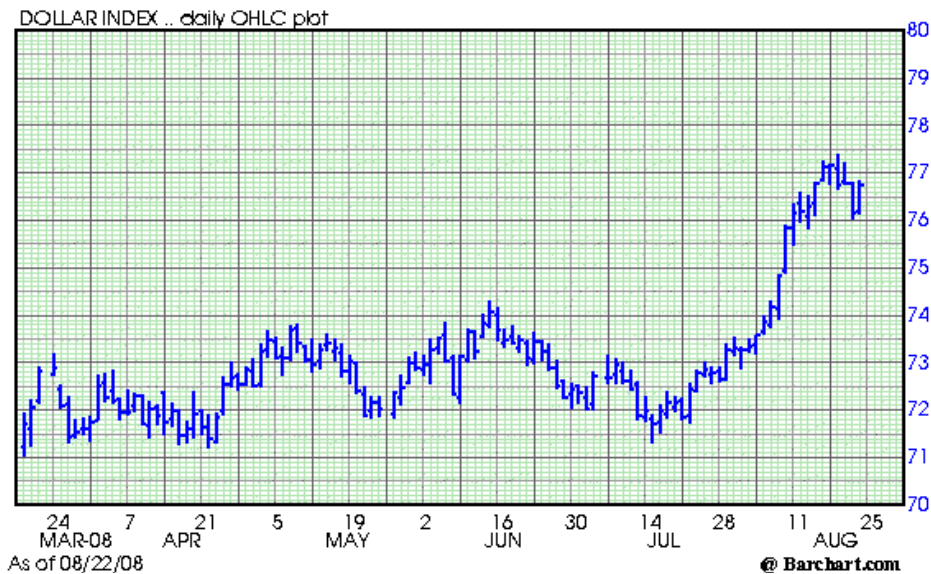
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꺼라지만 그건 헛소리다..

이미 무디스는 국책 모기지의 우선주 등급을 A1 --> Baa3 / 재무 건전성 등급 B- --> D+

현재 선순위 채권이 Aaa 로 유지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국유화조치로 들어갈 경우 현재 5~ 18%가 할인 되서 매입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5% 할인 손실액 = 2조원 손실(US 달러 기준).. 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대량 손실은 어찌 되었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상 현재 모기지 채권은 부실 채권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현재는 강 달러 추세기 때문에 국내 환율이 올라가는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옛날 말이 되 버린지 오래다...



사실상 8월 중반을 기점으로 강달러의 기조는 꺾였으며 이런 달러 인덱스의 하향 반전으로 21일을 기준으로 국제 유가는 121 달러를 채돌파 했으며 각종 원자재 가격 또한 동반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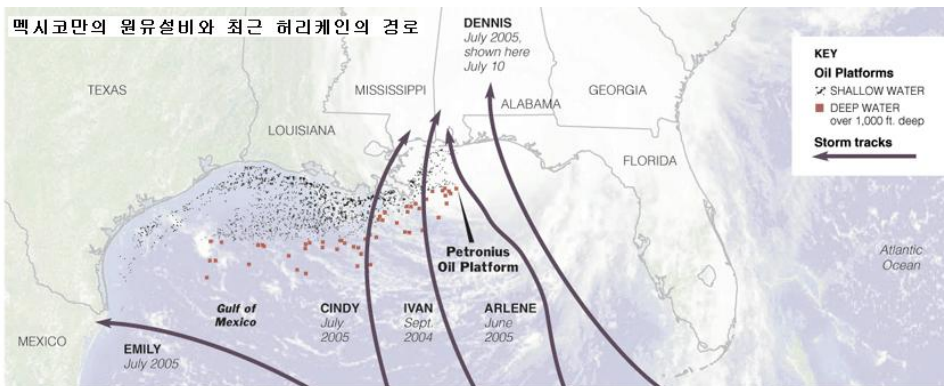
원자재 가격이 2009년까지 계속 올라가는 요인은 .

1. 중국내 상품 수요 : 올림픽 기간 동안 단기 조업을 중단한 공장들의 재조업의 시작으로 다시 원료 매입에 나서면서 2015년까지 현재의 철강 소비량의 2배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2. 공급 수급량 조절을 통한 적정 유가 수준 유지 경향 : 베네수엘라는 유가가 추가 하락시 국내 생산분을 조정해서 일정 수준의 국제 유가를 유지 하겠다고 나섰으며 그 최저 유가 수준은 110달러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 감축 조치의 동조로 국제 유가의 최저 레벨을 110 달러에서 115 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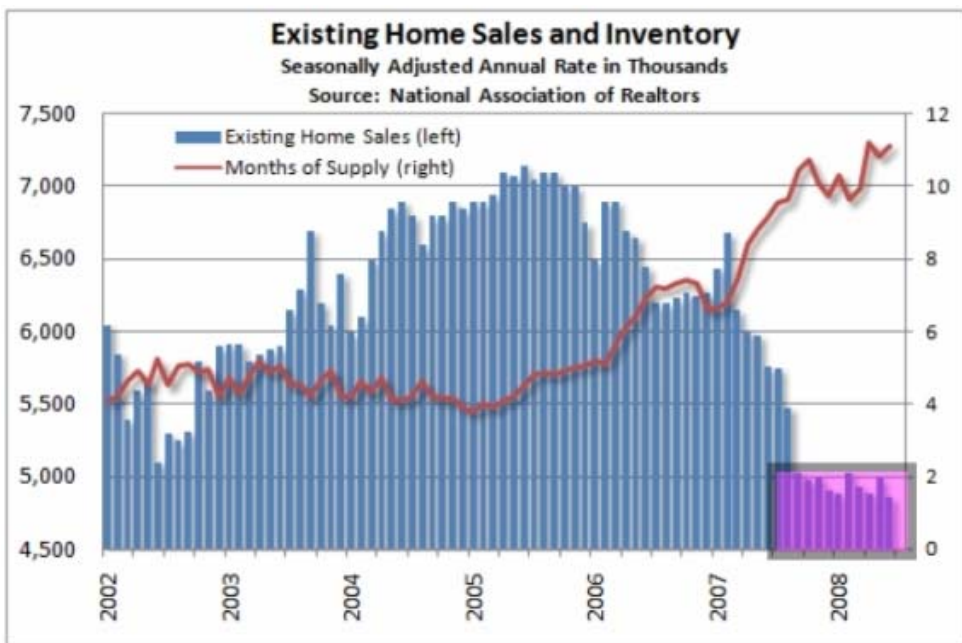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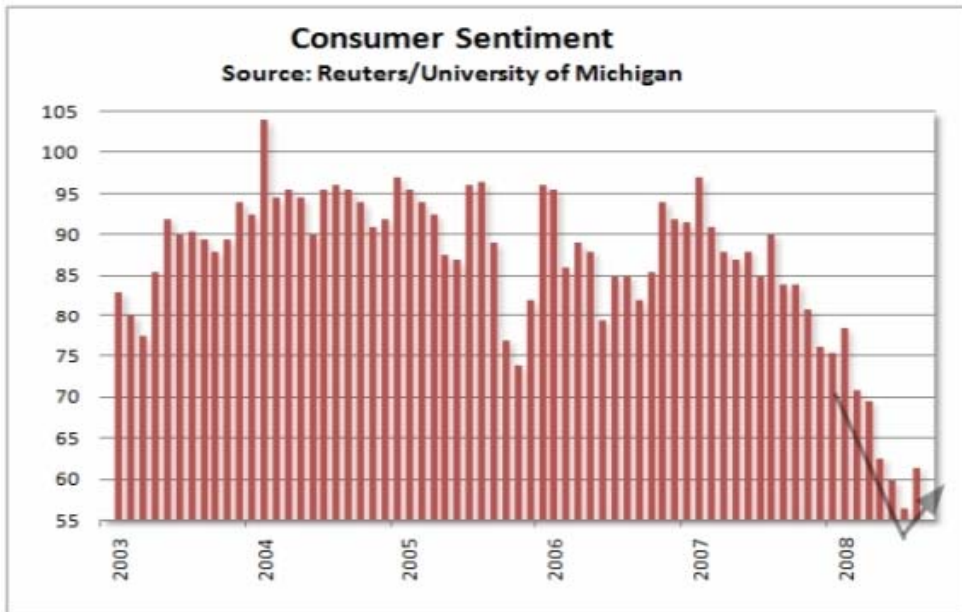
그와 더불어 주요 광물 생산 지역의 조업 중단과 파업등의 여파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니켈 광산 일시 중단으로 인한 가격 폭등 조치와 PT 티마의 주석 생산량 조정으로 인한 가격 끌어올리기로 이제는 수요자 중심 --> 공급자 중심의 가격 결정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런 가격 담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 미국 국내 신용 경색의 여파로 인한 달러 강세의 반전과 열대성 폭풍 pay의 멕시코만 원유 생산 시설 타격..



2005년 자료로 시간이 경과한 자료지만 대략적인 멕시코만 원유 정제 시설의 분포도이며 계절적인 패턴은 동일하다..

대략 현재 이 정도의 변수가 작용하여 국제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며 이제는 강달러의 달러 오름세는 상품 가격의 급반등으로 인해 달러 약세로 추세가 반전되어 더 이상 설득력을 상실한다...



-기성 주택 판매 재고 현황-

<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 <http://cafe.daum.net/iomine> >



-신규 주택 판매 재고-

원래 달러 강세가 확실한 추세로써 지지 기반의 확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수 전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미국 시장의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었느냐 아니냐인 상황에서 현재 케이스 -실러 지표상 벌써 바닥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상 강 달러의 달러 강세는 상품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끝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환율 상승 = 달러 강세 라는 추세를 현 추세 그대로 방치 할 경우..

예상 시나리오는 4/4 분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월 하반기와 내년엔 걸쳐 9%대 이상 폭등을 할 잠재적인 리스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미 7월달에 수입 물가 상승률이 50%를 돌파한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는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8년 4/4/ 분기와 2009년 1/4 분기를 통틀어 국내 물가 상승률은 현재의 환율상 최대 9% 가까이 폭등할 것이다..

=====

현재 정부에서는 달러 강세와 더불어 국제 유가의 하락 추세에 따른 효과로 인하여 하반기 물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소리를 하지만...

이제는 현재 상황상 전혀 180도 달라졌다... 따라서 개인별로 대응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한다..

원래 기존의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의 내부 펀더멘탈의 개선 효과가 아닌 유로존과 일본 경제의 일시침체에 따른 반사 효과였을 뿐이다..

이런건 결코 오래 못간다.. 아무리 봐도 11월에서 연내 끝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달러 투자는 11월을 한계로 예전에 설정해서 말해 준 것이다.. 단기 투자이지 장기가 아니다.. 이것은 곧 바로 국내 환율과 연계 된다.

원래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억제 효과는 1043원에서 깨졌다... 그래서 1050원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깨졌다...

한 마디로 달러 수요와 대외 변수에 대한 판단 미스와 달러 수요 기대 심리를 국내에서 부채질 하는 바람에 그로 인한 기대 수익과 환차익으로 키코 손실분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역 헤지 전략을 쓰는 중소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이제는 그게 순환 고리를 이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소비자 물가는 1~2 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여파를 미치며 7월 생산자 물가가 12% 폭등을 한 상황에서 9월 추석 물가 수준은 당국의 통제 수준을 뛰어 넘는 것이며 현재 환율 수준은 하반기 4/4 분기내의 겨울철 물가에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8월에는 소비자 물가가 7%를 돌파할 것이며 환율 변동폭이 1100원을 찍을 경우 4/4 분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대에 진입하는 말 그대로 사실상 초 인플레이션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통제 범위를 10월 초에 비상 물가 대책으로 잡지 못할 경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다양한 자산 디플레이션 효과의 파급 여파를..

이른바 이론상으로만 학교 실험실 안에서만 시뮬레이션한 것들을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다..

국제 변수나 달러 인덱스가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일 당장 개인별 가계부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들 천지다..

그래서 한 번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못 세우면 일반인들이 어떤 개 쌍피를 보게 되는지 이제는 실험실 마루타 같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 여파는 다양한 각도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로 확산이 된다..

- 길어서 여기서 한 번 끊겠음... 나갔다가 와서 다시..-

<작성일 2008년 08월 25일>

35. 2008년 금융 전쟁의 서곡: 한국판 지옥의 묵시록 2

앞으로 한국은행은 10월경에 기준 금리를 현재 이런 물가폭등 상황일 경우 단순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한 립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공격적인 추가 금리 인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에 금리를 0.25% 올리기 위한 조건은 9월 물가 상승률이 8%대를 넘어갈 경우다..

이 경우에는 거의 확실히 기준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정답이다... 이걸 경기 흐름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이 물가 상승을 방치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 경우 다양한 파급 충격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도 기준 3개월 물 CD 금리에 관계없이 꾸준히 올라 거의 고정형 대출 금리가 9%를 찍었고 변동형 대출 금리가 8%~ 9% 대에 집입한 상황에서 향후 10월달의 기준 금리 인상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 조치 없이 소비자 물가가 8%를 돌파시 -->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0.25% 상승 --> 그로 인한 추가 대출 금리 변동폭은

2009년 1/4 분기 기준 = 9.3%~11.5%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현재 제1금융권은 사상 최대의 분기별 영업 실적을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쇼윈도 실적이다..

실제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현재 장부상 자본 손실 상각 처리 된.. 일명 깡 처리 된 부실 채권 액수가 2007년까지만 해도 해당 시중 제1금융권 빅 7 은행 내에서 보통 - 2500억 내외였으나 현재 2008년 2/4 분기까지 최대 맥시멈 - 7800억에서 최하 - 5300억 이상인 곳이 수두룩 하다..

1조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제 2 금융권에서 빨간불이 들어 왔다.. 제2금융권 내의 PF 대출 부실 압박에 따라 저축 은행권의 연간 당기 순이익이 -30.3 %로 줄어 들었다..

현재 연체율은 14%...PF 연체율은 14.3%이며 현재 시중 18개 평균 PF 대출 비중은 전체 30%를 넘어선지 오래며 현재 레드존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광주, 충남, 제주... 2차 분류 지역은 대전 경북이다..

따라서 올해나 내년 상반기중으로 대규모 구조 조정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지역별 저축은행 여수신 증감 추이

(단위:억원, %)

구분	여신			수신		
	2008.6	증감규모	증감률	2008.6	증감규모	증감률
전남	8.081	1.777	28.2	7.968	1.892	31.1
경기	80.961	13.023	19.2	93.735	21.960	30.6
서울	227.604	43.212	23.4	245.878	48.825	24.8
인천	36.792	6.025	19.6	37.762	7.315	24.0
충북	9.486	1.412	17.5	10.542	1.647	18.5
부산	62.713	6.060	10.7	75.115	10.972	17.1
전북	22.010	2.442	12.5	22.091	2.962	15.5
제주	17.052	1.485	9.5	18.746	2.164	13.1
경남	7.997	1.417	21.5	9.233	1.036	12.6
충남	6.535	526	8.8	7.173	780	12.2
대구	6.109	639	11.7	7.053	646	10.1
강원	3.295	386	13.3	3.618	197	5.8
광주	5.944	-172	-2.8	6.826	98	1.4
대전	6.948	-1.391	-16.7	8.265	-97	-1.2
경북	4.304	-779	-15.3	4.905	-989	-16.8
전국평균	505.831	76.061	17.7	558.910	99.408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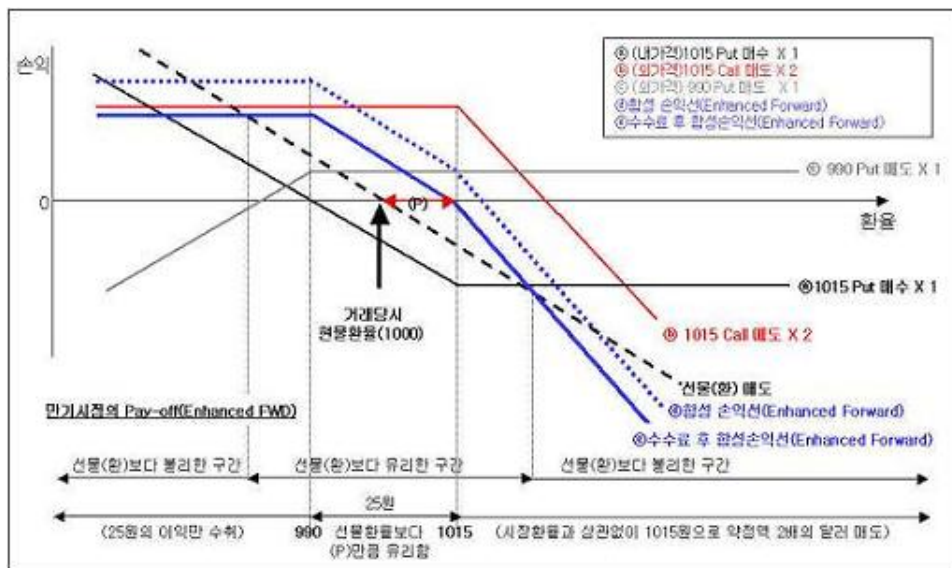
※증감은 2007년6월말과 2008년6월말을 비교한 수치. 순서는 수신 증감을 기준 <자료:저축은행중앙회>

더구나 PF 대출 구조 시스템이 제2금융권 내에서 대출 되는 총 금액의 40%는 제1금융권 내의 자금 유입으로 합산으로 대출되는 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제2금융권 내의 부실 채권은 곧 바로 제1금융권 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현재 2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 2 금융권 저축은행 부실 --> 제 1 금융권 --> 투신 --> 보험 --> 카드사로 번지는 연쇄 도미노 효과로 파급이 되는 서로 물리는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한 군데가 터지면... 다른 곳이 연쇄 폭발 하는 시스템이다.

=====



현재의 키코 옵션의 시스템적인 구조이며 이것은 명백한 리스크를 개별 중소기업에 떠넘긴 사기 거래다.. 이걸 옵션의 정의부터 다 설명하려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로 인한 환차손에 대한 역헷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출 중소기업들은 월말에 달러를 내다 팔아서 결재를 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달러를 내다 파는 전략으로 바꾼지 이미 오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부도의 위협으로 여파가 미치고 있다..

상장 기업 중에 손실 공시 기업은 63개 사로써 이로 인한 피해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예전에 정열사라고 하신 한국경제 논설 위원으로 나오신 그 분께서 말하신 환율 효과에 따른 수출 기업의 영업 이익 전부를 모조리 다 이걸로 날려 먹고 은행 여신 회수 조치로 말 그대

로 흑자 도산 직전에 처한 기업 비율이 수출 기업별= 43.2%.....

이 중에 1/4 분기 중 대기업은 금호 타이어와 CJ 제당을 뺀 나머지는 모조리 다 중소 기업이다..

이것은 현재 2/4 분기 상황이며.. 올해 연말에는 그 가시적이고 파괴적인 여파가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다..

■ 2008년도 상반기 파생상품(KIKO등) 손실 공시기업 사업실적 현황					
(자료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8.15~8.16일 검색/확인)					
단위	억원		매출액(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	당기순이익(백만원)
기업명	2007년 도 수출액	파생상품 (평가)손실액	2008년 상반기/2007년 상반기		
			기말환율 1\$=1043.4 1\$=926.8		
대우조선해양	69941	1485	4,749,763/3,200,445	357,165/125,498	193,651/153,145
STX엔진	9587	933	728,154/500,927	91,130/35,116	14,158/39,199
STX조선	20497	435	1,333,270/866,198	72,868/2,670	160,571/63,805
우신시스템	514	34.2	*27,845/27,420	-2,547/-320	-3,313/277
평화산업	1152	34.4	*121,027/158,275	4,602/-3,214	5,125/-1,966
동야기전	2173	134	226,166/206,923	14,938/12,133	6,840/9,369
선우에스티	1979	271	171,407/97,120	11,335/2,287	-18,873/11,142
제명솔루텍	951	236.4	107,700/ 90,963	-2,003/3,051	-22,072/1,993
오리엔탈정공	1035	33.17	173,288/156,173	13,019/4,594	5,125/2,252
동원금속	1106	42.8	*36,759/38,939	113/394	-2,074/1,129
*4.1~6.30(분기보고서)					
대양금속	1789	81.8	*137,383/187,845	5,259/23,023	-10,632/15,171
태산엘시디	6182	806	344,165/293,008	11,478/-4,550	-48,727/-6,272
인지디스플레이	1464	22.6	91,894/90,819	-199/-247	4,126/409
에스에이엘티		803	418,188/293,430	8,445 /5,580	-49,737/4,978
엠케이전자	1746	32.6	219,513/156,925	7,330/ 4,768	3,180/2,840
우리산업	328	55	67,059/51,317	1,260/568	-1,957/-200
구명테크	384	28.9	33,673/32,497	2,177/ 2,532	-2,026/347
코다코	400	91	44,789/37,932	2,255/1,512	-6,444/996
잘만테크	335	70.3	27,139/ 21,661	3,136/2,642	-1,338/2,192
심텍	3297	493	190,395/176,805	7,277/20,981	-27,649/16,919
현대디지탈테크	966	50.47	* 66,326/78,020	-916/ 5,149	-1,823/5,041
대덕GDS	1821	150	122,627/121,334	9,587/6,460	3,036/10,021
대덕전기	2618	277	*147,115/152,149	-7,091/3,481	-21,172/11,614
성문전자	294	16.89	20,469/15,581	1,293/163	348/-278
수산중공업	403	65.8	56,343/41,526	7,360/3,735	2,875/4,963
현진소재	940	127	67,012/92,511	30,228/13,956	15,374/11,818
대호에이엘	384	22.6	62,649/50,924	2,573/3,115	-5,030/2,005
세미텍	598	60	33,726/	-1,330/	-7,595/
*5.21 신규상장기업					
코맥스	369	174	46,122/36,176	2,597/325	-10,665/721
아이디에이치	606	145	57,937/54,554	363/5,833	-44,254/3,363
*8.14주식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					
뉴인텍	205	21	13,949/13,590	623/867	-1,903/160
현대엘리베이터	4986	309	292,856/244,204	13,811/14,158	-12,270/101,049
토비스	1207	47.9	109,843/42,257	7,889/895	2,332/14
세믹스	70	18	5,650/	412/	-418/
*2007.12.21 신규상장					
대경기계기술	1640	63.7	108,438/106,903	3,506/12,703	2,641/13,557
부산주공	558	27.5	81,748/ 62,127	3,763/5,250	3,830/2,215
로만손	153	44	31,621/26,911	2,413/1,729	-3,202/1,353
동양석판	1352	137	184,699/136,981	14,901/4,528	236/2,466
동원수산	488	15	44,408/25,791	-4,085/-5,300	-6,178/-4,858
엠텍비전	1651	240	77,668/68,278	4,465/-7,001	-20,72/-14,558

이구산업	903	43.8	99,294/71,068	-130/-4,061	-5,712/1,550
신화인터랙	969	72	100,581/ 63,054	7,094/-4,459	-3,918/-5,496
해스본	110	67	37,631/15,301	321/-102	-7,285/1,104
대창단조	668	30	91,752/73,938	7,172/3,331	2,363/2,273
한국화인케이칼	2190	123	166,944/138,804	37,581/27,907	7,141/21,755
다엘에스	644	193	109,812/43,501	24,655/3,876	7,013/5,706
국도	1208	25	60,200/57,798	80/-1,308	-4,911/-2,766
아금백반도체기술	193	10.7	11,971/11,565	-52/-2,828	-1,519/-2,607
제이브이애플	258	244	25,199/19,388	8,050/4,977	-22,114/6,805
포스코강판	2619	545	443,747/332,310	35,421/5,378	-17,505/5,144
아구스	259	51.29	14,828/13,266	2,084/2,208	-524/2,262
티에스애플	484	57.7	*75,407/77,973	4,674/10,973	592/7,969
로케트전기	171	14	21,897/23,659	304/1,382	-2,249/428
에버다임	900	51	112,415/71,747	15,259/4,635	4,835/4,566
씨모텍	774	84(211)	51,808/	11,376/	-3,547/
*2007.11.12 신규상장					
삼진지오텍	3031	699	214,646/	23,308/	-88,931/
*2007.11.29 상장					
원포넷	190	43.6	12,995/11,595	2,046/2,058	-1,864/1,874
모나미	188	124	102,434/97,082	5,108/ 4,702	-4,997/2,934
우주일렉트로닉스	649	74.4	43,524/24,891	10,841/4,967	5,820/3,703
백산	706	105	42,666/40,004	647/343	-10,272/-990
한광	139	29.23	* 20,419/25,057	2,020/1,570	-1,159/1,573
포넷	42.8	16.2	*5,607/10,972	-5,080/-1,585	-9,101/-1,589
비에스이홀딩스		260	* 2,306/4,654	-6,241/3,501	-6,018/2,419
미공시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기업					
모젠	645	68.9	27,004/24,139	-2,839/-12,999	-12,430/-18,779
이엘케이	372	73	9,039/	-3,716/	-9,311/
*2007.10.25 신규상장					
에이지엔터	890	78.6	*16,197/64,871	-524/1,067	-8,819/2,785
알크테크	204	31.2	18,737/14,886	1,945/-936	-238/-1,422
삼원테크	64	82.9	24,634/18,432	637/1,923	-2,803/1,951
백산OPC	440	128.6	25,574/22,865	663/525	-6,593/285
휴맥스	5383	180	297,766/275,442	11,826/11,349	7,916/14,700
네패스	1191	19.7	86,236/71,121	8,450/4,876	-821/6,978
*전액환원돌보힘 손실					
파워로직스	1019	62	93,050/73,085	3,657 /1,385	-14,176/579
글자색: 빨강 - 흑자에서 적자전환, 황토 - 적자확대, 파랑 - 흑자확대, 파랑* - 적자에서 흑자전환 검정 - 신규상장 적자시현, 갈색 - 적자축소, 초록 - 흑자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분 + 환차손으로 인한 영업 이익의 상쇄 효과와 제1 금융권을 시작으로 여신 압박과 이자 부담의 증가로 말 그대로 중소 기업은 2008년 말 사상 최악의 연쇄 부도 직전인 상황이다.

여기다 대고 비상 투입 자금 7천억을 때려 박는다는데... 글썄... 돈 받아 내기도 전에 끝장나기 직전인데... 어찌러는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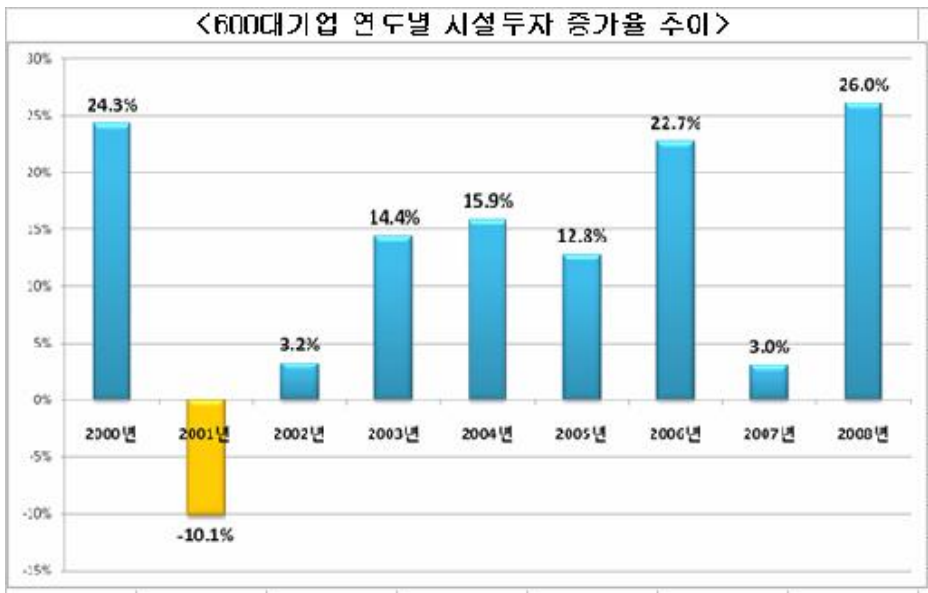
기업들은 내년에는 투자를 안 할 것이다...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국내의 기업 규제가 어찌고 하지만 ..

실상은 그게 아니다... 한국에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토지 비

용 + 인건비 대비로 매출 영업 이익 비율이 투자 비용 대비로 볼 때 차라리 해외 투자를 하는게 훨씬 낫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역으로 부동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자본 잉여금을 거의 자기자본대비로 3.400조원씩 쌓아 두고도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산업 자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자통법 시행과 금산 분리를 통한 이른바 하는 말로 삼성 은행이라도 만들어서 금융업에 진출해서 소매 금융업에 뛰어 드는게 훨씬 비용 대비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일단 해명이라고 시설 투자를 했다고 변명을 하는건 실적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것이 해외 투자분 140조원까지 합산 산출 비용이라는걸 생각해 보면..말 그대로 말 장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숫자 장난으로 사람 현혹 시키기라고 할까?..

국내 투자분만 따로 뽑아서 산출하면..결과는 비참하다.....

한 마디로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거의 70% 이상이 해외 투자로 기획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하신 이명박 장로께서 구상하신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라는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지..

벌써 부터 저탄식으로 기만책을 쓰는데... 내가 회장이라도 당연하지...

이명박 장로는 너무 순진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2008년 한국 경제는 70년대식으로 기업 투자 = 고용 창출이 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3.5% 내외가 나올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단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을 흡수를 못한다...

그리고 더 문제는 2009년 1/4 분기 내에 2.7% 대에 들어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이 연출 된다..

3% 대에서는 고용 불안과 내수 시장 잠식에 따른 경제 위기지만 --> 2.7% 전망치로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는 이른바 신용 쇼크라는게 온다...

지금은 이게 전혀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라는 것..

그 후는 소름끼쳐서 더는 말 못 하겠다.... 2003년 카드 사태 때와는 전혀 다른 자산 디플레이션의 직접적인 타격과 은행권에 물고 물리는 신용 쇼크에 따른 부실 채권 물량의 증가에 따른 내수 시장 붕괴와 개인 가계별로 파괴적인 회오리가 닥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손을 써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일반 물가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9%대까지 가도록 방치할 경우..

말 그대로 내년에는 부동산 실물 자산가격의 자산폭락의 여파가 미칠 것이며 이미 계산 수치상 4/4/ 분기 물가가 8.5%에서 9%가 올라갈

경우 2010년 내에 부동산 실물 자산 = -27% 가 폭락하게 된다...

그 때는... 그 누구도 손을 못 쓰는 단계다..

그런데 이걸 막으려면 10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그럼 또 가계별 대출 압박을 받는다..

한 마디로 저주의 트라이 앵글이지...

=====

그리고 난 닥치고 현금이라고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닥치고 현금 보유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금 유동성 차원에서 유동성 확보를 해서 개인별로 대비를 하는 것이 원래 스태그플레이션인 경제 환경 상에서 최소한의 자산 손실 보존을 하면서 개인별 리스크 방어와 헷징을 하는거라고 했을 뿐이지..

그리고 외화 예금은 통상 개인 보유 현금 중 20%를 넘어 가면 당장 쓸 현금 유동성의 제약이 온다.. 말 그대로 그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헷징 차원에서 손실 보존을 하는 것이고..

10만원을 가지고 있건 10억을 가지고 있건.. 그건 똑같은 돈일 뿐이다... 외국 MBA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슨 거창한 투자 스킬이 아니다.. 조잡스런 정도의 자산 운용 스킬이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펀드 매니저에 분석 능력이 뛰어나도 3대 핵심 요소 중 핵심인 자산 배분과 운용 능력이 없으면..아웃이다.....

이건 이런 대혼돈의 시기에 개인이라고 남의 일이 아니다.. 대비하려면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

기준 금리와 연동된 CMA나 MMF... 은행별 특판 고금리 상품도 팜플렛을 가져 와서 보면서 따져 보면 얼마든지 있으며 지금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잃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금이나 무슨 투자 상품 대비로 따지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다...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제 1 대 원칙은 "실물 자산 디플레이션을 동반 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걸 실감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에 설명을 자세히 하면 그제서야 이해를 하신다.

그리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비상 체제 하에서는 일단 신용 카드를 사용 하지 말고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

1. 최소한 가장의 실직에 대비한 최소 6개월치 정도의 비상 현금을 준비해서 대비 한다..

2, 신용카드는 2장 이내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크 카드를 사용한다... 단 생활비 통장/용돈 통장/비 정기 지출 통장 (예: 의료비, 경조사)/공과금 계좌 전용 통장(보험료, 대출금 상환)과 같은 항목별 통장을 세분화 시켜서 적립시켜 놓고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전부 개별적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종합 관리는 MS같은데 보면 가계부 프로그램들이 있다..

요즘에는 남자라고 쪽팔리다거나 그 판게 없다... 이런 회계 정산 프로그램을 구해서 항목별로 나눠서 관리하면 개인별로 돈을 쓰는 비용 지출이 한 눈에 파악 되고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러시는 분이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회원서비스는 어찌냐고..

훗... 요즘시대에?... 그냥 웃자... 기업들은 절대로 꿈짜란 없다....

사용액 만큼 등급이 수시로 바뀌거나 조정을 받는다... 뼈끼질에 낚시 떡밥 물고 싶으면 아무도 안 말린다...

3. 현재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향후 3개월 정도의 필수 생활 생필품들은 각자 갖추고 대비한다.... 이 정도를 가지고 사재기라고 한다면 독일 애들처럼 개인 지하실이나 아파트 창고 같은데에 1년치 비상 통조림이나 생필품을 비축한걸 못 봐서 하는소리다...

4. 현재 보험 상품 중에 적용이 되는 항목.. 특히 의료비 지원이나 암

관련 보험 상품들을 전부 다 꺼내서 상세하게 보험 관리사와 개인 상담을 하고 보험별로 확실하게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반드시 필기를 해 둔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난감한데... 전화로 하면 분명히 거의 90%는 말을 돌려서 하게 되는데 이 때는 딱 잘라서 분명히 뭐가 적용되는지 한도 범위는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그래야 이런 시기에 아프면 의료비용의 정확한 산출이 가능해 진다..

그와 더불어 치과 관련 보험 상품이나 그런 걸 알아 볼만 하다.. 의외로 치과 의료비가 상당히 들어간다.. 애들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5. 할부는 최대한 낮고 시작해야 한다... 보통 가격이 싼건 아꼐려고 한다.. 옷이나 식료품 가격을 줄이지만 이상한 것이 티비나 차는 할부로 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할부를 낮거나 개인별로 차를 팔든지 해야 한다..

왜냐면 차나 그런 기타 할부로 돈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현금 유동성의 일부가 묶여 버리게 된다.. 이 경우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물론 값을 여력이 충분 하다면 상관없지만 말이다..

그리고 마트에서는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되도록 현금을 쓴다.....

그 이유는 요즘 같은 지출 통제가 필요한 시기에는 되도록 현금을 써야지 돈이 나가는 걸 본인 스스로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 대출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자 부담은 대출액에 비례한다..이 경우 개인별 보유 자산 중에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비 전략이 나오게 된다.. 더구나 대출은 2 군데 이상 하는 비중이 전체 38% 정도다... 이 경우에는 메인 뱅크로 주 거래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 한 군데로 모조리

몰아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설사 본인은 상관 없는 얘기라고 해도 의외로 다중 대출이 많다...

이 경우에도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로 나누어 지는데 신용 대출 금리는 지금 거의 살인적인 금리양상이다... 가급적 개인 소비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신용 대출을 갚고 대출을 주 거래 은행으로 몰아서 관리해야 한다...

지금 가장 빨리 손을 써야 하는건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무조건 어떤 수를 쓰든지 가급적 빨리 청산을 해서 제로로 만들고 차라리 장기 대출 쪽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부채던 자산이던 리스크 관리를 하는게 급한 것이지...방만하게 이것도 노하우라고 판 벌리고 있다면...

올해 안에 특히 9월 말부터 10월 경에 인플레이션 변동에 따른 금리 인상 문제와 금융권 대출 제한 조치 같은 것과 맞물려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이건 9월전에 모조리 다 정리 하고 불일이다..

7. 영수증과 쿠폰을 잘 보관해서 활용한다... 이런 시대에는 겨우 쿠폰이 아닌 시기다... 쿠폰을 주면 악착같이 받아 온다..

그리고 영수증은 아무리 사소한 편의점 결제라도 끊어서 되도록 가져와서 관리 한다..

그래야 현금 흐름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수 있다..

쿠폰을 오래서 보관하라면 쪽팔리다거나 겨우 쪼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돈이나 금액 측면보다도 효율적인 소비 패턴을 하겠다는 심리적인 면도 무시 할수 없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잉여 소비에 대한 누수 현상에 대한 자각을 끊임 없이 하면서 거기에 쿠폰이 모이면 추가로 물건을 하나 더 사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

이게 스테그플레이션 체제하에서 사는 방법이다.. 이제 사실상 고도 성장기와 그에 따른 과잉 소비 시기는 끝났다..

8. 지금 당장 개인별로 한국 신용 평가 정보원이나 마이 크레딧 같은 곳을 통해서 매달 수시로 개인 신용도 관리를 주의 깊게 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 = 신용 = 돈이다... 개인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유로든지 무료든지.. 한 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수치에 입각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용 점수가 나오는지 잘 파악해 두고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를 똑같이 사용해도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굶은 것과 책을 사는데 돈을 쓰는 건 신용 평가 점수 체크 방식이 전혀 틀리다..

예민한 사람들은 단박에 느끼겠지만.. 일반인들은 의외로 이런 것에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난감해 하면서 도리어 은행에 가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건 이런 신용 = 현찰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상당히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신경만 쓰는 수준이 아니라 카드나 현금을 쓰는 소비 패턴에도 어떤 때 현금인지.. 이때는 카드가 적당한지 정도는 알고 써야 한다..

당신이 쓰는 모든 것은 다 중앙 카드 회사 서버에서 정교한 시뮬레이션에 의해 평가 받고 점수가 매겨 지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는게 아닙니다.. 기계가 한다.... 그래서 인정사정이 없다.

이런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신용 자산의 관리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9번 이하 나머지는 이미 다 예전에 스테그 플레이션 체제 하에서의 개인별 생활 대처 방식과 방어적 차원의 대비책들은 다 설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

두번 말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설사 지금 신용 카드에 의존을 해서 생활 한다고 비관적일 필

요도 없다... 각 카드사 싸이트 별로 분할 납부 프로그램이 있다..그걸 이용해서 차근차근 갚아 나가고 차후에 플러스로 전환하면 그 때 가서 마이너스 게임을 안 하면 되는것이다..

그게 20살이건 30살이건 40살이건 상관이 없다.. 개인별 자산과 현금 운용 부채 규모는 전부 다 천차만별이다.. 통계는 말 그대로 통계고 그런거에 얽매어 자책을 할 필요도 자만할 필요도 말 그대로 비즈니스 게임이다....

사채나 진짜 최악의 벼랑 끝이 아니라면 이런 보편적인 룰에 해당한다..

지금 은행 잔고가 많아도 가족 중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로 일년도 안 되서 다 날리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라도 일을 하거나 기회를 잡아서 찬스로 많은 돈을 은행 계좌로 불릴 수 있는게 인생 자체의 비즈니스 게임인 것이다..

언제든지 뒤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자만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왜냐면 인간은 사는것 그 자체가 변수거든..

오히려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지금 개인별로 내가 빛이 있다고 낙심해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난 안 그럴꺼라고 생각 하지만 막상 닥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게 황금의 위력이다..

돈은 쓰는거 보다 가지고 있을때 나오는 자신감과 안정감... 이게 최대의 장점이다..

그래서 패배주의에 빠지는 자신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살면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식으로 대외 변수를 보고 국내 상황에 대입해서 예상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개인별로 어떤 여파가 미치는지 파악한 다음에 개인

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서 상세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어떤 분 말대로.. 우리는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다..

분명 정신 나간 놈이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욕만 하다가 대비를 못하면 올 겨울에 다 끝장이 난다....

그래서 닥치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늘리고 그에 대한 개인별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것이었지..

10만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이런 개인 자산 운용의 룰이라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시대의 조류에 맞춰 가계별, 개인별 자산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돈을 적게 벌더라도 맞추고 조정해 가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건 무조건 역대 연봉자나 해당 되는거지 뭐.. 이 판 식이라면... 더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가난이 되물림 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그런 경제 인식이라는걸 자기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게 곧 부의 차이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면 또 아니라고 바지 가랭이 잡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소리다..

각자 대비하고 올 겨울에 잘 넘기기 바란다....

그리고 난 이제 여기서 활동 안 한다... 워낙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잘 하시겠지..

거듭 말하지만.. 돈을 버는건 추세를 잃어 내는 힘이다...

그게 없이 단순히 개인 기술이나 스킬로 돈을 벌려고 설치 봐야... 위에 있는 놈들은 속으로 비웃는다..

이건 절대로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인 것이다..

추세를 읽어 내면 세종 대왕님의 천사의 미소와 광명이 내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와 국내 경기부터 부동산 주식 채권 금리 추세 물가 변동 ..심지어는 개인 생활 패턴 변화 소비 추세 변화.. 상권 분석....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단순히 할 줄 아는 차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서로 상호 연결해서 읽어 내는 힘이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먼저 추세를 따라갈려고 노력하는게 순서다... 항상 뼈빠지게 고생하고 돈을 못 만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흐름을 타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니..당연히 돈을 만지지 못하지..

이게 뭘 말인지 지금 깨닫는다면 10년 후의 인생이 180도 달라 지리라.... 기회는 반드시 10년의 싸이클로 흐름의 변곡점이 온다..이건 거의 진리다..

그 타이밍을 준비한 자만이 잡고 10년 생활비를 그 때 버는 것이다...

이걸 무의식 중에 알면서도 일반인들은 철저하게 반대로 돈에 집착한다...그리고 탄 놈이 돈은 다 쓸어 간다..

이걸 이성적으로 깨달기 위해서 매일 주말에 노는걸 포기하고 책을 파면서 고시나 입시 준비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머리 싸매고 아저씨 아줌마들이 스타벅스 커피 사가지고 와서 훌쩍 거리면서 오늘도 도서관에 출근하고 경제 잡지를 옆구리에 끼면서 독서가 취미라는 개구라를 치면서 열심히 성경책 보듯이 보고 있다..

돈 잘 버는 인간치고 독서광이 아닌 사람이 없다.. 진짜 지독하게 뭐든지 본다... 스포츠 신문이나 개인 취미 잡지를 보는게 아니다... 보면서 트렌드라는 걸 읽어 낸다.. 뭐든지 보다 보면 그 다음에는 가려서 보게 되는 눈이 생긴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는 가려서 본 것 중에 핵심을 캐취 해 내고 그걸 분석해서 연관 시키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경제 사회 문제나 트렌드를 분석해 내고 추세를 읽어 내게 되는 것이다..

그 타이밍을 예측하고 잡기 위해서.... 그냥 취미 생활로 시간이 남아돌아서 책이 좋아서 보는게 아니다..

어느날 단순하게 무심코 본 책이나 잡지 한 페이지로 시장의 모든 추세를 한 번에 깨닫는 경우가 있다...

이런게 무슨 거창한 게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경제라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배울려고 덤벼들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개인별로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지... 이 정도 시간 투자도 아까워 한다면.. .평생 콩나물 가격에 반찬값 걱정으로 날밤을 세워야 겠지..

이제 대충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는걸 맛만 보여 주었으니까 각자 개인별로 잘 하시기 바란다..

다 까 뒤집을려면 여기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난 이론 경제가 아닌 실물 경제적 차원에서 개인별로 대비책이 이렇다는걸 말하는거지..

솔직히 개개인이 국가 경제 백날 걱정해 봐야..

우리 그 잘난 미친 장로께서는 꿈쩍도 안 한다.

더구나 이론적으로 경제를 말하고 거기에 대한 개인별이나 기업별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개인 예방책 같은걸 말해 주지 않는다면..말 그대로 자기 개인 지식 자랑만 하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그건 살아 있는 이코노미가 아니지..

죽은 이론 경제학 지식은 말 그대로 공허한 말 장난일 뿐..

그런 역으로 밑에 있는 애들이라도 사태 파악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지금 여기서는 부동산은 안 건드렸다... 너무 길어서 그건 다른 분들이 더 잘 알고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일등석에서는 비즈니스 위크를 본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가 뒤집어 보면..

당장에 나랑 상관 없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일단 다 알아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10년 후에 엄청난 차이로 다가온다..

이건 단순히 수험서나 고시 공부 같은 그런 틀에 짜여진 정형적인 학습 패턴을 말하는게 아니다..

그렇게 하루에 24시간 머리를 돌리는 40대 아줌마와... 지금 당장 쇼프로 보면서 개콘을 보는 30대는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가 틀려진다...

비정하게 들리겠지만... 돈 문제에 관해서는 나이란 상관없다...

제일 미련한 것이 돈을 시간 비용으로 대비해서 측정하고 예상하는 것이다... 이건 최악이다..

이래서는 영원히 독립할 수 없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임금 생활자가 돈을 시간 대비로 계산하고 접근할 경우.. 말 그대로 제도권 내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걸 의식하고 빠져 나올때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으로 다 망하고 빈털털이지만 추세를 읽어 내고 분석 능력이 있는 40대 아저씨와.. 지금 현재 고액 연봉을 받지만 추세를 모르고 회사일과 미팅에 열중하는 30대 직장인은 설사 지금 당장은 40대 아저씨가 비참해 보일지 모르지만... 급수가 틀리다.....

다시 재기를 할 생각이면 무섭게 몇 배로 더 빨리 일어나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런 핵심적인 내공과 레벨 급수의 차이가 틀리기 때문이다..

이게 실물 경제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아는자와 모르는자의 차이는 아는 상위 레벨자들은 자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한눈에 꿰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기존에 개개인별로 숙성 시킨 분석 능력과 노하우를 튀기면... 훗... 게임 끝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다... 어프랜시스는 시즌 6까지 무조건 다 봐라.. 이건 돈 주고도 못 보는 오히려 숨겨 두고 나만 봐야 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책과 함께.. 가만 보면 여태 얼마나 당했는지 처절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놈들은 동물적인 타고난 재능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보고 학습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노하우를 사는 것이다...

=====

예전에 90년대 초에 kbs에서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드라마에서 이명박으로 나온 탤런트가 유인촌이다.....

그 드라마를 보면 진짜 화려함 그 자체다... 댐 건설 프로젝트.. 중동에 가서 떼 강도를 상대로 혼자 홀연 단신 회사 금고 지키고 맞짖 뜨기.. 사우디 건설... 자동차 회사.. 현대 중공업 선박 수주 하러 왕회장과 유령을 중환무진..

그 때 공부하던 내가 봤을때도 무슨 장국영 뺄나는 대단한 인물로 나왔으니 나이 든신 분들이야 게임 끝이지..

그 다음날 나가면 사방에서 그 드라마 얘기로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니까.. 어제는 중동에 갔더라.. 어제는 그리스 선박 수주전이다.. 오늘

은 동남아 댐 공사 현장이다.. 울산이다..

마치 그 당시 톱 크루즈 뺄 나는 한국판 미션 임파서블을 보는 기분이었으니까.. 애들이 예전에 제 5 전선 보면서 놀라워 하던 그런 기분이랄까?..

그걸.. 학생 시절 슈퍼에 콜라를 사러 가다가 다른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30분씩 보던 그 정신 나간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이미.. 이런 음모는 그 때부터 악마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결국 왕 회장 본인이 죽고 실제 이명박 장로와 같이 일한 사람들이 증언으로 그 드라마 언급하면서 개구라라고 떠들어서 다 뒤집어 졌지만...

완벽하고 철저한 사기극이지..

그 때 꾸송이라고.. 최민식이 나왔는데..지금 그 올드 보이가 아니라... 진짜 대단한 서양 모델 뽑치는 마스크에 O양 비디오 파문 전에 오현경까지... 대단했지.. 시청률 무조건 70%... 에 휴...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뒷통수 맞고 사기 당할 줄이야 그 당시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왜 이 명박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어르신들이 그렇게 강했냐 하면 이런 드라마 때문이야..

그 때 너무나 강렬하 빛났거든.. 유인촌이.. 이 명박이..... 신화 같은 인물들로 포장되서 말이지.....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왜 지금 유인촌이 이 정권 들어 와서 장관이 된 것인지...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이런 맥락이죠.....ㄱㄱㄱㄱㄱㄱㄱㄱ

<작성일 2008년 08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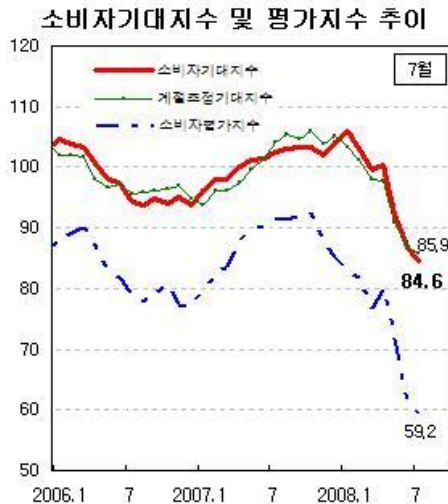
36. 10월 금리 인상 = 저장도 쇼크의 시작.

가계 순 저축률 : 세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 (가처분 소득) 가운데서 소비 지출에 쓰고 남는 돈의 비율로써 각종 예금과 적금을 비롯한 펀드 투자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

그럼 그런다.. 2005년에 펀드 태풍이 불었는데 개구라 치지 말라고... 그건 자금이 은행 --> 펀드로 이동만 한 것이지... 집 안방에 쌓아 둔 현금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돈이 아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는 것이다..

1998년 23.2%에서 2008년 현재는 2.3%로 1/10로 떨어 졌다.. 이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 일본, 독일과 한국의 경제적 격차 상태를 볼 때 비교는 무리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말 그대로 이런 순 가계 저축률이 떨어질 경우 한국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사실상 없는 나라에서..그나마 있던 사회 복지마저도 없애 버리는 나라에서 고용시장 악화나 물가 폭등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가계 부실로 이어져서 이런 경제적 충격에 극히 취약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 기대 지수와 소비자 태도 지수는 말 그대로 이미 98년 IMF

그 당시보다도 더 최악의 소비 심리의 악화를 통한 내수 위축을 넘어서 내수 냉각 수준으로 들어 간지 오래다..

그 이유는 사회 안전망 부재의 현실상 물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소비를 대폭 줄이고 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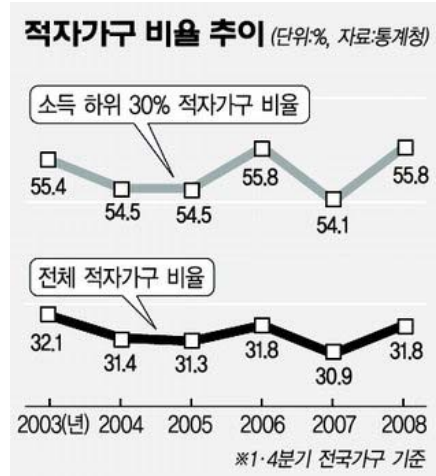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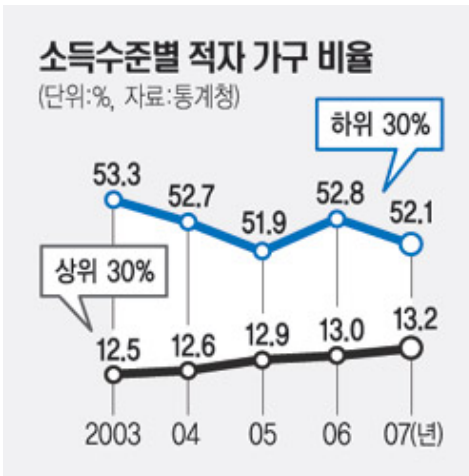
원인 :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8월 예상 : 7.25%) + 실질 소득 감소 (전월대비 : -4.5%) + 이자율 폭등(고정 대출 금리 기준 : 9%대) = 소비 감소..

이건 소득 격차간 다양한 충격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2월 달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2008년 3/4 분기 한국 경제 상태= 스태그플레이션 +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수근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 단기간에 걸친 급격한 실질 물가 폭등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른바 전쟁이나 재해 상황 후 산업 시설 파괴에 따른 공급이 수요를 밀돌면서 발생하는 이상 물가 폭등 현상..



현재 2008년 2/4 분기 상태에서의 적자 가구 비율이다.. 문제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일 때 이 정도 적자 가구의 비율이 나온다는 상황이다..



현재 하위 30%계층의 적자 가계 비중을 50%를 넘어선 이 상태에서 개인 가계 파산자가 속출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별 개인 파산 비율 증가 추세

소비자 물가 7.0%일 경우 = 적자 가계 비율 33.4% = 개인 파산 가구 : 17만 가구

7.5% = 적자 가계 비율 37.6% 증가 = 개인 파산 가구 : 25만 6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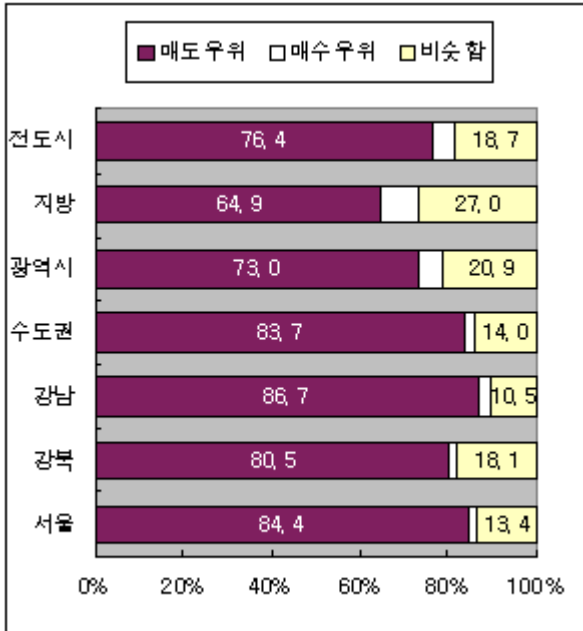
8.0% = 적자 가계 비율 39.2% 증가 = 개인 파산 가구 : 31만 가구...

한 마디로 현재 물가 인플레이션이 8% 이상 올라갈 경우 개인 파산자 예상 증가량은 170만명 정도가 합산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온다..

이 경우에는 소비 감소 수준이 아니라 빙하기가 온다는 말이 맞다..

현재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생계비 지출 증가로 고유가에 따른 광열,수도비, 교통비지출이 늘고 생필품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적자 가구가 증가한 상황이며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 축소에 따른 소비 여력의 축소다...

한 마디로 현재 상황은 1960년대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시작 이후 사라진 보리 고개라는 말이 바야흐로 2008년에 들어선 이제 '신 보릿 고개' 라는 말로써 재등장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2008년의 한국 국내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 추세는 여지 없이 국제적인 미국발 서브프라임의 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2008년 상반기 내에 떨어진 가구들의 집산 결과다..

더구나 지역별로 거래 되는 물량 비율과 소비 되는 거래 매매별 지역적인 매수/매도 비율의 분포를 볼때는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1억원 이상 떨어진 가구 수

(단위=가구)

지 역	가 구 수
강남구	1만9,052
송파구	1만8,592
분 당	1만4,916
강동구	1만2,957
양천구	1만2,024
용인시	8,482

전국평균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지역 내에서 한정 시켜 볼때 2008년의 현재 상황은 84%가 넘는 절대적인 매도 우위의 팔겠다는 물량을 받아 줄 매수 여력이 없다... 이것은 추가적인 한국판 서브프라임의 전주곡이다..

이른바 거래 실종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현재 돌아 가는 시장 상황이다... 한마디로 부동산에

자금이 다들 묶여 있어서 유동성 자금이 없다... 이것은 곧 소비 여력의 실종으로 이어져서 상위 30%나 하위 30%나 모조리 다 물려 있는

상태다..

=====

주택 담보 대출 규모와 년도별 구조 시스템

1년 이하 : 51조 9천억
 1년~3년 : 38조 6천억
 3년~5년 : 16조 1천억
 5년~10년 : 25조원
 10년 초과 : 85조 5천억

현재 주택 담보 대출 구조에서 현재 한국이 전 세계적인 미국발 서브프라임의 태풍에서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인 이유는 2007년 LTV 집값 대비 대출 규모 60%.. DTI 소득 연봉 대비 대출 규모 40%로 낮춰서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7년 2월 이전 DTI 미적용일 때 최대 집값 95%까지 맥시멈으로 대출이 된 상태에서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나 대출금 상환이라 는걸 해야 하는데 현재의 이자율 압박은 물론이고 팔아서 갚으려고 해도 매매 자체가 사실상 급매물도 안 팔리는 현 상황상 팔아서 갚는다는건 사실상 올해 안에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1. 이중 50%는 사실상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이 예상 되는 물량..
- 2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PF 대출 12조 5천억의 부실 채권 예상 물량 (= 40%는 제 1 금융권 차입금액)
3. 처분 조건부 대출 만기 도래 = 7조 2천억 (7만여건 : 앞으로 2009년 이후 경매 시장이 사상 최대의 초호황이 예상 되는 시점에서 벌써부터 경매 인력 구인난에 시달릴 정도로 대비 하고 있는 상황이다)
4. 3년거취 원리금상환 = 48조

예상결과 = 현재는 금감원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막았으나 올해 12월 한국은행 총재의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하반기 경기 부양 자금 8조원과 더불어 내년에 DTI 의 규제 완화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

파급 효과

DTI 50% 완화시= 유동성 119로 증가 = 시중 인플레이션 + 0.8% 상승효과 (3개월 이후, 분기별)

DTI 60% 완화시= 유동성 123로 증가 = 시중 인플레이션 + 1.7% 상승효과

나머지는.. 핫... 할 말이 없음.. 모르는게 개인의 심장 관리에 좋은 것이다..

결국 규제 해제를 통한 거래 활성화 도모를 시도시 DTI 규제 해제 = 인플레이션 상승효과 동반

한 마디로 가격 리스크를 물가로 분산 시키는 결과..

즉.. 10명이 100의 리스크를 분산 할 때는 개인당 리스크 수치=10이지만... 100명이 나누어 질 경우 개인당 리스크는 1.0으로 나누어 지게 된다... 이게 주택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 활성화라는게 아니라 물가 상승이라는 위험 전가라는 측면이 부각 되는데... 보통 언론에서는 말을 안하지..

더구나 지금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보도 통제 시기에는.. 이것은 98년 IMF 시준 1 그 당시의 위험 분산 효과와 동일한 수법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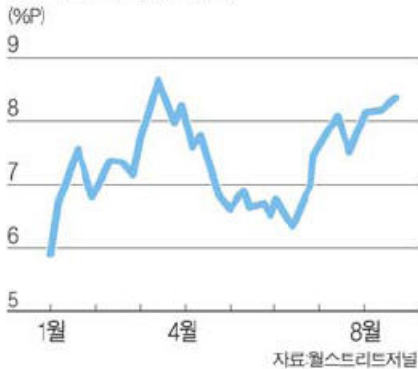
=====

더구나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2400억 달러니 어찌고 하는데 이중에 370억 달러가 미국 국채 모기지인 페디매- 프래디맥에 묶여 있는데다가 시중 월 스트리트 투자 IB 은행권과 지방 은행들에 묶여 있는 돈이 총 500억 달러가 넘어 가는 수준으로 2008년 8월 현재 쓸 수 있는 가용 외환 보유고는 200억 달러 밖에 없다..

이 2400억 달러가 달러 현찰로 쌓아 놓고 있는게 아니다.

거기에 현재 무다스에서 국채 모기지 신용 등급을 A1----->Baa3 로

정크본드 가산 금리



이른바 정크 본드 수준으로 최하위 투자 등급이 나온 상황에서 마음대로 현금화 시키지도 못한다..

이 상황에서 현재 모기지 담보 채권 MBS 의 부실 채권 액수만 - 4천 690억 달러인 상황에서.. 사실상 한국은행 보유 외환 보유고에 포함된 370억 달러는 한마디로 "0"이라고 봐야 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부실액수를 상각 처리 한 상태에서 외환 보유고를 관리 하는데 뭘 생각으로 깡통 계좌까지 합산 시켜서 2000억 달러 넘으니까 무조건 안심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모처럼 우리 이명박 각하께서 친히 명박 동화를 써 준 걸 보면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한참을 웃었는데..

지금도 그런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면 새로 소위나 대대장이 오면 북한에서 방송이 나온다.. "○○ 대대장 취임을 축하한다.... ○○ 부인도 잘 있겠지..".. 심지어는 소대장이 와도 방송 때리면서 확성기를 틀어대는게 비일비재 했다..

그럼 처음 오는 소위 애들은 바지에 오줌을 질질싸면서 긴장 했지.

역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해법은 결국 또 간첩단 사건인가 하는 걸 보면서..

70년대 구닥다리 수법을 아직도 써 먹는 걸 보니 씁쓸했다..

잘 나가고 지지율 높던 4월달에는 한미연합사에서 2급 군사 기밀인

팜 싸이판 기지에 조기 경보기 배치도나 전략 폭격기 배치 같은 2급 군사 기밀이 누출 되서 일본 신문에서 떠들때는 쥐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는 저런걸로 간첩단 사건 만들어서 공중과 때리는걸 보니까..

뭔 코메디를 보는 것도 아니고.. 황당해서..

각하... 알고 속아 주는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북한 애들이 U2 기를 남쪽에 날렸다고 하셨으면 저희가 믿었을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더 현실적이지... U2기는 뭐하면 AN-2로 바꾸던지...

이젠 좀 참신한 걸로 부탁 드려요..

저희는 무슨 조중동 콩짜로 무료 구독 어찌길래 와서 가끔 보는데요.. 문화/공연 분야 빼면 그냥 UFO 심령 X 파일 보는 수준으로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해리포터 보는 수준으로 걸러서 보니까 의외로 활용도가 쏠쏠하더군요...

좀 있으면 북한에서 땅굴 24개 파고 있다고 나오겠네요... 실제로 북한 애들은 남쪽에 땅굴을 24개를 뚫었습니다.... 이걸 저희 국방부에서도 미국 애들이 자료 제공한 인공위성 스캔 사진으로 다 알고 있죠... 미국 상업용 위성 중에 적외선 열 감지 스캔으로 지표 온도 감지율 분포도로 지표면을 스캔 하는 위성이 있는데 그걸 보면 대충 안다더군요.. 거기에 무슨 고주파 지표 주사 방식이라나?... 이걸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 같은 애들은 엔지니어링은 까막눈이라 잘 이해는 못했구요..

거기에 70년대에 체코인가 동유럽권에서 굴착기로 240대인가를 사 와서 본지가 오래되서 잘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그 땅굴 굴착을 하는 곳 인근에 마을로 위장해서 낮에는 자고 저녁에는 해 지면 가서 땅파고 새벽에 나오는걸 정찰 사진이 찍힌 것들도 있죠..

거기에 여름에는 저녁 8시에 출근하고 겨울에는 저녁 5시에 차에 실어서 광산이나 집단 농장 그런걸로 위장된 비스무레 한 곳에다가 들어가서 굴착 작업을 빼 빠지게 하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는 일년에 U2가 북한에 4번.. 그 밖에도 수시로 고고도 정찰기들이 북한에 들락거리면서 찍었거든요... 미그기나 샘 미사일 고

도가 안 되는 성충권에서 말이죠. 다 찍어 와서 뭘 짓거리 하는진 다 알고 있죠..

그 중에서 탱크가 지나갈 정도 폭 넓이가 4개에서 6개 정도에... 수원 남쪽까지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처음 봤을 때는 뭘 서프라이즈 같이 황당하더니...

각하... 이제는 국방 장관이나 한미 연합사사령관 조지면 이런 재미있는 소스가 나오실거예요..

아주 정밀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디 쏘시면 나온다는건 다 알고 있는데 전시 전에 다 함몰 시켜서 때려 막을꺼라더군요..

한반도의 지질분포상 땅굴을 팔만한 데는 뻔하다는데.. 말이죠....

좀 이런 참신한 걸 써 먹어야지... 아직도 쌍팔년도 간첩단이라니... 더 분발 하셔야겠어요..

90년대 이런 얘기 하면 원래는 불잡혀 갔는데요... 이젠 알만한 놈들은 개나 소나 다 아는거라 말하는거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때가 98년 이었으니까... 지금은 24개에서 또 몇개나 더 파 재졌는지...ㄲㄲㄲㄲ

그 동안 열심히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열심히 파 재졌을 북한 동포 분들이 안타까울 뿐이군요..

한 마디로 우리 남조선에서는.. 삼질 한다고 하나?... 그 정도 표현이 적당하겠군요.....

이러니까 북한 애들이 아직도 치킨 게임 한다고 저렇게 설레 바리 치는거잖아요.. 각하...

그리고 이젠 상속세는 입도 뵙듯 못하시겠네요... 일본 애들이 상속세법 대폭 강화해서 세금 폭탄 때린다고 마이니치나 산케이 신문에서 떠들어 대는데..

이젠 일본 들먹거리면서.. 상속세법 폐지 어찌고 하는건 물 건너 가셨으니... 참...

각하.... 조금만 더 분발해서 더 참신한 한국판 뼈라 포터 2 명작 동화를 빨리 보여 주세요..

참신한 내용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NHK 다큐 중에 글로벌 마켓 같은 걸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난 건데 아무래도 영상물이 더 와닿죠.. 보는 시각을 한 단계 업 그레이 시켜 줄 겁니다..

이제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한국 국내 시각만 가지고 보는 시대는 97년 IMF 이후로 끝났죠...

다 그렇게 돌아 가는겁니다....

내년에는 러시 앤 캐쉬가 코스피 시장에 등록이 될꺼라는데...ㅋㅋㅋㅋㅋ
ㅋ....

뭔 생각으로 그러는건지.. 참.... 존경 스럽습니다..각하....ㅋㅋㅋㅋㅋㅋ
ㅋㅋ ㅎㅎㅎㅎㅎ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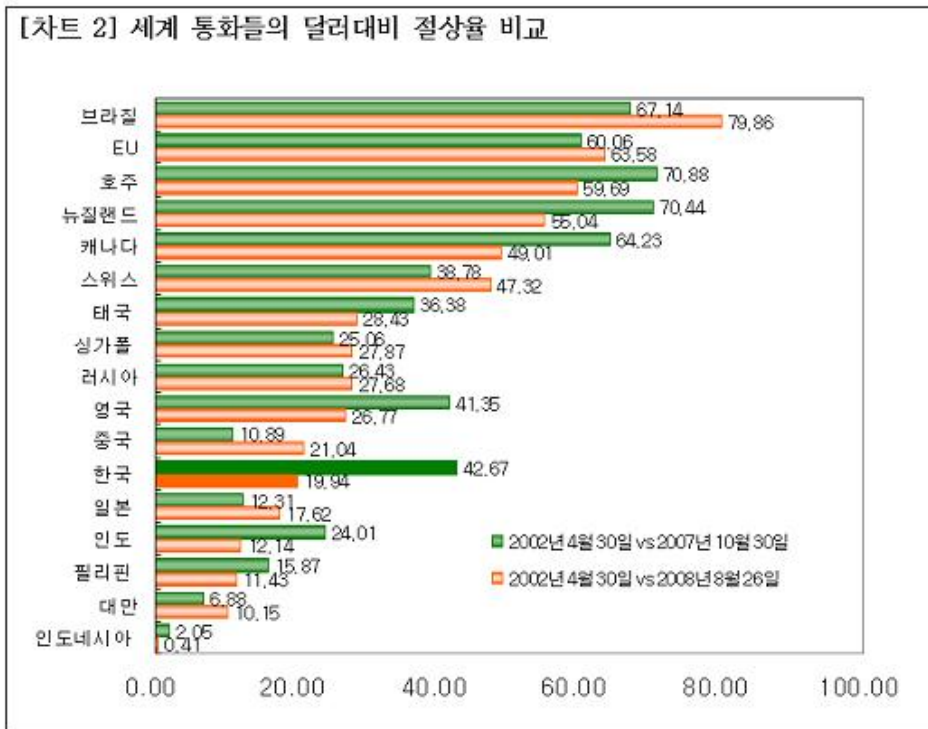
뭔가가 있기는 있나 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일 2008년 08월 29일>

37. [IMF 시즌2] B-52의 출현-히로시마 달리 핵폭탄 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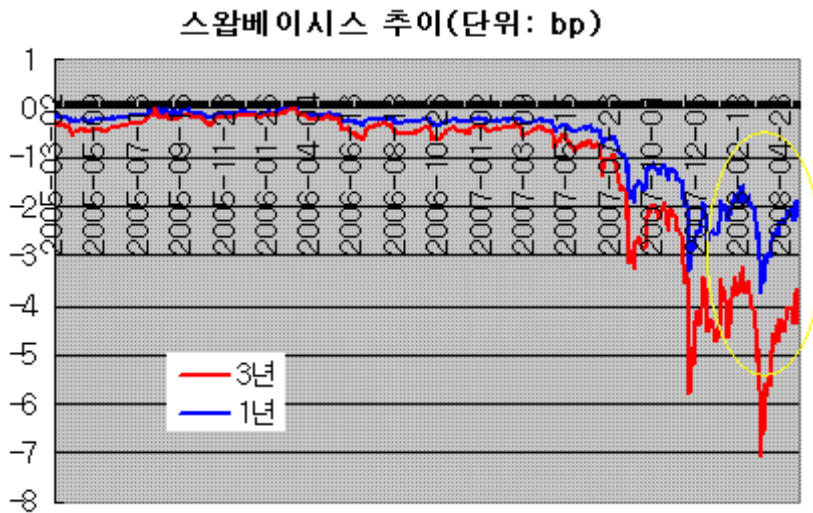
뭔가 이상하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수치상으로 이제 9월 달에 IMF 시즌2가 터질꺼라는 심리적 패닉이 확산 일로에 있다..

이건 지금 루머나 단순 동네 반상회 수준의 소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시장은 둘째 치고라도 일단 아시아 시장 내에서만 보면 한국 외환 시장은 2008년 2/4분기 ~ 3/4분기에 걸쳐서 최단기간 최대의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징후는 이미 4월달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이것은 곧 바로 국가 신용도와 연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 스프레드 격차는 더욱 늘어나서 더욱 심각한 회사채 조달에 따른 기업별 자금 압박 요인을 주고 있다..



* 스프레드 (spread : 가산금리) = 스프레드란 시장에서의 기준가격과 비교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외환, 주식 시장에서 가격을 고시할때 매수/매도 호가간의 차이.. 채권시장에서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이나 남은 기간에 따라 가산 금리가 붙게 되는데.. 신용등급 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에 이 가산금리가 확대 되서 기업 자금 조달에 따른

회사채 발행에 금리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

이런 스왑 베이스의 확대 추세는 현재 정부에서 떠들어 대는 말로는 역으로 9월 64억 채권 연장의 메리트로 작용해서 채투자가 될 꺼라는데..

원래 스왑 베이스 = 이자율 스왑(IRS)와 통화스왑(CRS) 시장의 금리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채권 이자율과 미국채권 이자율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이 안정적 일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스왑베이스 확대 = 국가 신용도 하락을 의미 하며 현재 확대 요인은 외국은행들의 국내 지점으로의 외화 차입 + 글로벌신용경색 + 선물환 매도 증가..

결론 = 달러 유동성의 부족해 졌다는 것으로써 시중에 달러가 썩어 말랐다는 소리..

결국 기업 차원에서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유입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시중에는 달러가 썩어 말라서 달러 확보가 더 어려워져서 달러 차입 비용이 늘어난다.... 이걸 결국 심각한 개별 회사간 재정 리스크 확대를 의미 하게 된다..

=====

두산 : 해외 M&A 기업 밥킷에 대한 10억 달러 추가 출자

리먼 인수 예정 액수 : 85억~105억 달러의 달러 자금 수요.

금호 : 대우 건설 풋 옵션 행사 금액 4조= 1년 연장 동의 1/3에 불과... 하반기에 자금 유동성 우려수준..

STX : 핵심 계열사 STX 엔진의 부채 규모 300%.... 단기 자금 유동성이 의문시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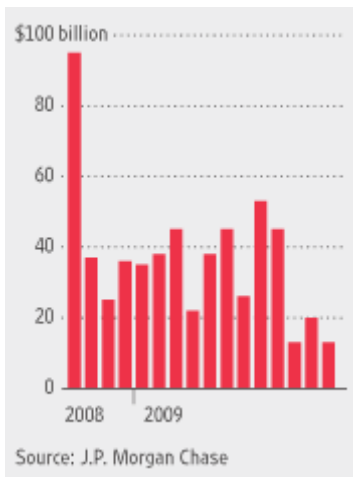
삼성 : 하반기 기업 매출 부정적...

토지 보상금 : 위례+ 동탄 2 지구 = 08년 10월 ~ 09년 2/4 분기내
10조 3천억이 토지 보상금으로 풀릴 예정

하반기 추경 예산 집행 액수 = 8조~10조

토지 보상금+ 추경예산 집행시 = 시중 통화 유동성 증가 121로 확대
(기준=100) --> 2009년 1/4 분기 인플레이션 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

=====



16개월 동안 상환해야 할 FRN 규모 증감
액수.

* FRN(변동 금리부 채권) : 한 마디로 말
해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금
리에 대한 장기 예측이 어려울 때 말 그대
로 금리 변동에 대한 헷징을 하기 위해 발
행 거래 되는 채권.. 통상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에게 우세 / 하락시 발행자 우세 포
지션...

FRN 만기 : 3년 이상 ~ 10개월 미만 미
재무부는 94년부터 발행 허가...

국내에서도 거래가 시작...

뉴욕 / 런던 = 08년 만기 금액 = 950억 달러 ~ 1080억 달러 규모...

=====

현재 역외 NDF 시장 내 달러 매수 신규 차입금액 (싱가폴 기준)= 47
억 달러 (8월 18일~22일 기준)

싱가폴 내에서는 한국 내 주식 / 채권 시장만을 고정 거래 하는 헤지

펀드가 현재 3개가 있음..

채권 차익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내 핫 머니 자금 이탈
금액중 일부가 꾸준히 유입 자금 충전

=====

결론 : 9월내에 64조가 전부 다 만기 연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최소
이중 25~30% 내외의 일부 청산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며 역외 매수
자금과 국내 달러 자금 수요 + 은행권 달러 자금 수요까지 겹치면
서....

9월 중반 최대 상승 폭 1125원 지지선.....

9월 하반기 (변수 : 외국인 채권 30% 일부 청산시) : 1180원~1200
원(?..제발 이 시나리오는 오지 말기 바란다)..

파생변수 : 키코 제 1차 계약 피해 기업 + 제 2차 재계약 피해 기업
(기준 계약 환율 : 1084원) = 총 파산 직접 타격 기업 파센트 비율 =
32.4%...

연내 도산 가능성 = 문제는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상 선별 지원
을 하겠다는게 문제인데.. 이 경우 지원 자격 심사에 통상 3개월 미만
이 소요..아무리 빨라도 1달내.. 문제는 지금 1달이 급하다는것.

=====

주요 경제변수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소비자물가		
경제변수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유가 1% 하락	▶	-0.02	-0.04	-0.05
원·달러 1% 상승	▶	+0.08	+0.10	+0.11
기준금리 0.25%p 인상	▶	-0.06	-0.13	-0.13

통상 현재 우리 강만수 장관께서는 국제 유가 타령 하면서 하반기 물

<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 <http://cafe.daum.net/iomine> >

가 타령을 하시는데.. 그것 전부 거짓말이다...

국내 물가 상승 요인 = 유가 상승 이 아니다... 그건 일부 요인일 뿐이지....

더 영향력을 물가에 미치는 요인은 원/달러 환율적 요인 + 기준 금리 변동폭 >>>> 유가 하락 요인..

그래서 지금과 같은 스태그 플레이션인 상황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는 더욱더 환율 관리를 각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환율 변동에 따른 물가 영향력은 국제 유가에 3배에서 4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



결론 : 지금은 국내에 달러 수요가 몰려 있는데다가 9월에는 말 그대로 채권만기 64억 물량이 몰려 있는 황..

하지만 해외 FRN 만기 도래에 따른 일부 청산 가능성도 배제 할 없는게 현재 돌아가는 판세인 속에서 향후 환율 급등 요인 ==>> 정

부의 가용 외환 보유고 추정액수 350억 달러 미만으로 얼마나 방어가 가능한지가 최대 관건.....

만약 환율 방어 실패시....

환율에 따른 물가 급등 요인 >> 유가 급등락을 상쇄하고 넘어서는 상황에서 08년 4/4 분기~09년 1/4분기 내에 최대 9%의 초 인플레이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

=====

개인 대비책은?... 진짜 이런말까지는 하기 싫지만... 최소한 집에 휴지라도 사 놓으세요..

갈 수록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군요...

오늘도 국제 유가 타령 하면서 물가는 문제 없을꺼라는데... ㄷㄷㄷ
ㄷ... 국제 유가 보다 환율 급등락에 따른 물가 변동폭이 몇 배나 더
레버리지가 강한데 아주 웃기는군요...

무슨 대 정부 코메디시트콤을 찍는것도 아니고.... 무슨 이나라는 재경
부가 논스톱이냐?..

점심시간이라서 하도 돌아가는게 이상해서 상황 점검차 써 봤어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만수는 끝까지 거짓말로 아주 속여 쳐 먹으려고 발악을 하는군요...

어쩌면 이렇게 97년 그 때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지... 원...

이러니까 다들 현금 확보에 눈 씨빨개져서 혈안이 되잖아요... 회사고
개인 가계고 간에 서로 안 망할려고 말이죠... ㄷㄷㄷㄷㄷㄷㄷㄷ

9월말 정도에는 이제 개인들도 대출 규제 조치에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규제 들어 가기 시작할꺼예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개인별로 빨리 청산 조치하시기 바라

고요...

벌써부터 금감원에서 제2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공개 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는걸 보면 이제 시한폭탄이 터질 날이 임박하긴 했나 봐요....

사실상 9월이나 10월중에 한국 물가의 지크프리트선인 최후 방어선 물가 8% 돌파시=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상황이라고 인식 하시고 개인 별로 대비하시기 바래요..

요즘에는 재테크=물가 재테크인 시대니까 말이죠.... 투자 개념이 아니라 지키기 게임이니까요..

요즘 상가나 오피스 빌딩 공실률 보면... 장난이 아니죠... ㅈㅈㅈ..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IMF 체제는 오지 않고요... 실제로 지금 IMF 도 내부 자금이 없어서 지원 여력도 사실상 없는게 현실이죠..

이게 더 위협적이고... 실제로 IMF 시즌2의 단기 유동성에 처할 확률 27% 내외로 낮게 보는대신... 지금 현재도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인데 여기에 얹친데 덩친 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사상 초유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장기 불황 싸이클 상황에 물가 폭등...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걸 수도 있다는거죠..

왜냐면 이걸 스태그플레이션 체제하에서 + 인플레이션 변수 추가 = 자산 가치 하락으로 연결 되니까요..

이건 실질 구매력 감소를 동반하고 --> 결국 성장 동력을 갉아 먹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08년 하반기가 53년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거죠..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일본 물가 비싸다고 하면 싸대기 맞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한국에 위기가 닥치면 IMF 가 아닌 AMF에서 긴급 자금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게 일본 + 중국 애들의 의사권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IMF 체제 하에 들어 가는데 아닌 실질적인 IMF 시준 2와 같은 경제적 내부 환경에 처한다는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2004년도에는 위기의 과장이었지만.....

2008년은 사실상 진짜 위기.....

어찌 될지.....

■ 주식형 펀드 월간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 2008년 8월 22일

(단위 :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세부유형	1주일	1개월	연초이후
아이중은지배구조주식 1ClassA	아이운용	415	일반주식	-2.96	-0.20	-14.90
하나UBS She&Style주식 1 Class C	하나UBS	746	일반주식	-3.18	-0.32	-20.55
프런티어배당한미주식CLASS C 1	우리CS운용	920	배당주식	-2.17	-0.73	-13.14
그랑프리포커스배당주식 1C클래스	기은SG운용	131	배당주식	-3.34	-0.78	-15.58
한국부자아빠거꾸로주식증권K- 2	한국운용	895	일반주식	-2.71	-0.78	-22.31
신영밸류고배당주식 1 C1	신영운용	3,517	배당주식	-2.14	-0.93	-13.74
한국부자아빠거꾸로주식A- 1ClassA	한국운용	718	일반주식	-2.81	-0.95	-22.37
세이고배당주식형	SEI에셋운용	654	배당주식	-1.98	-0.96	-24.20
KB2000시대외국민선호주식(Class-A)	KB운용	235	일반주식	-3.89	-1.06	-18.89
JP모간JF코리아트러스트주식종류자 1A	제이피모간	900	일반주식	-4.15	-1.11	-13.09

■ 펀드 월간성과 상위 Top 10

□ 단순 실현 수익률

기준일 : 2008년 8월 22일

(단위 :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세부유형	1주일	1개월	연초이후
삼성장기주택마련채권 1	삼성운용	148	중기채권	0.41	1.30	3.09
KB장기주택마련채권 1	KB운용	391	중기채권	0.27	1.20	1.28
미래에셋글로벌채권형(C-I)	미래에셋자산	127	중기채권	0.32	1.14	3.34
ABF Korea인덱스종류채권CLASS A	삼성운용	2,039	중기채권	0.33	1.11	2.85
교보Tomorrow장기우량채권자 2-Class Af	교보운용	1,754	중기채권	0.32	1.03	
그랑프리국공채 1 C클래스	기은SG운용	665	우량채권	0.23	0.86	3.81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 1(CLASS-I)	미래에셋자산	1,218	우량채권	0.23	0.85	3.87
와이즈premier12채권 2	현대와이즈	304	중기채권	0.27	0.83	
Tops적립식채권 1	SH운용	143	중기채권	0.32	0.83	3.78
Tomorrow장기우량채권K- 1 ClassA	교보운용	8,404	중기채권	0.30	0.82	2.08

□ 연환산 수익률

기준일 : 2008년 8월 22일

(단위 : 억원, 연%)

펀드명	운용사	순자산액	세부유형	1주일	1개월	연초이후
삼성장기주택마련채권 1	삼성운용	148	중기채권	37.87	15.36	4.84
KB장기주택마련채권 1	KB운용	391	중기채권	24.77	14.16	2.01
미래에셋글로벌채권형(C-I)	미래에셋자산	127	중기채권	29.28	13.43	5.24
ABF Korea인덱스종류채권CLASS A	삼성운용	2,039	중기채권	30.32	13.06	4.46
교보Tomorrow장기우량채권자 2-Class Af	교보운용	1,754	중기채권	29.52	12.09	
그랑프리국공채 1 C클래스	기은SG운용	665	우량채권	21.03	10.13	5.97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 1(CLASS-I)	미래에셋자산	1,218	우량채권	20.68	9.99	6.06
와이즈premier12채권 2	현대와이즈	304	중기채권	24.95	9.83	
Tops적립식채권 1	SH운용	143	중기채권	29.46	9.76	5.92
Tomorrow장기우량채권K- 1 ClassA	교보운용	8,404	중기채권	27.78	9.71	3.26

주) 듀레이션과 신용등급은 '08년 6월 초 기준

■ 공모국내펀드 유형별 자금 추이						
유형	2008.08.18		2008.08.22		(단위 : 억원)	
	펀드수	순자산	펀드수	순자산	증감	현금흐름
주식형	1,081	691,078	1,083	664,135	2	408
주식혼합형	179	24,234	179	23,828	0	24
채권혼합형	464	58,153	462	57,434	-2	-164
절대수익추구형	447	37,453	447	36,251	0	-1,193
채권형	356	52,956	362	53,091	6	17
부동산형	33	18,394	33	18,399	0	-12
MMF	256	654,400	257	657,207	1	2,430
기타	1,730	124,281	1,771	125,905	41	5,706
계	4,546	1,660,950	4,594	1,636,249	48	7,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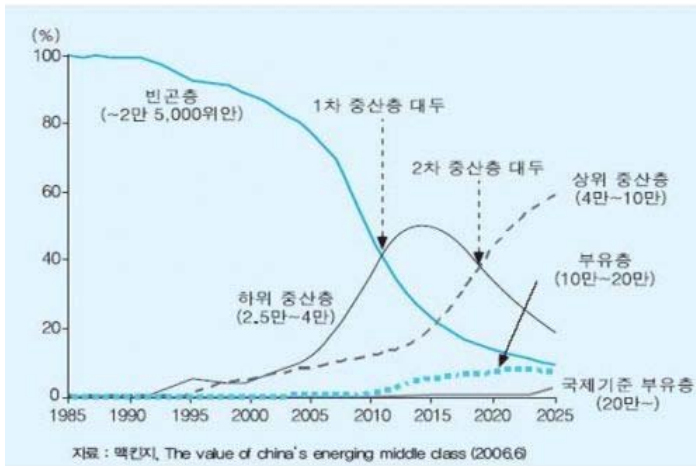
주1) 제로인 유형 분류기준에 따른 자금집계로 자사운용협회 통계와는 다름
 주2) 운용펀드(모펀드, 종류형펀드)제외, 비평가펀드 포함 (자료 : 제로인)

2008년 주요 각국 기준 금리 발표 스케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년	22일	15일	7일	9일, 30일	20일	13일	15일	19일	17일	7일, 31일	21일	19일
일본	22일	15일	7일	9일, 30일	20일	13일	15일	19일	17일	7일, 31일	21일	19일
미국	30		18	30		25		5	16	29		16
영국	10	7	6	10	8	5	10	7	4	9	6	4
캐나다	22		4	22		10	15		3	21		9
유로	10	7	6	10	8	5	3		4	2	6	4
호주		5	4	1	6	3	1	5	2	7	4	2
뉴질랜드	24		6	24		5	24		11	23		4
스위스			13			19			18			11
홍콩												
남아프리카	31			10		12		14		9		11

* 2008.06 Jpn.copr, 제공

원래는 코스피 지수 펀드런의 최저 목표 주가=1470 선인데..... 몇 달 전에 펀드런 예상 주가 방어 레드 라인 예측 지수가 설마 8월말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빨리 나올 줄은 몰랐는데. 지금 각자 개인 자산 포지션을 잘 판단하셔서 청산 절차로 가시든지 초 장기 전망으로 가시지 바래요..

<중국의 중산층 비중 확대전망>



현재 중국내 향후 소비 계층간 이동 변동폭 예상 수치상 초 장기적으로 가긴 가도 되는데..

문제는 맥시멈 2013년~2015년까지 어느 정신 나간 놈이 손에 가지고 있냐 이거죠. 워렌버핏도 아니고...

지금은 하루에서 두~세개씩 팍팍 쓰러지는 판국에... 잘 보고 판단 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저가 매수 기회라고 어떻게든지 펀드런만은 막아 불려고 지들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쥐꼬리만큼 물량 늘어 난 걸 가지고 또 구라 치면서 물려든다느니 말 장난 하는걸 보면서..

진짜 막차긴 막차가 봐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런식으로 또 사기 쳐먹을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독 사발 마시고 죽으라뇨..... 진짜 너무 심하네...

<작성일 2008년 08월 29일>

38. 2008년 자전거 도둑 + 검은 개의 저주

우리 위대하신 이명박 각하께서는 자꾸 왜 기업 투자를 안하냐고 매일매일 반 협박성에 가까운.. 사실상 빨갱이들이나 할 법한 투자를 하라는 과거 김영삼 정부나 노태우 정권 때조차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997년 그 당시의 국내 대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396%가 넘는 사실상 자기 자본의 400%에 달하는 부채 비용으로 직격탄을 무너져 내렸다.. 그것이 2007년에는 97%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례가 없을 정도로 혁식전인 구조조정을 거쳐 부채 비율을 끌어 내렸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부채 비율이 내려 간 것까지는 좋은데 2008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건 이른바 부채 상환 능력인 수익성이 대폭 악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매출영업 이익율은 5%..

쉽게 말해서 100원짜리 티비를 만들면 5원 마진.. 주요 40개국 통계 대비 39위..

단기 차입금 비율 = 67.4%.. 그만큼 경기 변동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

잉여 현금 흐름 : 영업 현금 흐름 - 투자 활동 현금 흐름 = 2007년 (+)에서 2008년 1/4 분기 이후에 이미 (-)로 돌아 선지 오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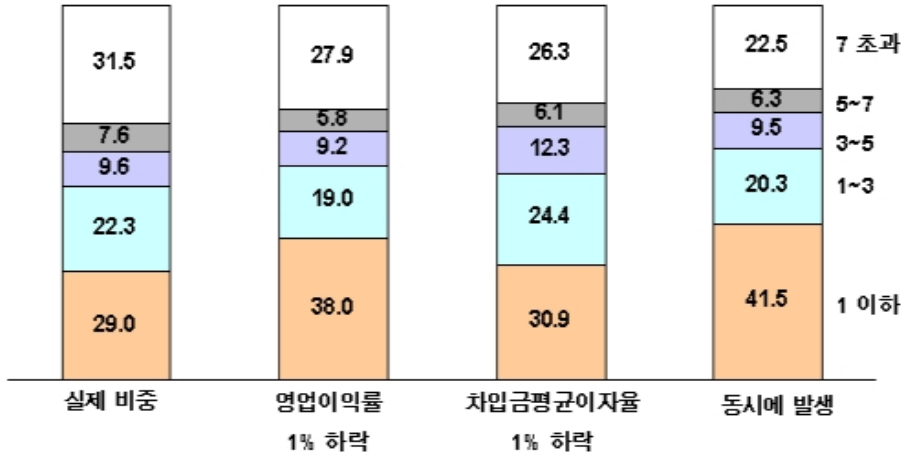
이자 보상 배율 (영업 이익/금융비용으로 나눈건) = 1.. 즉 영업이익 = 금융비용으로 이자라도 낼 수 있는 비율이 채 1도 안 되는 기업 업체수 = 30%..

이자 보상배율 : 중소기업 = 1.4 / 대기업 = 4.0... 심지어는 대기업들이 1.0도 안 되는 기업이 30대 그룹 안에 있을 정도로 최악..

결론 : 2007년을 기준으로 장사해서 남은 매출 영업이익률이 1%가 떨어지고.. 동시에 은행 금리가 1%가 올라가면 이자 보상배율이 1 이

하로 떨어지는 기업 = 41.5%..

<그림> 수익성과 금융비용 부담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 구성 변화(%)



주 : 2007년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p 하락, 금융비용 부담이 1%p 상승,
두 가지 동시에 발생 등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한 경우
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 데이터베이스 이용

● 수출업체 KIKO 통화옵션 손실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단위:억원)

	업체수	계약잔액	상반기실현손실	평가손실(A)	평가손실(B)
중소기업	480	75	4,169	7,218	7,481
대기업	39	26	934	2,460	2,549
합계	519	101	5,103	9,678	10,030

* 평가손실(A)는 6월말 환율(1,046원) 기준, (B)는 8월 27일 환율(1084.1원) 기준.

현재 기업들의 키코 평가 손실액은 지난 6월말 1046원 돌파시 = 9678억... 이중 중소기업은 7천 2백억..

현재 8월 평가 손실 27일자 1084원기준 계산 손실액 = 1조... 중소기업은 7천 4백억...

키코 환율 상한선을 재설정해서 재계약을 한 범위= 1070원~1080원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

■파생상품거래(KIKO 등) 평가손실 공시현황					(단위: 억원)
회사명	수출액 (2007년도)	손실액 (평가액포함)	자본금 대비비율	공시일자	비고
대우조선해양	69941	1485	8.40%	8.14	선물환+통화옵션
STX엔진	9587	933	31.1	=	
STX조선	20497	435	5.8	=	
우신시스템	514	34.2	9.2	=	
평화산업	1152	34.4	27.4	=	
동야기전	2173	134	7.6	=	
선우에스티	1979	271	37.34	=	
재열솔루텍	951	236.4	36	=	
오리엔탈정공	1035	33.17	5.94	=	
동원금속	1106	42.8	14	=	
대알금속	1789	81.8	8.11	=	
태산엘시디	6182	806	129.1	=	
인지디스플레이	1464	22.6	5.1	=	
에스에이엘티		803	97.76	=	홀 샤테크
엠케이전자	1746	32.6	5.16	=	
우리산업	328	55	18.8	=	상품선물+스왑
구영테크	384	28.9	14.07	=	
코다코	400	91	26.4	=	
잘만테크	335	70.3	16.69	=	7.25일자 정정고시
심텍	3297	493	40.4	8.15	
현대디지털테크	966	50.47	10.5	=	
대덕GDS	1821	150	5.4	=	
대덕전기	2618	277	8.25	=	
성문전자	294	16.89	9.08	=	
수산중공업	403	65.8	7.59	=	
현진소재	940	127	8.29	=	
대호에이엘	384	22.6	8.6	=	
세미텍	598	60	15.47	8.12	
코맥스	369	174	33.07	=	
아이디에이치	606	145	40.6	=	
뉴인텍	205	21	23.56	=	:+환변동보험
현대엘리베이터	4986	309	5.6	=	스왑+환변동보험
토비스	1207	47.9	17.51	=	
세믹스	70	18	13.26	8.11	
대경기계기술	1640	63.7	16.39	8.8	
부산주공	558	27.5	9.29	=	전액환변동보험
로만손	153	44	19.07	8.7	:+환변동보험
동양석판	1352	137	9.9	=	
동원수산	488	15	6.16	=	
엘텍비전	1651	240	25.4	=	
이구산업	903	43.8	5.65	8.6	:+상품선물
신화인터텍	969	72	14.6	8.5	
헤스본	110	67	20.7	8.4	
대창단조	668	30	7.55	=	
한국화인케이블	2190	123	13.15	8.1	
디엠에스	644	193	14.28	7.31	
국동	1208	25	6.02	=	
아큐텍반도체기술	193	10.7	10.51	7.3	전액환변동보험
제이브이엘	258	244	31.5	7.29	
포스코강판	2619	545	19.8	7.25	
아구스	259	51.29	13.96	7.24	:+통화선물

아구스	259	51.29	13.96	7.24	※통화선물
티에스엠텍	484	57.7	8.16	=	
로케트전기	171	14	13.91	7.23	
에버다임	900	51	10.27	7.21	
씨모텍	774	84(211)	11.26	7.16	()총평가손 *스노볼 52억원에 계약해지
성진지오텍	3031	699	43.58	7.15	
원포넷	190	43.6	21.85	7.7	
모나미	188	124	23.7	7.4	
우주일렉트로닉스	649	74.4	16.61	7.3	
백산	706	105	21.7	=	
한광	139	29.23	11.5	7.1	
포넷	42.8	16.2	13.35	6.2	5월말 기준 손실액임
비메스이홀딩스		260	25	6.11	=
계	63개사	11013.95			

결과 : 이로 인한 재정 건정성 악화로 부도 위험 = 32.7%내 직접 부도 가시권... 심각한 자금 압박으로 회사 운전 기금조차 바닥이 난 상태..

3개월 이상 급여 연체 기업 비율= 11.4%... (8월 현재 600여 개업 샘플링 산출)

대표 이사 부동산 가압류 비율 강제 청산 절차= 4.5%..

=====

2008년 8월 20일 기준으로 제 1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업 신규 대출 심사 대폭 강화.

직접적인 피해 업종군 = 건설업, 부동산업, 음식, 숙박업, 프랜차이즈 업체등이 제1차 대출 규제 제한 그룹군이며 9월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중소기업과 일반소매업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대출 자격 심사 조치로 개인-기업별 신규 대출 제한 조치와 여신 회수 조치가 뒤따를 것..

(9월 추석 자금 집행 규모 배정 액수)

국민은행=2천억	신한은행=2천8백억	우리은행=6천9백억
신한은행=5천억	하나은행=5천억	부산은행=3천억
경남은행=2천억	전북은행=5백억	

추세= 9월내에는 추가 담보 요구는 일단 없을 것이나 만기 연장은 사

실상 불가능한 상황..

결론 : 일단 추석 전후가 명암이 갈릴 것이며 9월초 추석 후반기에는 일반 중소기업들의 만기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 추가 담보 요구는 9월내에는 없을 것..

결국 9월을 넘어 추석 이후 10월부터 기업별로 회사 내부 잉여금 보유에 따라 존폐의 명암이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것....

이른바 바야흐로 제1차 IMF 이후 10년만에 돌아온 제2차 기업 구조 조정의 대규모 춘추전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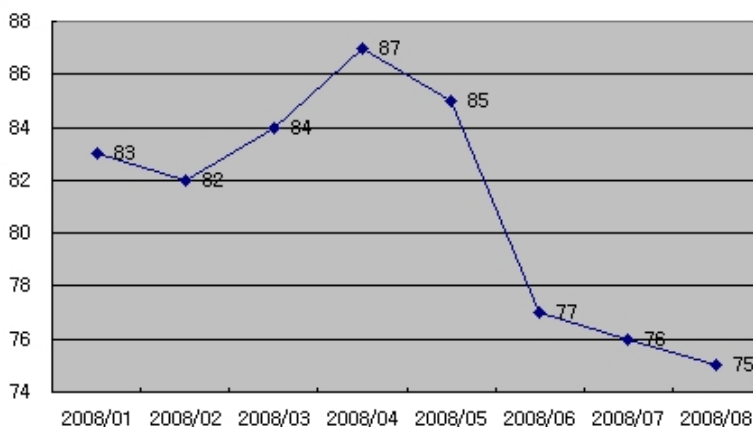
1차 춘추 전국시대인 98년 그 당시는 대기업 중심의 패권 전쟁... 이제 제2차 구조조정 시기인 지금은 중소기업 중심의 군웅할거... 업종별 산업 지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날 것...

이른바 새판 짜기.....

역시 최대 관건은 현금... 실탄 보유량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의 존립 여부가 정해질 것..

=====

제조업 업황BSI 추이



매출 BSI = 107 --> 101

내수 판매 BSI = 98 --> 93

수출 BSI = 109 --> 104

가동률 BSI = 98 --> 94

결론 : 원자재 가격이 일부 하락하고 있으나 대중국, 대미, 유로존의 동반 경기 하락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수출 증가세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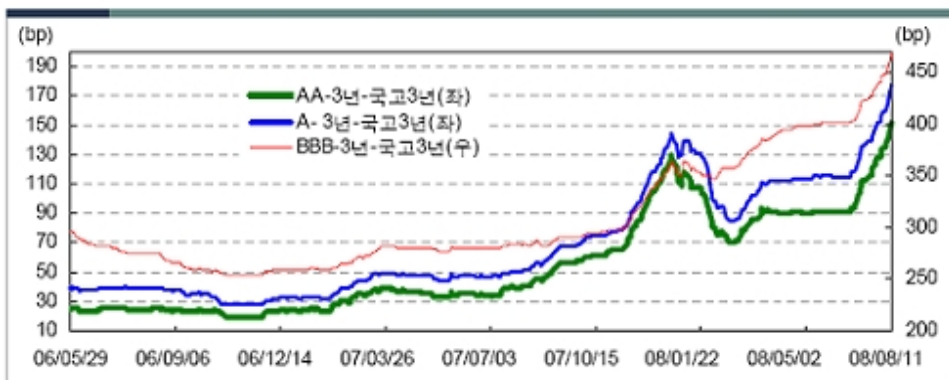
원자재 가격상승/내수부진/불확실한 경제상황/환율 리스크 = 2009년 1/4 분기 까지 현재의 수출 내수 동반 침체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 중....

결론은 현금... 투자 여력이 문제가 아닌 내부 현금 비중을 올려서 회사의 운전 자금 비중을 올려 9월 이후 은행권의 대출 제한 조치와 국내외 악재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

=====

은행채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 회사채 금리까지 동반 상승..그로 인한 기업 부담 급증과 자금 압박.

회사채 3년물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자료 : 한국채권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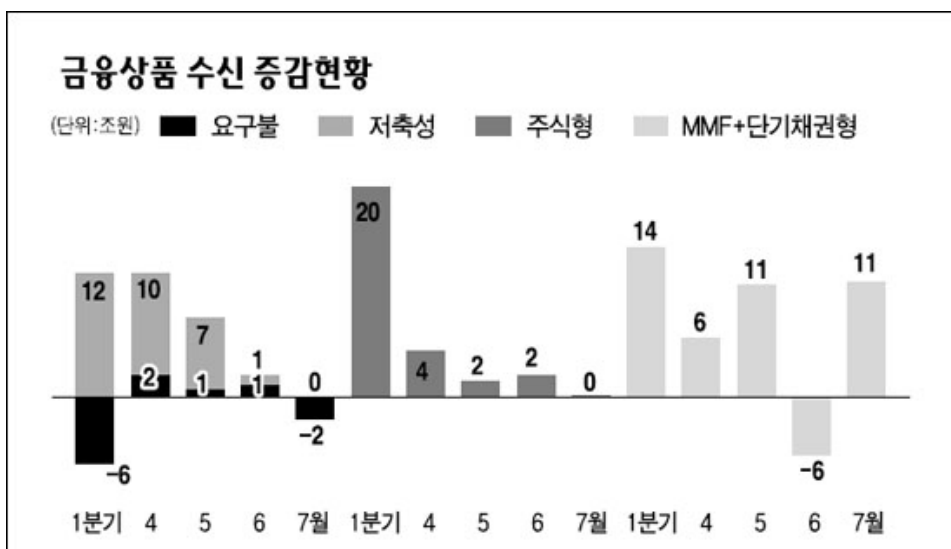
한국은행 기준금리 = 5.25%... 91일물 CD 금리 = 5.79%... 주택 담보대출 금리 = 9%대... 3년 만기 은행채 = 7% --> 결과 : 3년 만기

AA - 회사채 금리=7.17% 폭등..그로 인한 기업 내부 자금 압박..

이런 은행채가 고금리로 발행이 되면 반사 효과로 회사채가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 금리도 동시에 끌어 올려야 하는데 기업 자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추가로 져야 한다..

따라서.. 은행채 금리 상승 --> 회사채 금리 동반 상승 --> 기업 자금 압박 + 금리 부담 증가..

=====



(2008년 금융권 개인 자금 흐름 동향)

분석 : 은행 금리 인상에 따른 고전적인 방식의 주식 -->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예전 방식의 자금 흐름을 탈피한 양상이 현 추세..

현재 6월 전까지는 고금리 특판 예금등으로 은행권으로 자금 유입 흐름이 있었으나 6월을 기점으로 MMF, CMA 등의 은행 예금 --> 대기성 자금으로 몰리는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은행에서는 돈 줄이 마르고 있는 상황....

결국 타계책은 고금리 은행채 발행 + CD 금리 추가 인상

따라서 이런 은행권 금리 인상 --> 회사채 금리 상승 유발 = 기업 압박..

현재 사실상 은행의 자금 조달은 개인-기업의 은행 예금 --> 은행채를 비롯한 채권 발행에 의존.

결론 :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하게 개인별로 나타나지만 수익률에 따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개인 자금 흐름상.. 더 이상 은행쪽으로 자금이 물리지는 않을 것..

그에 따른 여파는 결국 CD 금리 인상을 유발 시켜 결국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기준 금리에 상관없이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는 이유가 은행권 자금 조달 여력이 딸리기 때문...

=====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일반 주택 + 상업용 부동산의 동반 폭락 가능성의 대두와 그로 인한 시중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 증가..

동보 중공업 : 오산시 기업 부동산 매각 = 85억 2천만원 유동성 자금 조달.

네티션닷컴 : 송파구 오금동 토지+사옥처분=155억 현금 조달.

인디에프 : 강남구 대치동 사옥 처분(회사 총액 대비 30%) = 1000억 현금 조달

현재 주식 + 회사채를 비롯한 유가 증권의 조달로 인한 자금 조달 = -18% 감소..

한 마디로 돈이 써가 마르고 있다는 것... 일반 기업들도 투자 목적이 아닌 2010년까지 내다보고 회사 운전 자금을 확보 하고자 회사 사옥과 보유 부동산까지 팔아 재끼는 상황..

=====

각하... 대기업 총수들하고 청와대 불러 모아서 스테이크에 칼질하면서 투자 하라갑쇼?...

미쳤습니까?... 지금 다 박살이 나서 회사 건물까지 팔아 치우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인 판국에..

이런 현실인데도 투자 안한다고 협박질을 하면.. 그게 빨갱이지... 투자하고 귀약 먹고 다 죽으라갑쇼?... 진짜 너무 비현실적이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총 경제 인구 32%가 자영업자이고 나머지 중 89.4%가 중소기업 근로자인 상황에서 하부 경제 구조가 흔들리면 대기업도 죽었다 깨어나도 투자 못하죠..

투자를 해도 토지 비용 + 인건비가 투자 대비로 수지 균형점을 못 맞출 뿐더러.. 매출영업 이익율은 이미 5%대로 사실상 최하위 바닥권..

왜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금산법 폐지 시켜 달라고 출자 총액 풀어 달라고 용용 쓰는지 잘 아셔야죠..

진짜 70년대 구닥다리 대통령 모시고 살기가 저 같은 천민들은 등이 휘겠군요..

=====



(각하의 고향... 긴자 거리...)

자전거 도둑을 보면 마지막에 수남이가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기 양심을 되찾고... (본지가 오래되어 수남인지 수길인지 헷갈리는데.. 하여간)

지금 오사카는 8월 마쯔

리의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맑은 하늘 보시면서..제발 저희들을 살려 주십시오... 각하...

"그럼 저희가 매년 조공 바치면서 죽을 때까지 상왕으로 모시겠나이다"
.....

어떤분은 차라리 10조 줘 버리고 쏘부를 보자고도 하시는데... 차라리 다 말아 먹는 것보다야...그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갈 수록 진하게 드는군요....

자전거 도둑이 + 강만수라는 검은 개까지 데리고 죽음의 레이스를 하면 그 끝은 파멸의 끝입니까?...

이런 판국에 이견희가 아니라 이견희 할애비가 돌아오고 정주영이 무덤에서 환생을 해도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전하...~~~ 부디 통촉 하시 읍소서~~~

지금 투자를 하라는건 회사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거나 매 한가지 읍니다... 전하....

무슨 2008년에 투자해서 돈 지르고 회사를 통채로 가미가재 해서 국가 경제 위해 들어 바치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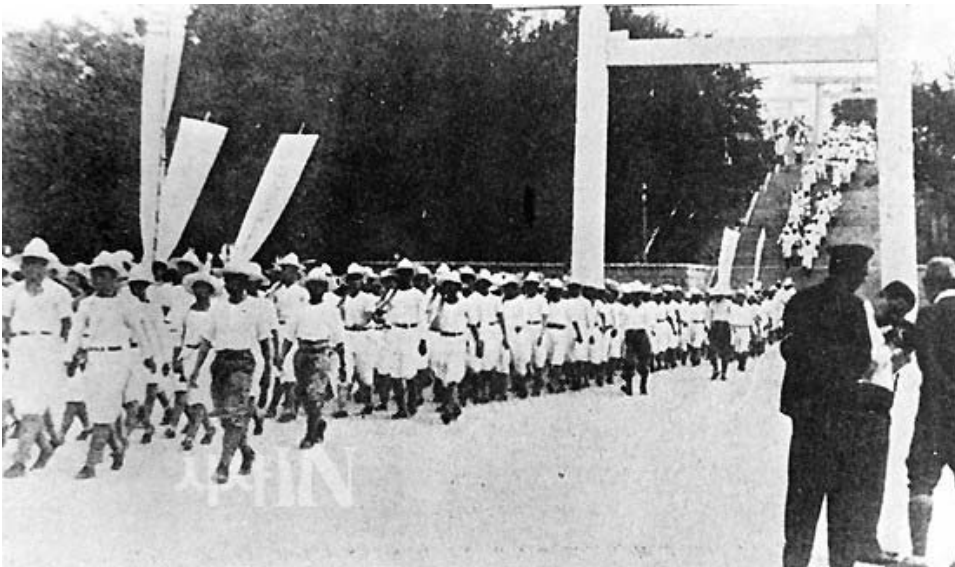
그냥 차라리 사약을 내리소서...

회사 망하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나이 4.50 먹고 어디가서 직원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로 빨갱이들이나 할 법한 짓거리를 하시는지요....

비즈니스 프랜들리 = 공산주의 통제 경제는 아니지 않사옵니까... 전하...

앞으로는 무조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취임 6개월 전에 무조건 일단 뺏은 다음에 단기 MBA 로 유학 보내서 다 공부 시킨 다음에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진짜 무식은... 요즘 세상에 범죄고 민폐니까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란 그림이죠... 피카소가 그린 이 그림이 불과 10년 전까지 전시 불가 그림이었다는 이 웃기는 나라에서 그걸 외국 미술관 가서 보고서 찍어 오던 시절이 있었더랬죠..

이런 나라에서 아직도 웃기는 미녀 간첩단 이라는 코메디 시트콤을 찍었으니..

차라리 좀 더 멋있게 무슨 미션 임파서블처럼 안기부에 미녀 간첩이 환기구 타고 들어 와서 중국내 안기부 요원 명단 빼내다가 걸렸다고 하면 더 그럴듯 했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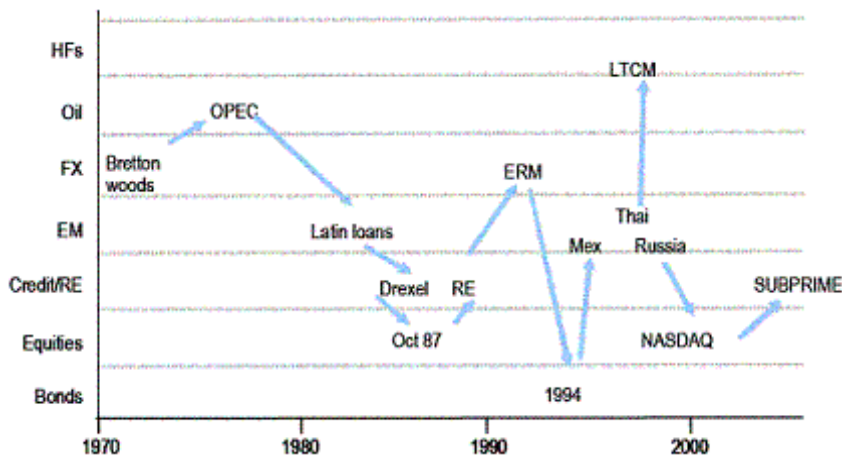
일선 부대.. 그것도 대위 정도한테.. 무슨 얼어 죽을 군사 기밀...

차라리 지금 예비군이 군사 기밀은 더 잘 알겠네... 나 참.. 기가 차서..

자... 이제 게임의 룰은 정해 졌다.....

98년 IMF 시즌1은 이른바 대기업 발 경제 쇼크.....

2008년 현재의 IMF 시즌 2는 가계발 경제 쇼크 + 중소기업 줄도산에 따른 제 2차 산업 구조조정의 시기.....



거대한 세계 경제의 사이클은 언제나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파도와 같은 것...

문제의 핵심은 이제 리스크 관리 능력과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제 4의 경제 물결의 조류 흐름을 타느냐 못 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빅7의 선진국이나 아니면 남미냐.. 둘 중의 하나로 갈릴 것이다.

이미 이 나라는 98년 이후에 세계 자본 유동성 팽창이라는 조류의 흐름을 타고 다른 나라와 비슷한 사이클로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의 팽창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그 흐름 속에 사상 초유의 IMF 10년 내 졸업이라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

그것이 한국이라는 한국경제 단독의 경제 팬더멘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철저한 자기기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글로벌 추세의 흐름을 타고 극복을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답....

이 거대한 흐름에 이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젠 더 이상 국내 변수만으로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아니다..

앞으로는 돈을 벌려면 유통, 원자재, 에너지.....

이 3가지 키워드 속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산업 구조 재편이 이루어지고 이 흐름을 타는 자만이 새로운 거대한 부를 거머질 것이다.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자체 수력 발전 기술로 RET 에너지 관련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독일에서는 에너지 관련 특허 세계 1위의 새로운 시대의 제 4차 산업 혁명을 준비 하고 있으며, 도요타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닌 탈 기업 모델로써 에너지 + 엔지니어리의 개념의 수소 자동차와 하이브리드를 상용화 시켰고, 샤프에서는 독일과의 기술 제휴로 태양전지 분야의 세계적인 특허 보유국으로 시장 양분을 노리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이제 그 상용화와 시장성이 본격적인 가시적 효과로 나타나는 2015년이 이 모든 추세의 전환점일 것이다....

제4차 산업 혁명 = 에너지 혁명... 이것은 18세기 영국을 시작으로 태동한 제 1차 산업 혁명의 원동력이 증기기관의 아버지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에너지 혁명이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160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의 사상 최초의 근대식 자본주의 시스템이 태동한 이래도 자본주의 역사 400년에 걸쳐서 이제 4번째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의 조류 속에서 향후 7~10년 이내에 준비 하는 자만이 이런 기회를 거머지고 그에 따른 막대한 자본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언제나 거대한 싸이클은 시작의 출발점에서 시작의 끝은 언제나 처음.. 그 자리인 바.....

이런 반복의 링의 순환 고리의 싸이클 속에서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와 글로벌 신용 경색이 걸어진 이후에 막차를 타고 그에 따라 편승하지 못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의 하청 기업으로나 전략하게 될 것이다....

몇 일 전에 CCTV의 10부작 경제 다큐인 과국풍운이라는 다큐를 보고 나서 느낀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엄청난 잠재적인 내재된 힘을 느끼고.....

이젠 이상태로 10년 이내로 새로운 돌파구가 없다면 지역 경제 패권 내에 흡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과연 누가 독 사과를 먹고 백설 공주 신드롬에 걸려서 관속에 들어가서 남은 놈들의 자양분이 되어 주느냐 하는 것.. 그것 뿐....

과연 백설 공주 신드롬으로 국가를 위해서 독 사과를 누군가는 먹고 죽어 줘야 이 폭탄 돌리기가 끝난다는걸 우리 리명박 각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각하... 저희 보고 독사과 베어 물고 죽으라고 속여 쳐 먹기 전에 일단 각하 측근들부터 독사과 먹어 보라고 하셔야죠....

안 그래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은 너무 빠른 수법이라 한 눈에 다 보여서 난감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랍니다..

알고서 속아 주는게 모르고 당하는것 보다 몇 배는 더 어렵다잖아요...

ㅋㅋㅋㅋㅋㅋ

토목 강성 대국으로의 회귀냐.... 아니면 밀레니엄 시대의 질주냐....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쩌면....차라리 볼보 같은 회사나 만들어 국내에서 건설 토목 기계장사 하다가 두바이 같은데나 가서 지게차나 크레인 같은 건설 장비영업이나 하는게..어쩌면 그것도 나름대로 국제 경쟁력이겠네..

ㅎㅎㅎㅎㅎ

<작성일 2008년 08월 29일>

39. 미국 은행 전격 파산 결정= 허리 케인의 시작인가....

미국 은행 인티그리티 전격 파산 신청.....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알리탈리아 전격 파산 결정..

: 참.... 너무 극 사실주의 = 비관론 확산이라고 해서 말 안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림이 너무 뻔하게 보이네.. 미국 지방 은행 하나 파산한 것은 사실 작년에 서브 프라임 터졌을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별개 아닌데..

올해는 전혀 차원이 틀리거든..

이건 말기 암환자한테 CT 찍어 주고 뇌출혈이라고나 할까?..

더구나 국영 항공사 파산이라니.....

이탈리아 경제는 유로화 영향력 = 7.2%...

거기에 올해 안에 패디매-프레디맥 국유화 할 경우 ..

달러 평가 절하 예상 결과 = -18~ -24%.....

한 마디로 국채 모기지 국유화 들어간다고 냄새 피우면 금값 하고 유로화는 폭등 할 겁니다....

반사 이력으로...

이 때는 원자재 펀드에 몰빵하면 다음 분기에는 무조건 수익률 최하 25% 보장입니다...

지금 달러 강세 = 유로존 독일 경기 침체에서 비롯되었듯이.....

지방 은행 파산 --> 국채 모기지 국유화 조치 (미 대선 결과의 영향에 따라 맥케인 당선시 : 84% / 오바마 : 42% 집권시 국유화 결정

가능성 퍼센테이지..) --> 달러화 폭락 --> 원자재 가격 폭등 -->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악화 (수출 GDP 의존도 : 43% = 2007년 기준)

참... 이건 완전 그림 나오는 상황이네...

아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름대로 선전 했다는 개소리 지껄이니..

니들이 선전 하면 뭘 하냐고..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데.....

이러니까 이번 달에만 -100억 달러가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가지..

진짜 시뮬레이션 나온다...

국내 신문 보지 마십시오... 철저히 당합니다.....

지금은 외생 변수가 워낙 많아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되는
시기입니다.. 분기별로 끊어서 유동성을 확보 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움직이시면 지금과 같은 스태그 플레이션 체제 하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젠... 더 이상 한국에서 경제학 원론 수준의 기초 교과서로 경제를
보는 상황은 97년을 기점으로 끝났죠.....

이제는 변동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군요.. 쫓...

어떤 분 말 그대로 저희는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 판단
에 더 신중해 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국내외 상황 인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대응 전
략이 나오는거니까요..

지금의 달러 강세는 추세 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유로존 경제 침체에
대한 반사 효과일 뿐이고 여기에 + 미국 국내 변수를 합산 하면 답이
나오죠...

달러는 조만간 유로/엔 대비 떨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거죠... 거기에 대한 원자재/금 의 변동 파급 여파와 수출입 수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추가 인상 압력은 가속화 될 겁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환투자에 나서는건 신중하셔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이런 상황 변화는 은행권 금리 변동과 물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정책 변화로 이어 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걸 말씀드린 겁니다.

파급 여력이라는게 있으니까요... 인간이라는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살 수 있는게 2000년대 경제체제하에서 사는거니까요...

각자... 준비하십시오...

현재 2008년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건 어제의 월 스트리트 은행 파산 = 내일 한국 아줌마들 장바구니 물가로 직결 되는 말 그대로 초국적 경제 시스템이라는건 분명히 인식하고 사셔야 할 겁니다..

이것이 현재 2008년의 밀레니엄 경제체제... 다른 말로는... 신 경제 질서라는 거니까요..

<작성일 2008년 08월 30일>

40. 일반인의 경제 접근성 방식 패턴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인들의 경제 분야의 접근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흔히들 경제학이 무슨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면서 꺼려하시는데... 어떤 분이 비전공자가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고 하셔서요..

보통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학교를 가는게 제일 빠르는데.. 사실 학교를 안가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이제 와서 새삼 하는 얘기지만...이건 전혀 어려워하실 것도 없고 지금도 50 먹으신 분도 독학으로 책 사서 배우고 하시는 거거든요..

패턴은... 경제원론---미시경제학---거시 경제학---화폐금융론---경제사-----국제 경제학..이 정도로 요약이 되고요..

=====

독학 추천 도서

=====

경제 원론 :

경제학 원론 / 이준구 : 이 책은 수리적인 해석이 약간 부족하지만 쉬워서 접근성이 좋은 책이죠. 일반 대학 교재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원론 / 조순 : 조순이 미국 대학에서 예비군 군복 입고 학교 다녔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해서 미국 동네에서 현역 군인 유학 출신인 줄 착각까지 했다는 분이신데 이걸 좀 난이도가 높아서 비추지만 보실 분은 볼만 하시고요..

=====

* 미시 경제:

미시 경제학 / 이준구 : 주 교재

미시 경제학 / 이영환 : 보조 교재

=====

* 거시 경제:

거시 경제론 / 정운찬, 김영식

거시 경제학 / 이우현 : 이 책은 다른 책 보다 수식이나 그래프가 좀 많은 편인데 현실과의 접목면에서 우수한 편이고요... 경제 수학이나 수학에 딸리시는 분들은 그런 수식은 무시하고 개념적 차원에서 독학 서로써 보시면서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맨큐의 경제학(맨큐의 거시 경제학) : 사실 이걸 딱 보면 무슨 잡지 저널처럼 쉽다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볼 때하고 두세번 볼 때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진짜 초단기로 이해하시고자 하시면 미시/거시 다 보시면 되고요....

=====

*화폐 금융론 :

화폐와 금융시장/정운찬 : 보통 쉽게 잘 쓰여져서 많이들 보는 책이고요..

=====

*국제 경제학 :

국제 경제론 / 김인준 : 이 책은 통상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국제 금융 연구회인지 위원회인지..에서 나온 국제 금융론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보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이해가 안 갈수가 있는데... 국제 경제학이란 국제간 거래에 대한 경제학 위리를 학습하는 것으로써 환율이나 비교 우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가능

해 집니다..

=====

대충 갑자기 급조해서 쓴 건데.. 통상 대학생이나 일반인이나 접근하는 패턴은 경제원론 + 미시 경제 + 거시 경제 + 화폐 금융론 + 경제사+ 국제 경제학... 이 정도가 빠다귀고요..

지금 급조해서 쓴건.. 말 그대로 입문서로 쉬운 것 위주로 입문서로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차근차근 천천히 보면 다 이해 가능한 수준입니다..

경제 원론은 일반인 분들이라면 보면 좋지만 초스피드를 원하시면 그냥 점프하셔도 무방하시고요.. 대량 한 6권?... 소장가치도 훌륭할 뿐더러... 어디 가서도 이 정도만 아셔도 비전문가라는 소리는 안 들으시고 프리젠테이션으로 일반인 강연회 하실 정도는 되고요.

사실 이게 절대로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돈 아까우면 빌려서 보면 되고 번역서는.. 폴 크루그만 켄 본 적이있는데 번역이 개판이더라고요..

여기서는 원서는 추천 안했고요.. 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미시 경제는 베리안이 쓴게 있는데 깔끔하게 보실만 하실겁니다..

설명도 좋고 내용도 충실하죠..

=====

그 밖에 취미로 볼 만한 건..

괴짜 경제학 / 경제학 콘서트 / 경영 유감 / 시티즌 경제학 / 경영창조 : 톰 피터스가 쓴건데 인상 깊은 좋은 책이더군요 /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 / 끝없는 도전과 용기..

기억이 나는건.. 이정도 수준이고요.....

일단 경제 신문을 하나 신청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봅니다.....그럼 처음은 몰라서 두세번 보다보면 모르는 단어나 용어가 연결이 돼서 주기적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나중에 한 두 세달 보면 연결이 되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제 신문이라는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단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서 한 두번 찾아보면 그 다음에는 술술 보게 되고요..

그 사이에 짬짬이 위에 있는 책도 버거우시면 그 중에서도 한 2.3 권으로 압축해서 개념 잡으신 다음에..... 주식, 채권, 선물 / 옵션, 부동산, 국제 경제, 외환..... 그런식으로 개별적으로 영역 확장을 해서 개별적으로 독학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상호 연결이 되서 보이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외국에서 석유값 폭등이 국내 환율 변동의 영향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격 영향력이나 여파가 어떤식으로 미치는고... 대충 언제 투자 시점인지 태풍이 올건지.. 보는 시각이라는게 생기는거죠..

이건 굳이 전문가 그룹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무슨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요..... 일반인도 일하면서 자기 노력에 따라 고등학생 정도만 되도 한 2~ 3년 정도만 기초 잡고 --> 분야별 세부 학습 한 다음에는 자동으로 연결 되서 한 눈에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제 대응 전략이라는게 나오게 되죠.... 왜냐면 너무나 뻔하거든요...

최대한 입문서 위주로 쉬운걸 추천해 드린 독학서고요.....

원래 가장 톱 클래스 전문가는 전문 분야를 유치원 7살짜리 애한테도 이해 시켜 줄 정도로 쉽게 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전문가라고

예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경제는 어설프게 배우면.... 개인별로 혼란스럽죠.. 헛갈리고 오판 = 손실로 연결되고 또 미친 애널리스트라시 애들한테 휘둘리기 때문에 개념 정립이라는게 중요 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가급적 접근성이 용이하게 말씀 드렸어요....

갑자기 막 써가지고 지금 절판이 된 건지 아닌건지 생각나는대로 막 써부렸는데요..

또 이러면 책 장사 한다고 하실까봐 좀 그런데 참고 하실 분들은 술 한잔 안 마신다 생각하시고 각자 보시고 쉬운거 골라서 독학서로 보시면서 학습 하면.... 한 1년이면 몰라보게 개념 정립이 되서 주식 채권 부동산... 어느 분야를 보든 이해의 속도나 폭이 훨씬 더 넓어 지실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상태에서 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덤비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취미로 막연하게 잡식성으로 보는것 보다 체계적으로 기본 뿌리를 가지고 보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오판 가능성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에 말씀 드렸어요..

여기에는 워낙에 전문가 분들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경제 분야를 잡탕식으로 보다보면... 개인적으로 경제적 결정이나 중요한 투자 결정에서 오판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걸 말씀드리는거고요... 요즘에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동영상이라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얼마전에 어떤 애가 보는걸 지나가다 봤는데.. 참... 세상 좋아 졌다는게.. 황당하기도 하고..

그만큼 일반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거겠죠.. 경제학은 절대로 어려운게 아니예요.. 그건 일반인 분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시는거고요..

어떤 분이 비전공자도 체계적으로 독학을 하고 싶으시다 길래요...

또 씨부렸어요..... 이상이에요..

급조한 거라서 더 쉬운게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언제나 다른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요즘은 어떻게 나왔는지...

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 잘 모르겠네....

체계적인 틀로써 접근성을 말씀 드렸고요..

정 이 정도도 많다고 생각드시면 이 중에 두 세권만 추려서 보셔도 훨씬더 도움이 되실꺼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문가 말만 무조건 듣고 맹신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자기 재산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경제라는게 무슨 하얀거탑에 나오는 그런거처럼 학문의 상아탑이거나 그런게 절대 아니예요..

저 위에 있는 책들도 주식이나 경제 수학이 들어간게 보기 꺾끄러우시면 그냥 기본 개념만 알고 넘어 가셔도 일상생활 중에 대응 전략이라는게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 는거고요...

지금 2008년의 밀레니엄 경제 시스템상에서 경제 = 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잘 알고 개인 판단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거죠..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요즘에는 이공계도 이런 경제를 모르면 진급이 안 될 정도면 말 끝난거죠.....

일반인 분들이 제일 착각을 하시는게 주식 투자 한다고 주식책만 베스트 셀러만 보시고... 부동산 한다고 또 부동산 책이나 잡지만 뒤적거리고.. 외환 FX 건드려 보신다고 전화기 붙잡고 사시면서 또 책 뒤적 이시고..

이런식이면 진짜 나중에 중대한 판단 미스가 일어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최소한 기본 뿌리가 없으면... 다른 경제 분야를 어디를 건드리고 돈을 벌려고 하고 투자 고려해도 그 하이 리스크와 판단 미스 가능성은 몇 배로 올라 가기 때문에 이런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 드린거예요..

절대로 잡탕식으로 배울려고 한다고 베스트 셀러만 계속 보시는 것처럼 위험천만한게 없기 때문이죠..

전 그래서 나중에 망연자실에 우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봐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게 경제학이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 분들한테 CFA 수준이나 MBA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는 고스톱 판인지는 알고서 머니 게임을 하셔야죠... 그래서 말씀 드린거예요.

사실 자본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학은 원래 태생부터 더러운 학문이에요... 진흙탕 싸움이죠... 그런 판때기에 순진무구하신 분들 기웃 거리면 그냥 밥이죠... 밥..

거기에 모르기까지 하면.. 뭐.. 이걸... 시쳇말로.. 껌?...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 누가 경제 시스템 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 연관 되어 있죠... 직간접적으로... 6살 애는 가게 사탕 사먹는 것부터 60살 노인네들은 연금문제까지...

이건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거예요... 막말로 다 때려 치고 아프리카 미지 밀림이나 화전민으로 산 속에 들어가서 칩 뿌리 캐 먹는게 아니면... 그래서 굳이 이런 말씀 드린거고요...

아셨죠?.....

<작성일 2008년 08월 30일>

41. 제2의 IMF가 오고 있다.

제 2의 IMF는 곧 터질 것이다.

하지만 제 2의 IMF가 온다면 물론 안오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오게 되었을때 우리는 그 IMF를 막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처럼 멍청히 앉아서 당할수도 없고. 또한 이제는 내놓을 금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1997년 IMF사태가 오게된 이유가 현재의 상황까지를 알아야 할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IMF 사태가 벌어진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냥 막연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출신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김영삼과 신한국당의 부정부패의 무능뒤에는 숨어있던 미국과 서양의 자본세력 이라는 거대세력의 음모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1950년 전쟁 이후에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세계의 기술과 성장세를 다 따라 잡아버린다.

그결과 1980년대에는 올림픽까지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말 그대로 황금기를 누린다.

하지만 그 황금기 속에는 수많은 거품이 있었죠. 하지만 거품 속에도 진짜 알맹이가 있었다.

한국인의 특징인 통신에 대한 욕심으로 무수히 발달한 IT, 첨단기술 산업이 그 알맹이 였다. 그리고 그 알맹이를 흔들 수 있는게 바로 한국의 기업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게 바로 금융사업이었다. 세상 그 어느 회사든 대출을 안쓸순 없고 은행의 돈 없으면 하루도 회사를 굴릴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시 우리가 지고 있던 외채를 신용등급하락과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갚으라고 압박 했다.

IMF는 국제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유태계 미국의 자본줄이다.

그냥 국제 사채회사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다.

그 압박과정에서 평소 같으면 그냥 채무 상환을 연기 시켜줄 수도 있고 당시 우리나라가 진짜 망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들은 계획대로 고의로 국가를 부도 처리했다.

쉬운 예를들어 여러분들에게도 은행에서 당장 내일 대출금 갚으라고 하면 어찌겠는가?

아마도 울며 겨자먹기로 헐값에 가지고 모든 있는걸 다 내놔야할 것이다.

그것도 안되면 부도처리 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경제적인 모든 활동이 마비되어버릴 것이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이 경제마비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리조차 포기했던 것이다. 솔직히 카드 한장만 막아 버리셔도 똥줄 탈분들 많으실 것이다 .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주요 국가에 수출과 수입을 하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IMF로부터 고리의 국제 사채를 쓰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요구조건을 요구했다. 단지 돈뿐이 아니라. 그 사채를 갚는 기간동안 그들의 경제적 노예가 되길 요구했던 것이다. 첫째 우선 금융시장의 통폐합과 개방 그리고 외국인 지분의 자율, 또 한국 기업들중 알짜배기 기업들 그리고 KT, 한국전력, POSCO등 국가기반 사업을 전부 민영화 시켜버렸다.

그과정에서 당연히 전화세, 전기세, 누진세, 각종 비용은 많이 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은행도 마음대로 주물러서 당시 7-8% 이든 금리수준을 40% 수준까지 올려버렸다. 달러는 하루아침에 달러당 800원 에서 1400원으로 뛰었고, 모든 수입품은 30-40% 인상되었다

그리고 여기까지면 모르는데 대부분 신용이 망가져 거래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십만명의 무능하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생기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어른들이나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애기한다.

만약 IMF 시절때 주식 사났으면, 땅 사났으면 떼돈 벌었을 꺼라고 말들한다.

물론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외국인들과 대기업 일부 부정축재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IMF때문에 똥값이 되버린 주식과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이때부터가 바로 양극화의 시작이었다.

대기업들과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헐값에 BUY 코리아를 시작 한다

점점 덩치는 커가고 한국인들은 금모으기등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한국을 겨우 살린다.

하지만 그 금모으기를 한 노력이 개개인에게 간 것이 아니다 보니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국내 자본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남발 한다. IMF 때문에 급격히 위축된 소비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거짓된 재산을 만들어 (빚)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 을 만들어 주식시장에 거품을 넣어 붐을 조성했다.

이 바람에 주머닛 돈들이 기업과 부동산으로 몰렸고, 카드덕에 명품소비등이 오히려 IMF이전보다 더 심하게 조장되고 이루어 졌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기는 상당히 좋아졌다.

코스닥 재벌이 나왔고 카드사용으로 너나 나나 모두 돈을 펄펄 써댔다.

그래서 아리러니 하게도 IMF 직후인 김대중정권이 더 현재의 노무현정권보다 나았다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카드납발의 부작용은 정권후반에 바로 일어났다. 2001년경부터 급속히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무에서 유를 억지로 창출하다보니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가차원의 IMF는 1997년이었지만 카드부채가 터져버린 개인의 IMF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IMF사태를 막기위해 미봉책으로 켜던 제도나 방식들이 지금 이 순간 터지는 순간이었다.

코스닥 시장은 완전히 거품이 빠져 붕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진 자들과 외국인들은 단물만 쏙 빨아먹고 코스닥에서 생긴 차익으로 거래소 블루칩을 헐값에 사들이고 또한 론스타처럼 강남의 알짜배기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론스타의 먹고튀기 외환은행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리고 떠나버렸다. 경기부양은 마약과 똑같다.

마약은 먹을 때 맛을 때 당시는 엄청나게 힘이 솟고 기분이 좋지만 계속 할 경우 1-2년뒤에는 완전 망가져 폐인이 되어버린다.

경제도 똑같다.

노무현정권의 시작은 IMF로 폭탄맞은 경제를 김대중 정부가 뽕을 맞아서 살린 것처럼 해놓고 그 부작용 이 시작될 시점에서 IMF의 빛과

카드남발의 신용불량자 수백만을 덩그러니 떠 앓은채로 정권을 시작하게 된다.

물론 노무현 정권도 계속 그런 방법을 강하게 쓸 수 있었다.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해주고 다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더 넣을수 있었지만.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세상의 어떤 원칙도 무에서 유가 창출될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에 나오는 등가교환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생각난다.

어떠한 유형의 물질이나 재화도 같은 댓가가 없이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뭐든 얻는데는 댓가가 있는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석유와 석유를 태우는 것에 따른 환경오염이라는 댓가를 지불하고 따뜻함이라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채무탕감이 이루어지면 그 돈은 전부 정부가 안아야 하고 세금은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도 어쩔수 없이 어느정도는 이렇게 했다.

신용불량자를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최소한의 희생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준 것이다.

물론 안 살리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니 어쩔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하지만 그러면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더더욱 안좋아졌다. 카드 남발해서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카드 벽벽 긁어대며 사치하던 시절이 불과 몇 년전인데, 요즘엔 다들 신용불량자라서 체크 카드가 아닌 크레딧 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없으니, 경기가 당연히 위축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번째 큰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한다.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시대는 자연스럽게 자동화, 기계화, 전산화가 이루어 진다.

옛날에 은행가면 창구가 10개 정도 있었다. 요즘 어느 은행을 가도 창구가 3-4개 넘어가는 창구가 없다.

이유는 뻔하다. 사람이 할일을 기계가 하기 때문이다.

사실 표 뽑고 줄서서 기다리느니 카드만 집어넣고 돈 찾고 입금, 송금 하면 되는데 심지어 세금도 낼 수 있는데 누가 창구에서 기다리려 하겠는가?

거기에 한국인의 조급증까지 붙어서 더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빠른걸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더 더욱 사람보다는 기계를 선호하게 되었다.

지금도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사용 안하고 일일이 돈 붙이러 갈 때 사람 통해 창구를 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물론 가까운 예로 은행을 들었지만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다.

점점 수제품, 수공업 수가공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기계가 대체하는 세상이다.

미싱질도 옛날에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어야 했지만 요즘엔 컴퓨터가 다 해버리고 더 잘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심지어 네일아트, 번역, 통역, 회계, 사무, 설계, 설비 과거에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던 것을 이제는 사람이 없어도 할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인간에 의한 노동의 종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즉 판매자(노동자)는 많은데 구매자(고용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버틸 힘이 적은 자본이 적은 판매자는 자연스럽게 죽어버릴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은 각종 마트의 대형화와 덧붙여 중소 상인들은 다 죽어버리는 사태에 이르렀다.

또한 IMF 당시에 해직되었거나 신용불량으로써 취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그들도 사람이고 밥을 먹어야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게를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 자영업에 뛰어 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바로 우리는 세 번째 시대적 변화를 겪게 된다. 세 번째 큰 흐름의 변화인 유통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럼 2000년 이후 가장 커진 시장 인터넷 쇼핑이나 각종 홈쇼핑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터넷 쇼핑, 홈쇼핑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

네 가격을 바로 비교해보고 쉽게 물건을 살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과 배송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꼭 부산에서 물건을 살필요 없이 서울의 판매자의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게 무서운 것이다.

과거에는 아무리 용산에서 컴퓨터를 싸게 팔아도... 차비, 시간, 수고비를 계산해서 너무 멀면 부산에서 물건을 살수가 없고, 부산내의 상가를 이용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상가들 같은 중간 도매상도 먹고 살수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쇼핑, 홈쇼핑의 대중화로 아니 대량화로 인해 유통구조는 완전히 붕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다 보니 과거에는 도매->중간도매->소매->소비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도매상과 소매상이먹고 살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나 TV로 도매->소비자로 직접 넘어가니, 이젠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소비자가 좋기는 하지만, 잠재적 소비자인 중간상인, 소매상들이 사라져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로서 과거에는 우리가 과일을 하나 사먹기 위해서서는 과수원->도매->중간도매->소매상->소비자 의 과정으로 과수원에서 소비자에게 가기까지는 4-5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수원->E마트, 홈플러스로 바로 가버리니 도매, 중간 도매, 소매상이 모두 몰락을 해버린 것이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나의 손님이 되어 줄 잠재적 소비자가 사라져 버리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거기에 인터넷과 홈쇼핑은 공개적으로 가격을 외치니 무조건 싸야한다.

똑같은 물건이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5000원 vs 6000원 이면 당연히 누구라도 5000원에 산다.

5000원에 물건을 파는 사람은 대량으로 물건을 제조했거나 구매한 사람일 것이다.

뭐든지 대량으로 만들고 구매하면 싸니까. 경쟁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대량으로 시작하려면 대량으로 해놓고 버틸 자본과 한 번에 대량으로 할 자본이 필요 할 것이다?

맞다.

돈 있는자나 기업은 오래 버틸 수 있고 싸게 해서 결국 6000원에 파는 기업이나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 구조가 된 것이다.

현재 옥션, 지마켓등도 큰 자본이 없는 영세업자들은 금방 무너져버린다.

즉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이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버린 것이다.

영세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해야 할 사업을 대기업들이 모두 장악해버린 것이다. 애기들 기저귀 하나 조차도 영세업자들이 아닌 대기업이 직접손을 대고 영화관조차도 대기업이 장악 안 된게 없을 정도다.

과연 영화관이 대기업이 할만한 사업이란 말인가?

다른 사람들은 뭐먹고 살라고? 말로 얘기할수가 없다. 가격이 오픈되어 있으니 10원이라도 더 비싸면 왜 비싸냐고 소비자 에게 큰소리 당하는 세상이다...

뭐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패러다임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상황이 이러다 보니 고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진자들이 아닌 이상 소비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활황인데 일반인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에 다 대한 나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당선자께서 시장 경제를 자율의 원칙에 맡기겠다고 한다.

자율이라는 것은 나쁜것이 아니다. 기업들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자율 원칙이라고 하면 기업들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할 것이다. 당연히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고 할것이다.

노동자들 억지로 고용할 필요없다. 대보험 뭐하러 주나? 노조시위를 뭇 하러 보나? 그냥 비정규직이나 알바, 인턴 쓰면 된다.

그래야 기업은 최대한 이익이 많이 남는다. 다시 땅을 판다고 한다. 다시 아파트를 계속 짓겠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얼마 되지도 가진 자본으로 비싸기만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우리 땅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외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외국으로 뺏어나가야 한다. 오늘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한다.

공기업 물론 비효율적이고 서비스가 불친절한 부분이 있기에 민영화 되면 장점도 많지만 너무 장점만 바라보고 있다.

공기업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업인데 민영화 즉 사기업이 되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대량해고(불필요한 인력감소)와 서비스 가격상승을 할 것이다.

KBS1 TV와 SBS의 차이를 잘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돈을 계속 퍼붓겠다고 한다. 운하를 판다고 하니. 걱정이다.

이제 제 2의 IMF 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제2의 IMF 는 온다.

하지만 이제 그 시발점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10년전과 지금은 세계 경제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더불어 전세계 모든분야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경제 ,군사 , 정치 그런데 단한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브랜드 나 섬세한 기술력의 문제 부분이 있다. 그런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과 브랜드는 아주 침이 꼴깍 넘어갈수 밖에 없다. 현재 중국내에는 달러가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다.

최근 달러의 폭락(?)세는 중국의 힘이 크다.

중국이 달러를 벌어들이기만 하고 쓸 일이 없으니 돈이 자꾸 쌓이는 것이다

경제에서는 달러는 바로 총알이다.

이 총알을 과연 어딜향해 겨눌까?제가 만약 중국의 경제권을 가진자라면 이렇게 하겠다.

한국, 일본에 많은 자본을 풀어 놓는다. 어떤 형태로든 아니면 굳이 눈에 안보여도 상관없다. 미국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일본과 한국에 악재를 터트린다.

뭐 지리적 정세가 있으니 방법은 다양 할 것이다.

북한을 이용하는게 가장 쉽겠다. 그렇게 때렸다가 두드렸다가 나중에 말랑말랑해지면 제대로 한방 터트려 버리는 것이다.

모든 자본의 동시 회수죠. IMF 때와 너무 똑같은 시나리오다.

근데 중국발 IMF는 더 무서운게 하나더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지금은 10년전과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

IMF때 우리나라가 희생할수 있었던건 아직 중국이 이만큼 성장을 하지 않은 시점이었기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중국이 현재 수준의 경제력을 가졌더라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미국에 의해 토막이 났을 것이다.

말 그대로 경제적 식민지다.

모든 기업이 쌍용자동차처럼 되어버렸을 것이다. 쌍용자동차.. 남의 얘기가 아니다. 중국은 하이닉스, LG필립스 등 반도체, LCD 알짜배기 기업을 언제든지 넘보고 있다.

이미 기술력도 있고, 한국기업의 기술과 인력만 가져오면 게임오버다.

우리나라는 자본이 개방화 되어있기 때문에 주가 폭락시켜놓고 헐값에 사들이면 지분 50%만 챙기면 자연스럽게 해당국가의 기업이 되어버리는 체제다.

아주 쉽다. 그렇게 자본으로 흔들어 놓고 그냥 먹으면 하이닉스는 중국기업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수십년간 만들어온 브랜드 가치가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것이다. LG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 일 것이다.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세계 물가가 엄청 나게 오를 것이다.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몸살이 날 것이다. 중국 원가 10%가 오르면 한국에서는 30-40%의 폭등이 올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100-200% 이상의 폭등이 일어나 현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현물에 대한 집착으로 주식, 부동산등을 급격히 처분하게 될 것

이다.

기름값, 밀가루값, 각종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이를 얘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들의 소비증가로 치즈가격이 40% 이상 폭등했다고 한다.

다른 수많은 재화들도 멀지 않은 이야기다. 추가로 현재 세계 1위의 은행이 어딘지 아시고들 계신가?

ICBC (중국 공상은행) 이다.

그리고 요즘 외환은행 인수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중 하나이며 광고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HSBC가 뭐의 약자인지 아는가?

Hongkong Shanghai Bank China이다. 홍콩상하이은행이다. 말 그대로 중국계 자본은행 이다. 공포의 대상이다. 이미 중국자본의 침투는 시작되었다.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눈에 보이는 그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은 중국석유다.

2위 미국 석유회사 보다 3배의 시총이다. 이런근거로 제2의 IMF는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맞추어 분명히 온다.

또한 터졌을때 제1위 IMF 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인 이때에 우리의 대처법은 무엇일까?

이런 사태가 오지 않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원치 않는다고 변화되는 흐름이 아닌 것이다.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음모론도 차기 정권에 대한 비난도 아니다.

석유값이나 밀가루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앞으로 중국과 인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한달 인건비 16만원, 40평 고급아파트 가격이 2억인 중국이 거품이라고 외치면서 거품이 걷힌다고 하면 한국거품은 과연 멀쩡할까? 개인차원에서의 해결책은? 어찌보면 매국노 같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첫째로는 이민이나 해외로 정착이 가장 안정적인 것이다. 이것은 도망이나 포기의 차원이 아니다. 좁디 좁은 대한민국은 5천만의 각자 잘난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곳이 되었다. 국민 소득은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집값은 2배가 넘는 웃긴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는 해외로 진출해 다른 민족과 국가와 경쟁을 해야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너무 높은 집값(부동산) 때문에 너무 많은 기회비용을 잃고 있다.

집세를 버느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재교육이나 먹을 것조차 제대로 못 먹고 건강, 가정 모두 포기를 하고 살고 있다.

단지 집 때문에 인생과 가정 모두를 포기하고 살고 있어서 언젠가는 가정의 붕괴 몰락 그리고 자신마저도 더 나아가 사회의 도덕성은 바닥을 칠 것이며 국가마저도 붕괴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냉정히 IMF사태 당시 제일 피해를 안본게 바로 해외에 있는 교민, 교포들이었다. 오히려 돈벌었다.

달러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아준 달러가 한국경제에 나름대로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재산을 금이나 석유, 달러, 위엔화 등 최악의 경우에도 가장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개인이 금이나 석유를 사서 집에 쌓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투자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밀가루 펀드, 석유펀드, 커피펀드등 다양한 투자법이 있다. 다시한번 외환이나 인플레 사태가 벌어질경우 부동산, 주식등은 거품이 빠질경우 정말 쓰레기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부동산이 없어도 길바닥에서라도 잘수 있겠지만. 식량과 석유등 현물

이 없으면 살수가 없는 것이다. 땅이 100만평이 있어도 라면1개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는 부동산, 주식부터 서로 처분 하려할 것이다.

부동산, 주식은 단지 땅과 기업증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시길 바란다.

특히 가까운 중국 , 호주 등에 아파트 가격과 생활환경이 아주 좋아지고 있음으로 해서 대체제가 생긴 이 마당에 생활의 터전이 아닌 투기 가치로 거품이 가득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거품은 언제 붕괴되어 버릴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상태다. 그리고 자본의 현물(금,석유) 또는 경제대국(미국, 중국, 유로)의 화폐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대출 비율을 줄여야 한다.

인플레이션과 IMF사태등은 엄청나게 금리를 폭등시킨다. 돈이 서로 필요해질때 금리는 부르는게 값일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얻어서 그 집값이 2배가 되더라도 엄청난 이자의 압박에 결국은 집을 서로 팔아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집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1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10억의 수준의 수입을 못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모순은 결국 재앙을 부를 것이다.

취직도 한국 내에서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지방, 해외에서도 알아보시길 바란다. 코딱지 만한 한국에서 서로 치고 박고 해봐야 답도 안 나온다.

부디 이런 현실과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두었으면 한다. 제가 위에서 언급 드린 것은 시대적 패러다임 즉 흐름이다.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와서 기업의 기계를 때려 부수고 다시 사람들이 하자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이다. 그 기계를 가진 자들이 계속 돈을 모을 수밖에 없다. 가진자들의 재산은 늘어나고 없는 자들은 쓸 돈마저도 없어져버릴 것이다.

중국과 미국 러시아등 강대국은 우리나라 같은 알짜배기 국가의 단물을 쏙쏙 빨아먹기 위해 곧 침투할 것이다. 예전에는 미국밖에 못하는 짓을 이제는 자본주의화 물결과 함께 중국, 러시아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은 전세계의 밥상이다.

군사적으로라도 막강하면 힘으로라도 막겠지만 자원이라도 있으면 문 닫아놓고 가진 식량과 자원 으로 버티겠 지만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

예전에 어떤 분이 IMF사태 때 모라토리움(배째라선언) 을해야 했었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모라토리움 했으면 밀가루,석유를 미국에서 안넣어주면 어찌됐을지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IT제품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기름이 없어 전기를 못 쓰고 공장을 못 돌리면 또한 밀가루가 없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쌀로만 모든 식량수요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또한 앞으로는 현재 우리 생활의 60-70% 이상이 중국제 제품이다.

그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중국이 물건을 안 넣어 주거나 중국제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버틸 수가 있을까?

그때 다시 공장을 짓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서 노동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경쟁력은 과연 있을까?

다시 공장으로 갈려고 하는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할까?

부디 앞으로 시대적 흐름을 냉정하게 잘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작성일 2008년 08월 ??일>